장편소설

적후에서 홀로

(2)

유리 돌드-미하일리끄

강필주 역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제2부의 계속)

친구들이 다시 만났다

빠울류스군대에 대한 공식적인 추모는 비록 이미 끝났지만 헨리흐는 뮨헨으로부터 쎈—레미에 이르는 전 로정에 웃음소리나 롱지거리는 물론 크게 이야기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그는 장교차에 앉아갔기때문에 히틀러군대지휘성원들의 기분을 평가할수 있었다. 그 기분은 마치도 매개 장교들의 집에서 죽은 사람을 내간 이튿날과 같은것이였다.

쎈—레미에 있는 강점자들도 역시 기분이 좋지 못했다. 프랑스사람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따르왈리부인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정확히 표현하였다.

《안녕히 돌아오셨습니까, 골드링어른!》 따르왈리부인은 2월 6일 헨리흐가 뮨헨으로부터 돌아오자 식당으로 들어서는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우린 그저께 저녁에 장례식을 경축할 때 남작님말을 했다오. 여간 즐겁지 않았지요. …》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례식을 경축하다니?》

따르왈리부인은 얼굴을 붉혔다. 그의 눈은 죄송한듯 깜박거렸다.

《용서하세요, 그렇게 말하려든게 아닌데… 추모의 날에는 우리 식당도 문을 닫았기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

《그리고 빠울류스원수의 명복을 빌며 한잔 마시였지요!》 헨리흐는 부인의 말투를 본따서 그의 말을 끝내였다.

《저런, 닭이 지내 끓는군?》하고 려관주인은 소리를 지르고나서 그 뚱뚱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는 빠른 걸음으로 부엌으로 달려갔다.

《말을 잘못했어! 모니까야, 글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따르왈리부인은 딸을 보고 뉘우쳤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셨기에 그러세요?》

《내가 골드링어른께 쓸데없이 지껄였나부다. …》

《헨리흐에게요? 도착하셨나요?》

《저 방에 앉아계신다. … 그런데 내가…》

모니까는 어머니말을 채 듣지도 않고 부엌에서 달려나가면서 앞치마를 벗었다.

《우리 꼬마선생님, 잘 있었소!》 헨리흐는 기쁨에 넘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처녀의 작은 손을 두손으로 꼭 잡고 말했다. 《어서 이야기해주오. 여기서 어떻게 장례날을 경축했는지?》

《경축을 하다니요?》 모니까는 어리둥절해서 반문하였다.

헨리흐는 따르왈리부인과 하던 이야기를 다시 하였다. 처녀는 웃음을 터쳤다.

《어머니가 잘못 말했어요!》

《나도 잘못 말한줄로 믿고있소. 사실 당신들이야 사흘동안 상복을 입고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한번 웃지도 않았겠지. 그렇지요?》

《난 남작님이 슬프고 근심이 되여 가슴이 터질 지경이였으리라고 생각해요. …》

《정말 가슴이 터질번 했소. 원인은 전혀 다른것이였지만 그 사흘동안을 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것이요.》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요?》 처녀는 걱정이 되여 물었다.

따르왈리부인이 저녁을 차려서 들고 들어왔기때문에 이야기는 중단되였다.

《참, 깜박 잊었댔군! 오늘 류쯔씨한테서 몇번인가 전화가 왔댔는데 상급중위님께서 돌아오셨는가구 묻더군요.》 부인이 저녁상을 보면서 말했다.

《아마 편치 않으신것 같애요.》하고 모니까가 덧붙여 말했다.

헨리흐는 전화기로 가까이 갔다.

《칼, 잘 있었소. 나요, 헨리흐야. … 무어라구? 꼭 가지, 저녁을 먹고 말일세. 시장해서 죽을 지경이야.》

따르왈리부인은 커피를 준비해오느라고 나갔다. 모니까는 끊어졌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보려고 입을 열었다.

《헨리흐, 그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건 아주 길고도 신중한 이야기이기때문에 도저히 포도주 두어모금 마실 사이엔 할수가 없다오. 차라리 자기 이야기나 해주오.》

《어째서 저의 이야기는 포도주 두어모금 마실 사이에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신중한 문제가 있을수 있지요!》

《그럼 난 그 말을 듣기 전엔 가지 않겠소. 무슨 일이요?》

《그러실라면 아주 오래 앉아계셔야 할거예요. 혹시 일생동안…》 하고 처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모니까가 날 믿지 않는단 말이지?》
《그건 제가 저자신을 믿지 않는것을 의미해요.》
《그 상태가 오래 계속될가요?》
《당신이 자기 비밀을 나에게 숨기지 않으신다는걸 믿게 될 때까지요.》
《그건 뮨헨에 대한 암시요?》
《뮨헨도 그렇고 본빌이나 쎈－레미의 문제도…》
《녀성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못해서인가요?》
《아니요, 저를 괴롭히는건…》 처녀는 말을 끝내지 않고 발딱 일어나더니 《안녕히 주무세요!》하고 웨치듯 말하고는 문밖으로 사라졌다.
헨리흐는 급히 저녁식사를 끝내고 좀 늦기는 하였으나 류쯔를 찾아갔다.
대위는 머리밑에 베개를 몇개 고이고 침대에 절반 누워있었다. 옆에 있는 자그마한 상우에는 간단한 안주를 담은 접시, 재털이 그리고 소주병이 놓여있었다. 상밑에도 침대밑에도 빈병이 그득했다.
《이게 웬일이요? 칼! 몸이 불편하오? 어째 방을 치우지도 않았소? 련락병!》
《명령대로 왔습니다, 상급중위님!》 련락병은 차렷자세를 하고 문앞에 서있기는 하였으나 얼굴을 보니 그 역시 소주를 마신게 분명하였다.
《즉시 청소를 하오! 빨리.》
련락병은 방바닥에서 딩구는 빈병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중의 하나는 술이 차있었다. 류쯔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더니 베개밑에 숨겼다.
《칼, 그건 어째 그러나?》
《마시겠네! 오늘도 래일도 모레도! 매일 말이요.》
《이게 웬일인가?》 헨리흐는 걱정이 되였다. 그는 류쯔가 결코 혼자서는 술을 마시는 일이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더우기 그렇게 많이 마시는 일은 드물었다. 칼의 건강치 못한 모습도, 그의 이상하게 번쩍이는 눈도 불안을 자아내는것이였다. 《자네 아프지 않나?》
류쯔는 상우에 있는 채 마시지 않은 술병을 집어들고 입술에 대였다.
헨리흐는 술병을 빼앗아 상우에 놓았다.

《칼, 어째 이러나?》

류쯔는 묵묵히 일어났다.

《제발, 말해보게. 만일 자네 방으로 밀레르같은자가 들어온다면 어쩌겠나? 술에 취해서 철면피한 꼴을 하고 말일세. 장화를 신은채 침대에 누워서 자네보구 호실에서 나가라거나 방바닥에서 자라고 한다면 어쩌겠나?》

《그자를 내동댕이치겠네, 층계로 굴러떨어지게!》

《우린 글쎄 프랑스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말일세?》 대위는 악의에 차서 소리치고 주먹을 틀어쥐고 홱 휘둘렀다. 상우에 서있던 채 마시지 않은 술병이 방구석으로 날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박산이 났다.

놀란 련락병이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썩 가지 못할가, 집으로 가란 말야. 오늘은 일이 없어.》 헨리흐는 련락병에게 명령하였다. 그는 병적으로 흥분한 류쯔가 말하는것을 딴 사람이 듣는것을 원치 않았다.

《칼! 진정해야 하겠네, 아픈가?》

《난 내가 절대적으로 건강하다는것을 자네에게 증명하겠네. 그래, 증명하라나?》

《어서 말해보게!》

《자넨 룩셈부르그공국에 가본 일이 없겠지?》

《언젠가 지나친 일은 있네!》

《사실 그 나라야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이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데 나는 오산했단 말일세. 만일 전 지구상의 모든 주민을 한데 모아놓고 줄을 세운다면 그 절반은 룩셈부르그공국에 들어갈것이며 절반은 그 밖으로 나갈것이네. 알겠나, 지구상의 전체 주민 말일세! 자넨 이 저주로운 세상에 사실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나? 그걸 다 합쳐도 룩셈부르그의 령토의 절반밖에 차지 못한단 말일세. 거기 채우고나면 이 땅덩어리는 텅 빈단 말이야! 모든 재부도 바다도 전야도 지하자원도 다 이 조그마한 땅덩이우에 모여있는 한줌밖에 안되는 사람들에게 봉사한단 말일세.》

류쯔는 침대우에 있던 지도를 집어들고 헨리흐의 눈앞으로 내밀었다.

《보이나? 바로 여기에 전인류를 채울수 있단 말일세! 그리고 이것은 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는것이고… 전세계! 우리 지구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수 있겠는가?》

헨리흐는 세면대가 있는 옆방으로 가서 수건을 적신 후 류쯔의 이마에 놓아주었다. 그는 칼을 강제로 눕히였다.

《난 아프지 않대두 그래!》

칼이 반대하였으나 헨리흐는 주머니에서 가루약을 꺼내서 칼에게 주었다.

《그게 무엇인가?》

《수면제야.》

《차라리 나에게 영원히 잠들수 있는걸 무엇이나 주는게 좋을걸세. 제손으로 자기 이마에 총을 쏘긴 정말 무서워 그러네!》

《자네 미쳤나?》

《그래, 자네는 자네 보는데서 밀레르가 남자 다섯사람을 절벽에서 밀어던지고… 임신한 녀자의 배에다 총을 두발이나 쏜다면 미치지 않겠나?… 글쎄 임신한 녀자에게 말일세! 아, 난, 난 그걸 잊을수가 없네!》 류쯔는 극도의 흥분속에서 웨쳤다. 그는 몸을 떨며 흐느껴울었으며 말도 토막토막 끊어졌다. 그는 정말로 정신병자였다.

헨리흐는 그런 경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것이 상책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는 강제로 류쯔에게 가루약을 먹이고 목까지 담요를 덮어주고 환자가 빨리 몸이 풀리게 하기 위해서 소주를 마시게 했다.

《누워서 잠들라구.》

《잠들라구… 내가 얼마나 자고싶겠나. … 나는 벌써 사흘밤을 자지 못했네. 밀레르가 그런짓을 한 그때부터…》

《말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말일세! 난 귀를 막고 듣지 않을테니까.》

흥분은 서서히 가라앉고 반시간후에는 수면제가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류쯔는 잠이 들었다.

헨리흐는 몸이 비록 몹시 피로하기는 하였으나 그를 혼자 두고 갈수가 없었다. 그는 류쯔의 헌 외투를 뒤집어쓰고 쏘파에 누웠다. 그러나 잠은 인차 오지 않았다.

밤은 무사히 지났다. 환자는 깨지 않았다. 아침에 련락병이 왔다. 헨리흐는 대위가 얼마나 오래 자든지 깨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참모부로 갔다.

에베르쓰는 자기 특수임무장교를 친절히 맞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이 별로 적었다. 그의 왼팔에는 아직도 검은 천이 감겨있었다. 비록 공식적으로 공포된 추모기일은 지나갔으나 그는 아직 떼지 않은것이였다.

《내가 살아온 륙십오년동안에 도이췰란드의 군사적승리의 력사에서 가장 암담한 나날이였소. 19세기의 가장 빛나는 작전은 쎄단에서의 승리였소! 쎄단에서의 우리 승리의 위대성이 볼가강가에서의 수치스러운 패배앞에서 빛을 잃고말았소!》

《지금 최고사령부에서는 새 작전계획을 작성하고있다는 소식을 아버님한테서 들은바 있습니다. 그 작전은 현상을 바로잡을뿐만아니라…》

소장은 절망적으로 팔을 휘저었다.

《나도 믿고싶네. 그러나… 그러나 두고보면 알겠지! 갔다오느라고 피곤하겠는데 우선 가서 쉬라구. 일이 있으면 부르겠으니까.》

점심식사후 헨리흐는 다시 류쯔에게 들렸다. 그러나 사흘이나 잠을 자지 못해 극도로 피로했던 그는 아직도 자고있었다. 밀레르한테나 가서 무슨 일때문에 류쯔가 그렇게까지 되였는지 슬쩍 알아볼가? 헨리흐는 에쓰에쓰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에 나온것은 자우겔이였다. 그는 밀레르가 어제께 떠났는데 아마 저녁때쯤에는 돌아올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하는수없이 호실에 그냥 있었다.

저녁때 류쯔는 점직한 미소를 띠우고 헨리흐를 맞이하였다. 그는 이미 진정은 되였으나 아직 매우 쇠약했다. 아마도 최근 며칠동안의 흥분상태가 환자의 유기체를 쇠약케 한것 같았다.

이제는 류쯔가 병이 나게 된 원인을 침착하게 이야기할수 있었다. 하루는 밀레르가 아무러한 예고도 없이 여섯명의 프랑스사람을 총살하는 장소로 류쯔를 데리고갔는데 프랑스사람들중에는 임신한 부인이 있었다 한다. 그 장면이 류쯔에게 어찌나 큰 영향을 주었던지 그는 집에 돌아오자 누워버리고말았다.

《헨리흐,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장교옷을 입고다니는것이 부끄럽네.

무엇보다도 더 괴로운것은 자기 생각을 숨기고 침묵을 지켜야 하는 그것일세. 내가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바로 그 밀레르가 나를 그 프랑스사람들처럼 절벽에서 밀어던질것일세.》

《그래, 밀레르는 그런 일도 할 사람이야. …》

《난 당께르크부근에서 싸웠는데 그때엔 나를 비겁하다고 비난한 사람은 없었네. 그러나 나는 싸우고싶지 임신한 녀자를 학대하고싶진 않네.》

전화종이 울렸다. 헨리흐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골드링이 말합니다. 무어라구? 곧 가겠소!》

《아마 귀신이 자네 심정을 안 모양이요. 마키가 밀레르를 부상시켰다오. 그는 자우겔과 나를 즉시 자기에게 와달라고 하는구먼.》

《그래도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단 말인가! 지금 어디 있나, 집에 있나?》

《아니, 자우겔이 그러는데 병원에 있대. 만일 일찍 돌아오면 자네에게 들려서 다 이야기해주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자우겔은 두시간전에 밀레르를 실어왔는데 이미 수술이 끝났다고 헨리흐에게 이야기하였다. 어느 정도의 부상을 당했는지 자우겔은 몰랐으나 경상이면 하고 바라고있었다. 왜냐하면 중상이면 병원시설이 불충분한 쎈—레미에 두지 않고 샴베리로 후송할수 있기때문이였다.

밀레르는 2층독방에 있었다. 군의는 방문객을 병실문앞에까지 데려다주고 주의주었다.

《수술후이라 안정이 필요합니다. 오래 있지 않기 바랍니다.》

그 주의는 겉치레로 하는 말 같았다. 밀레르는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얼굴이 창백하고 맥이 없을뿐이였다.

그는 헨리흐와 자우겔에게 지난 일을 간단히 이야기하였다. 어제 저녁에 마키의 큰 부대가 가장 큰 고개길을 경비하고있던 렵기병중대를 습격하고 그 중대를 소탕한 다음 산에서 내려갔다. 때마침 우연한 기회에 고개길에 있던 밀레르는 부득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그때 빨찌산의 수류탄파편이 왼편어깨죽지에 박힌것이였다.

《한 반센치메터만 내려박혔더래도 파편이 페에 맞을번 했어.》하며 밀레르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모든 일이 무사하게 된 지금 그

는 사실 전투에 참가했던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다. 부상당한데 대해서 수여될 메달을 타게 될것이니 그것 역시 조국앞에 세운 하나의 공훈이였다.

《공연히 그런 일에 끌려들었댔소. 정말 큰일날번 했구먼. 고개길 경비자들은 어딜 갔나?》하고 헨리흐는 비난조로 말했다.

《그자들은 습격을 당하자 산산이 흩어지고말았네. 나는 다행히 자동차에 오를수 있었단 말이야.… 이젠 마키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게 됐어. 그렇게 큰 무리로 산에서 내려오는걸 봐서 우리도 특별한 대책이 요구될것 같네. 물론 사단지휘부는 필요한 대책을 세우겠지만 에쓰에쓰부대도 특별히 빈틈없이 해야 될것 같네. 내가 자넬 오라구 한건 의논을 하자는건데 내가 치료받는 동안 자우겔을 도와줄 사람을 달라고 하는게 어떨가? 내가 부상당한 문제는 즉시 리옹에 통보해야 하네.…》

헨리흐는 밀레르의 부책임자인 자우겔을 바라보았다. 중위의 불그레한 두볼에는 붉은 반점이 생겼고 입술은 노여운듯 떨렸다.

《자우겔, 당신 한스도 나를 용서해주기 바라네. 내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것을 말이네. 사실 나는 조언자의 역할을 할수 있을뿐이니까. 한스! 내 생각에는 자우겔이 불안한 시기라 해도 책임자의 직무를 충분히 해낼수 있을것 같네. 그리고 당신이 그리 오래 누워있어야 할것도 아닐게니까. 물론 자우겔에게 일이 많아지겠지만 특별히 비밀에 속하지 않는 일이면 언제나 내가 방조해드릴수 있으니까.》

《헨리흐, 자네 의견도 우리 의견과 같으니 매우 기쁘네. 새 사람이 온대야 일이나 복잡하게 만들것이고 자우겔도 기본사업을 하는 외에 새로 온 사람에게 사업을 료해시키고 정세도 알려주고 해야 하겠으니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 일인가.… 당신이 방조해주겠다니 참 감사하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걸 부탁하려 했던 참일세.》

《방문시간이 끝났습니다!》 절반쯤 문을 열고 머리를 들이민 의사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잠간만 있으면 됩니다. 부서사람에게 몇가지 사업상지시만 주면 되니까요.》

헨리흐는 일어섰다.

《그럼 이야기를 하시오. 난 현관이나 차에서 자우겔을 기다리겠으니까.》

(물론 말을 듣는것도 좋겠지만 내가 눈곱만치라도 에쓰에쓰부대 사업

에 관심을 가지고있다는 눈치를 자우겔에게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자는 밀레르보다 더 령리하고 밀레르처럼 나에게 매워있지는 않으니까. 물론 당분간은! 그 《정신의 귀족》의 급소를 찾아내야 하겠는데… 그가 지나치게 자만하고있는건 사실이다.… 초인간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것은 물론 자기를 초인간으로 치부하고있는것이다. 파대망상병이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공명심과 자존심이 특별히 강하다. 당분간 그 약점을 리용해야 한다.)

헨리흐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중위가 나타나는 바람에 헨리흐의 사색이 중단되였다. 자우겔의 얼굴은 환했다.

《나의 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작님!》 자우겔은 자동차에 앉으면서 말을 이었다. 《사실 림시책임자밑에서 시간을 보내는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지요. 밀레르와는 이미 익숙해졌으니까요. 비록 그에게도 누구나 그렇듯이 약간의 부족점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는 통한단 말입니다.》

《나야 그저 생각한대로 그리고 굳게 믿고있는대로 말했을뿐이지. 밀레르의 부책임자의 직무가 당신에겐 극히 보잘것없는 자리라는것이야 인차 알수 있는 일이지. 나와 한스가 매우 친하다는것은 당신이 다 알고있겠지만 또 나에 대한 그의 태도를 나도 평가하는바이고 나도 진심으로 그에게 동정하고있는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우겔은 의문스러운 초조한 눈길을 헨리흐에게 돌렸다.

《그러나》하고 헨리흐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털어놓고 말하지. 밀레르는 이미 시대착오를 저질렀다 할수 있지. 그는 오랜 옛날 공훈을 턱에 걸고 살고있으며 다른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고있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나는 보통 그 말을 쓰는 초보적인 뜻으로 말한것이 아니지. 그것은 단순히 더 젊은 사람들뿐아니라 더 재능있는 일군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 그것은 도이칠란드의 가장 높은 정치적앙양기에 태여난 전혀 새로운 형의 사람들이지. 그 새형의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구조의 사람들의 모든 특징—정복자, 상전, 주인의 특징을 구현하고있단 말이요.》

《남작, 당신은 섬세한 심리학자이며 아주 흥미있는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한시간쯤 들려주시면 기쁘겠습니다. 진한 커피

나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하십시다. 유감스럽게도 다른건 대접할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직 할일이 있어서 군복을 입고있어야 합니다.》

《한잔의 진한 커피와 철학적인 이야기—이것은 쎈—레미에서 흔치 않은 일이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려주지. 그것은 두가지 다 내가 몹시 그리웠던것이니까!》하며 헨리흐는 웃었다.

그리 크지 않은 세칸짜리 자우겔의 집은 향수내, 좋은 담배내, 진짜 고급커피냄새가 차있었다. 아마도 그 방들은 환기를 자주 하지 않은 모양으로 그런 냄새가 어찌나 몹시 방에 뱄던지 방공기가 특이하고 답답하였다. 방안에 있는 모든것들이 장교의 방, 더우기 이 전시의 장교의 방답지 않고 부인들의 내실을 련상시켰다. 벽과 방바닥에는 부드러운 양탄자가 깔려있었고 창문에는 레스가 달린 창가림이 쳐있고 조각들, 꽃병들, 작은 병들이 수다히 있었다. 방안의 장식들에 대해서 몹시 어울리지 않는것이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흔히 있는 검은 액틀에 붙여놓은 굉장히 큰 니체의 초상화였다.

헨리흐가 그 초상화를 보는것을 눈치챈 자우겔은 감동적인 어조로 말했다.

《나의 정신적인 아버지요! 나는 영원히 이 초상화와 함께 있겠소, 이 책들도 역시.》

자우겔은 서가로 다가가서 맨 웃단에 있는 장정을 값비싸게 한 몇권의 책을 뽑아들었다. 니체의 저서들인 《선과 악의 피안으로》, 《차라트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신들의 황혼》들과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였다.

헨리흐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빨리 떠날 구실을 찾고있을 때 련락병이 커피, 레몬, 꿀술 한병을 가지고 들어왔다.

커피를 마시면서 헨리흐와 자우겔은 철학적인 화제를 가지고 오래동안 이야기하였다. 자우겔은 새로운 철학사조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게 없었다. 그는 옛날 도이췰란드철학에 대한 책을 이것저것 읽었을뿐이였다. 이런 짧은 지식을 가지고서는 론리적으로 사고할수 없었기때문에 모르면서도 모든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는것이였다. 그래서 자우겔은 칸트와 헤겔을 형편없이 내리쳤으며 맑스를 비웃어버리였고 쇼펜하우어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리해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자기가 숭배하는 니체에 대해서는 희열에 넘쳐 숨도 바로 못 쉬면서 천재라고 찬양하는것이

였다. 그는 니체를 정복자의 새시대를 예고하는 예언자로 간주하였다. 그 정복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경계선우에 높이 솟아올라 인간신이 지배하는 찬란한 최고봉에 이른다는것이였다. 헨리흐는 그런 잠꼬대같은 말을 듣고도 웃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끌고가자니 자기의 인내성을 총동원해야 하였다. 자우겔은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주의깊게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 기뻐서 어쩔줄 몰랐다. 그는 헨리흐를 자기와 사상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였다.

화제는 점차 마키의 활동이 적극화됨에 따라 조성된 정세에 대해서, 일상 생활적인 화제로 넘어갔다.

헨리흐는 밀레르가 입원하고있는 동안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그를 도와주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모처럼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그 호의를 기쁘게 접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부탁할것을 생각한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 남작님께 경고해드릴게 있는데… 물론 허락하신다면 말씀드리고…》

《어서 말하시우!》

《남작님은 좀 부주의한데가 있는것 같습니다. 친구를 선택하는데 다소 생각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

《그건 무엇을 말하려는건가요?》

《호의를 가지고 상대하는 사람들을 다 상기하시고 말씀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다 믿을수 있는지요?》

《알겠소, 알겠소. 자우겔씨, 말하려는 뜻이 짐작되오! 그런 내막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히 말을 꺼내니 감사하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다른 척도로 재야 하리라고 말하고싶소. 녀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견지하는 립장은 그 녀자가 고운가, 미운가 하는 한가지요! 사실 녀자란 당신의 그 초인간과 마찬가지로 선과 악의 피안에 서 있단 말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모니까아가씨의 친동생이 프랑스테로분자라면 어쩌겠습니까?》

《그럴수 없소! 그렇게 선량한 가족이 설마!》

《당신에게 환멸을 느끼게 하기는 슬픈 일이나 그건 사실입니다. 어저께 심문할 때 체포된 마키 한사람이 아가씨의 래력중에서 그 흥미있는 이야기를 내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 녀자자신도 전혀 관계가 없으

리라고는…》

《그건 참 기분나쁜데! 좋수다. 경고를 해줘서 감사하오. 이번엔 내가 당신한테 신세를 졌소! 좀 찬찬히 주목해보아야겠군. …》

《난 이미 오래전부터 그 녀자를 감시하고있습니다. 그가 마치 자기 신랑이나 만나는척 하면서 발전소에 자주 다니는것이 수상하더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전혀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내가 심문한 그 마키가 바로 그 발전소에서 일하고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아가씨와 프란수아와의 상봉은 순수 애인들의 상봉같지 않다구 합디다.》

《하여튼 난 그 녀자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듣는데! 그래서 그렇게 곁을 주지 않고 교만을 부렸단 말인가! 그러나 정말 우스운 일이군. 내 경쟁자가 무슨 발전소에라! 남작과 로동자! 자우겔, 그 마키하구 내가 한번 이야기해보게 허락해주구려.》

《그야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안됩니다. 그자가 오늘은 나에게 무슨 통보자료를 갖다주기로 동의했으니까요. 그래서 그자를 놓아주었지요. 그자가 나타나기만 하면(나는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그자를 내게로 부르고싶진 않으니까) 내가 즉시 당신께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순박한체 하더니! 녀자가 그렇게 나를 희롱할줄은 정말 몰랐군!》

《만일 그 아가씨가 마키에게 넘겨줄 자료를 얻기 위해서 당신과 교제를 하였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별로 운이 좋지는 못했을거요! 난 사업에 대해서와 신중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녀자와 하지 않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으니까.》

《그래도 혹시 말끝에 새나갈수도 있으니까. …》

《당신 말이 옳소. 제길할! 그러나 생각해보오. 마키들이 베르트골드 소장의 아들을 자기들의 목적에 리용하려 하다니! 모순이요, 진짜모순이야!》

《남작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싶은것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것이 다 아직은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는것입니다. 밀레르까지도 내가 의심하고있는걸 모릅니다. 우리 둘이 검열해봅시다.》

《내가 도와주지, 자우겔.》

《그건 아주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래일 내가 극비문건 비슷한것을 드리겠으니까 그것을 려관방에 두고 오십시오. 그리고는 아가씨 모르게 련락병을 보내주시오. 나머지 일은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알았지요?》

《이 일에서 당신께 방조를 주는것을 나의 영예로운 의무로 생각하오. 가까운 시일에 오늘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 감사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소. 당신은 사태의 진상을 볼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소. 그 신랑감이라는자가 그 녀자의것이건 아니건 하여튼 날 속인건 사실이니까. 난 절대로 용서할수 없소.》

류쯔에게 가기는 너무 늦었으므로 헨리흐는 자우겔과 작별하고 려관으로 급히 돌아왔다. 도중에 그는 자우겔에게서 알게 된 불쾌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진정해야 하였으며 머리를 휴식시켜야 하였다. 거리에 나오니 머리는 정말 맑아졌다. 신선한 공기가 마치 시원한 물로 목욕이나 한듯 온몸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버렸으며 헨리흐는 새로운 전투준비가 된것을 느끼였다.

그렇다, 싸워야 하는것만은 명백하다. 자우겔과의 격투는 가렬할것이다. 자우겔은 이미 실머리를 잡았으니 조만간 그가 실토리를 찾아낼것은 뻔한 일이였다. 만일 그 실머리를 지금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런데 어떻게 실머리를 끊는단 말인가? 무엇보다도먼저 그 밀정놈을 없애치워야 한다! 그놈이 사건진행을 촉진시킬수 있다! 그것은 특히 자우겔이 프란수아—모니까, 모니까—프란수아라는 확실한 흔적을 찾아내고있는 지금 특별히 중요하다. 그들로부터 실머리가 역시 그에게도 미칠것이다. 오늘 아니면 래일 자우겔은 그것도 찾아낼것이다. 사실 사격장에서 두명의 빨찌산을 놓아준것을 따르왈리부인뿐만아니라 농촌할머니도 알고있으며 마키중의 어느 사람도 또한 그 발전소의 밀정놈도 알수 있는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자우겔은 골드링—모니까—프란수아라는 선을 잡아낼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그 밀정놈을 없애치워야 한다!

그날 밤 헨리흐는 오래동안 자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 보통때보다 일찍 아침식사를 하러 내려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모니까는 집안일로 밖에 나가고 없었다. 헨리흐는 참모부옆거리에서 모니까를 만났다.

《모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는데 오늘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집에 있어주오. 내가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가도록 애써보겠으나 혹시 소장이 날 붙잡을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오. 여러가지 원인으로 해서 거리에서 오래 이야기하는것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해줄수 없어서 그러오. 한가지만 말해두겠소. 당신뒤를 따르고있소.》

헨리흐는 웃으며 처녀와 악수하고 참모부문안으로 들어갔다. 모니까는 즐겁게 손을 흔들었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이 이 광경을 본다면 단정하고 경쾌한 장교와 미소를 띄운 곱게 생긴 처녀의 심장이 그 순간에 불안에 싸여 고동쳤다는것을 상상도 못했을것이다.

《상급중위님, 전보가 왔습니다.》하며 참모부직일관이 보고하였다.

《오늘 16시 20분 샴베리 도착. 마중나올것. 베르찌나.》

《무슨 바람이 불어 여길 오는가?》 헨리흐는 속으로 욕을 하면서 다시한번 전보를 읽었다. 그리고 일부인을 보았다. 베르찌나는 오늘 아침 여섯시에 전보를 친것이였다.

헨리흐는 에베르쓰의 방문을 두드렸다.

《소장님, 오늘 무슨 임무를 주실게 있습니까?》

《오늘? 없소.》

《그러면 한가지 청원을 할만 합니까?》

《어서 말해보오.》

《방금 베르트골드의 조카딸에게서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에는 샴베리로 마중나와달라고 부탁하고있습니다. 만일 허락하신다면…》

소장은 시계를 보았다.

《당신은 언제나 운이 좋거던. 상급중위, 30분후에 밀레르의 부책임자 자우겔이 사령부참모부에서 오는 선전원을 마중하기 위하여 내 차를 타고 샴베리로 가오. 경비병도 데리고. 그와 함께 가면 되겠군.》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우겔은 골드링같은 길동무가 생긴것을 알자 무척 기뻐하였다. 정확히 반시간후에 자동차를 타고 려관앞에서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였다.

헨리흐는 자기 침실로 올라가면서 모니까를 찾았다.

《난 지금 떠날 일이 생겼소. 밀레르의 부책임자 자우겔이 나와 함께 떠나오. 그 자우겔에 대해서 당신은 경계해야 하겠소. 그가 말하는데 당신이 자주 다니는 발전소에 그의 망원이 일하고있다오. 당신은 아마 그

들을 다 마키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망원이 당신과 프란수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였소. 자우겔의 지시에 의해서 당신에 대한 감시를 붙이게 되였소. 아마 프란수아에 대해서도 역시 감시가 붙었을거요. 결론은 당신자신이 내리오. 난 지금 떠나겠소. 자우겔이 려관앞에서 기다리고있소. 우리가 함께 있는걸 그가 보게 할 필요가 없소.》하며 헨리흐는 급히 말하였다.

려관문앞으로 자동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자 모니까는 한마디도 할새없이 급히 매대문뒤에 숨었다. 그저 감사하다는 그의 눈길을 헨리흐가 보았을뿐이였다.

《누구를 영접하는데 이렇게 요란하오?》 헨리흐는 그들이 탄 승용차가 신작로로 달리기 시작하였을 때 자우겔에게 물었다. 승용차는 다섯명의 자동총수가 탄 자동차를 따라가고있었다.

《쁘파이페르이지요. 쁘파이페르 말입니다, 남작.》

헨리흐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이름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쁘파이페르를 모르십니까? 도이췰란드의 유명한 웅변가의 한사람이고 겝벨스의 가장 친근한 방조자의 한사람인데요.》하며 자우겔은 의아해하였다. 아마도 자우겔에게는 그렇게 말할만 한 근거가 있는 모양이였다. 샴베리에 가니 쁘파이페르의 연설이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는 아침에 도착했는데 벌써 위수사령부장교들과 두개 구분대 병사들앞에서 연설을 하였다는것이였다. 연설제목은 한가지였는데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제목이였다.

쁘파이페르를 찾으려고 헨리흐와 자우겔은 집회에 가서 대웅변가의 연설을 두가지나 들었다. 쁘파이페르는 배가 뚱뚱하고 몸이 건장한 사람이였는데 사실 상당한 웅변가였다. 《쓰딸린그라드》라는 제목으로 아마 여러번 출연한 모양이였다. 연설자는 수자와 이름, 주민지점의 명칭들을 풍부히 인용하였는데 제강도 보지 않았으며 왼손에 쥐였다 오른손에 쥐였다 하면서 휘두르는 수첩도 보지 않았다. 쁘파이페르의 말에 의하면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의 패배의 원인은 전선이 지나치게 늘어진것과 수송의 곤난이였다. 전선만 단축된다면 총통의 군대는 힘을 가다듬어 잘 싸울수 있을것이며 금년 1943년에는 볼가강변에서 전사한 전우들을 대신하여 볼쉐비크들에게 복수할것이다.

쁘파이페르는 청산류수같이 열렬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훈련이 잘되여 귀속말처럼 가만히 하는 말도 먼 뒤줄까지 잘 들렸으며 때로는 마치 우뢰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리기도 하였다.

헨리흐가 청중의 얼굴을 관찰하니 쁘파이페르의 웅변술이 청중에게 감동을 주었다는것을 확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병사들은 강사가 원하는대로 그와 함께 폭소를 터뜨리기도 하였으며 음성을 낮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빠울류스의 군대가 전몰한 대목을 이야기하는 가장 비장한 대목에서는 울먹울먹하였다.

두번째 집회가 끝났을 때 자우겔은 드디여 쁘파이페르를 붙잡았으나 그는 아직도 몇군데에서 출연해야 하기때문에 저녁 여덟시까지는 샴베리를 떠날 생각을 도저히 할수 없다고 딱 자르는것이였다.

《쁘파이페르씨, 지금 여긴 공기가 편안치 않습니다. 차라리 일찌감치 떠나든지 샴베리에서 주무시고 래일 아침 일찍 떠나는게 좋겠습니다.》하고 자우겔이 말했다.

《총통의 군대의 장교들이 어느때부터 어둡는걸 무서워하게 되였소? 난 어린아이들이나 어둠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습관이 되였는데!》하고 쁘파이페르는 롱을 하고는 그를 둘러싸고있는 사람들을 승리자의 눈길로 둘러보았다.

모였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치는 바람에 자우겔은 얼굴이 벌개져서 물러섰다.

《쁘파이페르씨가 최근 여기에 조성된 정세를 모르는 모양이요.》하고 자우겔은 헨리흐에게 불평을 말했다.

《자우겔, 밤에 떠나면 위험하다는것을 손님께 미리 알린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오. 난 그의 경솔한 태도에 놀랐소. 그건 순전히 역선전수법이요. 두고봅시다. 마키가 정말 우리에게 덤벼든다면 그의 용감성이 어디로 가나?! 우리야 그래도 군인들이니까 위험과 정면으로 부닥치는데 습관이 되였지만 저 말공부쟁이는 아마 화약냄새도 못 맡았을거요.》

자우겔도 근심이 되는걸 숨기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특히 마키의 큰 부대가 산에서 내려온 지금 밤에 떠나는것이 자기도 겁이 난다고 헨리흐에게 내놓고 말할수 없었다.

16시 20분에 헨리흐와 자우겔은 정거장에 나가 베르찌나를 마중하였다.

《무슨 행복한 바람이 불어 우리 고장까지 오시게 되였나요?》 베르찌나가 기차층계에 나타나자 헨리흐가 손님에게 물었다.
베르찌나는 례복차림이였다.
자우겔은 베르찌나를 보자 경탄을 숨기지 않았다.
《돛대를 조종할줄 아는 사람에겐 순풍이 부는 법이 아닐가요, 남작님…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베르찌나는 자우겔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헨리흐, 당신네 사단에는 우리 군대의 가장 잘생긴 장교들이 모여있는것 같은 인상을 느끼게 되는군요. 그래, 어디로 어떻게 가잡니까?》
《그건 희망하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동차로 떠날수도 있고 래일 기차로 떠나도 됩니다.》
《저는 첫째 안도 둘째 안도 다 좋아요.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헨리흐는 베르찌나를 위해서 장교려관에 미리 방을 하나 부탁했었다. 그러나 베르찌나는 휴식하지 않겠다는것이였다. 그대신 점심식사를 하고 거리구경이나 하겠다고 하였다.
자우겔은 실례한다고 인사를 하고 쁘파이페르한테로 떠날 시간을 확정하러 갔다. 베르찌나와 헨리흐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베르찌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우리 기슭에까지 당신을 몰아왔는지 또 얼마나 여기 계시겠는지 말씀하지 않은것 같은데요?》 그들이 아늑한 독방에 자리를 잡고 접대원이 주문을 받고 나가자 헨리흐가 다시 물었다.
《달리 말한다면 어째서 남작님을 찾아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동안 남작님에게 시끄럽게 굴겠느냐 하는 말이지요?》하고 베르찌나는 웃고나서 상대방을 도전적으로 바라보았다.
《난 그런 결론을 내리실만 한 근거를 조금도 드리지 않은것 같은데요.》
《내가 보낸 편지에 끝까지 회답을 하지 않는것이나 인사를 차려서라도 약혼식에 초청할것 같은데 그것도 하지 않은것이 그 근거가 아닐가요?》
《베르찌나, 당신은 녀자인만큼 눈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당신께 편지를 하지 않고 당신을 피한것은 바로 그것을 몹시 원하기때문이랍니다.》

《오 헨리흐, 그런 변명은 소용없어요! 주의하세요, 나한테 말꼬리를 잡히지 않도록! 이젠 내가 당신네 이웃사람이 됐으니까 미리 경고를 해야겠어요. 그 들창코 로르헨의 코밑에서 신랑을 채오는것으로 그에게 사례를 해야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이웃이라니? 일보시는 포로수용소는, 내가 기억하기에는 동부프로씨아에 있던것 같은데요?》

베르찌나는 한쪽어깨를 들어올려 헨리흐에게 돌려보였다.

《남작님은 정말 무관심하시다니까. 이걸 좀 보세요.》 베르찌나는 손가락으로 새 견장을 두드렸다.

《아, 축하를 해야겠군!》

《이건 군사등급만 높아진것이 아니라 직무도 달라진것을 의미하는것이예요. 전 뽄떼—싼—마르찐에 있는 특수녀성포로수용소 책임자로 임명되였어요. 그곳이 아마 쎈—레미에서 멀지 않지요.》

《특수라는건 무엇입니까? 보통수용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그건 저에 대한 특별한 신임을 말해주는거예요. 저는 그 수용소를 접수한 후에 특별한 시험을 해야 하지요. 즉 거기서 포로들을 보통 집짐승과 같이 만들어내도록 그런 생활규범을 실시한단 말이예요. 그들이 반항에 대해서뿐만아니라 자기들이 한때 사람이였다는것까지 잊어버리게 하자는거예요.》

베르찌나는 꼬냐크를 한잔 마시고 권연을 꼬나물었다. 그의 큰 푸른 눈은 열광적으로 번득였으며 뾰족한 코구멍은 바르르 떨렸고 입술은 꼭 다물고있었다.

《난 잘 리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째서 바로 당신을 그 수용소에 임명했는지? 당신이야 이러나저러나 녀자가 아닙니까, 베르찌나?》

《좀 더 친절히 말씀하시지요, 어여쁜 녀자라고!》

《그거야 누가 감히 반박하겠습니까. 더우기는 내가 말이요. 그러나 내 질문에는 대답을 아직 안했지요.》

《정말 헨리흐씨는 낡았어요. 너무나 낡았어요. 이제야 나도 리해되는군요. 어째서 헨리흐씨가 로르헨을 일생의 친구로 선택했는지를… 자기 주인에게 뜨뜻한 양말이나 토시를 짜서 바치는 녀자, 베틀을 손에 든 마르가리따, 잘되는 경우에 은근한 취미를 가진 술집의 자그마한 녀배우, 헨리흐씨는 얌전한 도이췰란드녀자의 그런 리상이 구역질나지 않나

요? 우리들, 진정한 아리아족녀성들은 이미 그것이 싫어진지 오랬어요.》

《베르찌나! 그건 반란입니다. 진짜 반란이요! 총통께서 녀성의 의무에 대해서, 그의 사회적지위에 대해서 말씀하신걸 잊으셨습니까?》

《법이라는것은 대중을 위해서 제정되는것이예요. 그리고 어떠한 민족에게나 그 법을 만드는 선발된 사람들이 있어요. 난 바로 거기 속하는 사람이지요. 우리 수용소에 한번 와보셨으면 좋았을걸. 잊지 않으셨지요. 제가 그렇게 초청하던 일을… 한번 오셨더라면 그 모든 락오자들, 프랑스녀자, 로씨야녀자, 네데를란드녀자, 뽈스까녀자, 벨지끄녀자… 지어는 자기 종족의 명예를 더럽힌 도이칠란드녀자까지 그 모두가 내 앞에서 벌벌 떠는것을 보셨을거예요! 아, 저에겐 무제한한 권한이 있었어요. 나는 그 권한을 향유했어요.》 베르찌나는 의자등에 몸을 기대며 마치 자기앞에서 떠오르는 그 무슨 멀리 있는 그림을 보기라도 하는듯 눈을 가늘게 좁혔다.

《베르찌나양이 그렇게 발전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요? 몹시 빠르게 발전하는것이 사실이지요?》

《정말 전격적으로 빠르다 할수 있어요. 난 포로들의 경비체계와 그들의 생활질서 제정에서 약간의 완성된 대책을 실시하였어요. 그뿐아니라 난 상관의 취미를 잘 연구했지요… 새 포로들이 도착할 때면 나는 가장 젊고 곱게 생긴것들을 골라서 그들을 누구에게 어떤것을 보내야 할지 다 알고있었지요. 년말에는 벌써 전체 수용소의 부책임자가 되였으니까요.》

《그러다간 머지 않아 장령까지 되겠습니다.》

자기 회상에 잠긴 베르찌나는 헨리흐의 어조에 비웃는 색갈이 있는것도, 그의 눈에서 증오의 불꽃이 튀는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저의 장래발전에 대해서 말하면요 이번에 접수하는 이 수용소에 특별한 기대를 걸고있어요. 얼마전에 거기서는 수용소장과 상급감시원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던 경비대원 한사람을 학살했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그 사건을 심의하고 많은 사람을 목매달았지요. 그러나 진짜살인범은 찾아내지 못하고말았어요. 그 수용소에서 가장 가혹한 생활제도를 세울것이 저에게 위임되였어요. 전 이미 그 대책적계획을 작성했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든지 지어 세사람중 한사람을 목매달아죽이는 한이 있

더라도 제가 작성한 계획을 기어이 관철하고야말겠어요.》

헨리흐는 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것을 느꼈다. 베르찌나의 얼굴은 점점 멀어져서 마치 뱀대가리처럼 작게 보이더니 다시 가까와지면서 흐려져서 헨리흐는 그의 얼굴의 세부를 분간해볼수 없었다.

《헨리흐, 어째 그러세요?》하는 베르찌나의 목소리에 그는 펄쩍 정신이 들었다.

(이 녀자를 수용소까지 보내서는 안된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은 모르겠다. 그러나 수용소까지 가지는 못할것이다!) 헨리흐는 이렇게 든든히 결심을 하니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세요?》

《마키습격을 당했을 때 타박상을 입은 후에는 가끔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눈앞이 캄캄해지군 한답니다.》하고 헨리흐는 변명하였다.

《아이, 불쌍해라!》하면서 베르찌나는 식탁건너로 몸을 숙이고 헨리흐의 머리를 쓰다듬는것이였다.

자우겔의 출현은 이런 서정적장면을 중단시켰다. 그는 쁘파이페르가 베르찌나도 함께 데리고 갈것을 쾌히 승낙하였는데 군단참모부까지 늦지 않게 도착하도록 신신당부하더라고 알렸다.

정각 저녁 8시에 자동차는 샴베리를 떠났다. 운전사옆 앞자리엔 쁘파이페르가 앉고 중간좌석에는 자우겔이, 뒤자리에는 헨리흐와 베르찌나가 앉았다.

자동차가 떠나자마자 베르찌나는 전신을 헨리흐쪽에 꼭 대고 그의 손을 잡고있었다.

《그래 내가 들창코 로르헨만 못한가요?》하고 베르찌나는 속삭였다.

《어느모로 보나 당신이 월등하지요!》 헨리흐는 의미심장하게 미소하였다.

베르찌나는 감사하다는 뜻으로 헨리흐의 손을 꼭 쥐였다가 밀어놓았다. 쁘파이페르는 얼마간 자리에서 꼼지락거리더니 뒤좌석에 앉은 손님들을 돌아보았다.

《저녁때 이 길로 가는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우겔에게 조용히 물었다.

《낮에 가는게 더 안전하지요.》 자우겔은 묻는 말에 직접 대답하기를 피했다.

《상급중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쁘파이페르씨, 전쟁시에는 어디를 가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우리 구역에서 마키의 큰 무리가 산에서 내려왔다기에 걱정이 되여서 그러지요.》하고 헨리흐는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큰 무리란 말이지요?》 유명한 웅변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어리여 있었다.
《중대보다 큰 무리랍니다.》
《설마 그들이 감히 우리에게 대들수 있을가? 앞에 자동총수들이 가지, 뒤에 있는 우리들도 세사람이 다 무장한 남자고 운전사에게도 자동총이 있는데!》
《주의하십시오. 도로가 곧지 않고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급격히 꺾어지기때문에 그런 굽인돌이가 위험하지요.》
《그렇지, 알겠소. 정말 샴베리로 돌아가는 편이 차라리 좋지 않겠소?》 쁘파이페르는 조급히 말했다.
헨리흐는 웃고있었다. 그는 낮에 유명한 이 웅변가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행동하였던가를 회상하였다. 그가 집회에서 하던 《도이췰란드사람들은 하느님만을 무서워하지 그밖에는 어느 누구도 겁내지 않는다.》던 말이 생각났다.
《글쎄, 원하신다면 돌아갈수도 있겠지만 샴베리에서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가요? 당신이 말씀하신것처럼 우리는 어둠을 겁내는 어린애들은 아니니까요. 사실 돌아가재도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마키는 앞에서뿐만아니라 뒤에서도 나타날수 있으니까요.》
쁘파이페르는 입을 다물었다.
《여긴 정말 위험한가요?》 베르찌나가 겁이 나서 속삭였다.
《위험하구말구!》
《이를 어쩌나, 난 군복까지 입고있으니.》
자동차안에는 긴장한 침묵이 깃들었다.
모두가 한가지를 생각하면서도 감히 그것을 입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침묵이였다.
《이런 사정을 이렇게 길 한복판에서 말할게 아니라 샴베리에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었어야 할게 아니요!》하며 쁘파이페르는 문득 빽빽거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듯 말하고 자우겔을 위협하듯 바라보았다.

《당신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모인 사람들앞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시지 않았던가요.》 자우젤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호위할 임무를 받았으면 무슨 아이들이라고 모르겠소. 정세에 대해서 경고도 하지 않다니!》
자동차는 몬트—브레올이란 주민지점을 전속력으로 나는듯이 지나갔다. 도로는 급격히 우로 치달아올랐다.
《이 마을에서 자고가는게 좋지 않을가요?》하고 쁘파이페르가 헨리흐에게 물었다.
《여기선 틀림없이 우리를 병아리새끼처럼 쏘아버릴것입니다.》
헨리흐의 대답이였다. 그는 샴베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감성을 호소하던 이 뚱뚱보비겁쟁이에게 공포심을 돋구어주고싶었다.
굽인돌이가 점점 더 많아져서 자동차는 속도를 최저로 늦추고 거의 서로 맞붙어서 달리였다.
《자동총수들한테 신호를 하오! 더 빨리 달리라고!》 쁘파이페르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이 길에선 더 빨리 달릴수 없습니다.》 헨리흐는 침착히 말했다.
발동기소리가 더 부르릉거렸다. 운전사들은 가속답판만 힘껏 누르다나니 발동기소리만 요란하게 냈다.
《다섯키로메터밖에서도 자동차소리를 듣겠군.》 헨리흐는 마치 지나는 말처럼 말했다.
《차를 세우고 발동기소리를 죽이고 여기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지 않을가?》 이름난 웅변가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다.
《안됩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위험한 장소에 와있는걸요.》
모두 말이 없었다. 베르찌나는 벌벌 떨었다. 오한이 나는 모양이였다. 완전한 침묵속에서 한 열키로메터쯤 달렸다. 굽인돌이가 적어졌다. 자동총수들은 승용차에서 40메터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진하였다. 그들은 에돌아가야 하는 절벽으로 이미 접근하고있었다.
머리우에 커다란 바위를 바라보면서 가고 또 가는것이 얼마나 기분나쁜 일인가! 어서 이 길을 벗어나 앞에 마키의 매복이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앞에 가던 화물자동차는 벌써 굽인돌이뒤로 절반 가리워졌다.… 이제 전혀 보이지 않을것이다. 모두가 안도의 숨을

쉬였다.

그런데 별안간 산우에서 우뢰소리가 난듯 하였다. 마치 두동강이 난듯 한 바위돌이 굴러내려 자동차길을 막았다. 어딘지 웃쪽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돌덩이들이 쏟아져내렸다. 그 소리에 기관총련발사격소리가 압도될 지경이였다.

승용차운전사는 급정거를 하였다. 헨리흐는 앞으로 뿌려진듯 한감을 느꼈으며 앞좌석에 몹시 턱을 부딪쳤다.

헨리흐는 자동차문을 왈칵 열어제끼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자동차뒤에 몸을 숨기고 도로 경사지까지 포복전진해서 물웅뎅이로 달려들어갔다. 머리우로 기관총련발사격이 탄도를 그리며 지나갔다. 헨리흐는 머리를 들지 않고 얼굴을 절벽쪽으로 돌리고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다음 조심조심 살펴보았다. 앞쪽에 도로를 가로질러 화물자동차가 서있었다. 적재함측면에 병사의 시체가 걸려있었다. 화물자동차옆에 움직이지 않는 시체 셋이 누워있었다. 그 앞쪽에 길을 가로막고있는 자그마한 돌덩이옆에 있는 길홈타기에서 도이췰란드자동총이 악에 받쳐 불을 토했다. 헨리흐는 얼굴을 땅에 바싹 댄채로 왼쪽을 보았다. 그에게서 몇메터 떨어진 곳에 자우겔이 엎디여있었다. 그는 자동총을 세우고 머리를 들이박고 절벽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쏘았다. 그뒤에 바위에 몸을 바짝 붙인 쁘파이페르의 뚱뚱한 몸이 보였다. 아마 그뒤에 베르찌나가 엎디여있는 모양이였다. 거기서 연한색양말을 신은 베르찌나의 다리가 번득 보이군 하였다.

기관총련발사격이 또다시 헨리흐의 머리우로 지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상한 사람은 없었다.

(마키가 우리를 생포하려고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피뜩 머리를 스쳤다.

헨리흐는 또다시 자우겔을 보았다. 그는 약간 자세를 바꾸고 엎디여있었다. 이번에는 그의 겁에 질린 얼굴이 보였다. 수백명 사람들을 괴롭힌 교형리의 가증스러운 얼굴, 앞으로 수천명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기서 쾌락을 느낄 악마의 얼굴이였다. 밀레르는 그를 《심문의 시인》이라고 부른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헨리흐는 권총을 쥐고있는 오른손팔목을 슬그머니 돌려서 방아쇠를 당겼다. 자우겔은 머리를 흠칫하더니 이마를

자동총 총탁에 들이박았다.

헨리흐도 땅에 머리를 딱 붙인채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었다. 기관총소리가 갑자기 멎었을 때 그는 비로소 머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머리에는 자동총 총구 셋이 겨누고있었다.

《일어섯! 손들엇!》

헨리흐가 일어섰을 때 역시 자동총의 총구밑에서 천천히 일어서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것은 쁘파이페르, 베르찌나 그리고 운전사였다. 어느새 어둠이 깃들어 주위는 캄캄했다. 그들의 얼굴은 흰 가면이라도 쓴것 같았다.

자동총을 든 한사람이 자우겔에게 다가갔다.

《준비!》 누군지 한 빨찌산대원이 이렇게 말했다. 《머리에 쏘앗! 나머지사람들은 다 결박하시오!》

헨리흐에게로 두명이 다가오더니 한사람은 급히 그의 몸을 수색하였다.

《죽일놈 같으니라구! 권총을 두개나 가지고있었군!》 그는 주머니에서 찾아낸 마우젤권총을 꺼내들고 땅에 떨어져있는 대구경권총을 눈으로 가리키면서 악의에 차서 말했다.

《그러나 아마 두개 다 장탄되지는 않았을거요.》

《이자들은 평화적주민들앞에서만 용감하다니까.》

《더러운 놈!》하고 한 마키가 헨리흐의 얼굴을 힘껏 쳤다. 헨리흐는 넘어졌다.

《그만하면 됐소! 모두 차를 타시오, 빨리!》

마키들은 생포한 사람들을 자동총으로 떠밀어서 헨리흐, 쁘파이페르, 베르찌나 그리고 운전사를 자동차있는데로 끌고가더니 뒤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 건너편에 두명의 마키가 권총을 빼들고 앉아있었다. 앞자리에 또 두명이 앉았는데 지휘관인듯 한 한사람이 명령하였다.

《그 새길로 가지 말고 그전 길로 가시오. 지체하지 마시오!》

자동차는 후진으로 한 20메터쯤 가더니 어두워서 거의 알아볼수없는 골짜기로 통하는 좁은 길로 들어섰다. 자동차는 전조등도 켜지 않고 어떤 돌무지를 지나더니 깊숙이 패인 수레바퀴자리를 따라 나아가다가 다시 산으로 치달아올랐다. 자동차는 계속 이쪽저쪽으로 자빠졌으며 헨리흐는 그때마다 쁘파이페르와 이마를 맞쫓는가 하면 관자노리를 부딪치군 하였다.

마침내 자동차는 골짜기를 빠져나가 평탄한 길에 나서서 굉장한 속도로 내달렸다. 대략 한시간쯤 가더니 차가 멎었다. 운전사옆에 앉았던 마키는 문을 열고 어두워서 누군지 보이지는 않으나 어떤 사람과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더니 문을 탕 닫고 차를 다시 내몰기 시작하였다.

밤이 깊어서야 그들은 한 산촌에 이르렀다. 포로들을 한사람씩 내리워서 고간에 밀어넣었다. 두엄내와 짚냄새가 확 풍기였다.

《부상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절칵소리를 듣자 헨리흐가 조용히 물었다.

《저는 일없습니다.》 운전사가 먼저 대답했다.

《쁘파이페르씨는 어떻습니까?》

《제발 내 성을 부르지 말아주시오!》하며 웅변가는 신음소리를 냈다.

《증명서를 빼앗아갔으니까 성함은 마키들이 이미 알고있을겝니다.》

쁘파이페르는 소리를 치는것 같기도 하고 소리내서 우는것 같기도 했다.

헨리흐는 짚단우에 앉았다. 마키가 얼굴을 어찌 심하게 때렸던지 머리가 무섭게 아팠다. 왼쪽눈두덩이 점점 더 부어올라서 눈을 뜰수가 없었다.

《헨리흐, 헨리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릴 총살할가요?》 베르찌나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우선 심문할겝니다!》 헨리흐는 무뚝뚝하게 잘라말했다.

베르찌나는 짚단우에 쓰러졌다. 그러나 곧 다시 뛰쳐일어났다.

《녀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첫째로 그들은 당신을 한 녀성으로 보는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들, 누이들, 애인들을 고문하는 수용소의 장교로 볼것이며 둘째로…》

《견장을 이발로 물어떼주어요.》하고 베르찌나는 헨리흐에게 어깨를 바싹 붙이면서 말했다. 헨리흐는 물러앉아버렸다.

《공연한 짓이요. 당신 문건도 다 빼앗아갔는데요.》하고 그는 비웃듯 말했다.

《다 당신때문이예요. 당신때문에 이렇게 된거야요! 아, 내가 왜 당신과 함께 떠났을가!》

헨리흐는 고간 한구석으로 가서 찬 돌벽에 부어오른 볼을 꼭 대고 앉았다. 그 자연적인 돌찜질이 동통을 진정시켜주었으며 부어오른 눈두덩

도 좀 가라앉는것 같았다. 헨리흐는 등뒤에 묶어놓은 두팔의 근육을 움직여보면서 팔목을 조이고있는 노끈이 얼마나 견고한가 시험해보았다. 그러나 노끈을 늘굴수는 도저히 없었고 오히려 팔목의 피부가 벗겨졌을뿐이였다. 팔을 빼는것이 불가능하다는것을 확인한 헨리흐는 순순히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문턱앞에 희끔한 회색줄이 나타나서 아침이 가까와옴을 알리더니 다음에는 문전체의 사각형이 밝은 반점처럼 보였다. 그 반점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이제는 회색이 아니라 분홍빛을 띠였다. 그다음엔 그것이 문득 없어지더니 마치 틈새기를 통해서 황금이 흘러드는듯 해빛이 길게 짚단우로, 고간의 뒤벽으로 뻗어나갔다.

문이 열렸다.

《쁘파이페르, 나와!》 엄엄하게 호출하는 소리가 들렸다.

웅변가는 부르르 몸을 떨더니 겁이 나서 창고 안쪽으로 기여들어갔다.

《초대장을 내야 알겠어!》

마키는 쁘파이페르에게로 다가가서 그의 목덜미를 잡아일으켰다.

《어서 걸엇!》

선전원의 살찐 몸뚱이가 문밖으로 사라졌다. 10분쯤 지난 후에 운전사를 불러내갔다. 운전사는 묵묵히 일어나 고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들 계시우!》하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마키를 따라나갔다.

《헨리흐, 난 갈수 없어, 난 안 갈래. 그들이 무슨 권리로 날 불러요!》하며 베르찌나는 소리를 지르더니 울음을 터쳤다. 《가서 말 좀 해주어요, 그럴 권한이 없다는걸! 들었어요? 당신은 부자인데 돈을 주겠다고 할수 있지 않아요! 아, 왜 나를 그렇게 보아요? 돈을 주겠다고 해보세요. 그러믄 우릴 놓아줄거예요! 그 신세를 꼭 갚겠어요. 헨리흐! 난…》

《골드링!》하는 목소리가 문에서 들렸다.

헨리흐는 호송병뒤를 따라 해빛이 가득찬 뜨락으로 나갔다. 그는 눈이 부시여 눈을 가늘게 찌프렸다.

《야! 굉장한 미남자구나!》하는 녀자의 목소리가 그에게까지 들렸다.

부어오른 눈두덩, 헝클어진 머리, 거기에 짚오리까지 뒤엉키니 헨리흐는 정말로 길가에 숨었다가 길손을 덮치군 하는 강도 비슷했다.

《저런 놈한테 걸렸다간 보기만 해도 질겁을 하겠네!》 다른 녀자가

하는 말이였다.

《이젠 누구를 놀래우진 못할게요!》하고 포로를 데리고가던 마키가 안심시켰다. 《어서 걸어! 참모부로!》

헨리흐가 들어간 방에는 세사람이 앉아있었다. 전형적인 프랑스농민의 옷을 입은 두명의 마키와 헐어빠진 도이췰란드군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 앉아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회색수염이 난 프랑스사람이 포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물었다. 헨리흐는 자기 성명을 댔다. 직위도 말했다. 회색수염은 손에 든 문건과 대조해보았다.

《상당한자이군!》 도이췰란드군복을 입고있는 사람이 서투른 프랑스말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 사단의 위치와 주민지점에 있는 위수부대수를 아는가?》

《나를 부대장에게 안내해줄것을 부탁합니다!》하고 헨리흐는 견결히 말했다.

《당신은 여기서도 제마음대로 지시를 주고싶은 모양이군! 올리비예, 그자에게 설명해주오, 외교적인 접견을 하러 온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다는걸.》하고 도이췰란드군복을 입고있는 마키가 웃으며 말했다.

헨리흐는 그 말을 한 마키를 더 주의해보았다. 그렇다, 그는 잘못보지 않았다. 그는 로씨야사람이였다. 넓적하고 둥근 얼굴, 슬라브사람의 전형적인 특징들, 연한 머리빛 그리고 중요한것은 그의 말투.

《내가 부대장을 만나자고 하는것은 만나야 할 리유가 있기때문이요.》하고 헨리흐는 류창한 로어로 말했다. 그 순간에 폭탄이 터졌다 해도 그에게 준 인상이 더 크지는 않았으리라.

《고향사람이란 말이요?》 그 로씨야사람은 호기심에 찬 눈길로 헨리흐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나는 부대장을 꼭 만나야 합니다. 이 이상 나는 한마디도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멜니꼬브, 부대장을 불러오시오.》하고 회색수염이 난 사람이 프랑스어로 명령하였다.

멜리꼬브로 불리운 사람은 의문스러운 눈길로 다시한번 포로를 보더니 방에서 나갔다. 잠시후 그는 보통사복을 입은 사람을 앞세우고 돌아왔다. 그 사람을 힐끗 바라보자 헨리흐는 급히 얼굴을 돌렸다.

《당신이 날 보자고 했소?》하고 부대장은 포로를 향해서 말했다.
《네 네, 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하고 헨리흐는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부대장의 눈에서는 놀라움이 그다음엔 반가움이 어리였다. 그 눈에는 마치 안으로부터 빛을 뿜듯 즐거운 불꽃이 번득였다.
《우리 둘이 만나야겠소.》 부대장이 명령하였다. 모두 나갔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모양으로?》하고 안드레 레나르는 헨리흐에게 두손을 내밀며 기쁨에 넘쳐 말했다.
《내 손을 잡으려면 우선 풀어주어야 할겝니다.》 헨리흐가 웃으며 일깨워주었다.
《이런 머저리 보았나!》하며 레나르는 자신을 욕하고나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포로의 손을 결박했던 노끈을 끊었다. 그러나 옛친구들은 악수를 할수가 없었다. 헨리흐의 팔은 그동안 어찌나 마비되였던지 당장에 털썩 하고 맥없이 늘어지는것이였다. 오른쪽팔목에 벗겨진 피부를 보자 레나르는 문을 열고 소리쳤다.
《간호원! 붕대하구 옥도정기를 가지고 오오.》 그다음 레나르는 헨리흐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포옹하고 감격적으로 흔들었다.
《어저께 우리가 당신을 잡아왔구려!》
헨리흐는 등뒤로 손을 감추며 말했다.
《제발 내 말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붕대는 후에 감고.》
헨리흐는 사단참모부에서 마키의 활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작성하고있는 대책에 대해서 레나르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레나르, 나를 잡아옴으로써 당신들은 사단참모부에 있는 동맹자를 잃은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을 다 파탄시켰습니다.》
《이젠 짐작이 갑니다. 아니, 나는 호상 침묵을 지킬데 대한 우리의 언약을 위반하려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까지는 이 문제를 그대로 둡시다. 나에게는 우리가 친구이라는것을 아는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친구가 한시바삐 당신곁을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중요한 리해관계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될수 있는대로 적게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우기 당신 사람들중에도 밀고자가 있습니다. 그런자를 하나 경고

해드리고싶습니다. 그자는 쎈－레미부근에 있는 발전소에서 일하고있는데 게스타포가 그자를 체포했다가 즉시 석방했습니다. 그자는 당신네 련락병의 뒤를 밟고 그것을 게스타포에 통보하고있습니다. 마침 에쓰에쓰부대 부책임자인 자우겔이 우리 자동차습격때 피살되였습니다. 그래 위험한 원쑤 한놈은 처단된셈입니다.

바로 그자가 밀고자를 통해서 당신네 사람들의 뒤를 밟고있었으니까요. 내 생각엔 그 밀고자를 당장 처리해버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쎈－레미의 련락원들은 일시 일을 시키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 통보는 다 우리에게 극히 귀중한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여기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릅니다. 안드레,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탈주한것처럼 꾸밉시다. 참모장을 곧 불러옵시다. 그 사람은 그런 책략을 꾸미는데 능수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을만 한 사람인가요?》

《전적으로 믿을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걸고 담보하겠습니다. 그는 파시즘을 증오합니다. 침묵을 지킬줄도 알고 모든 로씨야사람들이 그렇듯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그를 불러옵시다.》

몇분후에 이미 헨리흐에게 낯이 익은 도이췰란드군복을 입은 사람이 문턱에 나타났다.

《여보 친구, 우린 잡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잡아왔단 말이요. 그래서 그 과오를 바로잡아야 하겠소.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당신과 나만 알아야 하오. 우선 인사하시오, 이분이 라－뜨라벨사집으로 나를 찾아왔던 바로 그 장교분이시오. 그 점에 대해서도 당신과 나만 알아야 하오.》

멜리꼬브는 시원한 미소를 띠고 헨리흐의 손을 굳게 잡았다. 헨리흐는 얼굴을 찌프렸다.

《아픕니까? 눈은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군요!》

《그러니까 이 멍은 당신의 선물이군요?》

《내가 그랬습니다.》 멜리꼬브는 죄송한듯 한숨을 쉬고 자기 주먹을 바라보았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안드레 레나르는 탈주한듯이 연극을 꾸며야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한 후 자기 참모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것이 유일한 출로요! 흠잡을데없이 감쪽같이 꾸며야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사람들중에서 골드링만 구출된다면 사단지휘부와 게스타포에서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가요? 처녀와 운전사도 함께 놓아줄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 선전원이란자는 놓아주기 아까운데요.》

《베르찌나 말입니까? 그 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프랑스에 파견되였는지, 그 녀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직 심문은 하지 않았지만 녀자이고해서…》 멜리꼬브는 골드링을 보자 그 얼굴표정에 놀라서 하던 말을 그쳤다.

《어저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올 때 나는 스스로 다짐하였지요. 베르찌나를 결코 자기 임지까지 가게 해서는 안된다고요. 그를 처녀라고, 녀성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 녀잔 에쓰에쓰녀대원이며 포로수용소에 특수제도를 확립할 전권을 위임받고 가는것입니다.》 헨리흐는 베르찌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있는것을 다 이야기하였다.

《우린 그 녀자를 인민재판에 제기합시다. 멜리꼬브, 그 녀자를 따로 갈라놓고 특별히 감시하라고 명령하시오. … 그대신 쁘파이페르는 양도해야 하겠소. 그 선전원이 지금은 별로 큰일을 못칠것이요, 지금은 말보다도 사실자체가 더 선동적이니까.》

안드레 레나르, 멜리꼬브, 헨리흐 세사람은 근 한시간동안 앉아서 탈주계획을 꾸미였다. 헨리흐가 고간으로 갔을 때에는 쁘파이페르와 운전사만이 거기 있었다.

《베르찌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심문받으러 갔습니다.》 운전사가 대답하였다.

쁘파이페르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땅바닥을 물끄러미 보며 앉아있었다. 그의 팔도 다른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등뒤에 든든히 묶여있었다. 흰 둥근 바탕에 卐표가 그려져있는 붉은 완장이 마치 걸레쪽처럼 소매끝에서 너덜거렸다. 아마도 선전원은 심문을 받고난 후 다소간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을가 하는 희망을 완전히 잃은 모양이였다.

《쁘파이페르씨, 난 당신에게 용기를 더 내달라고 호소하고싶습니다. 비록 팔은 묶이워있고 래일 마키의 재판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희망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싶습니다.》
《재판? 재판은 무슨 재판이요?》 쁘파이페르는 몸을 떨며 말했다.
《래일 아침에 우리를 모두 빨찌산재판에 걸어 처단한다는것을 말하지 않습디까?》
헨리흐의 물음에 펄쩍 깨나는듯 하더니 쁘파이페르는 또다시 머리를 떨구었다. 그의 온몸은 마비된듯 하였다.
《쁘파이페르씨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재판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가요?》 헨리흐는 선전원옆으로 다가앉았다.
《어떻거나 매한가지요. 결과는 한가지야.》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그는 랭랭하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어찌 그럴수 있습니까! 총통의 군대의 장교인만큼 깨끗하게 죽어야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아리야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당신께도 그것을 호소합니다.》
《아리야족이고 아니고 한것이 지금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다 죽을게 아니요? 어떻게 죽든지 죽는거야 매한가지가 아니요?》
《연설을 할 때는 다르게 말씀하던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나 재재거리기야 물론 어렵지 않지요. 우리같은 머저리들은 그 말을 멍하구 듣고있었지? 아, 지금 물이나 한고뿌 하고 담배나 물었으면 마키의 총알이래도 얼마든지 맞받아나갈것 같군. 더우기 그들은 우리 나라 자동총으로 무장되여있으니 총알도 도이췰란드제일게고!》하며 운전사는 독이 올라 씨벌이고나서 비웃었다.
헨리흐는 문쪽으로 가서 문을 발로 걷어찼다.
《왜 이래?》 뜨락에서 성난 목소리가 들렸다.
《감시대장을 불러주시오.》
《별소릴 다하는군, 안돼!》
헨리흐는 또다시 문을 두드렸다.
《왜 시끄럽게 구는거야?》
《난 감시대장을 불러줄 때까지 두드리겠소.》 헨리흐는 악에 받쳐 소리쳤다.
《장교님, 장교님! 제발 그만두시우! 우리를 죽일겝니다.》 쁘파이페르가 놀라서 수군거렸다.
문밖에서 걸음소리가 들리더니 자물쇠가 열렸다. 멜리꼬브가 또 한명

의 마키를 데리고 문턱에 나타났다.

《어째 그래?》 참모장이 물었다.

《우릴 재판할테면 하오. 재판후에 마음대로 처리하오. 그러나 지금 우리를 괴롭힐 권리는 없단 말이요.》하고 헨리흐는 웨치다싶이 말했다.

쁘파이페르는 공포어린 눈이 둥그래서 마키를 보았다.

《누가 괴롭힌단 말야?》

《어제 저녁부터 물 한모금, 빵 한쪼각 안 주고 지금까지 팔을 묶어놓는 법이 어디 있소?》

《저승에서는 배가 곯아도 받아들이니 걱정 말라.》

《물과 빵과 담배를 요구한다!》 헨리흐는 소리쳤다.

《닥쳐!》 멜리꼬브는 주먹을 틀어쥐고 헨리흐에게 다가와서 명령하였다. 《짚더미로 갓!》 그러고는 포로를 왈칵 밀었다. 헨리흐는 비틀거리다가 쓰러졌다.

그 순간에 헨리흐는 오른쪽다리로 참모장의 다리를 걸어넘기면서 왼쪽다리로 그의 정갱이를 힘껏 걷어찼다. 그것은 헨리흐가 잘 정통하고있는 유술의 수법이였다.

멜리꼬브는 맥없이 넘어갔다. 참모장을 따라온 마키가 헨리흐에게 달려들어 총탁으로 그의 가슴을 왈칵 떠밀었다.

(이건 순서에 없는건데!) 하고 헨리흐는 생각했다.

《어디 보자, 혼날줄 알아!》 멜리꼬브는 투덜거리며 나갔다.

헨리흐는 일어나서 다시 문쪽으로 다가가 발로 찼다.

《제발 앉으시오! 당신때문에 우릴 다 죽이겠소!》 쁘파이페르가 얼굴이 벌개져서 야단을 쳤다.

《난 목적을 이루기 전엔 가만있지 못하겠소!》

문이 다시 열리더니 멜리꼬브와 마키가 다시 문턱에 나타났다. 그들뒤에 한 녀자가 빵 세쪽과 물통과 고뿌를 손에 들고 서있었다.

자동총을 든 멜리꼬브가 문옆에 서있고 그와 함께 온 마키가 들어와서 포로들의 팔을 풀어주었다.

《어서 먹어. 꾸물거리다간 없다!》 멜리꼬브가 성급히 말했다.

《오래 걸리지 않을거요!》 헨리흐는 롱조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빵 한쪽을 물어뜯고 물을 마시였다.

안드레 레나르와 바로 이 멜리꼬브가 한시간전에 그에게 대접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한 후이라 굳은 빵쪽은 사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운전사와 쁘파이페르는 빵도 물도 게눈감추듯 먹어버리였다. 헨리흐는 아직도 빵을 씹고있었다.

《오래 기다리란 말인가?》 멜리꼬브는 헨리흐손에서 고뿌를 빼앗으며 말했다.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겠는가!》 헨리흐는 태연하게 말하고 방금전에 녀자가 내준 담배를 만족스럽게 피웠다.

《팔을 묶으시오!》 포로들이 담배를 다 피우자 멜리꼬브가 명령하였다. 포로들은 다시 결박당했다. 문이 닫기고 자물쇠가 절컥 잠기였다.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헨리흐는 쁘파이페르에게 물었다.

《이젠 제발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그러지 않아도 우리에 대해선 악이 난 사람들인데 이젠 머리끝까지 독이 올랐겠소.》하고 선전원은 우는 소리를 하였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판장에서 내가 어찌겠는지 두고보십시오. 지금은 좀 자야겠습니다. 다들 좀 눈을 붙입시다.》

헨리흐는 어깨로 짚을 밀어서 잠자리를 마련하고 10분후에는 편안히 자고있었다.

저녁때 또다시 한사람씩 불러내다 심문하였다. 쁘파이페르와 운전사는 빨리 놓여나왔으나 골드링의 심문은 훨씬 오래 걸렸다. 그 심문은 이미 작성된 계획의 모든 세부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필요한만큼 시간이 걸리는것이였다. 심문이 끝난 후 전체 포로들의 눈을 싸매더니 자동차에 태워 어디론지 데려갔다.

한참동안 차가 달렸다. 아마 두시간은 달렸을것이다. 마침내 자동차는 어떤 건물앞에서 멎었다. 어두워서 그 구조를 똑똑히 볼수는 없었다. 세사람을 다 어떤 방으로 데리고가더니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지 눈을 풀어주었다.

《운전사, 여기 있소? 쁘파이페르씨는? 그런데 베르찌나는 어디 있나? 그를 우리와 떼여놓은것이 근심되는데. 혹시 놓아준것일가?》

《원, 그럴수가 있습니까! 그인 에쓰에쓰정복을 입고있었는데. 그들은 그 옷을 민족사회당원들의 갈색사복과 같이 보기만 하면 눈에 불이 날텐데요.》 운전사는 침울하게 말했다. 쁘파이페르는 한숨을 쉬

는지, 신음을 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여보시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난 다행히도 내 팔을 풀수 있었소. 이제 당신 팔도 풀어드리겠소. 아마 여기가 죽음터로 가는 마지막정거장인것 같소. … 난 술책을 한번 써보겠소. 조금후에 나는 뒤를 보러 가겠다고 요구해보겠소. 나를 내보내주면 도망쳐보겠소. 만일 무사하게만 되면 당신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겠소.》하고 헨리흐는 조용히 속삭였다.

헨리흐는 운전사의 팔을 풀어주고 그다음 쁘파이페르의 팔도 풀어주었다. 선전원은 전신을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만일 당신이 도망치면 그들은 우리를 재판도 없이 죽일것이요. 난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소. 우리의 생명을 걸고 모험할수는 없소.》 그는 이렇게 소리치며 헨리흐의 소매를 잡았다.

《우는 소리 그만하오! 우리는 구원받을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마저 잃어버릴수 있소!》하고 운전사가 참견해나섰다. 문제가 생사에 관계되는 이때에 그는 인사를 차릴것도 없이 쁘파이페르의 어깨를 되는대로 잡아챘다.

그는 선전원을 문에서 밀어내고 그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헨리흐는 낮에 고간에 있을 때 하듯이 발로 문을 두드렸다.

《왜 이래?》하는 멜리꼬브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에 무얼 먹였는지 배가 아파 죽겠소. 나갔다 와야겠소!》하고 헨리흐는 소리쳤다.

멜리꼬브는 투덜거리기는 했으나 문을 열어주었다. 자동총을 장탄하라는 구령이 들리더니 누군지 집안으로 들어와 포로의 등을 밀고 뜨락으로 나갔다. 그다음 자물쇠가 잠기였다.

쁘파이페르와 운전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주위는 여전히 조용하였다. 바스락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한 5분 지나서야 웨치는 소리,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라! 잡아라!》

총소리가 한방, 두방 나더니 기관총련발사격이 울렸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더니 조용해졌다.

…한시간 지나서 제6초소장 슈와이쩨르소위는 헨리흐를 보자 깜짝 놀

랐다. 눈두덩이 팅팅 붓고 팔에 피가 랑자한 헨리흐는 그가 참모부에서 수차 본 일이 있는 그 특수임무장교와는 비슷하지도 않았다.

《즉시 사단참모부에 련결시켜주오!》 헨리흐가 명령하였다.

소위는 참모부를 전화로 불렀다.

《폰 골드링상급중위가 말합니다. 네, 네… 그건 후에… 우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한초가 새롭습니다. 난 포로되였다가 탈주했습니다. 쁘파이페르씨와 운전사가 제6초소에서 몇키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래일 아침에 그들을 총살할겝니다. 즉시 렵기병 한개 중대만 보내주십시오. 길은 내가 압니다.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제발 꾸물거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한초가 새롭습니다.》

헨리흐는 송수화기를 놓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담배 좀 주오! 어제 저녁부터 못 피웠소!》

그러나 소위에게는 좋은 담배가 없었다. 값싼 권연으로 만족하는수밖에 없었다.

《당신들을 찾느라고 몇개 수색대가 동원되였습니다.》 뜻밖의 손님이 정신이 든것을 보자 소위가 알려주었다.

《사단참모부에서는 이미 다 알고있소?》

《자동차를 마키가 습격했다는것을 알뿐이지요. 그러나 자우겔의 시체를 보구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불행이 생겼을거라고 생각하고들 있지요.》

렵기병중대가 도착하였다. 시계를 보니 4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꾸르트가 운전하는 헨리흐의 차를 타고 류쯔도 왔다.

《경솔하게 행동하다 큰일날번 했구려!》 류쯔는 문턱을 넘으면서 친구에게 야단부터 하였다.

《내가 경솔한게 무언가!》

《호위병도 더 데리고오구 저녁에 떠나질 말아야지.》

《칼! 호위병문제는 죽은 자우겔이 해결했어야 했다네. 난 동행했을뿐이였으니까. 저녁에 떠난 문제는 쁘파이페르자신이 고집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였소. 그러나 그 문젠 뒤에 이야기합시다. 병사들이 몇명이나 왔소?》

《인원 백륙십명에 경기관총 두문입니다.》하고 중대장이 보고하였다.

《지도를 가져오오.》

헨리흐는 어저께 저녁에 안드레 레나르와 멜리꼬브와 함께 세심히 연구하던 바로 그와 같은 지도를 펼쳐놓고 지시를 주었다.

《크라우제중위, 당신은 한개 소대를 데리고 이 길로 가주오. 중심종대가 되여주시오. 만일 마키들이 종대에 사격을 하지 않거든 마을로부터 왼쪽으로 구부러져 산으로 들어가는 마키의 길을 차단하시오. 나는 두개 소대를 지휘해서 당신뒤를 따르다가 우익쪽으로 공격하겠소. 이젠 행동하시오.》

산악작전에 익숙한 렵기병들은 거의 아무 소리도 없이 빨리 나아갔다. 마을까지 약 50메터 남았을 때 크라우제중위가 지휘하는 소대는 왼쪽으로 구부러졌다. 헨리흐가 구령을 내리자 두개 소대는 조용히 산개대형을 취했다. 그때쯤에 빨찌산의 기관총소리가 콩볶듯 울리기 시작하였다. 헨리흐는 류쯔옆에 엎드렸다.

《왼쪽으로부터 약진, 앞으로!》 그는 구령을 내렸다.

빨찌산은 우익에서도 사격을 멈추지 않고 의외의 강력한 력량으로 왼쪽으로 몰려나왔다. (이건 약속과 다른데! 멜리꼬브는 이러다가 포위되면 어쩌자고 그러는가!) 헨리흐는 신경질이 나서 약진으로 전진해나아갔다.

빨찌산들은 사격을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갑자기 사격을 멈추었다. 10분쯤 지났을 때 렵기병중대는 함성을 올리면서 자그마한 마을로 돌입했는데 그 마을은 집이 몇집밖에 없고 사람이란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헨리흐와 류쯔는 석조로 된 창고로 달려가서 자물쇠를 마사버렸다.

《쁘파이페르씨, 무사합니까?》하고 헨리흐는 웨쳤으며 류쯔는 손전등을 켰다. 창고 한구석에 운전사와 무서워서 거의 정신을 잃은 선전원이 서로 의지하고 앉아있었다.

《오! 상급중위님!》 마침내 쁘파이페르도 정신이 들었다. 그는 통곡비슷하게 울음을 터뜨리며 헨리흐가슴에 몸을 던졌다.

류쯔와 헨리흐는 쁘파이페르를 마치 환자처럼 량쪽에서 겨드랑이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려내갔다. 그들이 방금 나온 큰 문옆에 활짝 열린 자그마한 문이 보였다. 류쯔가 손전등을 켜고 그안을 들여다보더니 비명을 올렸다. 헨리흐가 그에게로 다가갔다. 문턱옆에 베르찌나가 누워있었다.

《죽었군!》 몸을 숙이고 들여다보던 류쯔가 확정적으로 말했다.

《혹시 우리 총탄에 맞아 죽은게 아닐가?》라고 헨리흐가 말했다.

《하여튼 값있게 죽었습니다.》 등뒤에서 쁘파이페르의 점잖은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안전하다는것을 느끼자 인차 전과 같이 위풍을 차리는것이였다.

그를 돌아본 헨리흐는 자기 눈이 믿어지지 않았다. 선전원은 점잔을 빼고있는것이 마치 자기가 태여난것을 인류는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듯 하였다. …

해방된 사람들은 새벽에야 쎈－레미에 도착하였다. 군의소에 들려 붕대를 감고난 헨리흐는 즉시 려관으로 가서 순식간에 잠들어버렸다. 그는 오래동안 마음놓고 푹 잤다. 그는 밀레르가 찾아온것도, 장교식당으로 식사하러 갈 시간이 되였다고 류쯔가 그를 깨우는것도 전혀 몰랐다. 그것이 차라리 잘되였다고 할수 있었다. 마키에게 잡혔을 때 마치 영웅적으로 행동한듯이 떠벌이는 쁘파이페르의 이야기를 그는 그냥 듣고있기 어려웠을것이다. 그러나 그가 용감한 사람들중에서 헨리흐를 첫자리에 내세운것은 옳았다고 해야 할것이다. 겝벨스가 파견한 선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헨리흐는 전설적인 장수같았다. 그는 결박당해 누워있으면서도 몇놈의 마키를 처넘겼으며 맨손으로 경비병을 처단해버리였으며 하여튼 총통의 불패의 군대의 참된 장교로, 백프로 아리아종족으로 떳떳이 행동하였다는것이였다.

그날 장교식당에서는 쁘파이페르의 건강을 위하여, 폰 골드링의 대담성을 축하하여 술을 많이 마시였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기분이 너무나 앙양된것이였다. 특히 기뻐한것은 밀레르였다. 만일 병원에 들어있지 않았던들 저명한 손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응당 자기가 떠났어야 하였으며 그랬더면 자우겔대신에 자기가 쎈－레미 중앙광장묘지안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였을것이기때문이였다.

아틀란찌크보루

《건강이 어떻소?》 헨리흐가 우에서 이야기한 사건이 있은지 일주일이 지난 후 자기 직무에 착수하겠다는 보고를 하러 갔을 때 에베르쓰소

장은 이렇게 물었다.

《감사합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우리 둘이 다 좋은 형편에 있다고 할수 있군. 나도 리옹에 갔다온 후 매우 기분이 좋아졌소.》 이렇게 말하며 에베르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알수 없겠습니까, 소장님!》

《이제 알게 될거요. 당신하고 내 부관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교도 모르며 또 알아서는 안될 문제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 있소. … 아틀란찌크보루에 대해서 들은적이 있소?》

《물론 들은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나 역시 그렇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소. 우리 지휘부에서는 모든 전투사단들을 동부전선으로 투입하고있소. 거기서 방대한 작전이 준비되고있는것은 명백하오. 이와 관련해서 아틀란찌크보루구역에 있는 대렬보충이 가장 잘된 사단들도 동부전선으로 이동되게 되였소. 그래서 우리 사단이 보루에서 방어를 맡게 되였소. 어떻소, 상급중위의 마음엔 들지 않소?!》

《우리 사단도 마침내 군사대상물의 경비보다 더 큰 사업을 책임지고 맡게 된것이 기쁩니다.》

《나도 전적으로 동감이요. 그러나 우리 사단은 다 아는바와 같이 인원도 무기도 대렬보충이 원만하게 되여있지 못하오. 우리에게 배당될 구역은 지금 똘레소장의 사단이 차지하고있소. 그러나 이건 아직 우리 참모부장교들에게도 비밀이라는것을 잊지 마오.》

《비밀을 지킬줄 압니다, 소장님!》

《그건 나도 아오. 그래서 당신한테 아주 까다로운 과업을 맡기자는거요. 더 정확히 말하면 두가지 과업이요. 첫째 과업부터 말하겠소. 나는 똘레소장의 참모부로 장교 한명을 보내야 하오. 그 장교는 우리가 사전에 대렬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화점들과 예비진지수를 통보받아야 하오. 그 모든 화점들에는 더 말할것도 없이 똘레소장사단의 무기가 설치되여있소. 그들은 동부전선으로 떠나면서 자기 무기를 다 걷어가지고 갈거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있는 중무기만 가지고는 그 모든 화점들에 다 보충을 할수 없소. 그렇기때문에 아까 내가 말한 그 통

보자료가 우리에게 극히 필요한거요. 그 통보자료에 근거해서 우리는 즉시 지휘부에 해당한 구경의 포를 필요한 수량만큼 요구해야 할거요. 나는 새 장소에 가서 우리 사단이 될수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게 하자는거요. 뚤레사단참모부도 이미 해당한 지시를 받았을게니까 임무수행이 그리 힘들지 않게 될것이요. 이젠 두번째 과업을 이야기하겠는데 그건 좀더 까다로운것이요. …》 소장은 몇번 더 방안을 거닐었다. 헨리흐는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다.

《새 임지로 떠나기 전에 나는 우리가 경비하게 될 그 서부보루구역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가졌으면 하오. 그래서 나는 전투시설들, 병영들, 창고들, 급수관계, 통신체계들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알아다주었으면 하오. 첫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정식지시문을 주겠지만 둘째 임무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을게요. 당신을 참모부에 맞아들이고 대답은 해줄수 있겠지만 화점들로 직접 가보게 하지는 않을것이요. 그러니까 그 임무가 까다롭기도 하고 외교적으로 능란하게 해야 하는것이요. 나는 군단장에게 그 통보자료를 접수할데 대한 공식적인 허가를 줄것을 부탁했소. 그러나 그는 우리가 배치된 후에도 그것을 알수 있는 시간이 충분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공식허가를 줄것을 거부한단 말이요. 그런데 나는 그걸 사전에 알았으면 해서 그러는거요. 그래 당신임무가 어떤것인지 알겠소?》

《알겠습니다, 소장님. 언제 출발하랍니까?》

에베르쓰는 초인종을 눌렀다. 류쯔가 들어왔다.

《상급중위가 가지고 갈 문건이 준비됐소?》

《다 됐습니다.》

《그럼 내 생각엔 래일 아침에 떠날수 있을것 같군.》

《래일 아침에 자동차로 샴베리에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군단참모부로 가겠습니다. 리옹에서 쎈－나제르까지는 가까우니까.》

《출장기일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겠소. 그러나 될수록 빨리 돌아오면 좋겠소.》

류쯔와 헨리흐는 사무실에서 나갔다.

《자네가 부럽군, 헨리흐.》

《그건 왜?》

《자넨 못 가보는데가 없으니까. 난 이 단조로운 참모부밖에는 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하고 류쯔가 불평을 말했다.

《마키에게 포로로 잡히는것은 아마 부럽지 않겠지?》

《그건 내가 출장이 없는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한가지 위안이야!》하고 류쯔는 웃었다.

《칼, 출발을 앞둔 마지막밤을 함께 보내세.》

《또 밀레르가 와서 잡쳐놓지 않겠나?》

《내가 아예 미리 그를 찾아가서 작별을 해버리지, 나를 찾아올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도록 말이요.》

헨리흐는 참모부에서 나오는 길로 에쓰에쓰부대로 향했다. 그러나 그때 늙은 골동품상인이 밀차를 밀며 걸어오는것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 늙은 상인은 계속 소리치는것이였다.

《옛날 판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들의 소품들! 세계적명화들의 모사품, 예술작품은 고상한 취미를 길러줍니다. 거장들의 훌륭한 모사품이 서투른 화가의 그림보다 더 훌륭합니다. 옛날 판화, 모사품, 조각모조품을 어서 사십시오!》

헨리흐는 늙은이에게 다가갔다.

《로단의 좋은 모조품을 하나 얻을수 없겠습니까?》

《로단의 모조품은 내가 끌고다니기에는 지내 값이 나가는것이지요. 장교님께서 꼭 그걸 사시렵니까?》

《나는 오래전부터 빅토르 유고의 흉상모조품을 하나 사고싶던터입니다.》

《참 운수가 좋으시군. 내가 얼마전에 전혀 우연한 기회에 아주 잘된 흉상모조품을 얻었습니다. 만일 필요하시다면 반시간후에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소는 템플리려관 12호실입니다.》 헨리흐는 이 말을 던지고 물러났다.

헨리흐는 꾸르트를 보내고 흥분된 기분으로 계속 시계를 보며 방안을 거닐었다. 떠돌아다니는 골동품상인과의 상봉이 그를 몹시 흥분시킨 모양이였다. 그 상봉은 너무나 뜻밖이였다.

그래서 불안한 기분까지 생기는것이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 헨리흐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문에는 그 늙은 골동품상인이 큰 검은 보에 무엇인가 싸들고 나타났다.

《아마 이 조각모조품을 말씀하셨지요?》

헨리흐는 모조품을 보지도 않았다.

《방안엔 우리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며 조용히 말했다.

《문을 여십시오. 도이췰란드군대장교와 늙은 골동품상인간에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하고 늙은이는 엄격히 말했다.

헨리흐는 열쇠를 돌렸다. 늙은이는 자기와 헨리흐사이에 흉상을 놓고 보통 높은 어른 있는데서 아래사람이 하듯이 걸상 한끝에 앉았다. 늙은이는 주머니에서 몇개의 소품들을 꺼내 상우에 벌려놓았다. 이젠 누가 보든지 극히 자연스러웠다. 어느 사람이 뜻하지 않게 이 방을 들여다본다 해도 아무것도 의심스러운것을 눈치채지 못할것이다. 골동품상인인 이 늙은이가 예술에 대해서 무식한 장교에게 어떤 위조품이라도 팔아넘기려고 애쓰고있는 그런 인상을 주었다. 늙은이는 그 자세와 그 얼굴표정까지도 변경시키지 않고 전혀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대위동지, 내 생각에는(물론 이것은 내 생각뿐도 아닙니다만) 최근시기에 대위동지가 지나친 모험을 하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은 다 모험이지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고삐를 늦춘것 같습니다. 당신을 여기서 이동시킬 문제가 서고있다는것을 경고해드립니다.》

헨리흐는 깜짝 놀랐다.

《대위동지는 신경까지 약해지는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마키와 련계를 맺고 그들에게 방조를 주는데 대해서 알게 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몇사람이 알고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아마 한 열사람은 될것입니다. 당신은 내 말에 반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구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위험성은 나의 공작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나오는것입니다.》

《그 문제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당신은 사격장에서 두명의 빨찌산을 붙잡았다가 놓아준 그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몇사람이나 알고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려관집주인이 알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당신의 신변에 대해서 이미 게스타포가 관심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모

르십니까?》
《알고있습니다.》
《무엇을 알고있는지 이야기해보십시오.》
헨리흐는 자우겔과 마지막으로 만나 하던 이야기를 전하였으며 모니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있던것과 발전소에 있는 밀고자에 대해서 말했다.
《당신은 어떤 대책을 취했습니까?》
《자우겔을 없애치웠으며 밀고자에 대해서는 발전소와 련계를 취하고있는 모니까에게와 마키부대장에게 알렸습니다. …》
《상급전공은 이틀전에 고압전기에 붙어 죽었습니다.》
헨리흐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당신에 대해서 또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헨리흐는 밀레르가 꾸르트를 심문하던 이야기와 무기명편지를 쓴 슐쯔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골동품상인은 생각에 잠기였다.
《슐쯔는 없애치워야 합니다. 될수 있는대로 속히… 그에게 의심이 생겨 활동하기 시작한 이상 무기명편지 하나로 일이 끝나지는 않을것입니다.》
《나는 래일 아틀란찌크보루로 떠납니다. 거기서 슐쯔를 찾아낼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그의 밀고장이 몬뗴플레르에서 발송된것이였습니다.》
《무슨 임무를 받고 아틀란찌크보루로 갑니까?》
헨리흐는 에베르쓰가 준 과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공기처럼 필요한 과업입니다. 우리 동맹국들은 그 아틀란찌크보루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실로 삼고 제2전선의 개시를 지연시키고있습니다. 임무를 될수록 정확하게 수행하시오. 당신네 소장에게 보내는 보고서의 사본과 사진자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보루의 비밀을 게스타포가 자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는걸 기억하시오. 거기서 이미 몇사람의 우리 나라와 영국의 정탐일군이 죽었습니다.》
《전 무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매우 위장이 잘되였기때문에 공작을 현저한 정도로 헐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주의에 의해서라든지 쓸데없는 젊은 혈기로 자신을 드러내는 무모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응당 방관자로 서있어야 할 일에 간섭함으로써 위험속에 말려들어가는것을 몹시 근심하고있습니다. 류드비나 제끄끄와 관련된 일이 특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오래동안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 녀자의 체포가 저자신의 신변도 위협했던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것만이 동기로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위동무, 우리는 때로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수백 또는 수천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나나 당신이 짐작도 못할 그러한 계획을 파탄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지휘부에서 가질수 있는것은 우리에 대한 타산이 있어서인데 만일 그 계획을 파괴하게 된다면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보다도 열곱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젠 슐쯔에 대해서 말합시다. 나는 그자를 없애치우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다 쓰겠습니다. 그는 평화적주민을 학살하는 무서운 범죄로써 자신을 더럽힌자입니다. 그는 응당 가장 준엄한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정탐사업에 간섭하려고 결심한것은 전범자로서 받아야 할 군법에 해당한 언도를 더 촉진시킬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속을 리행할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쎈-나제르구역에 체류하는 기간에 나에게서 아무러한 소식도 받지 못할 때에는 당신이 직접 슐쯔를 처리해야 할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매우 원치 않지만 다른 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그가 당신을 정탐이라고 폭로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어느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 련락병은 믿음직한 사람입니까?》

《완전히 믿을만 합니다.》

《게스타포는 흔히 련락병을 끌어들여 의심스러운 장교들에 대한 감시를 시키군 합니다.》

《저의 련락병은 저에게 헌신적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복무하도록 만드시오. 그건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 사업에서는 많은것이 사소한 문제에 좌우됩니다. 반복해 말하지만 당신은 히틀러의 소굴에 잘 들어박혔으니만큼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오.》

《2월 4일에 베르트골드소장의 딸과 약혼식을 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골동품상인은 조금도 조소하는 빛도 없이 말하는것이였다. 《로씨야에 대한 베르트골드의 계획을 내용으로 한 당신의 통보는 접수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실현을 방해한다는것이 언제나 성공되는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장인은 혹독한 사람입니다. 히틀러도당들속에서도 그에 대한 소문이 돕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주의하시오. 그의 신임을 될수록 더 잘 리용하도록 힘쓰십시오.》

《련계는 그전대로 하면 됩니까?》하고 헨리흐가 물었다.

《아니요. 당신의 부주의로 해서 우리는 련락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돌아오면 지시를 주겠습니다. 아틀란찌크보루에 대한 정보는 내가 당신께 보내는 사람에게 넘기시오. 암호는 전과 같습니다. 몸조심하십시오. 대위동지, 다시한번 일깨워드립니다. 조심성은 우리 사업에서 비겁성이 아니라 높은 형태의 용감성이라는것을…》

늙은 골동품상인은 헨리흐와 굳은 악수를 나누고 상우에 조각품과 소품 한개를 남겨놓고 나갔다.

헨리흐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건너편 보도에 낯익은 구부정한 사람이 나타났다. 늙은 골동품상인은 걸음을 멈추더니 지갑을 꺼내들고 돈을 세여보았다. 늙은이의 주름잡힌 얼굴에는 만족한 미소가 비끼였다. 려관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골동품상인은 천천히 걸어갔으며 남모르게 창가림을 한옆으로 밀고 그를 내다보고있는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헨리흐는 안락의자에 들어앉아 이곳 쎈－레미에서 자기가 걸어온 한걸음한걸음을 분석해보면서 오래동안 생각에 잠기였다. 그렇다! 그를 찾아온 뜻밖의 손님이 근심할 근거가 충분히 있다. 부주의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으며 쓸데없는 모험을 얼마나 했던가!

전화종이 울리는 바람에 헨리흐는 생각에서 깨여났다. 밀레르의 전화였다.

《누구라고? 자우겔대신에 누가 왔다구?… 아, 나도 그 사람을 잘 아오. 꾸비쓰는 훌륭한 장교이고 참된 친구요. 베르트골드소장도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그와 친교를 맺으라구 나에게 몇번인가 충고를 준 일까지 있소. 자네 보물을 하나 얻었소. 무어라고? 들리겠다고? 어서 오시오. 저녁엔 만날수 없을것 같소. 길떠날 전날이니 일찍 드러누울 작정이요.》

헨리흐가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밀레르가 왔다.

《헨리흐, 난 오늘 저녁에 당신과 함께 지내자고 했었는데 참모부에 가니 래일 출장간다구 하더군. 어디루 가는지, 얼마동안 가는지 말도 안 하던데.》

《나의 귀환과 꾸비쓰의 부임을 위하여 드세나.》

《헨리흐, 잊어버리지 않았소? 건강이 회복된 후에 무엇인가 중요한것을 말해주겠다던걸 말이요?》

《잊을리 있나. 그러나 나는 불쾌한 소식을 친구에게 알리는데 급히 서둘진 않는다오.》

《불쾌한 소식? 최근에 어떻게 불쾌한 일이 많이 생기는지 어느게 더하고 어느게 덜한건지 분간도 못하겠소.》

《그렇게 생각하오?》

《헨리흐, 당신은 나쁜 습관이 있단 말이야. 처음엔 조바심이 나게 하고 그다음에야 본질을 말하거던.》

《좋소. 불쾌한 이야기래도 들을 준비가 되여있다면 내가 무엇때문에 말하기를 미루겠나. 마키의 참모부에서 나와 쁘파이페르를 심문한게 누군지 아나?》

밀레르는 불안에 싸여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뾜리 쉐니예 그 사람이야! 틀림없이 뾜리 쉐니예란 말이야. 지하공장에서 탈주한자 말이야. 그놈을 없애치운 대가로 당신이 5천마르크를 받았고 또 앞으로 십자훈장까지 타게 될 그자 말일세.》

침묵이 계속되였다. 다만 밀레르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렸다.

《당신외에 또 누가 그를 보았나?》

《쁘파이페르씨하고 우리 차를 몰던 운전사 그리고 베르찌나… 난 어저께야 베르찌나가 전사했다는것을 베르트골드소장에게 알렸네. 그녀자가 소장의 조카딸이란 말이야.》

《뾜리 쉐니예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하진 않았나?》

《밀레르! 당신은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야 우리의 비밀이지, 아직…》

《아직 어떻단 말인가?》 밀레르는 가슴이 뜨끔해하였다.

《아직 나와 당신이 친구로 있을 때까지 말이지!》 헨리흐는 웅심깊게 말했다.

인사를 차리느라고 한 15분 더 앉았다가 밀레르는 작별인사를 하

고 나갔다. 그의 마음속은 몹시 불안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헨리흐는 길을 떠나 그 다음날에는 벌써 쎈－나제르를 향해 리옹을 떠났다. 그 가까이에 뚈레소장의 사단이 배치되여있었다.

쎈－나제르의 경무부에서는 헨리흐의 증명서를 오래동안 꼼꼼히 검열하였다. 도착한지 한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사단참모부에 자기가 도착한 것을 알리고 자동차를 보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낮이 되여서야 쎈－나제르를 떠날수 있었다. 자동차는 여기저기 떨기나무숲이 보이고 사람 하나 얼씬하지 않는 곳으로 천천히 달렸다. 신작로옆에 배치되여있는 도로지시표옆에는 대개 두개골표식과 《조심할것, 지뢰매설지》라고 한결같이 써놓은 나지막한 말뚝들이 있었다. 털어놓고 말하면 도로를 제외하고는 지뢰를 묻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한발자국만 옆으로 벗어지면 당장에 하늘로 날아오르고말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도로는 기슭을 따라 뻗어나갔으며 거리에서 열키로메터쯤 나가서 지평선에 자그마한 수림이 보이는 오른쪽으로 급히 구부러졌다. 더 가까이 가서야 헨리흐는 높은 나무들이 우거진 사이에 보이는 몇채의 건물에 뚈레소장의 사단참모부가 있다는것을 알았다.

사단참모장 부슈마이에르대좌는 극히 공식적인 태도로 헨리흐를 맞아주었다. 그것은 특별히 신세를 질 필요도 없고 순전히 실무적인 범위내에서 응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였다.

《오신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는 요구하시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단장님이 참모부에 안계시니까 래일 아침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내가 방을 하나 내드리도록 지시를 주겠으니 오시느라고 피곤하시겠는데 거기서 좀 쉬시지요.》

헨리흐는 하는일없이 옹근 하루를 심심하게 지낼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헨리흐는 뚈레소장이 자기 사무실에서 정각 9시에 그를 만나주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지정된 시간에 헨리흐는 자기의 출장목적에 대해서 소장에게 보고하였다.

《알고있소, 알고있소.》하며 키가 크고 몸이 여윈 뚈레소장은 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말하는것이였다. 《난 이미 당신이 전권을 위임받고 온것을 알고있소. 보총 한자루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모든 자료를 당신에게 드리겠소. 부슈마이에르대좌가 그것이 요구된다는

지시를 받자마자 미리 작성해놓았소. 그러나 나는 그 문건을 우리가 매개 초소와 예비진지에 실제적으로 가지고있는것과 다시한번 대조해보라고 명령하였소. 래일 10시까지는 당신께 다 넘겨드릴것이요. 그동안은 여기서 쉬시오. 사실 우리는 화려한 려관도 그럴듯한 료리집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대신 공기는 최고요. 아마 어디 가도 이만한 곳은 없을거요.》

《원동지방, 태평양기슭 비슷합니다.》

《거기 갔던 일이 있소? 언제 갔댔소?》

《가본 일이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동부전선에도 갔던 일이 있소?》

《거기도 갔댔습니다, 1941년에. …》

《그러면 이렇게 약속합시다. 오늘 저녁에 내가 쎈－나제르에 갔다 돌아온 후에 만납시다. 동부전선에 대해서 알고있는것을 다 이야기해주오. 사실 우리 사단은 그리고 나자신도 아직 거기 가본 일이 없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있는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참 잘됐군!… 들어오시오!》

소장은 문기척소리를 듣고 대답하였다.

누군지 들어왔다. 헨리흐는 문쪽을 등지고 서있었기때문에 들어온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인사하시오, 나의 부관 슐쯔소좌요. 이분은 손님으로 온 폰 골드링 남작이시오.》 그는 장교들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헨리흐는 소좌에게 돌아서서 인사를 하였을 때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공포가 어린것을 보았다.

《소장님, 전 오래전부터 슐쯔소좌를 알고있습니다. 우린 친구사이입니다. 그렇지요, 슐쯔소좌?》

《옳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셋이서 식사를 합시다. 동부전선에 대한 회상담이나 들읍시다.》

《폰 골드링상급중위가 이야기할 내용에 비하면 저의 회상같은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는 다년간 로씨야에서 살았고 그 나라를 알고있으니까요.》

《남작, 로씨야에서 산 일도 있소? 그렇다면 더 초조하게 오늘 저녁

을 기다리게 되오. … 내가 떠나면 슐쯔, 당신도 하루종일 시간이 있으니 손님접대를 잘하시오. 저녁때까지 심심치 않게 보내도록 말이요. 만일 필요하면 내 차를 쓰오. 난 참모부차로 가겠소.》

헨리흐와 슐쯔는 소장의 사무실을 나섰다.

《내 방으로 갑시다.》 슐쯔는 소장의 방 건너편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슐쯔와 골드링은 서로 마주앉은 후에도 한참동안 말이 없었다. 처음에 침묵을 깨뜨린 사람은 헨리흐였다.

《슐쯔씨, 당신은 우리의 상봉을 그다지 달가와하지 않지요? 당신네 사단장방에서 나를 맞이하던 당신의 그 놀란 눈길은 저승에 가서나 만날줄 알았던 사람을 만난것 같은 느낌을 주더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슐쯔소좌, 당신이야 오래동안 첩보부문에서 사업한만큼 어떤 사람에 대한 밀고는 대개 게스타포의 검열로 끝을 보게 되며 거기 일단 들어가면 이 세상에 살아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걸 알고있을거요. 그러니 당신은 나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했을거고 나의 명복을 빌지 않았소?》

《당신은 여전히 수수께끼같은 말을 하는군, 남작.》

《천만에요. 난 당신과 숨박곡질을 할 생각은 전혀 없소. 슐쯔, 당신은 장교의 언약을 위반하였소, 동부전선에서의 우리의 언약을. … 나도 내 약속을 어기고 다니엘소장의 이 사진을(물론 잊지 않았겠지요.) 즉시 응당 보낼데로 보내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왔소.》

《난 약속을 어긴 일이 없소!》하고 슐쯔는 어물어물 말했다.

《몬떼플레르에서 쎈―레미 게스타포로 보낸 밀고를 누가 썼소? 리옹에 있는 군단참모부로 보낸 밀고 말이요?》 골드링은 어림대고 덧붙여 말했다. 《내가 모르는줄 아오? 나는 슐쯔소좌를 게스타포에 보내기 전에 그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달라고 우리 사단장에게 직접 청원했소. 이것은 전혀 미미한 보상에 지나지 않으며 사실 내가 당신때문에 당한 불쾌한 일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란걸 알아야 하겠소. … 이제는 그 보상이 당신에게 돌아갈것이요. 내가 어린애라고 모르겠소! 자기자신의 범죄의 흔적을 떼기 위하여 당신은 항상 나를 없애치우자고 한다는것을. …》

《당신은 나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오?》 슐쯔는 갈린 소리로 말했다. 눈에는 피발이 섰고 얼굴엔 반점이 나타났다.

《당신에겐 아무것도 바랄게 없소! 당신의 장래운명에 대해서는 게스타포가 걱정하라지. …》

슈쯔는 입을 다물었다. 어깨를 추켜올리고 구부정해서 두손의 손가락으로 무릎을 움켜잡고있는 그 모양은 자기 희생물에 덤벼들 준비를 갖추고 그놈을 이겨낼수 있을가 가늠하고있는 짐승을 방불케 하였다.

《다 알았을줄 아오. 이 이상 당신에게 시끄럽게 굴지 않겠소, 슈쯔.》

헨리흐는 일어나서 문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골드링!》 슈쯔는 벌떡 일어나며 웨쳤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눈섭을 찌프리고 악에 받쳐 서있었다.

《내게 할말이 있소? 소좌!》

《난 경고하고싶소. 내가 게스타포에 잡혀가기 전에 당신이 지옥으로 갈줄 알란 말이요!》 슈쯔의 목소리는 마치 여러날 지나치게 술을 마시고난 후처럼 갈린 목소리였다.

골드링은 급히 소좌에게 다가갔다. 슈쯔는 권총을 주머니에 밀어넣었다. 그러나 헨리흐가 그것을 눈치챘다. 그는 두손으로 슈쯔의 팔꿈치우를 틀어잡고 굉장한 힘으로 그를 들어올려 안락의자에 밀어던졌다.

《당신은 잊었소? 슈쯔, 당신이 이 사진을 나에게 선물한 날 있었던 우리의 사격시합을?… 혹은 또다시 나하고 정확성과 신속성을 겨루어보자는거요?》

《골드링, 그 사진의 대가로 얼마나 요구하오?》

《등신같은 말 마오! 나는 당신것을 몽땅 다 살수도 있을만큼 부자요. 나에게 얼마나 요구하는가고 묻다니! 도이칠란드장교가 자기의 언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자기의 피로써 그 죄를 씻는 법이요! 그러나 모든 비겁분자들이 그러한것처럼 당신에게는 그럴만한 용기가 부족하오! 그렇기때문에 나는 게스타포일군들이 있는데서 그렇게 하도록 당신에게 방조를 주는것을 나의 의무로, 정직하게 말해서 나의 유쾌한 의무라고 생각하오. 그들은 당신이 사진에 열중한 원인을 알아낼수 있을거요.》

《나는 그때부터 사진을 찍지도 않았소.》

헨리흐는 웃음을 터쳤다.

《그건 또다시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될거요. 슈쯔, 당신은 〈철

권〉 작전계획원판을 볼쉐비크들에게 너무나 비싼 값으로 팔았기때문에 더는 돈이 필요치 않게 되였다는 말이 될뿐이요. 헛된짓이요! 슐쯔, 당신은 영국사람들이나 미국사람들에게서도 많은 돈을 벌수 있었을것이요. 그들은 아마 당신네 사단구역에 있는 아틀란찌크보루의 사진만 가지고가면 상당한 돈을 내놓을것이요. 자신있게 말하지만 수만딸라는 벌수 있었을거요. 혹시 당신에게는 더 많은 돈이 있는게 아니요? 난 간첩자료나 사진에 대한 값을 잘 모르오, 례컨대 여기 있는 지도를. …》하고 헨리흐는 지도를 가리우고있는 막앞으로 다가가서 그것을 벗기였다.

《이건 무언가? 아, 지뢰원배치도이군. 이건 시시한거군… 그러나 아틀란찌크보루에 있는 사단장의 부관에게는 지뢰원지도보다 훨씬 더 흥미있는것들이 있겠지.》

슐쯔는 지도앞으로 다가가서 막을 가리웠다.

《장교의 언약이라? 당신께 그것이 있소? 당신은 벨라루씨에서 나에게 언약을 하지 않았소?》

《난 겁이 나서…》

《당신에겐 내가 언약을 어길것이라고 생각할 무슨 근거라도 있소?》

슐쯔는 대답이 없었다.

《당신이 그것을 위반하였으니 당신이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하오.》

《골드링! 당신이 원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소. …》

《나에겐 당신에게 요구할게 아무것도 없소. 무장에 대한 모든 자료는 참모장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있소. 래일 나는 사단장에게서 통행증을 하나 얻어가지고 구역을 돌아보면 나의 임무는 다 끝나오. 당신이 무엇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겠소?》

《강화된 지점들에는 당신을 통과시키지 않을거요.》

《그럴테면 그러라지! 난 별로 흥미도 없소. 돌아가서 사단장에게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다요.》

《내가 당신께 특별통과증을 마련해주겠소. 지뢰원지도도 주겠소. 필요한 문건들도 다 준비해주겠소. 당신은 쎈-나제르에 갔다올수도 있소. 심심풀이할만 한 곳을 알려주겠소.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다 만들어놓겠소.》

《그래 그따위 소소한것으로 나의 입을 틀어막겠단 말이요, 슐쯔?》

《골드링! 폰 골드링님! 난 그것이 당신께 만족을 줄수 없다는것을 아오. 그러나 맹세하겠소. 이제는 어디서나 결단코 당신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겠소! 당신이 나를 의심할 근거는 조금도 없소. 당신의 량심은 전혀 꺼릴것이 없소. 그 사진은 단순한 정황의 비극적인 부합에 불과하오. 나는 내가 무고하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소. 그러나 내가 게스타포에 한번 잡혀가기만 하면 나의 일생을 망치고마오.》

헨리흐는 생각에 잠기는척 하였다.

《좋소. 슐쯔, 오늘은 강화된 지점이나 보여주오. 저녁때는 소장한테로 가고 래일은 문건들을 내가 접수한 후 함께 쎈-나제르로 가서 약간 소풍을 합시다. 래일이 마침 토요일이니까 동부전선에서 함께 싸운 친구를 바래주겠다고 하고 몇시간 갔다오겠다면 허락하겠지.》

슐쯔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피뜩 스쳐지나갔다.

《암, 시간을 주구말구!》하며 그는 매우 기쁘게 동의하는것이였다. 그것은 헨리흐에게 이상한 촉감을 주었다.

《자, 내 증명서를 드리겠으니 통과증을 수속해주시오. 함께 구역을 돌아봅시다. 난 참모부옆에 있는 정자에서 기다리겠소.》

헨리흐는 슐쯔가 자기를 없애치우기 위해서라면 무슨짓이든 못할일이 없으리란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도중에는 감히 그러지 못할것이다. 참모부에서는 골드링이 누구와 함께 갔는가를 알고있으며 더구나 그들은 항상 사람들속에 있을것이기때문이였다. 슐쯔는 더 편리한 기회를 기다릴것이다. 그는 아마도 그들이 둘이서 쎈-나제르에 가기로 한 래일을 생각하고있을수 있다. 어디 보자, 누가 누구를 해내는지?

《갑시다.》 슐쯔가 정자의 입구에 나타나서 알려주었다.

출입구옆에 자동차가 있었으나 운전사는 없었다.

《운전사없이 가겠소?》 헨리흐가 물었다.

《내가 운전하겠소.》 슐쯔가 말했다.

수림속을 벗어난 후 자동차는 기슭을 따라 서서히 달려갔다.

《그 유명한 아틀란찌크보루는 대체 어디요?》 헨리흐는 하품을 하며 물었다.

《물론, 보루란게 별로 없소. 우리 구역에는 없단 말이요. 우리 사단은 42키로메터거리에 널려있는데 훌륭하게 강화된 지점은 세군데 있을뿐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그중의 한곳이요. 기타것은 다 우리가

보게 될 그 지점과 똑같소. 그 지점들사이에 지뢰원이 있소.》
《그러나 우리 신문들에서는 난공불락이니 뭐니 하고있지 않소. …》
슐쯔는 비웃음을 지었다.
《당신네 사단이 이곳으로 배비변경해오면 직접 알게 될거요.》
10분쯤 되여서 자동차는 멎었다. 헨리흐는 놀란듯 둘러보았다. 아무러한 방어축성물도 보이지 않았다.
《슐쯔, 롱담이 아니요?》
《롱은 무슨 롱이겠소. 저 그물이 보입니까? 자세히 보시오.》
나무잎빛갈의 빽빽한 그물밑에 반땅크토목화점이 세줄로 뻗어나가고있었다. 헨리흐는 슐쯔가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야 모든것을 살펴보았다. 방어축성물뒤에 위장된 반땅크호가 뻗어가고있으며 그뒤에는 땅속에 파놓은 철근콩크리트화점들이 있는데 화구들이며 이동식장갑지붕들이 보였다. 그 매개 화점에는 땅속 깊은 곳에 몇개 층으로 된 견고한 지하포대가 있었다. 그곳에서 병사들이 생활하였으며 식량창고며 탄약고 그리고 예비무기들과 물저장탕크가 있었다. 매개 중대에 그러한 화점이 일여덟개 배속되여있었다. 그러한 중대화점의 지하포대에는 잠망경이 설치되여있었으며 해당 중대에 분담된 전체 구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줄수 있는 지도가 벽에 걸려있었다. 그 지도에는 화점들, 매개 화점의 사격구역, 지뢰원과 그 통로들이 표식되여있었으며 병사들과 탄약의 수량이 지적되여있었다.
제1선 화점뒤에는 좀더 위력한 제2선이 있고 그뒤에는 가장 위력있는 제3선이 있었다. 이 세개 선들이 다 지뢰원으로 서로 구분되여있었다.
헨리흐는 몇개의 강화된 화점들에 가보고 그 다음 슐쯔에게 중대지휘소나 보자고 제의하였다.
사단의 배비변경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슐쯔는 골드링을 중대장에게 소개할 때도 그를 군단참모부의 파견자로 말하였다. 헨리흐는 지휘관들과 활기있게 담화를 하였으며 마치 군단참모부에서 들은 소식인듯이 말하면서 동부전선에 대한 즐거운 소식들도 전했다. 강화된 구역의 지도를 볼 때에는 그 표식의 정확성을 찬양해주기도 하고 혹은 간단한 의견을 주기도 하였다. 중대장들에게는 매우 소탈하게 자기들을 대해주는 유쾌하고 기지가 있는 이 장교가 몹

시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가 항상 왼손을 군복앞섶에 대고다니는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가장 평범한 단추구멍으로 단추모양으로 위장된 자동사진기가 장치되여있다는것을 아무도 짐작할수 없었다.

세개의 강화된 구역을 다 돌아보고나서 저녁 7시가 되여서야 마침내 슐쯔와 골드링이 맥이 나서 사단참모부로 돌아왔다.

《만족하오? 남작!》 그들이 세면을 할 때 슐쯔가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불만족하오. 나는 이곳에 참다운 난공불락의 요새가 구축되여있는줄 알았는데 다만 따로따로 분산된 방어축성물이 있을뿐이니 그것은 적들이 용의하게 분쇄할수 있을것 같소.》

《당신은 그 매개 구역간에 호상 련계가 맺어지기때문에 한번 보고 느끼는 인상보다도 훨씬 더 위력하다는걸 느끼지 않았소?》

《나는 큰 전문가도 아니니까 내 의견이야 주의해 들을게 못되오. 나는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에베르쓰소장에게 보고할수 있게 된것이 매우 기쁘오. 결론이야 그자신이 지으라지.》

련락병이 와서 뙤레소장이 골드링과 슐쯔를 초대한다는것을 알렸다. 강화된 구역을 돌아본 후이라 헨리흐는 피로해서 무엇보다도 휴식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소장의 친절이 귀치 않았다. 더우기 소장에게서 무엇인가 새롭고 흥미있는것을 알아낼 희망이 전혀 없었다. 오늘 돌아본 결과 아틀란찌크보루의 모든 비밀이 특별히 감도가 높은 현미필림속에 수록되여 헨리흐의 주머니안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초대에 응하지 않는것도 거북한 일이였다.

뙤레는 손님들을 매우 친절히 맞이하였다. 그는 저녁식사에 대해서도 생각해두고 술을 선택하는것도 미리부터 생각해두었다. 식사할 때의 담화는 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기있게 진행되였다. 소장은 친절한 주인노릇을 잘하였다. 이야기는 주로 로씨야에 관한것이였다. 소장은 동부전선으로 떠나기 전에 수수께끼같이 느껴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 될수록 더 알고싶어하였다. 그는 헨리흐에게 계속 질문을 들이댔으며 대답하는 말을 매우 주의깊게 들었다. 쏘련인민들의 생활과 풍습, 로씨야사람들, 우크라이나사람들, 벨라루씨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그는 동부전선에서의 도이췰란드군대의 모든 실패의 원인을 해명하는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

각하였다.

《우리는 단순한 정복자로서만 처신하였소. 그런데 만일 강점된 지역을 견지하려면 정복자는 외교관으로, 심리학자로도 되여야 하오.》하고 똘레는 자기의 사상을 요약해서 말했다.

그는 분명 자신을 세련된 외교가로, 식견이 넓은 인간으로 간주하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의견이나 발언들은 그에게 비록 파고드는 점이 있기는 하나 제한성을 가진 사람이라는것을 증명해주었다. 그래서 헨리흐는 소장이 동부전선에 가서 히틀러도당에게 강점된 지역의 주민들과 맞다들리기만 하면 그의 모든 환상이 산산이 깨져버리리라는것을 어느 정도 고소하게 생각하였다.

저녁식사가 끝날 즈음에 소장은 골드링과 슐쯔에게 뜻밖의 소식을 알리였다.

《폰 골드링, 당신은 지죤에 있는 우리 군단참모부에 꼭 들려야 하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자료들은 이미 준비되여있습니다. 부슈마이에르대좌가 래일 아침에 주시기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비준된것을 말입니다. 더 지체할 일이 없을것 같은데요?》

《아니, 그 말이 아니요. 우리측에서 지체될 일은 없소. 래일 아침 9시에는 약속대로 모든걸 다 접수하게 될거요. 그래도 지죤에 꼭 가야 하겠소. 문제는 우리가 전에 제1선방어축성물에 대한 재건안을 낸데 있습니다. 만일 그 초안이 채택되면 당신이 우리에게서 받게 될 자료들이 재건과 관련해서 약간의 시정을 해야 할거란 말이요. 우리도 역시 동부전선으로 떠나기 전에 아마 일부 무기들을 교체하게 될것 같소. 그렇게 되면 당신네 사단에 이것저것 남겨두고 갈수도 있소. 이런걸 다 알아내야 하오. 내 생각엔 래일 우리에게서 모든 자료를 다 받은 후 슐쯔소좌와 함께 지죤으로 가서 이 문제들을 마지막으로 확정하는게 좋을것 같소. 하루쯤 친구와 함께 더 지내는것을 반대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오.》

헨리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동의한다는 의향을 표시했다.

《당신은 어떻소, 소좌.》

《저는 골드링상급중위와 더 오래 있을수록 더 행복하겠습니다!》 슐쯔는 기꺼이 대답하였다.

(슐쯔는 똘레의 제의를 듣고 분명 기뻐하고있구나. 혹시 방어축성물을 돌아볼 때 무슨 궁리를 한것이 아닐가? 자기에게 련계가 있을수 있는 군단참모부에서 나를 궁지에 빠뜨리게 하자는것이 아닐가? 아니다, 설마라니! 슐쯔는 아틀란찌크보루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지금 나를 여기서 내보내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것이다. 나는 도중에 도망칠수 있다. 그러나 그자신이 나를 보루에 데리고 다녔으며 자신이 통과증도 만들어왔다. 다니엘소장이 찍힌 이 사진을 그에게 돌려주고 평화적으로 작별하는게 어떨가? 내가 필림을 전달하기 전에 그래도 좋을가? 사진을 받기만 하면 그는 결박이 풀린것을 느낄것이며 즉시 철천지 원쑤로 생각하는 나에게 이미 무기명편지의 발신자로서가 아니라 로골적으로 싸우자고 덤빌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는것으로 된다. 나를 도중에 억류할수 있다. 그때에는… 아니다. 유일한 출로는 슐쯔와의 결투이다. 그 결투에서 반드시 승리자로 되여야 한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헨리흐는 생각하였다.

이튿날 헨리흐와 슐쯔는 이미 난떼에 와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지죤으로 가는 기차를 갈아타야 하였다.

알아보니 기차를 저녁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그들은 점심도 저녁도 한식탁에 마주앉아 먹었다. 누가 옆에서 그들의 거동을 살펴보았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하였을것이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서로 자기 살이래도 떼줄수 있는 막역한 친구로군!) 그들은 그렇게 음식도 술도 다과도 서로 아낌없이 대접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술을 더 권했다. …

한마르크의 돈을 쓸 때도 마치 그 돈을 놓기가 아까운듯 오래동안 만지작거리군 하였으며 한프랑의 돈이라도 구석깊은 곳에 숨겨두군 하던 그 슐쯔, 바로 그 슐쯔가 오늘은 골드링남작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좋은 상표가 붙은 포도주를 주문했으며 가장 비싼 꼬냐크술을 대접했으며 감로주도 아낌없이 청했다. 슐쯔소좌는 그의 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잔을 입술에 대기만 하는것이 불안하였다.

폰 골드링남작은 언제나 그렇듯이 인심이 후했으며 친절하였다.

《슐쯔, 언제부터 그렇게 절제있게 되였소?》 헨리흐는 소좌가 비

싼 술을 너무 조금씩 마시는것을 보고 물었다.
《동부전선에서 당신과 갈라진 후부터요. 난 도이칠란드가 승리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댔소.》 소좌는 비록 그의 불그레하게 주독이 오른 코며 늘어진 눈시울이 그가 결코 금주법의 옹호자가 아니였다는것을 명백히 증명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이렇게 하였다.
객차호실에서도 이 두 친구는 역시 함께 있었으며 딴사람은 들어오지 않았다. 슐쯔는 그 객차호실에 다른 사람을 더 들이지 않으면 적지 않은 보상을 주겠다고 차장에게 약속하였다.
《조용히 휴식이나 할수 있어야지, 골드링남작. 난 늘 혼자 다니기를 좋아하오. 내내 자군 하지. 결국 기차려행이란 하나의 휴식이라니까.》 하며 슐쯔는 만족한 기분으로 말하였다.
《당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오.》하고 골드링은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헨리흐는 눈을 감고 내의단추도 벗기고 베개에 기대누웠다. 슐쯔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5분쯤 지나서 헨리흐의 고르롭고 평온한 숨소리가 들렸다. 잘 훈련된 그 숨소리를 듣고는 골드링이 자지 않고있다는것을 조금도 느낄수 없었다. 그는 완전히 다 감지 않은 눈으로 자기 상대편 사람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감시하고있었다.
슐쯔의 눈까풀이 한번, 두번 떨렸고 눈의 작은 틈이 알리게 되였다. 그의 긴장된 시선은 헨리흐의 얼굴에서 잠이 들어 근육이 나른해지기를 열심히 살피고있었다.
헨리흐는 눈을 뜨고 기지개를 하고나서 하품을 하였다.
《제길할, 자고싶질 않군. 잠이 들수 없을것 같거던!》 그는 역시 방금 잠이 깬척 하고있는 슐쯔에게 불평조로 말했다.
《군복을 시원히 벗어보구려.》 슐쯔가 의견을 주었다.
《당신은 어째 자지 않소, 어째 옷도 벗지 않소?》
《난 옷을 입고도 자고 앉아서도, 지어는 서서도 자는데 습관이 되여서…》하고 슐쯔는 눈을 감으면서 대답하였다.
또다시 오랜 침묵이 계속되였다. 두 길손은 꼭 감지 않은 눈으로 서로서로 주시하였다. 헨리흐는 잠이 들어 나른해졌는가.
그는 오늘 잠들 권리가 없다. 슐쯔가 오늘 돈도 아끼지 않고 너무나

지나치게 대접한게 이상하지 않는가! 소좌도 매우 조용히 숨을 쉬고있었다.

려행중에 잘 잔다고 자랑하였다.

헨리흐는 일어나서 초인종단추를 눌렀다.

《진한 커피를 한고뿌 가져오시오.》 렬차안내원이 나타나자 헨리흐는 명령하였다.

《남작! 어째 그러시우! 밤에 커피를 마시다니!》 슐쯔의 목소리에는 흥분된, 지어 애원하는듯 한 기분이 어리여있었다.

《소좌, 어째 그런지 나도 모르겠소. 당장에 잠이 들지 못하고 지금처럼 졸기나 하면 온밤을 잡치고 만다니까. 차라리 커피나 마시고 잠을 아예 쫓아버리는것만 못하오.》

《수면제를 잡숴보시오.》

《나에게 그것이 없는것이 첫째 리유이고 내가 좋아 안하는게 둘째 리유지요.》

《나한테 루미날이 있소.》하고 슐쯔가 기꺼이 권했다.

《루미날은 아예 쓰지 않소. 그걸 먹으면 이튿날 아침에 머리가 무거워서.》

렬차안내원이 검은 커피 한고뿌를 가지고와서 말없이 상우에 놓았다.

《나한테도 갖다주오.》 슐쯔가 명령하였다.

《슐쯔, 방금 내가 커피를 청한다고 반대하더니.》

《당신 혼자 앉아있게 하고 나만 자서야 인사가 아니지…》

《어째서 말이요?》

슐쯔는 대답하지 않고 안내원이 가져온 커피를 조금씩 마시였다.

헨리흐는 천천히 마시면서 자그마한 모빠쌍의 책을 흥미있게 읽고있었다.

슐쯔에게는 책이 없었다. 그는 분명 어리둥절한 모양이였다. 커피는 다 마셨으니 소좌는 할일이 없었다.

《남작, 무엇 좀 읽을게 없소?》

《유감스럽게두 없소.》

헨리흐는 책을 탁자에 놓고 객차호실밖으로 나갔다. 잠시 그는 복도에 서있다가 무엇때문인지 빙긋이 웃고 세면실로 갔다.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자 걸음소리가 났다. 누군지 손잡이를

돌린다. 헨리흐에게는 슐쯔의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헨리흐는 1분, 2분, 3분… 기다리다가 마침내 나갔다. 문앞에 슐쯔가 서있었다.
《당신은 놀랄만큼 사교성있는 길동무이군.》 헨리흐는 객차호실로 들어갔다.
슐쯔는 세면실로 들어가더니 인차 돌아왔다. 그의 뒤를 따라 렬차안내원이 빈고뿌를 치우러 들어왔다.
《커피 한고뿌 더 주오!》 슐쯔가 명령하였다.
《나에게도 가져오오.》 헨리흐가 덧붙여 말했다.
안내원은 장교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더니 묵묵히 나갔다. 슐쯔는 팔에 머리를 고이고 앉아있었다.
《소리내서 읽어보지 않겠소?》 그는 헨리흐에게 물었다.
《랑독자로선 나는 아주 재간이 없다오.》
슐쯔는 창가림을 밀어제꼈다. 그 틈으로 밤의 어둠속을 내다보고있었다. 헨리흐는 불을 껐다.
《어째 그러오?》 슐쯔는 소리치며 창문에서 물러났다.
《밤에는 창가림을 열지 않게 되여있소. 마키들중에는 진짜 우수한 사수가 있단 말이요, 슐쯔.》
소좌는 화가 나서 창가림을 닫았다.
《당신은 온밤 자지 않을 작정이요?》 시계가 3시 15분전을 가리키는것을 보자 슐쯔가 마침내 참지 못했다.
《그렇소!》
《어째서?》
《당신이 내가 자는데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있는 바로 그때문에.》
슐쯔는 가쁜숨을 쉬며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때 기차에서는 구—구—구! 구—구—구! 하는 귀에 익은 불안한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있는 기차안으로 방송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의하십시오! 영미항공대의 한개 중대가 라—만샤쪽으로부터 프랑스국경을 넘었습니다.》
헨리흐는 군모를 쓰고 야전가방을 군복상의안에 넣었다. 그가 슐쯔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그의 긴장한 눈길과 마주쳤다. 아마도 소좌의 머리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른 모양이였다. 그의 눈은 불시에 반짝이기 시

작하였다.

《주의! 주의! 비행중대는 곧바로 지존을 향해오고있습니다. 기차를 세우겠습니다. 모두 차칸에서 나가 철뚝을 따라 엎디십시오!》 방송원이 명령하였다.

승객들은 모두 객차호실에서 급히 나왔다. 기차바퀴가 끌리는 소리를 내더니 차는 부르르 떨었다. 헨리흐는 출구쪽으로 달려갔다. 그때 자기 목덜미에서 슐쯔의 뜨거운 입김을 느끼였다. 그는 돌아서며 한쪽으로 비켜섰다.

《당신이 상급인데 먼저 나가시오.》

《당신은 손님인데.》

정황은 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헨리흐는 웃음을 참을수 없었다. 그는 슐쯔의 손을 잡고 함께 기차에서 뛰여내렸다. 두사람은 잡은채로 발을 맞추어 뚝을 따라 뛰였다. 그다음 뚝에서 뛰여내려 웅뎅이에 머리를 맞대고 엎드렸다. 비행기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하늘은 이미 희끔히 밝아오고있었다. 헨리흐는 우를 보느라고 머리를 들었다. 그 순간 그의 눈길은 슐쯔의 손에 떨어졌다. 그의 손은 권총집에 가있었다.

《슐쯔! 당신은 권총사격으로 적의 폭격기를 쫓아볼 작정이요?》 골드링의 목소리에도, 그의 얼굴에도 조롱하는 빛을 숨길수 없었다.

《아니다, 남작. 나는 당신을 쏠 작정이다!》 슐쯔의 갈린 목소리가 나자 그는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냈다.

폭탄이 우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짓눌러버렸다.

다음날 아침 참모부에 도착한 똘레소장은 비애에 잠겨 머리를 숙이고 무슨 전보를 그에게 내밀고 서있는 직일관을 놀란듯이 바라보았다. 소장은 처음에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전보를 두번다시 읽고서야 그 뜻을 리해하였다.

《오늘 새벽 적항공습격시 귀하의 부관이며 저의 오랜 친우인 슐쯔소좌가 전사하였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함. 남작 폰 골드링상급중위.》

똘레는 경건히 십자를 그었다.

큰 사건의 먼 방향

1943년 1월말부터 7월초에 이르는 동안 방송원의 씩씩한 목소리는 꼭 같은 보도를 하였다. 전선의 단축에 대하여, 미리 준비된 진지에로의 이동에 대하여, 전술적목적으로 동부전선의 이러저러한 주민지점을 내준데 대하여 알렸다. 무식쟁이를 대상으로 불어대는 이 보도들은 에베르쓰소장이나 그의 선생이며 친구인 제누쓰와 같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가리울수는 없었다. 어찌 그들에게뿐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강점군참모부에서의 회의들에서는 동부전선에서의 사건이 항쟁운동지지자들의 미증유의 적극적활동을 불러일으켰다는것을 변함없이 강조하는것이였다. 객관적으로 사고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겝벨스가 제아무리 활기있는 어조로 말한다 해도, 해설원들이 제아무리 빈말을 늘어놓는다 해도 볼가강변에서 도이췰란드군대가 격멸된 후 도이췰란드군대의 불패성의 신화가 산산이 흩어져버렸다는것이 명백하였다. 총통의 불가침성에 대한 신념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제누쓰도 에베르쓰도 총통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니였다. 만일 총통의 군대가 모스크바부근에서와 볼가강변에서 격멸되기 전과 같이 그렇게 막을수 없는 격류처럼 공격해나간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섭섭한 심정도, 전부터 가졌던 위구도 잊어버리고 감동적으로 《하일!》을 소리쳤을것이며 총통을 신처럼 모셨을것이다. 동부전선에서의 사건들은 그들을 다시 각성시키기 시작하였다. 로씨야에서의 격전이 쏘련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들이 예견했던 그대로 전개되였을 때 그들은 제정신이 들었다. 총통은 도이췰란드를 절벽가에 세워놓았다. 도이췰란드는 거기서 거진 굴러떨어질 지경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도이췰란드 최고지휘성원들속에서 도이췰란드를 구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해보려는 동료들의 조직을 무어보자는 제누쓰의 시도는 지금까지도 극복하기 어려운 곤난에 부딪치고있었다. 문제는 그러한 조직에 들어갈것을 승인한 매 사람에게 닥쳐올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에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군대의 최고지휘성원들중에 있는 히틀러의 반대자들까지도 그를 반대하는 적극적행동에서 물러서게 하는 다른

원인들이 있었다. 그러한 원인의 하나는 히틀러의 대표와 영국 및 미국과의 무슨 담판이 있는듯 한 낌새가 있는것이였다. 담판은 오래 끌었다. 그 담판이 그래도 긍정적결과를 주지 않겠는가! 동부에서 전쟁이 2년째 계속되는데 제2전선은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한 론박할수 없는 사실을 반대할만 한 근거가 제누쓰에게는 없었다. 둘째 원인은 1943년 여름에 동부전선에서 전변이 일어난다는 신념이였다. 공식적인 약속들을 통해서뿐만아니라 금년 여름에 쏘베트군대를 반대하는 어떤 굉장한 작전을 최고군부에서 준비하고있다는 소문에 의해서도 유지되고있는 것이였다.

모두가 그 작전의 개시를 기다리고있었다. 총통의 지지자들도 그랬고 그의 적들도 그랬다. 지금 전격전의 리론이 파탄되였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전쟁은 모든 기대와는 달리 오래 끌었으며 도이췰란드의 력량은 점점 약해져갔다. 도이췰란드군대의 위신을 회복할뿐만아니라 군대의 사기도 높이고 가까운 시일에 반드시 승리적인 전쟁의 종결을 지을수 있다는 신심이 나게 할만 한 찬란한 승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났으나 동부에서 있기로 약속된 작전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에베르쓰소장은 라지오만 헛되이 틀어놓고있었다. 라지오에서는 련일 아침부터 밤까지 군대행진곡만 울려나왔다.

7월 5일 아침에 방송은 심상치 않게 시작되였다. 처음에 웅장한 취주악이 울렸다. 그 쟁쟁한 음향이 집안의 아침정적을 불의에 깨친것이였다. 그때 면도를 하고있던 에베르쓰소장은 자칫하면 살을 벨번하였다. 비누거품도 닦지 못하고 손에 면도칼을 든채 소장은 라지오앞으로 달려갔다. 그렇다! 기다리고기다리던 작전이 시작되였다!

마치 서로 승갱이나 하듯이 방송원들은 숨이 막힐 지경으로 오늘 새벽 네시반에 총통의 명령에 의하여 조국의 무적의 군대는 막을수 없는 격류처럼 꾸르쓰끄방향에서 적의 진지를 돌파하였다는것을 보도하느라고 서둘렀다. 전선이 표시되여있는 지도를 보면서 에베르쓰는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만일 종국적목적이 모스크바로 향하는 길이라면 바로 여기서 작전이 시작되여야 한다고 그도 생각하고있었던 것이다.

작전의 목적도 규모도 밝혀지지 않은것을 보면 최고지휘부가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에베르쓰는 참모부에 전화를 걸고 직일관에게 전체 장교들이 례복을 입고 훈장과 메달을 있는대로 다 달고 출근하도록 알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다음 종이를 꺼내들고 시작된 작전의 력사적의의에 대한 보고요강을 작성하였다. 그는 장교식당에 모인 전체 장교들앞에서 이 연설을 할 결심이였다.

그러나 에베르쓰는 그 연설을 하지 못하고말았다. 그가 참모부로 떠나자고 하는 30분전에 직일관이 전화로 보고하였다.

《마키의 대부대가 제17호초소를 습격하였습니다. 마키는 경비하고있는 대상물에 돌입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파울중위는 즉시 지원부대를 보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존력량으로는 격퇴할수 없답니다.》

이 소식은 너무나 뜻밖이여서 소장은 당황하였다. 그는 매일 마키가 주민지점을 습격하였다거나 순찰병이나 장교를 습격하였다는 통보는 흔히 들었으나 대부대를 가지고 강화된 초소에서 전투를 시작한 일은 아직 없었다.

소장은 두개 중대를 자동차에 앉히고 참모장, 류쯔 그리고 골드링을 동반하고 직접 자기가 작전을 지휘하기 위하여 뽄쩨이로 돌진하였다. 그러나 파울을 돕기 위하여 도착한 병사들은 전투에 진입하지도 못했다. 그들은 보통 장의사들이 할일이나 하는수밖에 없었기때문이였다. 초소의 위수부대성원은 파울중위와 함께 전멸되였다.

차굴입구를 경비하던 에쓰에쓰부대도 지원을 할수가 없었다. 마키들은 포탄을 아끼지 않고 차굴을 메워버리거나 적어도 입구만이라도 폭파시키려 하였다.

그래서 믿을수 없는 일이 생긴것이였다. 강화된 화점이 소멸되고 전체 위수부대성원들이 전멸하였으니 사단장은 전투의 진행정형을 군단참모부에 보고할수도 없었다. 그는 초소에 습격해온 부대의 인원수도 몰랐으며 마키가 어떻게 무장했는지, 어디로 종적을 감추었는지도 알수 없었다.

오늘의 불쾌한 일은 그것으로 끝난것이 아니였다. 병사들이 전사자들의 매장을 끝낼가말가 하였을 때 참모부로부터 오토바이대원이 새 소식을 가지고 달려왔다. 에쓰에쓰대원들과 함께 고개길을 경비하고있던 렵기병소대를 마키들이 습격해서 경비를 격파하였기때문에 그들은 하는수없이 산으로부터 물러서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이였다.

그것은 이미 전쟁과 흡사하였다. 파괴된 초소에 위수부대를 남겨놓고 에베르쓰는 남은 병사들과 함께 고개길로 달려갔다. 렵기병중대장은 전사하였고 부중대장 그렉케가 정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아침에 전혀 뜻밖에 습격이 있었다는것이였다. 마키들은 전연초병들에게 덤벼들어 감쪽같이 그들을 제껴버린 다음 초소를 습격했다는것이였다.

고개길을 점거한 마키를 즉시 공격한다는것은 생각할수도 없었다. 그렉케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자동총과 기관총으로 무장한 중대이상의 력량이라는것이였다.

그래서 하는수없이 참모부로 돌아와 작전계획을 세운 다음 현상태를 수습하는 방도를 강구할수밖에 없었다.

쎈—레미에 돌아온 후 에베르쓰는 또 두건의 습격사건을 알게 되였다. 쎈—레미가까이에 있는 교량을 경비하던 위수부대와 샴베리에서 수십키로메터 떨어져있는 자그마한 대피역부근의 초소에 대한 습격사건이였다. 교량을 지키는 위수부대습격은 마키들의 실패로 끝난것이 사실이였다. 그러나 오늘 일어난 다른 모든 불쾌한 일들에 비추어본다면 이 작은 성과는 우연적인것으로 보일뿐이였다.

장교들이 례복을 차려입고 소장을 맞이한것이 때에 어울리지 않았다.

에베르쓰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마키가 상당히 큰 력량으로 잘 조직된 작전에 의하여 네건중 세건의 승리를 달성하였을뿐만아니라 사단참모부와 그자신을 당황케 한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에베르쓰를 《료양사단장》이라고 롱으로 부르던 군단장에게 이 모든점에 대해서 보고하는것이 에베르쓰로서 얼마나 기분나쁜 일이겠는가!

밀레르는 에베르쓰에게 위안이 되는 소식을 가져왔다. 그는 에쓰에쓰계통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에 의하면 마키는 분명 유일적인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인것 같다는것이였다. 오늘 아침에 에베르쓰사단의 경비구역에서뿐만아니라 모든 산기슭의 구역들에도 습격사건이 있었다. 빨찌산과의 투쟁을 최대한 강화하고 빨찌산과 조금이라도 련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몽땅 체포하고 탄압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게스타포와 밀레르에게 내렸다.

라지오는 온종일 잠잠하지 않았다. 방송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올호바트까란 곳으로 땅크종대가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는 소식으로 청취자

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기세좋은 행진곡을 중단시키군 하였다. 꾸르쓰끄로 가는 길을 도이췰란드군대에게 열어주려면 그곳을 뚫고나가야 한다는것이였다. 보도는 비록 쏘베트군대가 필사적인 저항을 하고있기는 하지만 작전은 미리 예정했던 계획대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저녁때 꾸비쓰가 헨리흐에게 들렸다. 그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것은 그가 필요한 분량의 모르핀을 맞았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였다. 그의 눈은 빛나고 동작이 민활하였으며 얼굴전체가 즐거운 흥분상태에 있었다.

《남작, 내가 온것은 베르트골드소장에게 의견이 있기때문이요.》 하고 꾸비쓰는 문안에 들어서자부터 롱조로 말을 시작했다. 《그가 나를 쎈-레미로 가라고 선동할 때는 나에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휴식이 있을것을 약속했다오. 그런데 정작 와보니 먼 벨라루씨를 련상케 하는 그런 긴장한 정황속에 빠졌단 말이요.》

《꾸비쓰, 무슨 특별한 의견도 아니군! 우리가 만난 첫날부터 나는 그 불평을 듣고있소.》

《그래도 신소를 하겠소!》

《그대신 동부전선에서 기쁜 소식이 있지 않소.》하고 헨리흐가 한마디 던졌다.

《기쁜 소식? 당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라지오를 듣지 않았소?》

《내가 들었기때문에 말하는거요. 온종일 라지오를 끄지 않고 계속 들었는데 머리가 아플 지경이요. 바로 그렇기때문에 동부전선의 소식이 즐거운 소식이라고 말할수 없다는거요. 당신은 전선용사가 아니니까. 남작, 내 말을 용서하오, 실정을 모른단 말이요. 돌격조가 하루동안에 전투하면서 돌파하는데 4키로메터를 전진했다면 당신생각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것 같소?》

《그야 적이 퇴각하고 우리가 공격한것이지.》

《아, 당신은 전쟁 초기에 없었지! 그때에 있었더면 공격이라는것이 어떤것인지 알았을거요. 아침에 우리가 국경을 넘어섰다는것을 들었다면 낮에는 30키로메터나 깊이 들어갔고 저녁때에는 국경에서 40키로메터 떨어진 곳의 도시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단 말이요. 이것

이 바로 공격이라는거요! 그런데 지금 온 하루동안에 4키로메터라니. 그놈의 동부전선에선 어떻게들 하고있는지 라지오도 그저 같은 소리만 한단 말이요! 싫증이 났소! 난 우리 지휘부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당신께 온것은 전혀 아니요. 우리 함께 저녁식사를 하지 않겠소?》

《난 식당에 갈 생각이 없소.》

《그렇다면…》 꾸비쓰는 말을 끊었다. 그의 얼굴에는 능청스러운 표정이 나타났다.

《무슨 할 말이래도 있소?》 헨리흐는 무슨 말이 나올지 미리 알고있으면서도 빙긋이 웃으며 물었다.

《난 50마르크짜리 청구서를 가지고왔소. 다해서 50마르크야! 전에 빚진것을 다 합하면 620이 될거야. 그리 많지 않은 돈인데…》

《꾸비쓰, 당신은 돈을 어디다 쓰오? 이런걸 물어서 안됐지만, 나는 흥미가 있어서 묻는거요. 쎈-레미에서 한달반 생활하는 동안에 장교의 봉급을 다 쓰고 또 200마르크를 쓴다니 말이요? 전엔 화투놀음을 했지만…》

《우리 귀여운 남작님, 참 순진하기도 하오! 만일 내가 당신과 함께 쎈-레미가 아니라 집이 대여섯채밖에 없는 가장 궁벽한 촌에 간다 하여도 나는 매일 100여마르크씩 쓸수 있는 방법을 당신한테 대줄수 있을거요.》

헨리흐는 웃었다.

《만일 어떻게 해서나 일정한 금액의 돈을 소비해야 한다고 목적을 세운다면 아마 나도 무엇인가 궁리해낼수 있을것이요. 그러나 그것이 만족을 줄수 있는가가 문제요.》

《난 돈이 나를 지배하는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한다는 그 한가지만으로도 만족을 얻고있소. 그런데 나는 묻겠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생활의 기쁨이 있겠느냐 말이요? 나는 일을 증오하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뿐만아니라 무슨 일이건 온갖것을 다 말이요! 나는 녀자들에게 싫증이 났소. 나는 녀자라면 역증이 나오. 그러니 무엇이 남아있소? 술과 모르핀밖에! 그게 다요! 내가 무엇때문에 돈을 아끼겠소?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내가 죽은 다음에 유산을 상속받고 나를 머저리라고 부르라고?》

《꾸비쓰, 내 생각엔 지금 당신에겐 흥미있는 사업이 있는것 같은

데!》

《내가 인간의 넋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사가 될 준비를 하고있을 때가 게스타포의 방법으로 인간의 넋을 저승으로 보내고있는 지금보다 훨씬 더 흥미있게 생각되였소.》

《당신은 파렴치한 사람이요, 꾸비쓰!》

《마음대로 부르구려. 그러나 사람들이 몹시 흥미없이 되였거던! 형사수사부에서 일하는것이 우리 일보다는 더 재미날거요. 무엇이 흥미있는가? 어떤 사람을 심문에 끌어왔다 합시다. 온갖 방법을 다 쓴단 말이요. 그러면 그는 침묵을 지키거나 프랑스에 대해서, 인민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중얼댄단 말이요! 그게 구역질 난단 말이요, 골드링! 내 말을 믿어주오! 나의 조국—그것은 나를 맛있게 먹여주고 좋은 술을 마실수 있게 해주는 식당이요. 좋은 곳—그곳이 조국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으면서 웨친단 말이요. 〈프랑스를 위하여!〉 하고… 그런데 프랑스는 그가 누군지 알지조차 못할것이요. 아마도 내가 그를 절벽에서 밀어내친것을 영원히 알지 못할것이요! 사람들이 단조롭고 재미가 없어졌소. 당신의 애인까지도 말이요, 남작!》

《무슨 애인 말이요?》

《모르는척 하지 마오, 폰 골드링. 나는 식당에 있는 그 프랑스처녀에 대해서 당신보다 더잘 알고있소.》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꾸비쓰. 우린 거의 매일 만나고있고 어려운 때에는 내가 항상 당신을 기꺼이 도와주리라는것을 알기때문에 당신은 날 찾아오고있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무슨 비밀이 당신에게 있다니… 물론 말해서 안되는것이라면 말하지 마오. 그러나 그렇다면 그런 암시도 하지 말아야지…》

《남작, 당신이 성을 내는걸 처음 보는군. 나도 당신에게 무얼 숨기자는 생각은 조금도 없소. 그 아가씨에 대해서 당신이 애착을 가지고있는것을 내가 그 녀자를 체포하기로 결심했을 때에야 우연히 알게 되였소.》

《모니까를 체포하다니, 그건 왜?》

《그 미인이 보내는 편지 3통을 붙잡았는데 그 3통의 편지에서 다같이 일기가 나쁘다느니, 시장 물건값이 오른다느니 하고있소. 일기는 아주 좋고 물건값이 오르내리는것도 없는데 말이요. 기상학과 경제에

대한 그런 흥미가 어디서 오는것일가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게 무리가 아니지.》

《그래 그것이 그 녀자를 체포할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하나?》

《거기에 심문할 때 그 녀자가 할 이야기가 더 첨가되지… 그러나 밀레르는 나의 결심을 알자 당신이 그 아가씨에게 애착을 가지고있다는 리유로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소. 골드링, 어쩐지 그 사람은 당신을 무서워하고있더군. 내 비밀이란 이게 다야.》

《당신은 그 녀자를 언제 체포할 작정이였소?》

《오늘, 마키와 그들의 지지자를 반대하는 탄압을 강화하라는 명령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 나에게 50마르크를 꾸어주오, 남작.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난 김에 저녁을 굶으라고 나에게 명령을 하던지.》

《당신이야 내가 한번도 당신 청을 거절한 일이 없다는걸 알지 않소. 나는 거절하진 않겠소. 당신에게 부탁하고싶은것은 비록 사소한것이래도 나에게 관계되는것을 숨기지 말아달라는것뿐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융통해쓰는 자금의 리자로 생각하겠습니다.》하고 꾸비쓰는 군인식으로 대답하였다.

《단순한 친구간의 의리로 생각해주오.》

50마르크를 받고 꾸비쓰는 방에서 나갔다. 회파람으로 무슨 곡조인지 즐겁게 불어대면서…

시계는 10시 15분전이였다. 헨리흐는 모니까를 만날수 있을가 해서 식당으로 내려갔으나 그는 홀에 없었다. 따르왈리부인은 모니까가 자기 방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모니까에게 몇마디 할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의 방에 갔다와도 좋겠지요? 만일 누가 날 찾아오거든 외출했다고 해주세요. 오늘은 아무도 만나고싶지 않습니다.》 헨리흐는 부탁하였다.

꾸비쓰의 말은 헨리흐를 몹시 불안케 하였다. 사실 밀레르가 아직은 감히 모니까를 건드리려 하지 않지만 그리고 꾸비쓰도 돈많은 남작에게서 돈을 융통해 쓰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헨리흐자신이 완전히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까지나 그렇게 될것이다.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이미 게스타포에서 모니까에게 관심을 가졌던만큼 틀림없이 그를 체포할것이였다. 지존으로 가는 기차가 폭격당했을 때 그는 죽을수도 있지 않았는가? 또는 그가 쁘파이페르와 함께 마키의

습격을 당했을 때도 그렇지 않았는가? 그가 죽었다는걸 알기만 하면 밀레르는 한초도 지체하지 않고 모니까를 잡아다가 지금까지 하는수없이 관대히 대했던 그 모든것을 복수하려 할것이다. 아니다, 아직 늦기전에 비록 모니까와 갈라져야 하는 한이 있더라고 그를 구해야 한다.

《헨리흐, 전 오늘부터 남작님이 최면술재간을 가지셨다고 생각하겠어요.》하고 처녀는 헨리흐가 그의 방 문턱에 나타나자 웃으며 말했다.

《어째 그런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소?》

《방금 제가 남작님에 대해서 생각하고있었어요.》

《나도 당신을…》

《그러니까 먼곳으로 생각이 전해져서 남작님을 저에게 오시게 한게지요.》

《나는 당신이 나의 생각을 알아맞출수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원하오.》 헨리흐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불쑥 나갔다. 그는 깜짝 놀라 자기가 부질없는 말을 했다는것을 깨닫고 급히 어조를 바꾸어 덧붙여 말했다. 《좀 일이 있어 왔소, 모니까. 그다지 기분좋은 일은 아니요.》

처녀의 눈은 빛을 잃고 입술에서는 미소가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좋은 말로 시작하시더니… 이렇게 좋지 않게 끝을 맺으시는군요.》하며 모니까는 쓸쓸히 말했다. 《저는 남작님이 그저 잠간 놀자고 저에게 찾아오셨는가 했어요. … 기분나쁜 일이라구요?!… 저는 그런 일에 너무나 지쳤어요! 마치 저에게는 기쁨이란 아무것도 없는것 같아요. 그 모든 불쾌한 이야기는 래일로 미루자요. 아니, 안돼요. 그러면 내가 온밤 잠들지 못할테니까요. 차라리 지금 말씀하세요, 길다란 서론은 빼고요. …》

《좋소! 서론없이 합시다. 처음에 한가지 물을게 있소. 얼마동안이래도 어디 가서 숨어있을수 있을가?》

모니까는 당장에 얼굴이 새하얗게 되였다.

《얼마나 빨리 그렇게 해야 하나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위험성이 그다지 큰건 아닌데 내가 떠날수 있어 그러오. 떠나도 오래동안 혹시 영원히 떠날수도 있는데 그때엔 문제가 다르오.》

헨리흐는 그때 어떻게 될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니까

는 묻지 않았다. 머리를 낮게 드리우고 모니까는 책상보의 술을 땋았다 풀었다 하고있었다. 그의 손끝이 떨리는것을 보고 그가 얼마나 흥분하고있는가를 알수 있었다.

《내 질문에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았소.》하고 헨리흐는 그 가늘고 떨리는 손가락에 입술을 대주었으면, 그 낮게 숙인 머리를 들어올려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을 느끼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남작님은… 정말 떠나시나요?… 아주?》 모니까는 조용히 물었다.

《나는 군인이요. 군인에게는 그가 어디 있고싶은가 묻지 않는법이요. 아무때나 필요한 곳으로 보낼수 있소. 내가 이곳을 떠나게 되든지 나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면 밀레르는 당신을 체포할것이요. 나는 오늘 당신의 편지를 검열하고있다는것을 알았소. 그래서…》

《오, 헨리흐!》 모니까는 자리에서 펄쩍 일어났다. 그러나 그의 크게 뜬 눈에 어린것은 놀람도 공포도 아니였다. 자기에게 닥쳐올수 있는 다른 위험성—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그것으로 인한 애수와 당황이였다.

헨리흐는 지금 처녀의 가슴속에서 일어나고있는것을 말없이 충분히 리해할수 있었다. 사실 그의 심장도 모니까에 대한 련민과 고통과 불안으로 해서 터질것만 같았다. 그들은 서로서로 눈을 보았다. 그들사이에 가로놓였던 모든 제약성이 문득 어디론지 사라져버린듯 했다. 온 세상에 그들 둘만이—두쌍의 눈과 두개의 심장만이 남아있는것 같았다.

《헨리흐! 우리 함께 여기서 도망치자요, 산속으로 도망치자요. 거기 가면 아무도 무섭지 않아요. 래일 당장 가자요! 정말 선생님도 폭로될수 있어요. 선생님은 결코 파시스트가 아니예요. 우리 친구예요!》 모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번 하기나 한것처럼 그렇게 극히 단순하게 말하는것이였다.

모니까는 헨리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신뢰의 정이 흐르는 동작과 흥분한 빛나는 눈에서 어리고 깨끗한 천진한 모니까가 그대로 표현되였다. 헨리흐는 약간 어깨를 올렸다. 머리를 돌리고 처녀의 한쪽 손에 입을 맞추고 다음에 다른쪽손에 입을 맞추었다. 모니까는 눈에 미소를 띠우고 계속 진중하고 열렬하게 말하는것이였다.

《헨리흐, 내가 처음으로 헨리흐씨를 사랑한다는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전 괴로와서 자칫했더면 죽을번 했어요. 자기 사

랑을 자신에게서 숨긴다는것, 그 사랑이 헨리흐씨의 인격을 모욕한다고 느끼는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예요. 그러나 그후 제가 레베크의 편지를 읽도록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준것을 깨달았을 때, 본빌에 갔다온 후에, 선생님이 류드비나를 구해주신 후에… 그리고 헨리흐씨도 저를 사랑하고계신다는것을 알았을 때… 정말 그렇지요, 헨리흐?》

《그렇구말구, 모니까.》

《전 알고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있었어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니 전 무한히 행복해요. 함께 산으로 가자요. 영원히 다시는 갈라지지 말자요! 좋지요?》

모니까는 얼마나 그것을 믿었던가, 그는 《그럽시다.》하는 한마디 간단한 말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헨리흐는 자기 어깨에서 처녀의 손을 조심조심 내리였다. 그를 쏘파로 데리고가서 앉히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의 다리앞에 놓인 쪽걸상에 앉았다.

《난 그걸 할수 없다오, 모니까.》그는 애절하고도 쓸쓸한 심정으로 모니까를 바라보았다.

《어째서요?》 들릴가말가하게 가만히 말하는 이 물음이 마치 큰 웨침처럼 울렸다. 모니까의 눈도, 그의 긴장한 온몸도 소리높이 웨치는듯 하였다.

《나에겐 그렇게 할 권리가 없지요! 알겠소, 모니까. 권리가 없단 말이요!》

《그러나 그자들은 기어이 헨리흐씨를 잡아가고말거예요. 아, 내가 헨리흐씨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아신다면! 전 매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답니다. 전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오시는 소리를 듣기 전에는 잠들지 못해요. 선생님이 어디로 떠나시는 때에는 겁이 나서 떨린답니다! 전 때로 게스타포에 달려가려 하는 때도 있답니다. 류드비나가 고문당하듯이 저는 고문을 당해도 좋고 총살을 당해도 좋은데 그저 헨리흐씨가 체포되지 않았다는것, 선생님이 무사하시다는것을 알기만 한다면 기뻐요.》

《나 역시 당신때문에 걱정이 되오, 모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난 당신과 함께 마키에게로 갈수 없소. 거기 가면 나를 받아주리란것을 믿기는 하지만…》

《어째서요? 어째서요? 선생님은 이 군복을 입게 한 그들편이 아니예요. 선생님은 우리편이예요!》
《나에겐 의무가 있소.》
《아, 날 사랑하지 않아요, 헨리흐!》하며 모니까는 절망적으로 웨쳤다.
《모니까!》 헨리흐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만일 내가 모든것을 다 설명해줄수 있다면 당신은 리해해줄것이며 지금처럼 나를 괴롭히지는 않을것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설명해줄수 없소. 그런 권리가 없단 말이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당신에게도 말할수 없소!》
《아, 방금전엔 내가 얼마나 행복하였는가, 그 행복이 어쩌면 이다지도 빨리 사라져버렸는가! 선생님의 심장이 허락할수 있는 이상을 바랄수야 없지요. … 약간의 애착, 약간의 동정… 많은 조심성…》
《내가 나를 아껴서 그런건 아니요, 모니까! 당신보다 귀중한 사람이 나에겐 없소.》
《헨리흐, 선생님은 정말 수수께끼같은 말만 하세요. 정말 선생님은 수수께끼예요. 저는 선생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것도 몰라요!》
《당신이 바라는 그것을 원할뿐이요. 나는 해방된 자기 조국을 볼것을 원하오. 당신께도 그렇듯이 나에게도 자기의 목적이 있소.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고 가장 무서운 고통도 견디여낼것이요.》
《어찌하여 저와 함께 싸우기를 원치 않으시나요?》
《투쟁도 여러가지가 있다오. 아마도 나에게는 가장 힘든 투쟁이 차례진것 같소.》
《헨리흐, 내가 알아들을수 있게 아무것도 말씀해주시지 않겠나요?》
《모니까, 그렇게 물어서는 안되오. 난 지금 당신께 대답할수 없소. 제아무리 그것을 원한대도 말이요! 이미 말한것만 해도 사실 내가 말할 권리이상의것을 말한것이요. … 그러나 한가지만은 약속하겠소. 전쟁이 끝나면 당신을 찾아오리다. 그때엔 모든것을 다 알수 있을게요. 만일 나를 믿어준다면, 만일 나를 기다려준다면!》
《전 기다리겠어요, 헨리흐! 그때엔 영원히 작별이 없겠지요! 여기서 떠나버리셔도 정말 저를 잊지 않겠나요?》
《당신이 어디 있든지 나는 어디서나 당신을 찾아낼것이요. 그러나 지

금 당신은 여기서 떠나야 하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기 위하여… 그래 어디 갈데가 있소?》

《좋아요, 동무들하고 의논해보겠어요. … 저는 그저 헨리흐씨가 걱정이예요. 정말 선생님께도 걸음마다 위험이 뒤따르고있는데… 전 헨리흐씨에 대한 소식을 모른다면 못 견딜것 같아요!》

《내 걱정은 마오. 내 조심할것을 당신께 약속하지.》

모니까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그것을 숨기려고 모니까는 일어나서 창문사이벽앞에 서있는 자그마한 탁자앞으로 가서 소등용끈을 잡아당기고 방공막을 제낀 다음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하고 향기로운 공기가 잠자는 거리의 정적과 함께 방안으로 흘러들었다. 어둠에 싸인 집들과 산들은 보이지 않았다. 별이 총총한 끝없이 웅대한 하늘이 보일뿐이였다. 마치도 이 세상에는 그 별들과 검은 벨베트같은 하늘 그리고 가슴속에서 그렇게도 아프게 뛰는 두개의 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듯하였다.

그들은 오래동안 창문앞에 말없이 나란히 서있었다.

《모니까, 울고있소?》 헨리흐는 처녀의 어깨가 약간씩 들먹이는것을 느끼고 문득 물었다.

《아녜요, 아녜요. 걱정마세요. 전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와서, 거기서 내가 살고있는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는것이예요. 거기서 당신도 살고계시니까요! 그리고 무섭기도 좀 해요. 정말 당신과 저는 이 넓고 넓은 세계에서 자그마한 두개의 모래알일뿐이지요.》

《나나 당신은 그 세계의 한부분이라오. 모니까, 우리가 그안에 있고 그 모든것이 우리 가슴안에 있다는것을 느끼지 않소?》

복도에서 따르왈리부인의 걸음소리가 들렸다. 모니까는 급히 헨리흐에게서 물러났다.

《헨리흐!》하고 모니까는 서둘러 말했다. 《나에게 입맞춰주세요! 래일이나 모레면 우린 다시 만나지 못할거예요. 작별의 인사로 되게요.》

바로 그 시각에 밀레르는 비록 겁은 났지만 해보기로 결심한 일을 곰곰히 생각해보면서 방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밀레르는 폰 골드링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꼼짝 못하는 립장이라는것을 생각할 때마다 매우 괴로왔다. 그 자신만만한 남작이 밀레르가 뿔리

쉐니예 대신으로 밀어넣은것이 누구인가를 알고있다는것을 그에게 암시해준 그때부터 에쓰에쓰근무장교는 완전히 안정을 잃어버렸다. 그 일만 아니였다면 그는 모니까를 체포한지도 오랬을것이다. 자우겔의 서류를 들추다가 모니까와 관련된 그의 기록을 발견한 바로 그날로 이미 체포했을것이다. 모니까가 본빌에 갔다온것이 이상하게도 무기를 실은 군용렬차에 대한 마키의 습격과 한줄로 련결된것을 알게 되였을 때 그자신에게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었다. 헨리흐 폰 골드링은 그때 그를 혼란에 빠뜨린것이였다. 밀레르자신은 처녀가 순전히 련애를 위해서만 갔다왔다고 믿어지지는 않았던것이다. 믿어지지 않은것이 아니라 눈을 감은것이였다. 그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싶지 않았다. 그러나 해명된것을 보면 그랬던것 같다. 자우겔이 더 현명하게 하였다. 그는 본빌과 항쟁운동의 지방조직과의 련락망의 흔적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만일 자우겔의 죽음이 아니였다면 그리고 통보원이 되기로 동의했던 발전소의 그 머저리가 좀더 조심성있게 놀았다면 모니까아가씨가 골드링에게 공연히 친절하게 구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들을 손에 넣을수 있었을것이다. 모니까를 체포하기만 하면 그에게 필요되는 모든것을 알아낼수 있었다. 그런데 골드링이, 그 저주할 골드링이 그의 앞길을 막아서있다! 가증한 골드링, 밀레르는 그에게 아첨을 해야 한다. 그의 장화라도 핥듯이… 다만 그가 베르트골드의 양자이며 머지않아 그의 사위로 된다는 그것때문에…

그가 모니까를 체포한다고 하자. 아, 그때엔 골드링이 바젤에 대한 비밀을 몽땅 털어놓을것이다. 밀레르가 뽈리 쉐니예 대신에 바젤을 밀어넣고 그 값으로 5천마르크나 되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지 않았던가! 그렇게만 되는 날이면 지금 일전도 남지 않은 그 많은 돈을 토해놓아야 할것이며 베르트골드앞에서 모든것을 책임져야 할것이다. 아니다, 당분간은 모니까를 건드리지 말자. 그러나 유리한 기회를 기다리면서 매 걸음을 주시하고있어야 한다.

밀레르는 시간이 경과하면 뽈리 쉐니예의 이름으로 사실 누구를 매장하였는가 하는것을 검증할수도 없을것이며 그때에는 골드링에게도 아무러한 물적증거가 남아있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모든 일이 밀레르에게 불리하게만 전개되였다. 골드링이 공교롭게도 뽈리 쉐니예가 지도하는 바로 그 부대에 포로되다니! 골드링뿐만아니라 에베르쓰

의 운전사도 틀림없이 그때 뽈리 쉐니예의 사진을 보았을테니까 그 사람을 알아보았을것이다. 사실 전혀 다른 측면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길수 있는것이다.

그래서 하는수없이 자동차사고를 조직해서 운전사를 없애치우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밀레르로 하여금 더욱더 골드링에게 매우게 하였던것이였다. 자동차사고에 대한 말을 듣더니 골드링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쁘파이페르까지 죽으면 나를 제외하고는 빨찌산부대장 뽈리 쉐니예를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겠소.》

그 암시는 아주 직선적이며 로골적이였다. 밀레르는 입을 다무는수밖에 없었다.

아니다, 그는 골드링과의 관계를 결렬시키거나 첨예화시킬수는 없었다. 모니까가 마키와 사실로 련계를 가지고있다는것이 정확히 확증된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된다. 그것은 남작의 명예에 흑점을 남기게 될것이다. 사실 그가 모니까에게 애착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성미 급한 골드링은 그렇게만 되면 분이 나서 바젤에 대한 력사를 푸는것으로 밀레르에게 틀림없이 복수할것이다. 그는 베르트골드에게 당장 불평을 써보내겠으니 밀레르는 자기의 출세는 고사하고 생명이 위험에 처할수 있을것이다.

생각해볼만 한 일이였다. 밀레르가 자꾸 생각한것이 허사는 아니였다. 오랜 궁리끝에 그는 출로를 찾아냈다. 그러나 이 일에 베르트골드자신을 끌어들이는것이 과오를 범하는것이나 아니겠는지? 그는 격식만 따지지는 않을것이다.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자. … 밀레르는 종이 한장을 들고 책상으로 가서 암호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베르트골드소장님!

제가 해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감히 각하께 직접 편지를 올리게 된것은 각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재능있고 교양이 있고 품행이 단정하여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의 공감을 받고있는 각하의 아들 헨리흐 폰 골드링에 대한 진정한 우정을 간직하고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작은 물론 젊은탓이겠지만 매우 사람을 잘 믿는 성격입니다. 그 특성은 원래 고귀한 품성이지만 원쑤들은 그 특성을 리용할수도 있

는것입니다. 저는 남작이 기숙하고있는 려관주인의 젊고 곱게 생긴 딸이 남작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의 신임을 받고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녀자는 프랑스의 테로분자들에게 공명하고있다고 의심할 근거를 주는 확실한 자료가 저의 부서에 있는만큼 저는 그 녀자가 남작의 신임을 받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각하의 아들의 순결한 이름에 그늘이 지게 할가 우려되여 그 처녀를 체포하고 심문할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작의 아버님이시며 저의 존경하는 상관이신 각하께 서면으로 문의하는바이오니 각하의 조언과 지시가 있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각하께 진심으로 되는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이오간 밀레르소좌》

다 쓴 편지를 한번, 두번 다시 읽은 밀레르는 그 편지를 상관에게 보낼만 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것을 느끼였다. 그는 비밀문건발송규칙에 따라 봉투를 붙이고 주소를 쓰고나서 특별통신원을 통해서 베를린으로 즉시 발송하라고 직일관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밀레르는 오래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그 편지의 구절들을 한줄한줄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았다.

만일 베르트골드가 골드링에게 무슨 일인지 해명해줄것을 요구한다면? 도대체 이 시끄러운 일을 공연히 시작한것이나 아닌지…

아침녘이 되여서야 밀레르는 래일 그를 기다리는것이 감사이겠는지, 준엄한 질책이겠는지 모르는 불안한 심정으로 겨우 잠이 들었다.

아침 방송전의 웅장한 취주악이 7월 6일과 7일에도 울렸다. 8일에는 취주악이 들리지 않았고 9일에는 라지오가 로씨야군대의 미친듯 한 반돌격에 대해서 보도하였다. 7월 10일에는 반돌격이란 말이 없어지고 그대신 다음과 같은 새로운 표현이 나타났다. 《우리 부대들은 공격해오는 적들과 가렬한 전투를 하고있다.》

에베르쯔에게는 오래전부터 약속되였으며 널리 선전된 굉장한 작전이 파탄되였다는것이 명백하였다. 7월 9일 저녁 보도를 듣고나서 소장은 병이 들었다. 그는 며칠동안 병석에 누워 이따금 보도나 들었다. 그러나 《전선의 가일층의 단축》이란 말이 나오자 라지오를 완전히 꺼버

리였다.

그리하여 조국의 군대의 복수대신에 그때 형편에서 빠울류스의 군대의 전멸보다도 더 무서운 정신도덕적의의를 가지는 또 하나의 패배를 가져온것이였다. 병을 앓고난 후 에베르쓰가 처음으로 참모부에 나왔을 때 헨리흐와 류쯔는 부지중 서로 바라보았다. 소장은 어찌나 창백해지고 수척했고 로쇠했던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바로 그날 류쯔는 소장의 명의로 군단사령관에게 전보를 보냈다. 그 전보에서 에베르쓰는 자기가 병들었다는것과 의사와 협의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빠리에 갔다오기 위하여 일주일간의 휴가를 줄것을 부탁했다.

이번에는 그 청이 승인되여 에베르쓰는 만 일주일동안 사단을 뜰것이 결정되였다.

출발을 하루 앞두고 소장은 자기 특수임무장교를 불렀다.

《골드링, 빠리에 가본 일이 있소?》

《없습니다.》

《한 두주일동안 거기 갔다오는게 어떻겠소?》

《전 두가지 측면에서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려행은 한때에 〈세계의 수도〉라고 부르던 빠리를 볼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수 있게 된것이고 또하나의 중요한것은 소장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돌려주시는것을 다시한번 확신하게 된것입니다.》

《남작, 내 생각엔 당신이 외교부문에 나섰더면 더 좋았을걸 그랬소.》하고 소장은 롱을 하고나서 말을 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빠리에서 두주일간 장교강습이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사단참모부, 독립련대, 특별대대의 장교들이 신형반땅크 방어연구를 위하여 강습에 참가하게 되오. 당신은 갔다온 후에 사단장교들에게 배운것을 전달하면 되오. 상학은 하루에 세시간씩 예견하니까 부담이 클것 같지는 않은데 다소 걱정이 되는것은…》

《어떤 걱정이 되시는지 말씀해주실수 없을가요, 소장님!》

《당신이 너무 젊고 빠리의 처녀들은 매력이 있으니 하는 말이요.》

《저에겐 약혼녀가 있습니다, 소장님.》

《나도 그 말을 들은것 같군. 오늘 문건수속을 다 하고 래일 함께 떠납시다. 강습개시는 며칠후이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갔으면 해서 그러오. 당신같은 좋은 길동무가 있으면 호위병을 데리고 갈 필요도 없을것

이요. 내가 돌아오면 인차 우리 사단을 아틀란찌크 보루쪽으로 이동시킬수 있소.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빠리에서 직접 그곳으로 갈수 있도록 준비하는것이 좋겠소.》

《저의 련락병에게 자동차로 빠리에 갈 준비를 하라고 해도 좋을가요?》

《물론이지, 그것이 당신껜 매우 편리할게요.》

(모니까와 작별할 시각이 닥쳐왔구나.)

자기에게 줄 문건을 준비하고있는 류쯔앞에 앉아 헨리흐는 쓸쓸히 생각했다.

헨리흐는 꾸비쓰에게 전화를 걸었다.

《좀 만났으면 좋겠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소. … 10분후엔 집에 있겠소.》

헨리흐가 려관에 도착했을 때 꾸비쓰는 이미 거기 와있었다.

《무슨 일이요?》하고 그는 불안한듯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얼마간 빠리까지 출장 갈 일이 생겨서.》

《당신은 참 복을 타고났소, 남작. 만일 내 부탁을 들으려고 날 불렀으면 빠리에서 올 때 좋은 포도주나 여라문병 갖다주오. 그리고 모르핀과 좋은 려송연을 꼭 가져올줄 믿소.》

《그건 다 갖다주겠소. 그런데 한가지 조건이 있소. 모니까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백방으로 힘써주오. 알겠소?》

《머리카락 한오리 떨어지지 않게 하지!》

《만일 밀레르가 그와 담화하자고 하거든 즉시 나한테 전보를 쳐주오.》

《주소는?》

《당분간 중앙체신국 류치우편으로 하고 내가 숙소를 결정하는대로 주소를 인차 전보로 알려주겠소.》

《그렇게 합시다.》

《전보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150마르크를 두고 가겠소.》

《그렇다면 날마다 전보를 치겠소. 아가씨의 소화가 잘되는지 그것까지 알려주지요.》

《그따위 롱담은 그만두라구! 가서 샴팡술이나 한잔 드세. 출발할 때까지 다시 만나지 못할수 있으니까. 밀레르에게는 오늘 내가 떠난다는

말을 하지 말게. 내가 직접 아침에 말하겠으니까.》

꾸비쓰가 샴팡을 마시고 세사람분의 저녁식사를 부탁한 후 헨리흐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꾸르트는 자동차로 빠리까지 간다는것을 알고 기뻐서 어쩔줄 몰랐다.

《저는 떠나신 후 여기 있어야 하는가 하고 여간 겁내지 않았습니다.》하고 그는 자백하였다.

《밀레르가 다시 심문하자고 부를가봐 겁나지 않소?》

《겁납니다.》 꾸르트는 신중히 대답했다.

《래일 아침에 떠나겠소. 나보다 한걸음 먼저 빠리에 도착하면 좋겠소.》

저녁때 헨리흐는 모니까와 류쯔와 함께 보냈다. 그러나 송별연이 헨리흐가 생각했던대로 잘되지 않았다. 모니까는 마치 작별을 예감해서인지 매우 서글퍼보였으며 류쯔가 롱을 해도 웃지조차 않았다. 헨리흐의 기분도 점점 나빠졌다. 지금 모니까는 너무도 무던하고 의지가지 없는것처럼 생각되였다.

시간반쯤 앉았다가 류쯔는 래일 아침 일찌기 소장께 드려야 할 서류를 준비해야겠다는 구실로 작별하였다.

《언제 떠나세요, 헨리흐?》 둘이 남게 되자 모니까가 뜻밖에 물었다.

《내가 떠나는걸 알고있소?》

《꾸르트가 말해주었어요.》 처녀는 질책하듯 이렇게 말했다.

《미리 당신에게 슬픔을 주지 말자고 오늘은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

《더 나쁘게 됐어요.… 꾸르트의 말을 우연히 듣고 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건 내가 잘못했소! 난 당신의 유쾌한 얼굴이 내 기억에 남기를 바랐었소. 그러면 그렇게까지 당신때문에 걱정이 안될것 같아서… 당신은 내 부탁대로 해주겠지? 내가 여기를 떠날 때에는 당신이 쎈－레미에 없도록 해주오!》

《몇시에 떠나시나요?》

《래일 4시.》

《저녁때에는 이미 쎈－레미를 떠날것을 약속하겠어요.》

《그럼 나도 안심하겠소. 내가 돌아오면 인차 당신께 알리도록 어머니에게 말하지…》

《아, 헨리흐! 전 우리가 영원히 갈라지는것만 같군요.》하며 모니까는 쓸쓸히 말했다.

《그러지 마오. 제발, 그러지 마오! 당신이 그러면 나 역시 맥이 풀리오. 난 항상 정신이 똑똑해야 하지 않겠소!》

모니까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보세요. … 전 벌써 이렇게 즐거워요. 만족하시지요?》

골드링이 작별인사를 하기 위하여 밀레르에게 들리니 그는 아직 아침식사를 하고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귀한 손님이 나타났소! 무슨 긴급한 일이 제기되여 이런 시간에 나를 다 찾아왔소?》

《나는 오늘 소장님과 함께 빠리로 떠나오.》

《거기 오래 가있겠소?》

《두주일동안… 자그마한 일을 부탁할게 있어서 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모니까아가씨에 관한 문제일세. 나는 당신이 보통 거리에서 인사나 하는 정도로 그와의 관계를 국한했으면 좋겠소. 내 말뜻을 알겠소, 밀레르?》

《그 아가씨가 당신을 황홀케 한 모양이거던! 당신한테야 약혼녀가 있지 않소?》

《당신에겐 부인이 있지! 내가 알기에는 당신도…》

《그야 젊었을 때 있은 일이지. 젊은 때 말일세! 이제야 다 지나갔네.》

《그러나 난 아직 젊고 나와 당신은 친구간이니까. 그렇지 않은가? 우린 서로 성격도 알뿐아니라 약점도 아니까 털어놓고 말할수 있지! 그러니까 우린 서로 다툴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게 좋을줄 아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한스?》

《물론이지.》

《그렇게 약속하겠지?》

《만일 거리에서 아가씨를 만나면 돌아보지도 않겠소. 후에 내가 성이 나서 보더라고 당신한테 불평을 하도록 말일세.》하고 밀레르는 롱을 했다.

《그럼 좋네! 정거장에 나오지 않겠나. 나야 일없지만 소장님이야 전

송해야지?》
《소장님이야 모르겠지만 자네를 어떻게 그냥 보내겠나.》 밀레르가 그의 말을 바로잡았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4시 15분전에 사단참모장, 밀레르 그리고 꾸비쓰가 역전에 나와있었다.
공식적인 인사가 다 끝나자 전송나온 사람들은 기관차의 기적소리가 언제나 울리는가 하고 초조히 기다리면서 갑갑해하였다. 밀레르 혼자만은 별로 유쾌하였다. 그는 꾸비쓰에게 장기대부은행이 두주일간 문을 닫게 되여 안되였다고 롱을 하였다.
《한스, 난 당신이 이렇게 유쾌한 기분을 가진걸 처음 보는것 같은데.》 하고 헨리흐는 작별하면서 말했다.
《나는 친구가 이렇게 훌륭한 려행을 하게 된것이 기뻐서 그러네.》 하고 밀레르가 대답하였다.
그는 그의 즐거운 기분의 진정한 원인이 다른데 있다는것을 말할수 없었다. 밀레르는 모니까에 대해서 보낸 편지에 대한 대답으로 베르트골드소장에게서 간단한 암호편지를 받은것이였다.
《꾸비쓰, 약속을 잊지 않았지?!》 기차가 이미 움직였을 때 헨리흐는 급히 속삭였다.
정거장을 나서자 급한 경사가 시작되여 기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매우 느리게 움직였다.
기차가 마지막건물을 뒤에 남기고 전진하였을 때 헨리흐는 뜻밖에 모니까를 보았다. 그는 해빛을 담뿍 받은 맨머리로 흰옷을 입고 서있었다.
《모니까!》 헨리흐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처녀는 달려나와 헨리흐에게 꽃다발을 던졌다. 기차는 점차 속도를 더했다. 헨리흐는 될수록 처녀를 더 오래 보기 위해서 몸을 굽히였다.
모니까는 궤도옆에 황금빛을 담뿍 받고 그대로 서있었다. 그자신이 마치 밝은 해빛처럼…
에베르쓰는 도중에 내내 침대에 누워있었다. 다만 식사때나 일어나군하였다. 헨리흐는 자기 생각에 잠겨 혼자 있는것이 좋았다.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하고 슬펐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야 빠리에 도착하였다. 기차는 도중에 두번 지체하였다. 빨찌산들이 로반을 두군데 파괴한것이였다. 꾸르트는 정거장

에 없었다. 헨리흐는 저녁때 만나기로 소장과 약속하고 택시를 불러타고 중앙체신국으로 갔다. 그는 꾸비쓰에게서 아무러한 소식도 없으리라는것을 믿고있었기때문에 마음놓고 《류치우편》이라고 써놓은 창구에 증명서를 내밀었다. 증명서를 돌려주면서 전신국사무원이 무엇인가 그우에 덧놓아주었을 때 그는 얼마나 놀라고 불안했는지 몰랐다.

《쎈－레미》 헨리흐는 보통전보의 발신지와 발신시간이 있는 웃쪽에서 낯익은 이름을 읽은 다음 전보를 펼치였다. 그는 전보문을 한번, 두번, 세번 곱씹어읽었다. 아니다, 그가 잘못 본것은 아니였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었다.

《당신이 떠난지 세시간후에 행처불명의 화물자동차가 도로상에서 모니까아가씨를 깔았는데 모니까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날 저녁에 사망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편지로 알리겠음. 당신의 이름으로 화환을 올렸음. 꾸비쓰.》

제 3 부

큰 실토리의 가느다란 실머리

모니까가 없다!

이 소식은 헨리흐를 아연케 하였다. 제정신이 없이 중앙우편국을 나선 그는 택시가 자기를 기다리고있다는것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로 걸어갔다. 주위에서는 생활이 들끓었으며 큰 도시의 번잡한 소음이 귀청을 때렸다. 빠리사람들에겐 그 소용돌이가 극히 익숙된것이였으나 프랑스의 조용한 지방의 한구석에서 방금 도착한 사람에게는 여간 놀라운것이 아니였다.

중앙우편국으로 가는 길에서 헨리흐는 주위의 모든것을 흥미있게 둘러보았으며 빠리사람들에게는 범상한 그 거리의 교향악소리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였다.

헨리흐가 많이 듣기도 하고 책에서 읽기도 하였으나 처음으로 보게 된 빠리는 이런 곳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는 주위의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에는 두줄의 전보문이 얼른거릴뿐이였다. 헨리흐는 그 전보문의 무서운 뜻을 깨달을수가 없었다. 주위에서 생활이 들끓는것도, 태양이 빛나는것도, 사람들,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고있는것도, 그자신은 살아있는데 모니까가 없는것도 다 도무지 리해가 되지 않았다. 헨리흐는 그가 몇걸음 걸어가기만 하면, 약간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물결쳐흐르는 그 사람들속에서 반드시 모니까를 볼수 있을것만 같았다. 흰옷을 입고 맨머리로 입가에 환한 웃음을 띠고 꽃을 단 아름다운 모니까! 쎈－레미를 떠날 때 기차승강대에서 마지막으로 보던 바로 그의 모습이 보일것

만 같았다.

(자동차가 깔았다!…) 아니다, 그럴수 없다! 있을수 없는 일이다!

《장교님! 장교님! 차를 더 타시렵니까, 혹은 그냥 가도 될가요?》

아니, 이것은 꿈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다! 그를 정거장에서 여기까지 태워온 운전사가 저렇게 지금 천천히 그의 뒤를 따르고있다. …

헨리흐는 택시에 앉아 기계적으로 말했다.

《위수사령부로 갑시다.》

운전사는 급히 방향을 돌리더니 차를 고속으로 몰기도 하고 사람들이 번잡하게 왕래하는 네거리를 느릿느릿 지나기도 하였다. 헨리흐는 주위의 아무것에도 눈을 팔지 않고 한점을 응시하면서 앉아있었다.

《위수사령부입니다, 장교님!》 운전사가 조용히 말했다.

헨리흐가 현관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니 그옆에서 자동총을 휴대하고있던 두명의 도이췰란드병사가 걸어나왔다.

《상급중위님, 편안히 오셨습니까? 저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게 누구요? 아, 꾸르트!…》

헨리흐는 인사에 대답도 하지 않고 구겨진 전보지를 그에게 내밀었다.

꾸르트는 눈이 둥그래졌다. 놀라움이 어린 눈이였다. 절반 벌어진채있는 그의 입에서는 방금이라도 질문이 튀여나올듯 하였으나 다만 꿀꺽 침을 넘기고 묵묵히 그 종이쪽을 보고있을뿐이였다. 그의 손은 떨리였다.

헨리흐는 꾸르트의 가슴에 쓰러져 실컷 울고싶었다. 그에게는 지금 슬플 때 가장 필요한 친구, 그앞에서 자기 감정을 억제할 필요도 없고 그에게 모든것을 의탁할수 있는 참된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도 없었다.

《상급중위님!》

아마 위수사령부옆에 서있으면 안되는 모양이였다. 헨리흐는 말없이 병사의 경례에 답례하고 높고 육중한 문안으로 들어갔다.

위수사령부 직일관은 그에게 강습장소를 알려주고 도이췰란드장교들이 려관에서 류숙하기로 되여있는 명단과 또 타자기로 찍은 석장의 지시문을 주었다.

《지시문을 잘 봐주십시오.》 작별할 때 직일관이 말했다.

또다시 택시를 타니 눈앞에는 모니까가 삼삼히 떠올랐다. 헨리흐는 기계적으로 군부대에 있는 강습장소 사무실로 들어가 자기 증명서를 내주

고 인사도 하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하였다. 보이지 않는 기계가 자동기계를 움직이듯이 어떠한 보이지 않는 미세한 뇌세포가 헨리흐의 모든 행동을 지휘하는것이였다. 그 세포는 필요한 정도의 외부적인 무관심, 관대한 호의, 실무적인 관심을 정확히 계산해내는것이였다.

이와 같이 그가 홀로 남을 때까지, 택시가 그를 다시 태우고 그와 그의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같은 거리로 달릴 때까지 내내 그렇게 지냈다.

놀란 운전사는 간단하게 《더 가시오!》라는 한마디밖에 말하지 않는 이 괴상한 손님을 슬금슬금 거울에서 보면서 빠리의 거리로 계속 차를 몰았다. 이 손님은 대체 어떤 사람일가? 술주정뱅이인가, 미친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교복을 입은 범인인가? 혹시 경찰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종적을 혼란시킬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러다간 나까지 불행에 빠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운전사는 단호히 차를 세우고 말했다.

《장교님, 벌써 한시간이나 달렸습니다. 전 아침부터 차를 몰지요. 휘발유가 거진 떨어지게 됐습니다.》

《휘발유? 무슨 휘발유?… 아, 그렇지! 삐에모트려관까지 가주오.》

그제서야 헨리흐는 려관의 호실을 맡아놓고 짐을 옮겨가라고 꾸르트를 먼저 보냈던것이 생각났다. 아마 련락병은 눈이 빠지게 그를 기다리면서 걱정하고있을것이다.

삐에모트려관의 현관에서는 근심에 싸인 꾸르트가 헨리흐를 맞이하였다. 그는 벌써 한시간이나 헨리흐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세칸짜리 호실을 얻었으며 목욕물까지 데워놓고있었다. …

꾸르트는 헨리흐를 호실로 안내하였다. 그곳에는 휴식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여있었다.

그러나 헨리흐는 그런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지금 그는 방안에 꾸르트가 동정어린 눈길로 초췌하게 서있는 그자체가 참을수없이 그의 신경을 자극하는것이였다. 어서빨리 혼자 있고싶었다!

책상앞에 앉아 헨리흐는 류쯔에게 보낼 전보를 썼다. 모니까의 사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즉시 편지로 알려달라는 부탁의 전보였다.

《이 전보를 류쯔대위한테 쳐주오!》

마침내 그는 방안에 홀로 남았다.

헨리흐는 걸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엎드렸다.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었다. 울어도 되고 모니까와 큰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소리쳐도 되였다.… 그러나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내부의 모든것이 마비되고 다만 두뇌만이 마치 열병이나 앓을 때처럼 긴장하게 작용하는것 같았다.

(당신이 출발한 후 세시간 지나서)… 이상하다! 어찌하여 꾸비쓰는 모니까의 죽음을 헨리흐의 출발과 결부시키려 하는가? 단순한 일치인가? 설마 그럴수 있겠는가! 게스타포가 오래전부터 모니까를 점찍고 있다는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당신이 출발한 후 세시간 지나서)… 그러니까 모니까는 집에 돌아갔다가 또다시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지 떠났을것이다. 사실 모니까는 그날 밤에는 쎈—레미를 떠나버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어떻게 자동차가 그에게 덮칠수 있단 말인가? 쎈—레미의 대통로는 넓고 평탄할뿐아니라 모니까는 자전거를 잘 타는데! 그런 길에서는 자동차가 자전거는 고사하고 화물자동차의 큰 대렬이라도 어길수 있는것이다. 내가 출발한 후 세시간 지나서… 어찌하여 이 말, 바로 이 말이 그를 그다지도 괴롭히는가? 마치도 꾸비쓰가 그 무엇인가를 암시한듯이…

헨리흐는 당장이라도 쎈—레미로 가서 외로이 있을 모니까의 분묘를 찾아보고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때 문득 오래전에 본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에 떠올랐다. 젊은 쏠쓰가 전우의 무덤앞에 서서 전사들에게 말한다.

《례포는 쏘지 맙시다! 례포는 원쑤에게 쏩시다.》

헨리흐도 원쑤에게 례포를 쏠것이다! 모니까를 죽인 그놈들에게! 아픔은 가슴속에 숨기고… 그는 지금 권리가 없다. 그는 개인생활에 대해서,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그리움도 느낄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 특히 애수에 잠겨서는 안된다. 그것은 의지의 긴장성을 풀어버릴것이다!

(모니까여, 내가 슬픔을 극복해나가도록 도와주렴!)

자기자신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는 항상 정복차림으로 있어야 한다. 그에게는 다만 의무가 있을뿐이다!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이 길을 택했던것이다. 헨리흐는 그가 무엇때문에 벌써 오래동안 자진해서 이 복장을 입었으며 그와 함께 정신에도 두뇌에

도 심장에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까지도 가리워버리는 갑옷을 씌우고있었는가를 잘 알고있었다.

그 갑옷에는 그의 《나》가 스며나올수 있는 틈새기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모니까여, 이 점에서 나를 도와달라!》

그가 도이췰란드장교복을 입었을 때 원쑤는 모스크바로 밀려들었으며 히틀러도당은 그해 겨울을 쏘련의 수도에서 맞이하게 되리라는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모스크바와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 지금은 꾸르쓰끄부근에서 격파된 그들은 넓은 하천장애와 새로운 방어축성물에 의거해서 최종적격멸을 면하기 위하여 드네쁘르강으로 물러가고있다. 싸움은 결정적인 종결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지금 가까와오고있는 승리는 매개 쏘베트전사에게 달려있는것처럼 그에게, 쏘베트정탐일군에게 달려있다.

그들이 그런것처럼 그도 있는 힘을 다 내야 하며 그들이 그렇듯이 그도 정통으로, 치명적으로 쳐야 할 때인것이다.

《이 점에서도 나를 도와달라, 모니까여!》 사실 나의 원쑤는 그대의 원쑤이며 프랑스의 운명은 사실 지금 동부에서 결정되고있다.

아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고있는가를 잊지 않을것이다! 그가 역스러운 로르헨앞에서, 그의 애비와 마찬가지로 증오하고있는 로르헨에게 마음에 없는 친절한 말을 할 때 그의 눈앞에는 흰옷을 입고 서있는 처녀의 영상이 서있게 하라!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 베르트골드에게서 그가 꾸며낸 인간증오적인 계획을 낚아내기 위해서만이라도 그것이 필요하다. 그가 밀레르와 한식탁에 앉아 증오심을 숨기고 그에게 술을 권하고 유쾌한 말공부를 일삼을 때 모니까의 빛나는 눈이여, 그에게 빛을 주라! 그것 역시 필요하다. 그것은 그가 원쑤를 대항하는 무기이다.

모니까의 깨끗한 정신에 대한 회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몰렴치한 꾸비쓰와의 친교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라.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헨리흐는 그와 악수하는것조차 꺼렸을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것이 필요한것이다!

오늘도 헨리흐는 슬픔으로 해서 가슴이 터지는것 같지만 저녁에 에베르쓰에게 가야 하며 소장이 좋아하는것들에 대해서 쾌활하게 이야기해

야 한다. 피로도 모르고 중단함이 없이 연극을 놀고 또 놀아야 한다. 정말 정탐일군은 어뢰병이 그런것처럼 한번 실수하면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것이다.

저녁때 헨리흐는 약속대로 에베르쓰와 만났다. 소장은 자기 친구인 에리흐 군제르의 별장에 머무르고있었다. 군제르대장은 한때 동부전선에서 싸웠다. 그러나 그후 미움을 받게 되였다. 그것은 한개의 작전을 수행할 때 공격에 대한 명령대신 후퇴를 명령했기때문이였다. 그래서 그를 현저하게 직무를 낮추어 빠리로 조동시킨것이였다.

하녀는 헨리흐를 큰 방으로 안내하였는데 그 방은 가운데 책상을 놓은 객실과 비슷했다. 에베르쓰는 한구석에 놓인 자그마한 탁자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있었다. 보건대 이미 한잔씩 했는지 에베르쓰는 눈시울이 붉어졌으며 아래입술이 약간 처졌다. 그래서 그런지 성이 난 사람같았다.

《어서 앉소, 남작!》 소장은 자기의 부하로서가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헨리흐를 대했으며 잔에 그득히 술을 부었다.

《소장님,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의사를 만나보셨나요?》하고 헨리흐가 물었다.

《의사를? 의사이야긴 집어치웁시다. 지금은 의사가 문제가 아닐세! 남작, 오늘 보도를 들었소? 동부전선에 대한 보도 말이요.》

《유감스럽지만 최근 보도가 다 그런것처럼 그것도 달갑지 않은것입니다.》

《달갑지 않다구? 수치스럽다고 하오! 도이췰란드군대의 수치란 말이요. 그 하기작전에 얼마나 기대를 걸고있었소? 그런데 그 작전에 참가한 우리 군대의 수를 알기나 하오? 거의 7천문의 포, 3천대이상의 비행기가 참가했소! 그런데도 수치스럽게 큰 손실만 당하고 졌단 말이요!》

헨리흐는 대답 한마디도 못하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에베르쓰가 말한 그 수자는 이미 아무에게도 비밀이 아니였다. 그러나 도이췰란드군대의 로장령이 꾸르쓰끄전투를 그렇게 평가하는것은 흥미있고 특징적인것이였다.

《그것은 이미 뜻하지 않은 그러나 불가피한 종말의 접근을 경고하는것이요.》

소장은 술잔에 든 술에 비치는 광선을 바라보면서 말을 끊었다.
헨리흐는 나이와 직위가 낮은 사람으로서 응당하게 공손히 다음말을 기다리였다.
《남작, 말씀해보오. 당신은 애국자요? 내가 일견 극히 괴상해보이는 그런 질문을 한다고 놀라지 마오. 나는 대다수 우리 장교들이 소리높이 웨치군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애국주의를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저는 자기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있습니다.》 헨리흐는 진정으로 대답하였다.
《나도 그런 대답을 기다렸소!》
《소장님께서는 저에 관계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계신가요?》
《차차 이야기합시다. 하여튼 당신이 조국에 대한 자기의 헌신성을 증명할수 있을 때는 멀지 않았소.》
《항상 준비하고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고있소, 남작! 그런데 지금은 용서해주오. 로독을 좀 풀어야 하겠소. 쎈－레미에서 빠리까지 오는 려행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만족을 주겠지만 우리같이 늙은 사람에게는 휴식을 요구한다오. …》
《소장님, 물러갈만 합니까? 소장님께서 어떤 임무를 주시든지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겠다는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것을 확신하고있소. 어느 려관에 묵고있소?》
헨리흐는 수첩 한장을 떼내여 려관명칭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소장에게 주었다.
《감사하오, 상급중위! 당신을 념두에 두고있겠소!》
려관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리고 자기 호실에 홀로 남은 때에도 헨리흐는 소장이 하던 말만 생각해보기에 힘썼다. 동부전선에서의 최근의 사건들이 그 새로운 패배가 가지는 의의를 리해하고있는 사람들사이에 불만을 야기시키였다는것은 극히 명백하였다. 그것은 겝벨스식선전이 항상 다짐하던것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전쟁의 종말에로 다가가는 얼마나 큰 한걸음인가! 아마도 소장은 적어도 자기의 생각만을 말하자는 것은 아닐것이다. 소장의 신임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와 그의 친구들이 이미 먼 앞날에 대처할 계획을 작성하고있지 않다고 할

수 없는것이다.
여러가지로 심리적고통이 심했던 헨리흐는 일찌 잠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잠들수 없었다. 최근 시기에 겪은 모든 시련이 과거로 물러가버리고 눈앞에는 모니까가 서있을뿐이였다.
전화종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였다.
에베르쓰의 전화였다. 방금전의 취기가 말끔히 가셔진 흥분된 목소리로 소장은 명령하였다.
《당장 내게로 와주오!》
헨리흐가 에베르쓰에게 도착한것은 밤 세시였다. 그는 아까 왔던 그 방에 다시 안내되였는데 지금은 에베르쓰뿐아니라 그 집의 주인인 키가 크고 약간 등이 굽은 군제르대장도 거기 있었다. 그는 골드링의 인사를 받자 무례하다고 할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훑어보고 방에서 나갔다.
《한시간후에 나는 비행기로 쎈－레미로 돌아가게 되였소.》하고 에베르쓰는 간단하게 알렸다.
《어째 그렇게 돌연히 떠나십니까?》
《이딸리아에서 정변이 있었소. 무쏠리니는 체포되였소. 군대와 정부의 수반으로 바돌리오가 들어앉았소. 우리 사단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오. … 만일 그렇게 되면 강습도중이라도 당신을 부르겠소. 사단 참모부에서 전보가 오거든 떠나기 앞서 꼭 군제르대장께 들리시오. 나에게 서면으로나 또는 말로 전할것이 있다고 하였소. 이 임무는 특별한것이기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하겠소.》
《알았습니다, 소장님!》
《좀 말해보오, 남작. 당신은 이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평가하오?》
《소장님, 전 정치에 대해서 밝지 못하기때문에 현명하고 경험이 있는분들이 말하는것을 귀담아듣는것을 항상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아주 좋은 원칙이요! 당신의 겸손성이 내 마음에 드오. 그러나 몇시간전에는 바로 이 방, 이 책상앞에서 내가 당신께 너무나 털어놓고 대했기때문에 혹시 쓸데없는 말까지도 했을수 있소. …》
《그 말씀에서 제가 알게 된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소장님은 조국의 군대의 실패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애국자이라는것입니다.》
《군대의 실패라구? 그렇다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거요. 나는 군대

가 아니라 지휘부에 대해서 말한것이요!》

《용서하십시오, 소장님. 저도 바로 그렇게 리해는 했습니다만 그런 말을 감히 할수 없어서 그랬습니다.》하고 헨리흐가 시정하였다.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는데 우선 자기부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소.》

《쥐새끼들이나 아마 그렇게 행동할것입니다.》

에베르쓰는 갈린 목소리로 웃었다.

《나는 이딸리아에서의 사변을 바로 그렇게 평가하고있소.》

《그러나 지나치게 로골적으로 말씀드리는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렇다고 당황하는것은 시기상조인것 같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팔짱끼고 기다릴것이 아니라 준비있게 맞이하자는거요.》 소장은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헨리흐를 찬찬히 보았다. 《이젠 비행장으로 갈 시간이 되였군.》

한시간후에 소장은 특별비행기를 타고 빠리에서 쎈—레미로 떠났다.

에베르쓰와의 담화는 헨리흐를 흥분시켰으며 그의 관심을 끌었다. 소장의 암시는 극히 뻔한것이였다. 사실 그가 자기의 화투장을 펼쳐놓은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지휘부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컸기때문에 항상 말조심을 하는 소장까지도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게 되였다는 한가지는 론박할수 없는 사실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꽃에 불과한것이다! 열매는 앞에 있다!

다음날 아침 정각 열시에 헨리흐는 강습소장 켈레르대좌앞에 출두하였다.

《강습개강은 얼마간 연기되였소. 부대로 돌아가서 통지를 기다려도 되겠소.》하고 켈레르가 알려주었다.

《사단장님이 지난밤에 비행기로 빠리를 떠나면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부대가 특별임무를 받고 가까운 시일에 배비변경될것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전보를 받으면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대좌님!》

《혹시 당신은 117련대장 에린스트 골드링의 아들이 아니요?》

《아닙니다. 제 부친은 지그프리드 폰 골드링인데 돌아가셨고 베르트

골드소장께서 절 양자로 삼으시였습니다. 그 어른은 베를린에 있는 참모부에서 사업하고계십니다.》

《윌헬름 베르트골드 말이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에게 나의 인사도 전해주시오. 난 1차대전 당시부터 그와 알고지내는 사이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 틀림없이 매우 기뻐하실겁니다.》

《빠리에서 심심치 않게 날을 보내야 하겠는데. 당신은 여기서 지체해야 하는만큼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야 되겠소. 만일 원한다면 앞으로 강의할 제강을 당신을 위해서 한부 찍어주도록 명령하겠소. 그것만 있으면 상학을 할 때도 직접 필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신께 유리하지.》

《대좌님, 너무 수고를 끼치는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간단한 일이요! 나는 당신과 알게 되여 매우 기쁘오. 그리고 옛 친구의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것이 기쁜 일이요. 당신이 빨리 소환되면 섭섭하겠는걸…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당신께 더욱 제강이 소용될거요. 이번주 마지막엔 제강을 받을수 있을게요.》

헨리흐는 오래간만에 며칠동안 한가한 시간을 얻었다. 그는 애수를 느끼며 지어 공포에 싸여 그것을 생각했다.

그는 맹렬하게 달린 후 갑자기 멎었을 때 주위의 모든 물체가 하나의 련속적인 선으로 합치면서 옆으로 움직여가는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기분이였다. 그래서 그는 빠리를 돌아보면서도 그 어느것에도 주의를 집중할수 없었다. 거리들, 광장들, 기념비들이 눈을 자극할뿐 상상력도 흥미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꾸르트는 이름있는 기념비라든지 훌륭한 건축미를 보여주는 건물앞을 지날 때 자동차의 속도를 늦추기도 하였으며 넓고 웅장한 광장들에서는 리볼리거리쪽으로, 무수히 많은 골동품상점의 진렬장으로 상급중위의 주의를 끌어보려고 감탄의 목소리를 높이군 하였는데 다 쓸데없는 일이였다. 헨리흐는 개선문밑을 지날 때도 무심했으며 완돈의 원주에 대해서도 피끗 바라보았을뿐이였고 엘리제구역에는 대통령의 궁전이 있었으나 그곳으로 머리도 돌리지 않았다. 그는 계속 차를 몰고 또 몰았으며 같은 거리를 두번세번 지나는것도 몰랐다.

한번은 꾸르트가 물어보지도 않고 마르코보구역으로 돌아가 이옌스끄다리로 가까이 가서 에펠탑옆에 차를 세웠다.

승강기는 운영하지 않았기때문에 헨리흐는 라선형계단을 통해서 탑의 2층까지 올라갔다. 에펠기사가 바로 어느때 높이 3백여메터나 되는 이 굉장한 구조물을 세웠으며 이것을 세우기 위하여 금속과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를 해설하는 안내원의 말도 듣지 않고 헨리흐는 유리복도를 나와 계단승강대에서 란간에 기대서서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제서야 그는 처음으로 빠리를 보았다. 육안으로 보았을뿐아니라 보이는것들에 생명을 불어넣을수 있고 프랑스의 우수한 작가들이 찬양하던 이 아름다운 도시에 대해서 책에서 읽은 기억들도 보충할수 있는 내면적인 눈으로도 보았다.

저곳에 노트르담—빠리의 대사원이 있다. 저명한 작가 빅토르 유고의 작품의 주인공인 가냘프게 생긴 에스메랄드와 그가 항상 데리고다니는 흰 염소를 상기시키는 그 사원은 헨리흐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고있는 곳이였다. 저기 샴베리거리의 바리케트에서는 죽음앞에서도 도전적으로 태연자약하던 용감한 가브로슈가 죽었다. 고리오령감이 곱게 생기기는 하였으나 배은망덕한 자기 딸의 집을 찾아 남모르게 숨어다니던 길이 아마 저 길일것이다.(발자크의 소설 《고리오령감》의 내용을 말함) 듀마의 소설들에 나오는 통쾌하며 대담한 총사들이 한때에는 이곳 시테섬으로 다녔을것이다.… 저쪽 먼곳에는 뻬르—라쉐즈의 묘지와 유명한 꼼무나의 성벽이 있다. 그앞에서 꼼무나의 마지막방위자들이 총살된것이였다.

저물어가는 해빛을 담뿍 받고있는 빠리는 사원들, 탑들, 대건물의 원형지붕들, 기념비들이 창처럼 하늘로 뻗치고있는것이 마치 그 무수히 많은 손으로 해빛을 떠받들고있는것 같았다.

헨리흐는 3층까지 더 올라가보려고 하였으나 그곳에는 무전안테나가 있어서 출입문이 막혀있었다.

넓은 가로수길로 돌아오면서 헨리흐는 마치도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 특이한 아름다움을 비로소 처음 보는듯 하였다. 그는 무엇이 그렇게도 그를 매혹시키는지 한참동안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그러나 문득 그것은 밤나무때문이라는것을 깨달았다. 낯익고 사랑스러운 밤나무, 그것은 그의 고향도시의 아름다움이며 자랑이기도 하였다.

그가 지난밤에 꿈꾼것도 끝없이 푸르른 하늘밑에 무성하게 자란 밤나무의 활짝 핀 꽃이였다. 그는 꿈속에서 모니까와 함께 레닌거리로 걸어갔었다. 바람에 떨어져 날리는 흰 꽃잎들이 공중에서 맴돌면서 조용히 처녀의 검은 머리에 내려앉는것이였다. 이튿날 아침에 헨리흐는 쎄느강기슭에 줄지어 자리잡고있는 고서점 판매원들의 책궤를 돌아보며 빠리려행안내서를 구했다. 그리고 오늘의 무거운 회상을 피하기 위하여 지난 시기의 유적을 찾아보기 시작하였다. 중요한것은 고통스러운 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것이였다.

토요일에 꾸르트는 두툼한 편지를 갖다주었다. 그안에는 새로운 임지로 가있는 사단참모부로 오라는 공식적인 명령과 함께 류쯔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사연은 다음과 같다.

《그리운 친구, 모니까의 사망과 관련하여 아무러한 자세한 소식도 전하지 못하는것이 미안하네. 알려진것은 군용화물자동차가 깔았다는 한가지뿐일세. 자네의 심정을 동정하며 이 어려운 손실을 견결히 견디여나갈만 한 용감성이 자네에게 있을줄 굳게 믿는바일세. 자네와 함께 나도 슬픔을 견디기 어렵네. 모니까아가씨에 대한 나의 충심으로의 존경과 우정은 자네도 잘 알고있을줄 아네.

우리 새 소식을 알리겠네. 사단은 자네가 갔다온 그곳으로 떠나려고 이미 준비가 다되였을 때 갑자기 새 명령을 받게 되였네. 사단장님은 자네에게 즉시 빠리를 떠나 모디나방향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삐네롤로를 거쳐 카스텔리 라 폰테로 올것을 명령하였네. 우리는 아마 거기 배치될것 같네. 려행할 때나 특히 자동차로 달릴 때 조심하게. 그곳은 기후도 좋지 않으니까. 자네가 쁘파이페르를 데리고 올 때보다도 더 심한 감기를 들수 있네. 내 말을 알겠지? 긴 편지를 쓰고싶었으나 인차 다시 만나게 되겠기에 그만두었네. 그때 충분히 이야기하세. 밀레르가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기에 매우 마음엔 없지만 그 말을 전하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네가 무엇때문에 그와 친하게 지내는지 리해가 안되네. 이것은 결코 시기해서 하는 말이 아닐세. 자네는 내가 왜 그를 그렇게 대하는지 알걸세. 기다리겠네! 나쁜 기후에 대해서 한 말을 잊지 말게!

그대의 칼.》

저녁녘에 전화가 왔다.

《폰 골드링남작이십니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로단의 모조품에 흥미를 가지고계신가요?》
《좋은걸 하나 얻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당신께 찾아가도 될가요?》
《꼭 새 조각품을 가지고 와주십시오!》
헨리흐는 송수화기를 놓았다. 골동품상인과의 상봉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그에게 필요하였다. 그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호실에서 골동품상인을 기다렸다. 출발날자를 하루 더 연기하였다.
《꾸르트, 내 증명서를 가지고 위수사령부에 가서 우리가 래일 아침에 빠리를 떠난다는 증명을 해달라고 하라구.》
꾸르트가 떠난 후 한 10분 되여서 골동품상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전화를 몹시 기다렸습니다!》하며 헨리흐는 기뻐하였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단이 이딸리아로 이동됩니다. 어딘지 똑똑히는 모르나 아마 카스텔리 라 폰테일것 같습니다.》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히틀러도당은 바로 북부이딸리아에서 복잡한 정세에 맞다들리고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면 정세를 알아보고 즉시 주소를 알리십시오.… 그 대답으로 해당한 지시를 주겠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북부이딸리아에서는 당신이 공작하던 그 지대보다 빨찌산운동이 현저히 더 광범하게 벌어지고있으니 당신도 습격을 당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있든지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당신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받을수 있다는걸 잊지 마시오.… 또 무슨 새 소식이 있습니까?》
헨리흐는 켈레르에게서 받은 제강을 보였다.
《이미 가지고있습니다. 몇부 있을겝니다.》하고 골동품상인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거기서 가장 주목할것은 도이췰란드사람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만들고있는 땅크들에 대한 자료를 다 알고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특별히 비밀을 지키고있는 유명한 〈쉐르만〉땅크에 대해서까지 알고있습니다.》
《나는 사단장과 흥미있는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하고 헨리

흐는 빠리에서 있은 에베르쓰와의 상봉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그가 정세를 구원해야 한다고 명확히 암시를 하던 내용을 말하였다.

《그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도이췰란드군대의 지휘성원들사이에서는 히틀러에 대한 불만이 더욱더 커지고있습니다. 음모도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것은 장관의 담화이며 군제르대장이 전해주기로 된 그 부탁입니다. 그 사람은 제누스나 마찬가지로 히틀러의 미움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실토리의 실마리들일수 있습니다.》하고 손님이 말했다.

《명심하고 공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조국으로 돌아갈 전망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오는것 같습니다. 사태가 급진적으로 전개되여가고있습니다.》

《전 그런걸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대대오에서 함께 싸울수만 있다면 모든것을 다 바칠것입니다.》

《알만 합니다. … 그러나 나나 당신은 〈유명한 씨름군도 혼자서는 싸울수 없다〉는 오랜 격언을 반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깨에는 가장 어려운 임무가 지워져있습니다. 우리는 전투장에 단독으로 나가있지만 무슨 일이 있든지 기어이 싸워이겨야 합니다!》

옆방에서 꾸르트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남작님, 그래 안 사시겠습니까. 이런 조각품은 얻어보기 어려울것입니다. 이 선을 보십시오. …》하며 골동품상인은 젊은 녀성의 반신상소품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다.

헨리흐는 책상에서 물러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그 형상을 감상하는듯 하였다.

《정말 인상깊은데요!》 헨리흐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머니에서 무슨 증권을 꺼내 늙은이에게 주었다.

골동품상인은 인사를 하고 나갔다.

이튿날 아침에 헨리흐는 켈레르에게 전화로 급히 떠난다는것을 알리고 군제르를 찾아갔다. 그는 이른 아침시간이였으나 인차 만나주었다.

《사단장께 전해주오. 나의 건강상태는 현저히 좋아졌으나 치료를 계속해야 하겠다고 말이요. 내가 곧 편지로 자세히 알리겠소.》하고 군제르는 헨리흐에게 말했다.

《돌아갈만 합니까, 대장님!》

《잠간 기다려주오.》

군제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잘 알수 없는 눈길로 차렷자세를 하고 서있는 헨리흐를 때때로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또 전할게 있소. …》하며 군제르는 헨리흐의 눈을 뚫어지게 보았다. 《나는 북부이딸리아의 기후가 당신네 사단장의 건강에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해주오. 기회를 리용해서 잘 치료를 하라고 권고하더라고 말이요.》

《그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

《그럼 가보오. …》

헨리흐는 묵묵히 인사를 하였다.

아침 열시에 꾸르트가 모는 자동차는 빠리를 떠나 넓은 자동차도로를 따라 리옹으로 달렸다. 헨리흐는 아침식사도 할 사이가 없었다. 그래서 꾸르트는 식당까지 빨리 가기 위하여 높은 속도로 차를 몰았다.

마침내 쥬아니거리에 다달았다.

《여기서 세우랍니까, 상급중위님! 빠리로 갈 때 여기서 점심식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식당은 저기 있습니다.》 꾸르트는 거리입구에 있는 화려한 단층집을 눈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헨리흐는 무심히 오른쪽을 바라보자 갑자기 자신이 제동기를 잡고 급히 차를 멈춰세웠다.

식당옆에 낯익은 자동차가 서있었던것이다.

《소장님은 어디 계시오?》 헨리흐는 조장의 견장을 달고있는 운전사에게 물었다.

《모릅니다.》 에쓰에쓰대원은 무뚝뚝하게 대답하였다. 그에게는 이 상급중위가 쓸데없는 호기심을 나타낸다고 생각된것이였다.

헨리흐는 식당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소위견장을 단 에쓰에쓰장교가 또 한사람 나서서 헨리흐의 길을 막았다.

《무슨 용무입니까?》 그는 헨리흐를 문에서 밀치다싶이 하면서 무례하게 물었다.

《베르트골드소장님께 폰 골드링남작이 만나고싶어한다고 전해주오.》

소위는 헨리흐를 한참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아무말없이 식당안으로 들어갔다.

몇분도 지나지 않아서 베르트골드자신이 흰 수건을 샤쯔앞에 건채로

문에 나타났다.

《어디서 오는 길인가? 무슨 일로?》 그는 이렇게 말하며 헨리흐를 포옹하고 입맞추었다.

골드링을 시답지 않게 맞이했던 소위와 베르트골드와 함께 현관으로 나온 중위는 문량쪽에 차렷하고 섰다.

《내 호위장교들이야.》하고 베르트골드가 지나가며 말했다.

헨리흐는 그 장교들에게 눈길도 돌리지 않고 약간 머리를 끄덕이는것으로 인사를 하였다.

《사복을 입으시니까 더 어울리십니다, 아버님!》 골드링은 일부러 큰소리로 말하고 회색양복을 입은 베르트골드의 체격좋은 모습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었다.

공손히 길을 비켜선 장교들은 그들의 담화에 흥미있게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베르트골드는 걸어가면서 명령을 남기고 앞섰다.

《내가 아들애하고 아침식사를 하는 동안 여기들 있어주오.》

이번에는 소장의 아침식사가 오래 끌었기때문에 호위장교들은 음식을 먹는 칼소리며 식기소리와 자기 상전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부러운듯 듣고있었다. 아마도 상전이 뜻밖의 상봉에 매우 만족한 모양이였다.

《북부이딸리아로 가게 되였다니 참 잘되였네.》 베르트골드는 헨리흐가 어디서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찬성하며 말을 이었다. 《요사이에는 도이췰란드에서 멀리 나가있는것이 좋아. 물론 거기 가서도 주의해야 하네. 이틀전에 엘자부인과 로르헨을 스위스로 보냈네. 거기서 기다리라고…》

《그리로 떠난지 오래 됐나요? 어저께야 저는 빠리에서 로르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는 그리로 보내줄거네. 적항공습격이 빈번해지니 녀자들은 당분간 뮨헨으로 돌아오지 않는편이 좋을걸세. 겸사해서 스위스에 가면 별장을 하나 구해보라구 했네. 기억나나? 자네하구 그 이야길 한 일이 있지.》

《저도 한몫을 담당해야 할걸…》

《걱정말게. 빵공장을 팔아버렸네. 그리고 로르헨몫으로 목장도 팔았네. 동부전선에서 가지고온 저금만 해도 충분하니까. 자네 돈을 딸라로 바꾸었나? 그거 잘했네! 그건 전후에 쓸모있을걸세.》

《빨리 끝장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고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헨리흐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베르트골드는 침울하게 한숨지었다.

《사태발전이 우리 희망대로 되지 않는것 같소. 그놈의 저주할 로씨야놈들이 우리 계획을 파탄시켰거던!》 물고기료리도 먹어치우고 소고기료리를 먹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의 공격을 막을만 한 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르트골드는 어깨를 으쓱해보였으나 헨리흐에게 대답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신심이 없었다.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충분한 수량만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는가에 달렸네.》

《그러니까 신형무기에 대해서 떠도는 말이 선전을 위해 꾸며낸 말은 아닌 모양이지요?》 헨리흐는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도이췰란드의 원쑤들은 머지않아 자기 몸으로 그 진실을 체험하게 될걸세.》

《무슨 무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정말로 특별히 위력있는것인줄 믿습니다. …》 헨리흐는 순진한 태도로 말했다.

베르트골드는 비록 식당안에 아무도 외인이 없는것을 잘 알았으나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나서 목소리를 낮추어 소곤소곤 말했다.

《그건 바바리야숲속에 앉아서 한개 대대가 침착하게 체계적으로 런던을 붕괴시켜버릴만 한 그런 힘을 가진것이야.》

헨리흐가 진정으로 놀랜것을 그의 얼굴표정에서 알게 된 베르트골드는 웃음을 터치였다.

《그렇단 말이야! 비행하는 포탄! 사람들이 베를린부근에 앉아서 무전기를 통해서 그 포탄을 조종한단 말이야. 그 포탄만 쓰면 우리는 모든 원쑤들을 항복시킬수 있네. … 내가 지금 자네에게 한 말은 비밀이야. 알겠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해도 이 말을 옮겨선 안되네.》

《저에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님!》

소장은 음식을 먹던 포크로 위협하는 시늉을 하였다.

《쎈－레미에 있는 그 젊은 프랑스녀자는? 내가 모를줄 아나?》

《그 녀잔 꽃이나 알지 무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젊은 처녀들이 다 그

런것처럼… 더구나 그 녀잔 며칠전에 죽었습니다.》
《죽었다구? 어떻게?》
《자동차에 치워서요. …》
만일 베르트골드가 그 순간에 료리접시로 머리를 숙이지 않았더라면 그의 미래의 사위가 그의 얼굴에 비낀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진것을 보았으리라.
《그렇다면 그 녀자의 명복을 위해 한잔 드세!》 베르트골드는 단숨에 술을 마셨다.
헨리흐는 잔에 입술을 댔을뿐이였다.
《아버님, 지금까지 저에게 물어보기만 하시고 다른 말씀은 안하셨습니다. 어째서 갑자기 프랑스에 오시게 되였나요?》
《새 환경이 새로운 사업형식을 요구한다네. 그런데 우리 에쓰에쓰에는 천치들만 그득하단 말이야. 그 마키들을 어루만지고있거던. 몇달씩 인질을 잡아두군 하면서… 무데기로 총살하고 주민들이 보는앞에서 목을 매달아야 하네. 그래서 내가 직접 와서 머리를 고쳐주자는거네. 빠리에 들렸다가 곧바로 집으로 가겠네. 자넨 새 주소를 인차 알려주게. 북부이딸리아에는 내 친구도 있으니까, 내가 소개해주지. 가만있자, 자네네 사단이 어디로 간다고 했지?》
《카스텔리 라 폰테입니다. …》
《카스텔리 라 폰테?… 바로 거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네. 상당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야. 만일 라모니백작이 로마에 없다면 자기 성에 있을걸세. 그 사람에게 소개해주지. 곧 몇자 써주겠네.》
베르트골드는 수첩을 꺼내더니 간단히 썼다.
《라모니를 꼭 찾아가라구. 자네가 보기에는 그분이 당사업이나 정치와 관계를 끊고있는것 같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백작이 흑샤쯔단운동의 지도자의 한사람이야. 우린 그 사람을 상당히 평가하고있네.》
식후에 차를 마시면서 베르트골드는 또다시 전선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다시한번 신형무기에 큰 희망을 걸고있다는것을 말하면서도 헨리흐에게는 어떻게 정세가 변해도 거기 대처할수 있게 장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작별할 때 베르트골드는 또다시 헨리흐에게 상기시켰다.
《헨리흐, 나나 자네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예견성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래를 맞이해야 한다는것을 잊지 말게. 돈을 망탕 쓰지 말고 특히 딸라를 아껴야 하네. 우리가 다 스위스로 넘어가야 할수도 있겠는데 그때에는 저금해둔것이 아주 유용하게 쓰인단 말일세.》

(배에서 도망쳐나가려는 또 한마리의 쥐새끼가 여기 있구나!) 하고 헨리흐는 혼자 생각했다.

미래의 장인과 사위는 작별할 때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다. 베르트골드는 언제나 그렇듯이 마지막순간에 걱정이 되는듯 말을 하는것이였다.

《빨찌산총알도 조심해야겠지만 이딸리아처녀들도 조심해야 하네. 듣자니 거기 녀자들이 잘났다는데. 그 프랑스처녀에 대해서는 로르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겠으니 안심하게. 우리야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나 죄를 지어도 한도가 있어야지, 자네야 젊은 안해가 기다리고있지 않는가.》

베르트골드는 호위장교와 함께 먼저 떠났다. 헨리흐는 꾸르트가 아침요기를 하는 동안 기다려야 하였다.

자동차는 또다시 남쪽으로 달렸다.

새 임무를 앞에 놓고

헨리흐가 카스텔리 라 폰테거리에 도착한것은 이미 저녁녘이였다. 해는 벌써 서산에 넘어갔고 그란드-빠라딕코의 설봉에만은 아직도 황금해빛이 걸려있었다. 산아래쪽에는 검은구름이 빙 둘러싸고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 구름이 설봉을 둘로 갈라놓았고 그 상상봉은 보이지 않는 손에 받들려 하늘로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화환과 같이 보였다.

그란드-빠라딕코는 넓고 푸르른 골짜기를 사방에서 둘러싸고있는 산들의 맨끝을 맺고있는것 같았으며 넓지는 않으나 급하게 흐르는 산지대의 강이 띠처럼 그 대지를 둘로 갈라놓고있었다. 거리부근에 와서야 강물은 완만하게 흐르기 시작했으며 그다음에는 그 깨끗하고 수정같이 투명한 물이 조용히 흐르고있었다. 자연을 지배하고있는 그 놀랠만 한 정적을 깨뜨릴가 저어하기나 하는듯 가벼운 바람조차 나무잎을 건드리려 하지 않는 그런 초저녁의 고요가 깃들고있었다. 흔히 아

직 길고 무더운 8월의 저녁이면 그러한 정적이 저녁마다 찾아오군 하는것이였다.

마치 불협화음과도 같이 전쟁에 대해서 즉 폭탄과 포탄이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와 마을을 파괴한다는것을 상기시키려는듯 눈에 뜨이게 길다란 차단봉이 거리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로막고있었다. 흰줄과 검은 줄로 칠한 차단봉은 누리에 깃든 정적속에서 장례표식과도 같았다.

그옆에는 자연의 몸에 난 보기 흉한 종처모양으로 둥그렇게 지은 야전병실이 배치되여있었다. 50메터쯤 거리를 두고 둘째 병실, 그뒤에 셋째, 넷째, 다섯째 병실이 있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경치가 좋은 이 소도시는 취할듯이 투명한 공기를 마시려고 휴식하러 오는 수천의 사람들을 끌었었는데 지금은 주위환경과는 조화되지 않는 특이한 요새로 화해버린것이였다.

소도시의 거리들에는 땀에 밴 군복을 단추 하나 풀지 못하고 무장까지 휴대한 병사들이 어슬렁거리고있었다. 때로는 흑샤쯔단원들을 만날수도 있었다. 시내에는 사민이라고는 한사람도 남아있지 않는것 같았다.

사단참모부는 중앙거리에 있는 전에 려관으로 쓰던 건물에 자리잡고 있었다. 헨리흐는 류쯔의 방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십시오.》 닫긴 문안에서 울리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왔다. 지금은 다소 성이 난듯 한 목소리였다.

《대위님, 만나볼만 합니까?》하며 헨리흐는 롱으로 경례를 붙이며 말했다.

《이제야 왔군!》 류쯔는 자리에서 펄쩍 뛰여일어나며 말했다. 《정말 자네가 보고싶었네. 지칠줄 모르는 려행가량반!》

오래 갈라졌다 만난 두 장교는 그동안에 자기 신변에 생긴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였다. 그들중 누구도 모니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마치 그 화제를 꺼내기 겁내하는것 같았다. 마침내 헨리흐가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편지에 쓴 이상 더 말해줄게 없나?》 그는 조용히 류쯔에게 물었다.

《모니까를 깔아눕힌 자동차가 어디것인지 알아내려고 수태 애를 썼는데 소득이 없었네. 밀레르도 수색을 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더군. … 장례때는 내가 꾸비쓰와 함께 참가했네.

꾸비쓰가 자네의 명의로 무덤앞에 화환을 놓았을 때 난 여간 가슴이 아프지 않았네. 해질무렵에 모니까를 장례하는 그때 꾸비쓰의 손에 피가 멀겋게 물든것 같이 한순간 느껴지더군.》

헨리흐는 일어서서 창문께로 가서 그란드-빠라딕코의 설봉을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류쯔는 감히 침묵을 깨뜨리지 못했다.

《골드링 아니요?》하는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헨리흐는 돌아보았다. 에베르쓰는 벌써 군모를 쓰고 자기 사무실 문턱에 서있었다. 아마 그는 나갈 차비였던 모양이였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10분전에 빠리에서 도착했습니다.》

《내 방으로 오오.》

소장은 군모도 벗지 않고 늘쌍 앉군 하는 책상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자기 특수임무장교에게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권했다.

《빠리의 내 친구에게서 무슨 소식을 가져왔소?》

헨리흐는 군제르의 말을 되풀이하였다.

군제르의 건강에 대한 첫 말은 소장의 마음에 드는 모양이였는데 북부이딸리아의 기후가 에베르쓰의 기분에 좋은 영향을 줄듯 하다고 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곳에선 다 일이 잘되는듯이 생각되는 모양이지.》하고 그는 화가 나는듯 말하고 일어섰다. 《상급중위, 매우 감사하오. 그럼 오늘은 쉬고 래일부터 일에 착수합시다. 일이 막 쌓였소.》

류쯔는 헨리흐가 소장과 이야기를 끝낼 때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래 숙소형편은 어떤가?》 그들이 둘이 남았을 때 헨리흐가 물었다.

《아주 형편없네. 자네 있을데를 구해볼가 했는데 적당한 곳을 얻지 못했네. 오늘은 나한테서 지내고 래일 직접 궁리해보오.》

류쯔는 참모부가 있는 건물 3층에 살고있었다.

《우린 여기서 야전식으로 살고있네.》 대위는 간단한 저녁식사를 상한구석에 벌려놓으면서 설명하였다. 《차차 좋아지겠지. 아직은 닥치는대로 적당히 먹어야 하오.… 자네가 몹시 피로하지 않다면 성안에 들려도 좋겠지만… 그 성의 주인인 라모니백작은 아주 소탈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네.》

《라모니백작? 그 사람이 여기 있나?》
《그 사람을 아는가?》 류쯔는 놀랐다.
《직접 아는건 아닌데 베르트골드에게서 소개신을 받아가지고 왔네. 그의 옛친구라더군.》
《그거 아주 멋있게 됐네! 백작은 날 보구 자기 성에 와있으라고 했지만 난 거절했네. 먼길을 걸어다녀야 하겠기에 말일세. 그러나 자네에겐 자동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능히 살수 있을걸세.》
《자넨 마치 백작이 나도 오라고 초청할듯이 말하네그려.》
《만일 백작이 초청하지 않는대도 그의 조카딸 마리야－루이자가 틀림없이 초청할거네.》
《어떤 녀자인가?》
《직접 보게나! 다만 경고해둘건 백작의 그 젊은 조카딸이 이 촌구석에서 몹시 적적해한다는것일세. 그 녀자는 하느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카스텔리 라 폰테에 현대식상점들이며 극장들, 술집을 만들것을 잊어버렸다고 한스럽게 생각한단 말일세. 자기 죄를 고백할 똑똑한 신부 하나 이곳으로 보내지 않았다구…》
《그 녀자에겐 죄가 많은가?》
《아직 상복을 벗지 않은 젊은 과부로서는 좀 지나친것 같네.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젊은 녀자의 주의를 끌었던 모든 우리 장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있지.》
《아하! 그러니까 그런 행운아가 적지 않은게로군! 혹시 자넨 그중의 한사람이 아닌가?》
《그 녀잔 나같은건 예비로 장악하고있지. 그 녀자의 눈에는 내가 부인을 대하는게 몹시 낡았다는거야. 그까짓건 그렇다치구! 난 자네하고 그따위 상류사회의 방탕한 생활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던 참일세. 무엇보다먼저 자네에게 경고해주고싶은것은 자네에게 고질로 된 경솔한 행동을 그만두라는걸세. 그것때문에 자넨 능히 피할수 있는 위험과 부딪치군 한단 말일세. 이런 말을 한다고 노여워하지도 말고 변명도 하지 말게. 문제는 우리가 극히 나쁜 곳을 인계받았다는 거기에 있네. 우리가 오기 전에 여기엔 에쓰에쓰사단이 있었네. 자네도 알겠지만 에쓰에쓰성원들이 있던 곳에서는 주민들의 갈길이 공동묘지 아니면 빨찌산일세. 그래서 여기서는 프랑스에서보다 빨찌산이 더 적극

적이란 말일세. 우리로서 다행으로 생각되는것은 그들의 세력이 분렬되고있는것일세.》
《그건 무슨 말인가?》
《그들이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활동하는것이 아니라 호상간의 의견상이때문에 많은 력량을 랑비하고있단 말일세. 그들중에는 민족주의자들, 민주주의자들, 그리스도교도들, 가리발지대원들 등 다 렬거하기 힘들게 각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건 가리발지대원들일세. 그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인데 귀신처럼 싸운다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보다 자네 친구 밀레르가 더 자세히 이야기해줄걸세. 그렇지 않으면 꾸비쓰가… 그런 망나니같은 놈!》
《그걸 이제 알았나?》
《난 그자를 한번도 동정한 일이 없네. 지금은 그저 증오할뿐일세!》
《어째서?》
《빨찌산과의 투쟁이 현저하게 강화되였기때문에 우린 여기다 사단병원을 두고있네. 거기에 마찌니라는 주임의사가 있는데…》
《이딸리아사람인가?》 헨리흐는 그 이름이 이상해서 물었다. 그는 도이췰란드군대에서 그러한 직무를 도이췰란드사람만이 맡을수 있다는것을 잘 알았기때문이였다.
《아버지켠으로만 이딸리아사람이고 어머니켠으로는 순수한 아리아족이야. 그를 병원의 주임의사로 임명할 때는 틀림없이 그것을 고려했을걸세. 하여튼 그 사람은 일등급의 외과의사일세. 그 사람을 만나보면 자네도 확신하겠지만 그는 매우 동정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 마찌니와 꾸비쓰간에 진짜전쟁이 벌어졌단 말일세.》
《여기 온지 며칠밖에 안되는데 벌써!》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첫 충돌이 있었네. 꾸비쓰는 마찌니에게 모르핀을 요구했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안 주겠다고 거절했네.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됐지!》
《꾸비쓰가 얼마나 미쳐날뛰였겠는지 상상이 가네!》
《그러나 자네는 마찌니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상상 못할거네! 마찌니가 매우 유순하고 인정많은 사람인것을 알게된 (마찌니가 모르핀을 거절한것도 순전히 인도주의적립장에서 출발한것이니까.) 꾸비쓰는 심문을 할 때 자기 사무실로 그를 불러들여

체포해온 사람들에게 어떤 실험까지 하라는것을 강요했단 말이요. 마찌니는 물론 절대적으로 거부하였소. 그래서 지금 꾸비쓰는 그에게 앙심을 품고 위협도 하고 공갈하고있소. …》

《정말 나쁜 놈이군! 그러나 걱정말게. 내가 그 모르핀을 충분히 가지고왔으니까. 꾸비쓰가 중독이 돼서 죽을테면 죽으라지. 이 세상에서 악귀같은 놈이 하나 줄겠으니까. 그자가 모르핀을 보기만 하면 마찌니한테도 좀 너그럽게 대할게요. … 그런데 밀레르는 어떻게 지내고있나?》

《그는 무엇때문엔지 베를린에 있는 자네 아버지에게서 감사를 받았네. 지금은 군사등급이 올라갈 때를 기다리고있는 모양이야. 점점 더 교만해지고있네, 물론 자네하고는 항상 특별히 대하고있지만. 밀레르의 복덩이손을 통해서 어떠한 새법이 생겼는지 아나? 전화를 들고 보라구.》

헨리흐는 전화기로 다가가서 거기 붙여놓은 《원쑤가 엿듣고있다!》라고 쓴 종이쪽지를 보았다.

류쯔는 지금 걸음마다 그런 글쪽지를 볼수 있으며 전화통화도 엄격히 비밀보장을 하게 되여있고 매개 참모부일군들은 다 자기 호칭을 가지고있는데 사단장은 《아저씨》, 참모장은 《아버지》, 류쯔는 《신랑》, 밀레르는 《중》, 꾸비쓰는 《신부》라고 부른다는것을 이야기하였다.

칼과 헨리흐는 옷을 벗고 불을 끈 후에도 한사람은 침대에 눕고 또 한사람은 쏘파에 누워서 오래동안 이야기를 더 계속하였다.

바로 그 시각에 꾸비쓰는 골드링을 찾느라고 온 시내를 발칵 뒤지였다. 그는 우연히 거리에서 만난 꾸르트에게서 골드링이 도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것이였다. 남작이 약속대로 귀한 주사약을 가져왔으리라는것을 생각만 하여도 그는 새힘이 나고 허탈상태에서 벗어난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에게 물어보아도 헨리흐가 어디서 자고있는지 몰랐다. 밤늦게야 꾸비쓰는 류쯔에게 전화를 걸 생각이 났는데 류쯔는 화가 나서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고 제발 남이 잠자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하는것이였다.

그러나 하여튼 꾸비쓰는 날이 밝자마자 류쯔에게 찾아왔다. 정확히 말한다면 걸어왔다기보다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당도하였다. 그는 겨우 발

을 옮겨놓았다. 꾸비쓰는 아무에게도 한마디 인사도 못하고 숨을 헐떡이면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보통때도 창백하던 그의 얼굴은 푸른 그늘이 졌고 눈까풀이 내려앉아 눈을 거진 감은것 같았다.

아침 일찍 찾아온 손님이 왜 그런 상태인가를 짐작한 헨리흐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자그마한 암풀 두개를 내주었다. 꾸비쓰의 눈은 기쁨에 번뜩였다. 그는 암풀을 받더니 주사기가 든 작은 통을 주머니에서 꺼내 자신있는 동작으로 모르핀을 제 몸에 주사했다. 한 5분동안 꾸비쓰는 안락의자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앉아있었다. 그러자 푸르께하던 그늘이 얼굴에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두손은 떨리지 않게 되고 눈에는 불꽃이 튀며 입가에는 미소가 나타났다.

《남작! 당신이 올 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 천사가 있다는걸 믿지 않았소. 그러나 오늘 나는 그것을 믿게 되였으며 당신이 바로 첫째가는 천사요! 어떻게 감사를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소. 이 군복을 벗어던지고 다시 법의를 입게 되면 밤낮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하겠소.》

《당신이 권총대신 십자가를 바꾸어쥐기 전에 빨찌산이 우리를 저세상으로 보내지 않겠는지!》 류쯔는 화가 나서 말했다.

《지금 나는 락천주의를 받아들였기때문에 미래를 활기있게 내다보겠소.》 하며 꾸비쓰는 안락의자에서 펄쩍 일어나 방안을 거닐며 말했다. 《여보 대위, 죽었던 사람이 소생하는 이 상쾌한 기분을 당신은 모를게요! 혈관마다 또다시 피가 뛰는것을 느끼는 이 취할듯 한 쾌감! 자기 기분이 그렇게 돌변하는 그 쾌감을 당신은 영원히 알지 못할거요. 1분전에는 죽은 목숨이였으나 지금은 온 세계가 다 내게 복종하는것 같구 그것이 다 나를 위해서 창조된듯이 느껴진단 말이요!》

《난 그걸 모르는걸 다행으로 아오! 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흥분을 반대하오.》

《인공적이거나 또는 자연적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소? 기분이 좋다면 무슨 방법으로 그 좋은 기분을 얻는가 하는것은 부차적문제요. 방법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소. 결과가 중요하오. 남작, 그 신묘한 불로약을 많이 가져왔겠지요?》

《오늘은 더 안 주겠소!》

《언제 그걸 내게 넘겨주겠소?》

《난 그렇게 우둔한 짓은 하지 않겠소. 정량대로 주겠소. 당신은 마취제를 람용하고있소. 한 암풀로 시작하던것이 이제는 두대, 세대씩이요. 처음에는 피하에 놓던것이 이젠 직접 정맥에 놓고있소. 나는 당신이 오늘처럼 형편없이 된걸 한번도 보지 못했댔소. 그런걸 그냥 눈감는다면 그건 우정이 있다고 할수 없을거요.》

《아, 남작! 나는 아오. 당신의 마음이 선량하고 손이 후하다는걸. 그래서 나는 장래에 대해서도 안심하고있소. 그러나 지금 한대만 더 주구려. 지난밤에 그랬듯이 발자취를 잃어버린 개새끼처럼 당신을 찾느라고 달려다니지 않게 말이요.》

《첫 부탁인만큼 한대만 더 가져가오!》

《과연 당신은 마음이 좋아! 시간이 없는게 유감인걸. 그렇지만 않았다면 당신을 위하여 이딸리아식으로 소야곡을 한곡조 불러드릴걸, 이런 곡조라도 말이요!》

꾸비쓰는 이딸리아노래를 회파람으로 불면서 문밖으로 사라졌다. 지금 그는 활기가 있고 경쾌하며 방금전에 방으로 들어왔을 때와 같은 절반 죽은 사람과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았다.

《헨리흐, 난 자네를 리해할수 없어! 무엇때문에 자네는 그 망나니에게, 게스타포사람들중에서도 손꼽히는 망나니에게 그렇게 대하는거요?》 류쯔는 불만스럽게 물었다.

《집단을 위해서…》 헨리흐는 절반 롱으로, 절반 진담으로 대답하였다.

참모부에서는 온종일 긴장하게 사업이 진행되였다. 현저한 수량의 보충병이 사단에 도착하였다. 에베르쓰는 골드링에게 새로 도착한 장교들의 문건을 료해할것을 위임하였다.

《슈쩬겔소좌의 특별구분대란건 무어요?》 헨리흐는 문건을 살펴보다가 류쯔에게 물었다.

《그걸 누가 알겠나! 그 소좌를 난 한번 보지도 못했네! 우리가 오기전에 카스텔리 라 폰테에 있던 에쓰에쓰사단 성원으로 들어가있었소. 그 구분대는 무슨 대상물을 경비하고있는데 그건 사단장, 참모장 그리고 밀레르만이 알고있소. 한번은 내가 슈쩬겔에 대해서 소장께 물었더니 소장은 나나 자네가 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게 좋

은듯이 암시하더군.》

《그럴라면 그러라지!》 헨리흐는 아무 일 없는듯이 이렇게 말하면서도 소좌의 리력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서 읽었다. 슈쩬겔이 여섯번이나 높은 표창을 받았다는 한가지만 가지고도 그가 조국앞에 특별한 공훈을 세웠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였다.

저녁때 일을 끝낸 후 헨리흐와 류쯔는 라모니백작에게 찾아갔다. 류쯔는 이미 낮에 마리야—루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저녁 7시에 오라는 초청을 받았었다.

성새는 거리에서 한키로메터쯤 떨어진 곳에 있는 높은 바위우에 있었다. 그 바위는 마치 대지의 입구를 경비나 하고있는듯이 외따로 서있는 파수군처럼 협곡옆에 높이 솟아있었다.

성새의 문을 지키고있던 두명의 흑샤쯔단원은 류쯔를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자동차를 세우지도 않고 통과시켰다.

정면 현관옆에 있는 기둥을 줄지어세운 자그마한 복도에 또 한명의 흑샤쯔단원이 서있었다.

《백작은 자기 조국에 있으면서도 그다지 안심이 안되는 모양이지? 경비만 보라구.》하며 헨리흐는 웃으며 말했다.

《난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딸리아사람들의 호상관계와 여기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도무지 리해가 되지 않소. 공식적으로는 백작이 아무러한 직무도 차지하고있지 않고 또 아무 당에도 속해있지 않은것 같소. 적어도 그의 말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요. 그런데 중요한 인물로서 가리발지대원들에게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고있단 말이요.》

손님들은 넓은 대리석계단을 통해서 하녀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왼쪽으로 구부러져 회화진렬실을 련상케 하는 큰방으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몇개의 편리하게 생긴 안락의자들과 자그마한 탁자 이외에는 다른 가구가 없었다. 벽들에는 그림이 빼곡이 걸려있었다.

《백작은 그림애호가이고 그 부문에 조예가 깊은 모양입니다.》하고 류쯔가 설명을 시작하다가 복도에서 걸어오는 소리를 듣자 입을 다물었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뒤에서 건장하게 생긴 노복이 밀고오는 삼륜차가 문턱에 나타났다. 라모니백작은 그 삼륜차안에서 베개에 기대

앉아있었다. 그는 이미 로년기에 들어선 늙은이였는데 얼핏 보기에 70인지 80인지 혹은 90인지 그 한계를 가릴수 없는 로령기였다. 그의 마디진 긴 손가락은 바둑판무늬의 목도리우에 놓여있었고 방금 바로세우려고 하던 그의 머리가 흔들거리다 앞으로 수그러지는것이 마치 늙은 목이 머리의 무게를 견디여낼만 한 힘이 모자라서 그런것 같기도 하였다. 사방으로 퍼져있는 수많은 크고작은 주름살로 뒤덮인 백작의 얼굴은 이상한 인상을 주었다. 착잡하게 뒤엉킨 주름살 한가운데 마치 두개의 중심축처럼 백작의 눈섭없는 두눈이 검게 자리잡고있었다. 보기 흉한 얼굴이 살아움직이고 입술에서 말이 튀여나오군 하였으나 그 두눈은 깨뜨릴수 없는 정적속에 얼어붙어 방금이라도 빛을 잃어버릴 작은 숯덩이를 상기시켰다.

류쯔와 골드링은 상관이 나타났을 때처럼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우리 성새에까지 와주어 반갑소.》 하고 백작은 도이췰란드말로 인사를 하였다.

《건강하신 백작님을 뵈오니 매우 기쁩니다.》 하고 류쯔도 례절있게 대답하고나서 말을 이었다. 《저의 친구인 폰 골드링남작을 소개합니다.》

헨리흐는 몸을 숙여 인사하였다.

《저의 아버지인 베르트골드소장께서 백작님께 문안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쓴 편지를 가지고왔습니다!》

헨리흐는 편지를 전했다.

백작은 편지를 급히 훑어보더니 말했다.

《이거 정말 잘됐군! 윌헬름 베르트골드의 아들을 내 성안에서 맞이하다니 참 잘됐군. 한 10년전에 나는 그 어른과 함께 일을 했다오. 남작, 그래 언제 도착하셨소?》

《어저께 도착하여 오늘 찾아뵙게 되였습니다. 이런 반가운 방문을 하루라도 미룰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같은 늙은것에 주의도 돌리지 않는 법인데 이렇게 친절히 찾아주니 더욱 반갑소. 어디 숙소를 정하셨소?》

《아직 류쯔대위의 호의로 함께 있습니다만 곧…》

《우리 소도시에서 적당한 자리를 얻지 못하겠소! 만일 베르트골드소장의 아들을 나의 성안에서 류숙하게 하지 않고 다른데로 보낸다면 그

어른께 정말 면목이 없는 일이요. 나의 조카딸 마리야—루이자 역시 그렇소. 곧 그 애한테 갑시다. 그 애도 당신께 그 말을 할게요.》

《마리야—루이자에게 손님이 오셨다고 여쭈어라!》 백작은 녀종에게 분부하였다. 녀종은 여러개의 방문가운데서 한 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마리야—루이자는 인차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도착하기까지 늙은 백작은 방안에 그득히 차있는 그림중에서 몇개의 그림에 대해서 그 력사를 장교들에게 설명해주었다. 그곳에는 극히 최근에 나타난 화가들의 그림도 걸려있었는데 주인의 설명을 듣고나서도 그 그림의 뜻을 리해하기는 힘들었다. 아마도 백작자신도 그 그림에 대해서는 리해가 깊지 못한 모양으로 그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고 그의 목소리에는 가끔 비양기가 나타나군 하였다.

《나는 이런 그림의 숭배자는 아니요. 그러나 내 조카딸은 모든 녀성들이 그러하듯이 류행에 뒤떨어지기 싫어하니까. 마침 그 애가 오는군.》

키가 훤칠하고 가냘프게 생긴 서른살가량 되여보이는 녀자가 방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투명한 천으로 길다랗게 소매를 단 통이 좁은 검은 의복을 입고있었다. 문턱을 넘어서면서 그는 머리를 매만지느라고 손을 들어올렸다. 마치 두개의 날개처럼 가벼운 검은빛옷깃이 어깨에 드리워있었다. 아마도 그 의복의 형이 그러한 효과를 타산한것이 분명하였다. 그 녀자의 자세 역시 그런 의도가 있는듯 하였다. 마리야—루이자는 푸르께한 눈을 좁혀 손님들을 바라보며 머리에 올린 손은 일부러 내리지 않는것이였다.

마리야—루이자의 얼굴표정에도, 그의 모습자체에도 무엇인가 부자연스러운것이 있었으며 갸죽한 둥근 얼굴에는 노끈처럼 곧게 그린 눈섭이며 입연지로 크게 만든 입술이 아무리해도 어울리지 않았다.

《류쯔선생님, 남작어른을 참 잘 모시고 오셨어요!》 마리야—루이자는 노래하듯이 말하고는 헨리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방진 눈길로 바라보는것이였다.

《이 남작이 나의 옛친구의 아드님이시로다.》 하고 라모니백작이 덧붙여 말했다.

《아저씨, 남작어른을 우리 성안에서 류숙하시도록 말씀드렸나요?》

《나의 초청을 네가 확인하도록 이렇게 데려왔다.》

《전 그 초청을 확인할뿐만아니라 저와 아저씨의 청을 거절하시지 않기를 진정으로 부탁해요! 그리고… 털어놓고 말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 차차 익숙되실거예요. 제가 성안으로 오실것을 부탁한것은 저의 리해관계도 있기때문이니까요!》

《제가 무슨 일로 보답해야 할지 아직 짐작이 안되지만 만일 그러시다면 기쁨이 앞섭니다.》

《우리 고장은 매우 평온치 않답니다. 그런데 우린 정말 외토리랍니다! 어떤 땐 무서워지군 한답니다. 정말 우리의 행복하던 이딸리아가 자기 땅, 자기 성안에서도 밤마다 공포에 떨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버렸어요.》

《너는 모든 녀자들처럼 과장하는 버릇이 있어. 우린 믿음직한 성안에 있지 않느냐! 경비나 좀더 잘 조직하면 된다. … 남작은 장교인만큼 그 점에서 우리를 도와줄줄 믿습니다.》

《기꺼이 경비에 대한 지시도 주고 만일 필요하다면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골드링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보답할수 있는것은 그것이 전부인가요?》

《전 저의 기사가 되여줍시사고 당신을 초청한거예요. 그게 어찌 적은 일이겠어요? 사실 기사의 임무는 제한이 없으니까요.》하면서 마리야-루이자는 그 마지막말을 의미심장하게 강조하였다.

라모니백작은 이야기에 지친 모양이였다. 그는 또다시 머리를 베개에 기댔다. 그것을 보자 헨리흐와 류쯔는 일어섰다.

《용서하십시오. 백작님, 렴치없이 너무 오래 앉아있었습니다.》하며 헨리흐가 사과하였다.

《원, 별말씀을 다 하시우! 내가 오히려 제 힘이 약한것을 사죄해야 할 형편이요. 몸이 약하다나니 이렇게 기쁜 자리에도 오래 있지 못한다오. 마리야, 네가 손님접대를 잘해라! 남작어른께 방도 보여드리구. 남작, 제집처럼 생각해주시우! 류쯔어른도 이젠 우리 성안으로 자주 다니셔야지.》

백작은 고개를 숙여 작별인사를 하였다. 노복이 삼륜차를 문쪽으로 밀고나갔다.

《이제 어떻게 할가요? 저녁식사를 하실가요, 그보다 먼저 남작님이 드실 방을 돌아볼가요?》 그들 셋이 남게 되였을 때 마리야—루이자가 물었다.
《내 생각엔 먼저 일을 다 끝내는게 좋겠습니다.》 류쯔가 말했다.
《류쯔씨는 언제나 합리적이고 실무적이시군요.》 하고 마리야—루이자가 비웃듯이 말했다.
《천만에요. 너무나 랑만적이지요! 나는 방을 돌아보는것 같은 하찮은 일때문에 이 성안에서 대접하는 그 좋은 술맛을 상하게 하고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럼 그 두가지를 함께 해버리지요. 저녁식사를 남작어른이 계실 방에다 준비시키고 거기서 새집들이를 축하하십시다.》
마리야—루이자는 송수화기를 들고 녀종에게 조용히 지시를 주었다. 그다음 손님들을 자기가 거처하는 왼쪽켠으로 안내하였다.
《전 여기서 살고있어요. 그리고 이 네개 방을 남작님이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사무실, 도서실, 침실과 객실이예요. 또 하나 아주 편리한게 있는데요, 그건 이 절반쪽에서 따로 쓸수 있는 비상출입구가 공원쪽으로 있다는거예요. 제 눈에 뜨이지 않게 자유로 출입하실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비상구를 결코 리용하지 않을수 없겠는데요!》
마리야—루이자는 헨리흐를 한참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역시 같은 눈길로 류쯔에게로 돌렸다. 마리야—루이자는 장교들에게 로골적으로 애교를 부렸으므로 헨리흐는 저녁식사때에도 백작 조카딸의 기사노릇을 하는것이 생각했던것보다 헐한 일이 아닐것 같아서 은근히 겁이 났다.
그 이튿날 아침에 꾸르트는 중위의 짐을 성으로 운반해갔다. 그날 헨리흐는 주인도 안주인도 만나지 못했다. 그는 밤늦게야 자기 방으로 돌아온것이였다.
마리야—루이자가 친절하게 보내준 저녁식사에는 손도 대지 않고 헨리흐는 급히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침울한 생각을 잊어버릴가 해서 잠을 청했다. 그는 밀레르를 낮에 만난 후 온종일 마음을 진정시킬수 없었던것이였다. 그러나 끝내 잠은 오지 않았다. 헨리흐는 침실용 작은 등을 껐다가 다시 켰다. 부드러운 푸른 불빛이 주위를 밝히였다. 그는 화려한 침대막을 닫았다 열었다 하기도 하고 바로 누워도 보고 옆으로 돌

아눕기도 하였으며 아이들처럼 머리까지 담요를 뒤집어써보기도 하였으나 점점 신경이 예민해질뿐이였다.

오늘 읽은 명령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딸리아주둔 도이췰란드군사령관 께쎌링원수의 명령서에는 이미 헨리흐가 알고있는 지난 여름에 베르트골드가 작성한 지방주민처단계획이 거의 그대로 서술되여 있었다. 개별적인 문구까지도 베르트골드가 말하던것과 부합되였다. 첫 단락과 둘째 단락은 다음과 같았다.

《빨찌산이 있다는 자료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 구역의 주민을 체포해야 하며 빨찌산이 감행한 폭력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총살할것이다.》

헨리흐는 베르트골드가 그 단락을 그에게 읽어줄 때 다음과 같은 구절을 기억한것이였다.

《인질로 둘수도 있고 총살의 구실을 언제나 찾아낼수 있을것이다.》

이와같이 베르트골드의 계획은 채택되였으며 효력을 발생하고있었다. 지금 헨리흐가 이 넓은 침대에서 깃털이불에 파묻혀 누워있는 이 시각에도 그의 조국에서는 마을과 도시들이 불타고있을것이며 수천의 사람들이 죽어가고있을것이다.

이곳 이딸리아의 평화로운 한 구석에서도 역시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있다. 그의 눈앞에서, 그가 있는데서 피가 흐를것이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으며 께쎌링의 명령에 따라 밀레르가 감행하려고 하는 그 큰 탄압을 예방할 방도가 전혀 없는것이다. 비록 가장 복잡한 임무를 준다 하더라도 골동품상인의 소식을 빨리 받았으면싶었다.

이 푸른 등불은 얼마나 창백한 빛을 던져주는것인가! 혹시 장식전등을 켜고 좀더 책이나 읽다가 지쳐서 잠이 오게 할가? 헨리흐는 팔목을 고이고 몸을 일으켰다. 맞은편 벽에 걸려있는 큰 그림이 눈에 띄였다. 머리맡에 손을 뻗쳐 스위치를 돌리니 방안에는 밝은빛이 차넘쳤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그림을 잘 볼수 있었다. 아마도 화가는 그 큰 화폭에 력사에 나오는 와르풀로메예브밤의 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한것 같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화재의 불길이 반영되여 떨고있는 큰 돌벽이 그려져있다. 그 벽옆에 놓인 침대우에 목이 잘리운 늙은이가 누워있었다. 그의 굳어져버린, 죽은 사람의 무심한 눈이 헨리흐를 보고

있다. 그 늙은이옆에는 가슴을 드러내놓은 거인이 서있다. 그는 왼손에 젊은 녀인의 머리채를 잡고 녀자의 머리를 뒤로 제끼고있으며 오른손에는 큼직한 피묻은 칼을 들고 녀자에게 내리치려고 한다. 녀자는 따뜻한 잠자리에서 방금 안아낸듯 한 벌거벗은 어린애를 가슴에 꼭 껴안고있다. 어머니의 눈에는 공포, 애원, 비인간적인 고뇌가 어리여있다. 녀자는 어린애를 보호하기 위하여 살인자에게서 몸을 돌리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있다. 살인자의 눈에는 광신자의 불꽃이, 짐승같은 잔인성이 번뜩인다.

헨리흐는 그 그림에서 오래동안 눈을 뗄수가 없었다. 그러나 문득 그 모든 현상이 살아움직이는것만 같이 느껴졌다. 어린애를 보호하는 녀자의 손이 떨린다. 살인자는 칼을 내리친다.… 아니다. 그것은 칼이 아니라 보총의 총창이다. 길다랗고 뾰족하고 피묻은 총창, 그 살인자는 에쓰에쓰장령의 군복을 입고있다. 그 얼굴… 얼굴은… 매끈하게 빗어넘긴 머리, 짧게 깎은 코수염… 그건 다름아닌 베르트골드다!

당장 그림을 떼야 한다! 바로 앞에 있는듯 한 환각이 일어났다. 헨리흐는 펄쩍 뛰여일어났다. 그 바람에 물병이 엎어졌다.

《무슨 소립니까? 상급중위님.》 옷을 절반 걸치고 침실로 달려온 꾸르트의 물음이였다.

《불을 끄려다가 물병을 다쳤거던… 유리쪽을 치우라구. 그리고 이 그림을 떼오, 그게 자극을 준단 말이야.》

꾸르트가 나간 후 헨리흐는 또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제야 그는 뼈아픈 수치를 느끼였다. 신경을 풀어놓다니! 강철의 신경—그것이 그의 주되는 무기, 말하자면 유일한 무기가 아닌가! 빠리에서 스스로 결심을 든든히 하고서 또 이렇게… 아무 생각도 말고 잠들자, 자신을 질책하지도 말자! 이렇게 조용하게, 몸이 편안하게 쭉 펴고 누워서 이젠 호흡을 조절해야 한다. …내쉬고 다시한번… 또다시 호흡이 고르롭게 될 때까지… 그리고 셈을 세야 한다. 하나, 둘, 셋, 넷…

반시간후에 헨리흐는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10시가 되여서야 잠이 깼다.

《꾸르트, 왜 날 깨우지 않았나?》 그는 련락병에게 추궁하였다.

《너무 달게 주무셔서 그랬습니다. …》

핸리흐는 전화기 있는데로 달려갔다.

《신랑이요? 난 오늘 몸이 좀 좋지 않아 늦어나가겠네. 만일 아저씨가 찾거든 적당히 대답하라구. 좋아! 그럼 한가지 일이 있어서 중에게 들렸다가 거기서 곧바로 자네한테 가지.》

아침식사를 하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녀종이 들어왔다.

《상을 치우랍니까?》 하고 왜 그러는지 프랑스어로 묻는것이였다.

《어서 치우시오.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저 사람에게 물으시오.》 하고 꾸르트쪽을 고개로 가리켰다.

녀종은 련락병쪽을 힐끔 보았다. 꾸르트는 얼굴을 붉혔다.

헨리흐는 성으로부터 시내까지 걸어서 가면서 밀레르와의 행동방향을 더 잘 생각해보기로 하였다. 밀레르가 베르트골드에게서 감사를 받은 후 지나치게 거만해졌다고 한 류쯔의 말은 옳았다. 이제는 폰 골드링이 없이도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인가? 그렇게는 안된다는것을 그가 알게 해야 한다! 지나는 말처럼 무슨 암시를 던져주어야 한다. 고관의 사위에게 어울리도록 권위있게… 밀레르같은 비겁분자는 당장 놀랄것이다.

참모부근처의 독립가옥을 쓰고있는 에쓰에쓰구분대에 간 헨리흐는 고관사위의 성격을 나타낼 기회가 당장 생겼다.

《당신네 장관사무실로 가자면 어떻게 가오?》 헨리흐는 자동총을 손에 든 보초에게 물었다.

《2층입니다.》 보초는 중위에게 눈길을 돌리지도 않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넌 어떻게 되여먹은 자식인데 장교에게 그따위 말버릇이야?》하고 헨리흐는 보초에게 트집을 잡았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있던 게스타포대원들은 호기심을 느끼며 머리를 돌렸다.

《규정대로 말했습니다!》 보초는 건방지게 말했다. 그의 눈은 조소하는 빛이 번뜩였다.

《응, 그렇다! 조장!》 헨리흐는 담배피우는 사람들사이에 서있던 하사관을 불렀다.

하사관은 앞으로 걸어나와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폰 골드링남작이 곧 나와줄것을 부탁한다고 밀레르님께 당장 전달하오!》

조장은 집안으로 들어갔다. 1분도 될가말가해서 밀레르가 현관에 나타났다. 그는 근심어린 얼굴이였다.

《무슨 일이 있었소?》

《바로 그걸 당신께 묻자는거요! 당신네 정문에는 어째서 병사들이 근무를 서는게 아니라 장교를 감히 모욕하는 이따위 못된 놈을 세워놓았냐 말이요?》

밀레르의 눈은 고양이눈처럼 되였다. 그는 병사한테로 걸어가더니 힘껏 팔을 휘둘러 때렸다. 병사는 비틀거렸다.

《이 멍청이같은 놈을 즉시 교대시키고 영창으로 보냇! 후에 내가 직접 례절이 어떤것인지 그와 따져보겠다!》

밀레르는 헨리흐의 팔을 끼고 걸으면서 루루이 사죄를 하면서 2층으로 그를 안내하였다.

《아버지가 빠리에 갔다오는 도중에 만났을 때 당신께 고맙다고 한것이 다소 이른감이 있다고 나에게 암시하던것이 공연한 말이 아닌것 같소. 에쓰에쓰근무를 한다고 해서 병사들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면…》 하고 헨리흐는 랭담하게 그의 말을 막으며 말했다.

《남작, 다시한번 용서를 비네. 어찌다 한번 있은 일이야! 우리 우정, 진정이며 검열된 그런 우정이 한놈의 머저리때문에 손상당할수 있겠나. 그놈은 내가 정신을 차리게 하겠네. …》 밀레르는 주먹을 틀어쥐였다. 헨리흐는 정말로 그가 공포를 느끼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좋네,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난것으로 하세!》 하고 헨리흐는 너그럽게 말했다.

그들은 밀레르가 응접실로 쓰고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꾸비쓰와 게스타포조장이 있고 그밖에 사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 더 있었다. 그가 자유롭게 행동하는것으로 보아 헨리흐는 그 사람이 체포되여온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빠르고 까다로운 그의 눈초리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이였다. 특히 이상할 정도로 넓고 짙은 눈섭은 눈우에 너무나 낮게 내려붙어있어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정원을 지나서 바자문으로 안내해주라구!》 꾸비쓰는 조장에게 명령하고 헨리흐에게 마주 달려나왔다.

《남작, 정의와 보복의 전당인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주니 환영합니다!》하면서 그는 늘쌍 하는 롱섞인 어조로 소리쳤다.

《밤낮으로 나를 위해 기도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서 드린

다는 말은 아니겠지?》

《아니, 이 전당에서는 다른 기도를 드리고있지.》 하고 꾸비쓰는 철면피하게 웃으며 말했다. 《난 머지않아 유혹하는 악마의 배역을 하겠네. … 롱은 그만하고 난 심장이 안정이 안되는데 그걸 가져왔나?》

《약속대로 한대만.》

《감사하네!》 하고 꾸비쓰는 꾸뻑 절을 하고 나갔다. 헨리흐는 밀레르의 사무실로 향했다.

《한스, 난 어저께 께쎌링원수의 명령에 대해서 오래 생각했네. 당신네 일이 많아질것 같아 걱정이 되더군.》 하고 헨리흐는 밀레르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서 말했다.

《명령은 다소 내 팔을 풀어줄것일세. 이젠 지방주민이라고 부르는 그 짐승들과 해보아야 하겠거던. 그들은 빨찌산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빨찌산을 도운자란게 틀림없네. 우리가 여기 도착한 이튿날 내 차가 습격당해서 운전사가 죽은것만으로도 짐작이 될거요!》

《그래 어떤 대책을 취했소?》

《큰 작전을 하기엔 우리 력량이 아직 적소. 인차 보충병이 올게요! 헨리흐, 우리 함께 그 이딸리아놈들을 사냥해봅시다. 당분간 나는 지방주민들속에서 망원들을 모집하는데 주의를 집중하고있소.》

(아마 짙은 눈섭의 사민이 그 망원의 하나였구나!) 하고 헨리흐는 생각하였다.

《사실 나는 전혀 다른 일때문에 내게 와주었으면 했는데… 소장이 당신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디까?》

《아니.》

《내 그럴줄 알았어! 나한텐 당신을 만나 의논해보라구 했거던. 물론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것이 그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당신은 나를 수면제로 리용하자는거요?》

《웃는 소린 그만두오. 헨리흐, 사실 나는 롱을 할 경황도 없소. 무슨 이야긴가 하면 내가 당신과 이야기한 일이 있은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부문으로 당신을 넘겨올데 대한 문제를 소장께 제기했단 말일세. 나에게는 당신의 방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네!》

《나에게 묻지도 않구 소장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요?》

《자네를 기다리고있을수가 없었네. 보통 내가 응당 해야 할 일 이외에 또 한가지 일이, 그것도 아마 가장 힘든 일이 내게 더 차례졌단 말이요. 내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대상물에 대한 외부경비를 담당하라는것일세.》

밀레르가 너무나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말했기때문에 헨리흐는 부지중 웃었다.

《난 웃을 경황도 없네. 나의 임무는 다만 외부경비를 서는 일인데도 그 대상물에 대해서 목을 걸고 책임질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내게 경고하드란 말일세. 내부경비는 슈첸겔소좌란 사람의 특별구분대가 책임지구…》

《내가 당신께 무슨 도움을 줄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상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오라오?》

《난 공장의 외부경비문제를 당신께 맡기자는거요.》

헨리흐는 생각해보았다. 에쓰에쓰기관으로 조동하는 문제는 골동품상인의 지시를 받지 못했기때문에 밀레르의 제의를 받아들일수 없었다. 밀레르가 경비를 맡게 된것이 무엇인지 그자신도 숨기려고 하는것을 보면 아마 그 대상이 극히 중요한것임에 틀림없었다.

《나의 제의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겠나?》

《나에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따져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러나 당신의 조동문제는 말이 있은지 오랬으니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지 않았나.》

《그땐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신은 아주 구체적인 제의를 내놓았으니 말일세. 그 제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대강이라도 알아보아야 하고 대상물도 보아두는것이 필요하단 말일세.》

《외부경비만이야…》 밀레르가 일깨워주었다.

《물론 그걸 보여줄수 있겠지. 그다음에 가부를 대답해주겠네. 사실 나 역시 목을 그저 내놓기는 싫으니 말일세.》

《그럼 오늘 그 저주할 대상물을 돌아보기로 하세.》

《그게 멀리 있나?》

《시내에서 세키로쯤 되네.》

밀레르가 그렇게도 불안스럽게 생각하고있는 그 대상물은 카스텔리 라

폰테 바로 옆에 있는 제방부근 골짜기에 자리잡고있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자면 길이 몹시 구불구불해서 거리가 먼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자동차로 가면 사실 3키로메터밖에 되지 않았다.

아스팔트포장을 한 좁은 도로가 절벽사이로 구불구불 나가다가 낭떠러지로 내려꽂히기도 하고 다시 치달아오르기도 하다가 갑자기 높은 돌벽을 잘라낸듯 한 큼직한 강철문앞에서 길이 막히고만다. 문 량쪽에는 두개의 커다란 콩크리트병실이 솟아있었다.

밀레르는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무슨 조카라는 사람에게 그가 폰 골드링상급중위와 함께 자동차로 가겠는데 차번호는 얼마이라는것까지 전화로 통지하는것이였다. 자동차가 도착하자마자 병실에서 장교가 나왔다. 그는 밀레르와 헨리흐의 증명서를 깐깐히 검열한 후 다시 병실로 돌아갔다. 문은 자동적으로 열렸다가 자동차가 통과하였을 때 다시 자동적으로 닫기였다.

《제길할, 든든히두 막아놓았네!》하며 밀레르는 첫째 문에서 30메터쯤 되는 곳에 솟아있는 둘째 벽을 가리키면서 욕을 했다. 그것은 둘다 넓은 통로를 통해서 분지로 구부러져 내려갔다. 첫째 벽 안쪽으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야전병실이 배치되여있고 그안에서 병사들이 그 지대를 감시하고있었다. 대상물을 직접 가리우고있는 두번째 벽에는 기관총화구를 드러내놓고있었다. 벽둘레에는 철조망이 쳐있고 그너머에서 에쓰에쓰병사들이 왔다갔다하고있었다.

《바로 이 외부지대가 우리 담당구역이요. 우리 구역은 철조망까지지고 그너머는 슈쩬겔과 그의 구분대의 담당지요. 보는바와 같이 복잡할건 아무것도 없소. 당신이 할 일은 많지 않소.》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여기서 빠질려고 하나.》하고 헨리흐는 웃으며 말했다. 《하여튼 우리 구역을 한번 돌아보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라두 알도록…》

밀레르는 내부벽을 따라 천천히 차를 몰았다. 헨리흐는 묵묵히 돌아보았다. 벽에는 작은 문이 있는데 아마 그곳으로 경비원들이 드나드는 것 같았고 북쪽과 남쪽에 자동차가 드나들수 있는 문이 있었다.

《어떻게 결심했소, 헨리흐?》 그들이 카스텔리 라 폰테에 돌아왔을 때 밀레르가 물었다.

《좀 생각하게 해주게. 이렇게 가면서 결정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신중

한 문제요. 에쓰에쓰근무소좌이며 더구나 반란참가자인 밀레르에게도 그가 경비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는걸 보면 탄산수나 과일즙을 생산하는 공장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대상인게 틀림없소. 그런 경비를 맡는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는 일이요.》

밀레르는 한숨을 쉬였다. 그리고 그 이상 즉시 대답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시내에 들어올 때까지 말이 없었다.

《이 일을 꾸비쓰에게 맡기면 어떨가?》하고 밀레르는 헨리흐에게 물어보는듯 그를 바라보았다.

《깨끗한 정신으로 연구해보자구. 그래야 가장 옳은 결정을 지을수 있다네.》

자동차는 참모부에 도착하였다. 헨리흐는 래일 밀레르에게 찾아가겠다고 약속하고 차에서 내렸다.

《편지가 왔네.》 헨리흐가 류쯔의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류쯔가 알려주었다.

헨리흐는 우편국도장을 보았다. 도장이 몇개 찍혔는데 첫째 도장은 스위스의것이였다.

《차차 읽지.》 헨리흐는 이렇게 결심하고 로르헨의 편지를 되는대로 주머니에 밀어넣었다.

로골적인 이야기

헨리흐는 이튿날에도 사흘째되는 날에도 밀레르에게 동의한다는 대답을 주지 않았다. 그가 초조해하는것을 보자 밀레르는 최종적인 결심채택을 방해하는듯 한 여러가지 원인을 궁리해보군 하였다. 헨리흐는 초조하였다. 밀레르의 제의는 매우 중요한 대상물에 접근할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으나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데는 방해가 될것이였다. 어떠한 임무가 있겠는지 그것은 예견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골동품상인에게서는 아직 소식이 없었다.

나흘째 되는 날 헨리흐는 보통때와 같이 시내까지 도보로 가기 위하여 좀 일찍 나섰다. 이 아침 산보는 그의 유일한 휴식이였다.

참모부의 일이 많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바삐 돌아쳐야 했다.

매일 성을 나설 때면 헨리흐는 그렇게도 안타깝게 기다리고있는 그이나 혹은 그가 보낸 사람이라도 도중에 만날수 있지 않을가 하는 기대를 품군 하였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아무리 주의해보아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오늘도 그는 카스텔리 라 폰테에 거의 도착하게 되였으나 거리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앞에서 흑샤쯔단원의 모습이 얼른거릴뿐이였다.

희망이 또 깨진데 화가 난 헨리흐는 걸음을 다그쳤다. 그는 앞서가던 사람을 거진 따라잡았다. 이상한 일이였다! 그 사람의 약간 굽은 등이며 머리모양이 어딘지 눈에 익었다. 설마?…

헨리흐는 자기 추측이 맞는지 생각하면서 쏘팽의 포로네즈(무도곡)를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의를 끌어야 할 경우에 쓰게 된 암호였다. 흑샤쯔단 단원은 점점 더 걸음을 늦추더니 나란히 걷게 되였다. … 생각했던대로 그는 골동품상인이였다.

비록 그들은 서로 얼굴을 알고있었으나 암호는 그들에게 있어서 모국어로 인사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금 도이췰란드군대 상급중위와 흑샤쯔단 장교는 나란히 걸어가고있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내 말을 주의해들어주시오.》하며 헨리흐의 동행자는 말을 시작하였다.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이 구역 어디엔가 비행포탄에 쓸 무전기를 제작하는 공장이 있답니다. 그것은 많은 말이 돌고있고 신문에 쓰기도 하는 신형무기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공장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도면을 얻어내거나 그게 안되면 최소한도 조종체계와 파장이라도 알아내는것입니다.

그 임무의 곤난성과 의의를 고려해서 당신께 지금 다른 임무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꼭 주의해야 할것은 가리발지대원들의 총알에 맞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취하는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시오. 다만 쎈—레미에서보다 훨씬 더 조심성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에쓰에쓰근무로 넘어가서 특별대상물의 경비를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있습니다. 그 대상물은 어찌나 극비에 붙인것인지 거기서 무엇을 만들고있는가 하는것은 에쓰에쓰근무장교조차 모르고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외부경비만 책임지고 내부경비는 에쓰에쓰특별구분대가 맡고있습니다.》

헨리흐의 동행자는 잠시 생각하였다.

《그 제의에 동의하지 마시오. 문제는 북부이딸리아에 비행포탄부속을 만드는 공장이 하나 더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장은 내가 당신께 말한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제의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손발이 구속받을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경비할것을 제의하는 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헨리흐는 알고있는대로 다 말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있는 대상물이 그것인지 혹은 그것이 아닌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제의를 접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이번 임무처럼 그렇게 중요한 임무는 없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이젠 작별할 때가 되였습니다. 련락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안녕히, 성과를 바랍니다!》

흑샤쯔단 장교는 경례를 붙이고 첫째 골목으로 들어갔다. 헨리흐는 새 임무에 대해서 두루 생각하면서 천천히 걸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것인가?

북부이딸리아에 류사한 공장이 두개 있다는 사정이 사태를 현저히 복잡하게 만들었다. 처음에 잘못 시작하기만 하면 사람들을 익히는데서나 자료원천을 탐색하는데 공연한 시간을 랑비할수 있었다. 그다음에야 그 공장이 무전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다른 부속을 만든다는것을 알게 될수도 있다. 공장에서 무엇을 만드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인가? 밀레르는 좀 알고있을수 있다. 그는 분명 모르는체 하는것이다. 혹시 간계를 부린다기보다 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럴수 있지 않는가? 만일 다른 사람을 내댈수 있다면 무엇때문에 자기가 모험을 하겠는가? 그것은 밀레르의 성격에 어울리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결론을 짓는데 도움이 될만한 모든 사실을 장악할 때까지는 미리 짐작할 필요가 없다. 아직은 그에게 다만 한가지 론박할수 없는 검열된 사실이 있다. 즉 카스텔리 라 폰테부근에 비밀공장이 있다는 그것이다. 이것으론 부족하다. 행동을 시작할 출발점에 불과한것이다.

이제는 밀레르가 어째서 그 공장의 경비에서 그렇게도 벗어나려고 애쓰는가 하는것을 밝혀내야 한다. 슈쩬겔과 교제를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쇠사슬의 두개 고리이다.

헨리흐는 낮에 틈을 내서 밀레르에게 들렸다.

《나도 방금 당신께 전화를 걸던 참이였소.》 에쓰에쓰근무장교는 인사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나의 직감도 나쁘지 않군. 나자신으로서도 뜻밖에 당신한테 들리고싶더라니. 무슨 새 소식이라도 있나?》

《유감스럽게도 있네.》

《어째서 유감스럽다구 하는가?》

밀레르는 대답대신 종이 한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군단참모부에 있는 밀레르의 직속상관으로부터 온 비밀문건이였다. 거기에는 대상물경비를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맡겨서는 안되며 그 공장의 경비가 각별히 중요하기때문에 직접 밀레르자신이 맡아야 한다는것이 지적되여있었다.

《내가 아직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공연히 참모부에 제기한것 같소. 이젠 내가 매우 거북하게 되였소. 마치 내가 그 직무를 탐내다가 거절당한것처럼 되였단 말이요.》

《장교의 말이니 믿으라구! 난 당신 성도, 꾸비쓰의 성도 말하지 않았소. 다만 다른 일이 너무 많기때문에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풀어달라고 부탁했을뿐이요.》

《대상 공장의 경비에 대한 책임을 어째서 두사람에게 갈라놓아야 하는지 도무지 리해가 안되거던? 그 슈쩬겔소좌인가 하는 사람에게 다 맡기면 될게 아닌가. 아직 그 사람을 한번도 본 일은 없지만…》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네! 한번 내가 그에게 서로 만나서 련계를 맺자고 전화를 걸었더니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가까운 시일에는 만날수 없다고 거절해버리더군. 그때 건강이 회복되면 자기가 직접 전화를 걸어주겠다고 하더니 전화가 없어…》

《그거야 무례한 일이 아닌가.》

《그 사람을 만나본 유일한 사람은 에베르쓰뿐이요. 아니, 거짓말을 했네. 무슨 일인지 주임의사에게 몇번 왔다갔다하더군.》

《그 얼치기 도이췰란드사람 말인가? 아마 마찌니라고 하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은 되지 않지만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고 능란한 외과의라더군. 그게 사실이요?》

《다른건 모르지만 외과의로서는 사실 훌륭한 사람이요. … 만일 그 사

람이 우리들, 게스타포일군들을 피한다면 그에게 관심을 가질만 한 근거가 있다는것을 말하는것이요. 나는 반드시 그에게 감시를 붙이겠소. 그런데 당신이 그 마찌니란 사람과 교제를 한다면 그 사람의 객관적이며 상세한 평정을 해주겠소?》

《인차 그런 기회가 생길것 같지는 않소. 아직은 의사의 신세를 져야 할 일은 없으니까. 혹시 빨찌산의 습격이나 받으면 어떨지? 그 마찌니란 사람 이야기나 오래 해서 무얼 하나?》

《정말이네. 마치 다른 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 공장은…》

《그 공장 경비문제가 완전히 결정된 이상 이제는 당신이 어째서 그 대상물에 대한 책임을 면해보려고 했는지 나에게 털어놓고 이야기 못할게 없지 않나?》

《리유란 다른게 아닐세. 나에게 외부경비를 맡기면서 내가 경비를 강화할 백방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사전에 경고하더란 말일세. 문제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그 공장에서 공산주의적인 삐라가 발견된데 있는 걸세. 쥐새끼도 드나들 틈이 없이 그렇게 든든히 경비하고있는데 말이요. 누가 삐라를 가지고 들어갔겠는가? 론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결론을 내릴것인가! 아마 내가 한것처럼 결론했을것이요. 즉 만일 무엇인가 공장으로 들어갈수 있었다면 바로 그 통로를 통해서 무엇인가 공장에서 나갈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그렇게 엄격히 경비할것을 요구하는 바로 그 비밀일수도 있단 말일세.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밀레르가 책임져야 한단 말일세.》

《그래 나의 가까운 친구인 당신은 그 시시한 일을 나에게 떠맡기려고 날더러 공장경비를 맡으라고 설복하였나?》

《헨리흐, 잊지 말라구. 그 대상물은 베르트골드소장이 직접 맡아보는거란 말일세. 당신한테야 나에게처럼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지.》

《우리 아버님의 감시하에 있는 공장이란걸 어떻게 알았나?》

《외부경비강화에 대한 보고를 두군데 보냈는데 군단지휘부와 베르트골드가 지도하는 부서에 보냈네.》

《아버님이야 당신께도 관대히 대하겠지. 그에게 당신도 봉사를 했으니까.》

《그가 말하던가?》 밀레르는 좀 이상한 눈길로 헨리흐를 보았다.

《로르헨에게서 알았네. 바로 오늘 편지를 받았는데 직접 당신에게 관

계된 말이 몇줄 있더군.》
헨리흐는 편지를 꺼내서 필요한 대목을 찾아 례사롭게 읽었다.
《밀레르씨에게 인사를 전해주세요.》
밀레르는 만족한듯 미소하였다.
《당신은 나의 장래 안해가 무엇때문에 당신께 인사를 전하라고 하는지 짐작이 가나?》
《물론이지, 당신은?》
《로르헨이 신랑에게 비밀을 가지고있다면 이상한 일이 아닌가.》 헨리흐는 확신있게 대답했다.
《아, 당신이 그 일을 그렇게 접수해주니 참 기쁘네! 감쪽같이 해치웠지! 사실 나하구 운전사를 제외하고는(그 운전사는 후에 동부전선으로 보냈네만) 지금까지 아무도 짐작조차 못하고있소. 베르트골드는 물론 내놓고 말이야.》
헨리흐는 가슴속이 얼어드는듯 한 느낌이였다.
《당신은 그런 일에는 선수이니까. 비록 나는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조직했는지 모르지만.》
《소장이 내게 보낸 편지에서 모니까아가씨를 체포하지 말고 치워버리라고 한 말을 읽은 후 나는 모니까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네. 그는 자주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
《그래서?》 헨리흐는 겨우 자신을 제어하며 물었다.
《나자신도 일이 그렇게 단순하고 헐하게 될줄은 몰랐네. 당신이 빠리로 떠난 날 아가씨도 역시 어데로 떠나려고 하였네. 자전거에는 큼직한 보따리가 묶이여있더군. 나는 모니까가 려관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그의 뒤를 따르게 했지. … 난 그런 일에 쓸 화물자동차를 항상 대기시키고있었네. 이젠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났으니까 당신도 사태를 분별있게 고찰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네. 내가 당신을 엄중한 위험에서 구출하였다는것을 리해해줄줄 아네. 만일 그 처녀빨찌산을 체포하였다면 당신의 명예에 틀림없이 그늘이 지게 됐을것이니까.》
헨리흐는 이발을 앙다물고 묵묵히 있었다. 호흡할 힘조차 없었다.
얼마나 무서운 시련이였던가! 그의 의지와 힘에 대한 진정한 시련이였다! 혹시 누구라도 들어와 밀레르의 주의를 그쪽으로 쏠리게나 해주었으면! 비록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제어할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싶었다.

그의 말 못할 소원에 대답해주듯 전화가 와서 밀레르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중〉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 인차 바꿔드리지요. …》

헨리흐는 내주는 송수화기를 잡았다. 그러나 무슨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인지, 어째서 자기에게 무슨 신랑이라고 부르는지, 어째서 그는 상대방을 소년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얼떨떨하였다. 그러나 류쯔의 귀에 익은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아저씨〉가 날 즉시 오란단 말이요? 곧 가겠소. … 아니, 지체없이… 가겠소!》

헨리흐는 송수화기를 놓고 급히 문쪽으로 갔다. 그러나 자신을 제어하고 한순간 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용서하오. 인사하는것도 잊었구만. 에베르쓰가 급히 부른다오.》

밀레르의 깐깐한 눈길을 견디여낼 필요가 없게 되자 헨리흐는 마지막 힘까지 빠져버린듯 맥이 진해버렸다. 하는수없이 그는 소공원 걸상에 앉아 다리 떨리는것이 멎고 머리도 다소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밀레르가 모니까를 죽였구나! 베르트골드의 명령을 받고!…)

담배 한대를 피우고 매대에서 물 한고뿌를 마신 다음에야 헨리흐는 갈수 있었다.

《상급중위! 이게 웬일이요? 얼굴이 형편이 없소!》 에베르쓰는 자기 특수임무장교를 보자 놀랐다.

《헨리흐, 아프지 않소?》 소장의 방에 있던 류쯔도 걱정이 되여 물었다.

《기분이 좀 좋지 않아서…》하고 헨리흐도 인정하였다.

《그럼 사업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집에 가서 누우시오. 그리고 당신, 류쯔는 곧 의사를 불러주오.》하고 소장이 명령하였다.

류쯔는 자기 방에서 꾸르트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가져오게 했다. 그다음 병원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다.

《마찌니선생에게 직접 왕진해주도록 부탁했네. 그는 내 말을 통해서 자네를 알고있으니 쾌히 승낙했네. 자네와 사귀고싶기도 한 모양이지.》

헨리흐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소? 눈물까지 흘리고있으니!》 류쯔는 골드링에게 가

까이 와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헨리흐는 마치 꿈에서 깨난 사람처럼 부르르 떨었다.

《칼! 자넨 누가 모니까를 죽인줄 아오? 밀레르요! 우연히 부딪친것이 아니요. 고의적으로 한거요. 그런짓을 하려고 특별자동차까지 가지고있었단 말이요. … 그걸 항상 대기시키고있었다오.》

《아니, 그게 정말이요?》

《그자신이 직접 나에게 말했소. 자기 수완에 대해서 자랑까지 하였소.》

류쯔는 신음하기 시작했다.

《그건…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요. 특별히 자동차까지 가지고있었단 말이지? 어째 자넨 그 개같은 놈을 그 자리에서 쏘아버리지 않았나? 그 악당때문에 자네도 죽을수 있단 말이요! 제발 나에게 약속해주오, 나와 의논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이요. 난 그걸 요구하오, 부탁하오! 나에게 꼭 약속해주게. … 오늘 저녁에 자네한테 가겠으니 그때 모든걸 다 의논하세. 제발 결김에 아무짓이나 하지 말게! 약속해주겠지?》

《약속하겠네!》

15분후에 헨리흐는 성에 가있었다. 그가 일찍 돌아온것을 이상히 생각한 마리야—루이자는 글쪽지를 녀종을 통해 보냈다. 마리야—루이자는 남작이 혹시 아파하는지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알리지 않는것을 질책하였다. 그리고 현대의 기사는 녀성에 대한 의무를 잊어버리고있는데 대해서—례컨대 자기는 적적해서 죽을 지경인데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고있었다.

헨리흐는 화가 나서 글쪽지를 구겨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돌봐주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것과 한번 찾아가겠다는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한시간쯤 지나서 마찌니가 왔다. 어째 그랬던지 헨리흐는 주임의사를 늙은이가 아니면 일정한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상상하고있었다. 그런데 그앞에 나타난 사람은 서른댓살 되여보이는 매우 체격이 좋고 멋있게 생기고 의사라기보다는 배우와 비슷했다. 표정이 풍부하고 예민한 마찌니의 얼굴은 인상적이며 동시에 자제력이 있다는것을 말해주었다. 그러한 얼굴은 흔히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는데 익숙된 사람에게서 볼수 있었다.

커다란 갈색눈은 지혜와 풍자로 반짝이였다.

《이런 나이에 앓는다는건 죄입니다, 남작! 그건 수천년동안 자기의 가장 훌륭한 창조물인 인간을 완성시킨 자연에 대한 홀시입니다!》 그는 인사를 하고나서 환자의 얼굴을 주의깊게 바라보며 말했다.

《마찌니씨, 나는 자연앞에서 죄를 지은 일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주 건강합니다. 쓸데없는 수고를 끼쳐서 매우 죄송합니다만 꼭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싶어서 오시게 하였으니 이젠 처벌을 하시거나 용서를 하시거나 해주십시오!》

《용서해드리지요! 로씨야의 유명한 작가가 자기 형에게 쓴 편지에서 자기 일생의 좌우명으로 하고있는 구절이라고 다음과 같이 써보낸 일이 있습니다. 〈형리가 되기보다는 희생자가 되는 편이 좋다.〉고…》

《로씨야문학을 아시나요?》 하고 헨리흐가 물었다.

《어째 그것을 그렇게 이상히 생각하십니까. 나는 로씨야문학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가장 훌륭하다고 할수도 있지요. 원본으로 읽기 위해서 나는 한때 로어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전쟁때문에 그것이 중단되여 이젠 다 잊어버리기 시작하는군요.》

《그 공부를 다시 시작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하고 헨리흐가 로어로 물었다.

이번에는 마찌니가 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로어를 아십니까?》

《나는 로씨야에서 소년시절을 지냈습니다.》

《아, 당신은 너무나 내 마음을 끌어서 내가 의사의 본분도 잊을번 했군요. 옷을 벗으십시오. 진찰을 해봅시다. 그래서 담화를 해도 해롭지 않다는것을 안 후에 반대가 없으시다면 더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사실 나는 아주 건강합니다!》

마찌니는 헨리흐의 팔을 잡고 맥을 보았다.

《얼굴색이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맥박도 좀 빠른것 같구.》

《나는 오늘 몹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기체의 자연적인 반응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을 해야지요. 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헨리흐가 아무리 반대하여도 마찌니는 진찰하고나서 신경계통이 원만치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휴식입니다!》

《현조건하에서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것이야 선생님도 아시겠지요.》

《천만에요! 어떠한 조건하에서든지 자신을 위한, 오직 자기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얻어낼수 있는것입니다. 여기 조건은 훌륭합니다. 화려한 정원이 있지 옆에는 강이 있지. 그런데 낚시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선 굉장히 큰 은어가 잡힙니다! 낚시질, 이건 역시 사람을 열중하게 만드는 일종의 체육입니다. 그밖에도 낚시군은 항상 신선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며 운동을 많이 한다는것을 첨가하면 그것은 벌써 종합적인 치료대책의 성격을 띠는것입니다. 내가 맡아보는 슈쩬겔소좌라는 환자는 거의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한시간 혹은 두시간 강가로 뛰여다니며 은어를 낚아냅니다.》

《마찌니선생, 아주 흥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원래 강변에서 자랐습니다. 고기잡이는 내가 오래전부터 열중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알아야 하는데. 은어는 급류를 좋아한다지요.》

《그야 간단한 일이지요. 함께 공원으로 갑시다. 슈쩬겔이 항상 고기를 잡던 곳을 가리켜드리지요.》

헨리흐와 마찌니는 공원으로 나갔다. 거기서 정말 강의 넓은 폭과 옆에서 물이 사품치며 흐르는 협곡도 다 잘 보였다.

《저기는 물결이 미친듯이 흐르는데 슈쩬겔소좌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장소가 바로 거깁니다.》

새로 사귄 두사람은 바위를 깎아내서 만든 걸상에 앉아 자연경치를 감상하였다. 해빛을 듬뿍 받고있는 골짜기는 마치 산 한가운데서 쉬고있는것 같았다. 멀리서 보기에는 소도시가 졸고있는것 같았다. 지금 거리로는 무장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있으며 그 평화로운 집들중의 한곳에서는 무서운 계획이 작성되고있으며 주위에 깃들고있는것은 정적이 아니라 공포라는것이 어쩐지 믿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헨리흐에게도 마찌니에게도 동시에 그런 생각이 떠오른 모양이였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쓸쓸히 미소를 지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이 있었겠습니까!》하고 의사는 생각에 잠

겨 말했다.

《전쟁이 끝나면 생활은 얼마나 아름다울것이겠습니까!》 하고 헨리흐는 그의 말을 시정하였다.

《당신은 그러한 황금시대가 어느때엔가 인류에게 닥쳐오리라는것을 믿습니까?》 하고 마찌니가 물었다.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헨리흐와 마찌니는 걸상에 한시간은 더 앉아있었다. 그것은 그들 두사람이 부지중 장래의 세계의 운명에서 인간의 역할이 어떤것이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론쟁에 끌려들어갔기때문이였다. 마찌니는 다만 개인적인 완성만이 인류를 구원할수 있다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헨리흐는 사회적변혁과 주위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의 필요성을 론증하였다. 견해는 차이가 있었으나 그들은 서로 통하는 점을 발견하였으니 오늘의 사태에 대한 평가가 동일하였다.

《좀더 일찍 알게 되지 못한게 유감인걸요. 이런 론쟁은 두뇌의 훌륭한 운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끼가 돋기 시작하니까요.》 하며 마찌니는 작별할 때 말했다.

《나역시 그렇게 된것이 유감입니다. 이런 기회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그냥 전화를 걸었으면 좋을걸 그랬습니다. 나는 라모니백작댁에서 만나뵙자고 했다는것이 유일한 변명입니다.》

《특별한 필요가 없이는 이 소굴에 오지 않기로 하고있습니다.》

《소굴요?》

《로어로는 승냥이들이 사는 곳을 소굴이라고 하지요?》

《백작과 그의 조카딸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어째 그러시나요?》

《지방주민들이 다 백작을 증오하고있는데 물론 리유없는 일이 아니지요. 인민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니까요. 조카딸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는 원래 방탕한 녀자를, 특히 그걸 일삼는 녀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작의 조카딸은 바로말해서 장교들을 사냥하고있으니까요. 직위가 없기때문에 제2부류로 치부하는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례절이 신분에 의해서 규정되고있습니다. 례컨대 슈쩬겔소좌는 당신처럼 례절바른 사람으로 봅니다. 마리야－루이자는 류쯔를 담임선생이라고 부르며 에베르쓰는 야만인으로, 나는 접골의사

로 부르지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오기를 싫어하는것은 백작이 비록 자기는 그것을 숨기고있지만 북부이딸리아에서의 흑샤쯔단운동의 고무자인것을 확실히 알고있기때문입니다.》

꾸르트는 마찌니를 카스텔리 라 폰테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올 때 낚시대를 비롯한 물고기잡이도구를 가지고왔다. 그것은 다 상급중위의 임무를 받고 상점에서 사온것이였다.

저녁때 류쯔가 왔다. 헨리흐에게서 밀레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나서 류쯔는 오래동안 방안을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왔다갔다하였다. 그다음 헨리흐가 앉은 쏘파에 나란히 앉아서 헨리흐의 어깨를 잡고 얼굴을 자기쪽으로 돌리게 하였다.

《내 말을 듣게, 헨리흐! 밀레르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이야기하기전에 나는 한가지 묻고싶은것이 있네. 자넨 날 어떻게 보나? 진정한 친구인가 혹은 보통 알고지내는 사이인가?》

《전체 도이췰란드군대를 다 들춰본대도 내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할수 있는 사람은 바로 칼 류쯔대위요. 우리의 우정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소.》

《그렇다면 나는 친구의 권한을 가지고 일전에 시작했다가 끝맺지 못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싶네.》

《자네 말을 주의깊게 듣겠네. 내가 할수 있다면 대답도 하지.》

《난 때때로 자네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히 생각되는 때가 있네. 자네는 교양도 있고 문화성이 있는 사람이고 내 생각엔 인도주의적인 사람인데 어째서 밀레르나 꾸비쓰하고 친하게 지내는지 모르겠단 말이요. 자넨 무엇때문에 쎈－레미에서 자기 생명을 구출한 그 불쌍한 프랑스사람을 추격하느라고 산속을 헤매여다녔나? 자넨 무엇때문에 모니까와 같은 처녀를 사랑하면서 베르트골드의 딸과 약혼을 하였나? 내가 무슨 호기심때문에 묻는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걸 생각하면 내가 몹시 괴롭기때문이란것을 리해해주게.》

보통사람들처럼 솔직하게 이 물음에 대답할수 있는 권리를 살수 있다면 헨리흐는 얼마든지 비싼 대가를 지불했을것이다. 그는 류쯔를 믿었으며 그의 선량한 마음을 존경했으며 그의 우정을 확신하고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하에서도 그가 무엇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를 암시조차 할수 없었다.

《류쯔, 자넨 어찌나 많은 질문을 하는지 난 당황할 지경이요. 그렇게 모두 합쳐놓구보니 나자신도 놀랄수밖에 없소. 분명히 나에겐 모험적기질이 있는 모양이요. 그래서 불장난을 하게 되는것 같소. 그러나 내 맹세를 하겠소. 나는 결코 수치스러운 일은 하지 않았으며 또 하지도 않을것이요. 나를 믿는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오. 나는 당신의 우정을 잃을가봐 몹시 걱정이 된다는것을 첨가할뿐이요.》

《그러나 베르트골드 로르헨에 대한 태도를 자넨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절대로 나의 안해가 되지는 않는다는것을 자네앞에 맹세하오! 물론 일은 시시하게 되였소. 베르트골드가 날 끌어당겼단 말이요. 모니까를 만난 후 나는 분김에 반대하려다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냥 두기로 결심했소. 베르트골드는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니 나에게 복수할수 있단 말이요. 그러나 곱씹어 말하지만 로르헨은 결단코 나의 안해로 되지는 않을게요!》

《물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는 편이 좋을게요. 그건 자네말이 옳소. 내 가슴을 누르고있던 돌 하나는 내려놓은것 같소. 그러나 가장 무거운 돌은 그냥 남아있소. 자넨 밀레르에 대해서 어쩔 생각이요? 미리 경고하지만 그자를 자네가 죽여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소! 그건 모니까때문만도 아니고 그가 총살한 그 임신부때문만도 아니요. 그가 흘러보낸 무고한 사람들의 피값으로! 한때엔 직접 이마빡을 쏠가 했는데 후에 총알을 더 잘 리용하기로 결심했소.》

《류쯔, 설마 자넨 그가 모니까를 죽인것을 내가 용서할줄 생각했소?》

《그럼 둘이서 함께 하세!》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원쑤들

《제군!》 류쯔가 회의에 참가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것을 보고하자 에베르쓰는 참가자들을 향해서 말을 시작했다. 《어제 저녁에 나는 우리 군단 참모부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북부이딸리아에 조성된 정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당신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것은

병사들에겐 비밀로 붙여야 한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당신들의 명령을 수행하는것이지 위대한 사업에 간섭하는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을 모이게 한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바와 같이 롬멜리원수의 군대가 아프리카의 대륙을 떠난 때로부터 영미측의 행동은 적극화되였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와 씨칠리아사이에 있는 빤쩰레리야섬을 강점하였습니다. 이미 그때에 우리 지휘부는 이딸리아군대의 행동을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빤쩰레리야는 현대축성술의 모든 요구대로 건설된 요새입니다. 그 섬은 장기간의 포위를 견디여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딸리아위수부대는 첫 폭격이 있은 후 방어축성물에 별로 손상도 입지 않고 겨우 부상자가 두명 났을뿐인데 항복하고말았습니다.》

방안엔 분격한 목소리가 웅성거렸다.

《그후 한달이 지나서 영미군은 씨칠리아섬을 공격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우리의 도이췰란드군은 얼마 크지 않은 미국 제7군과 영국 제8군을 반대하여 가렬한 전투를 진행하였으나 이딸리아군대가 조급히 퇴각하는 바람에 우리는 하는수없이 그 섬을 내놓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퇴각한 후 력량대비가 적들에게 급격히 유리하게 변경되였기때문입니다.》 에베르쓰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영미군이 메씬쓰끄해협을 통해서 북부이딸리아로 돌입한다고 생각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소식은 참가자들을 흥분시켰다. 소장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계속하였다.

《아뿔리야주 따란뜨구역의 브린지지에 적들은 대항공륙전대를 투하하였습니다. 그 구역에는 우리 군대가 없었고 항복하라는 바돌리오의 명령에 의하여 와해된 이딸리아위수부대들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무기를 놓고말았습니다. 영국 제8군은 메씬쓰끄해협을 통해서 깔라브리오에 돌입하였으며 미국 제5군은 쌀레르노만에 상륙하였습니다. 지금 영국과 미국의 두개 군은 련합되였으며 이딸리아의 남부를 절단하였습니다. 그들이 북으로 뚫고들어오려는 완강한 시도를 우리의 여섯개 사단이 견지하고있습니다. 바돌리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거나 또는 복종할새가 없었던 이딸리아군 부대도 희망을 걸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딸리아지역에서의 전쟁의 중하는 전적으로 우리 어깨우에 놓이게 되였습니다.

총통께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영미군대의 전진을 저지시키며 로마이남 120키로메터 지점에서 이딸리아를 횡단하는 가릴리안노－싼그로강류역에 있는 강화된 계선 이북으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명령하시였습니다.》

소장은 지도로 가까이 가서 강화된 계선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딸리아에는 우리 군대가 많지 못하며 또 그것을 전선에서 완전히 리용할수도 없습니다. 일부 유생력량은 영미군이 대서양해안에 륙전대를 상륙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를 타산하여 예비로 장악해야 합니다. 우리 정찰자료에 의하면 바로 거기서 그들은 작전을 준비하고있다고 합니다. 지금 부대들과 많은 기술기재들이 영국으로 집결되고있습니다. 금년 8월 퀘베크에서 진행된 영국과 미국 정부지도자들의 회의에서는 프랑스북부에 상륙작전을 수행할것이 결정되였습니다. 이 작전은 〈오베를로드〉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이미 총사령관으로 미국장령 아이젠하워가 임명되였습니다. 작전수행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던 사단들을 리용하기로 결정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딸리아지역에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영미군이 이딸리아에서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가까운 시일내에 프랑스에서 전선을 벌려놓을수 없게 된것이 우리에게는 편리한것입니다. 동맹국측에는 그곳에서의 작전과 련관된 아프리카군들을 내놓고는 〈오베를로드〉작전을 실현하기 위한 력량이 부족한것입니다.

영미측은 유리한 정세를 리용하고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본력량은 동부전선에 고착되여있고 거기서는 지금 가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소위 오룔－꾸르쓰끄궁형지대에 대한 우리의 공격은 유감스럽게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최고군부는 원쑤들의 종결적인 격멸을 타산한 앞으로 있을 섬멸적타격을 위한 예비를 축적하기 위하여 동부전선을 가일층 단축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우리 군대는 드네쁘르강 우안으로 물러났으며 그곳에 위력한 방어계선을 조성하고 래년봄의 대작전을 준비하고있습니다. 볼쉐비크들이 드네쁘르와 같은 자연적인 하천장애물을 극복하고 강화된 드네쁘르지대에서 우리 군대를 쳐부시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항공대가 동부전선에 고착되여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영미의 야만들은 조국에 대한 무차별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당황망

조할것을 기대하고있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만행이 우리 병사들을 격분케 하고 투쟁과 승리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공고히 한다는것은 타산 못했습니다. 승리는 반드시 올것입니다. 총통께서는 도이췰란드는 지금 모든 원쑤들을 산산이 격파해버릴 새로운 위력한 무기를 만들고있다고 언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책임이 중한 임무가 맡겨져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하나의 작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결정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군대의 사령관 께쎌링원수는 사흘동안에 전체 이딸리아군대를 무장해제시킬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얼마후에 우리는 우리에게 복무할것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지원병부대를 만들고 그외의 불건전한자들은 포로로서 수용소와 우리 공장들에 보낼것입니다. 매개 사단은 자기가 담당한 구역에서 작전을 수행할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역이 배당되였습니다.》 에베르쓰는 지도에서 그 지역을 가리켰다. 《여기에 배치되여있는 모든 이딸리아위수부대들은 무장을 해제시키고 감금해야 합니다.》

에베르쓰는 안락의자에 앉으면서 이야기를 끝냈다.

《이상입니다, 제군. 이젠 해산해서 침착히 당신들의 의무를 수행하시오. 련대장들과 참모장들, 큔스트대좌와 당신, 류쯔는 남아주시오.》

헨리흐는 즐거운 흥분을 느끼며 나왔다. 배가 사방에서 불타오르는것같은 기분이였다. 마찌니가 항복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지 흥미있는 일이였다. 사실 이딸리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에게도 관계되는것이였다. 병원에 들려야 하겠군. …

병원에 들리니 주임의사는 반시간전에 어디론지 갔다는것이였다.

집에 가면 마찌니가 와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헨리흐는 급히 성안으로 갔다. 의사가 그렇게 방문해올수도 있는것이였다. 그와 마찌니사이에는 최근 몇달동안 진정한 동지적관계가 설정되고있었다. 그의 새 친구는 예고도 없이 자주 찾아왔으며 때로는 그저 자기 위해서 오는 일도 있었다. 주임의사는 병원에서 살고있었으므로 밤에도 자주 깨우는 일이 많았다.

마찌니의 소박하고 진실한 행동은 헨리흐의 마음에 들었다. 의사와는 례절을 차릴 필요가 없었으며 휴식하려면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

아도 되였다. 때로는 그들이 온밤 말없이 앉아있는 때도 있었다. 한사람은 쏘파에 책을 들고 앉아있고 또 한사람은 그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또는 책을 읽고있었다. 이야기나 론쟁을 하느라고 열중하는 때도 있었다. 그들은 창문이 훤히 밝아질 때에야 잘 생각이 나군하였다.

그들의 이야기에 류쯔까지 끼우는 저녁이면 론쟁은 더 첨예해지군 하였다. 세사람은 다 한결같이 전쟁을 증오하였으나 그것을 낳게 하는 원인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달랐다.

내성적인 류쯔는 사태를 고통스럽게 체험하였으나 주어진 운명에 복종하는것으로 접수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자연자체에 의하여 산생되는 악과의 투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비교적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경향이 있는 마찌니는 사회의 력사적발전에 미치는 사회적힘의 영향을 타산하였으나 가까운 미래에 있을 본질적변화는 기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진보에 대해서 매우 완만한 점진운동으로, 완만한 진화로 리해하고있었다. 헨리흐는 자기 생각을 털어놓고 말할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그들의 견해들이 잘못된 점은 론증하려고 애썼다.

헨리흐가 생각했던대로 마찌니는 그의 방에 와서 쏘파에 누워 달게 자고있었다.

《마찌니, 여보 마찌니! 제깍 일어나시오, 안 일어나면 물을 끼얹겠소!》하고 헨리흐는 조용히 불렀다. 그는 잠든 손님을 깨우기 아쉬웠으나 중요한 소식을 알리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었다.

마찌니는 벌떡 일어나 웃었다.

《난 자네가 들어오는 소릴 다 들었네. 그러나 몸이 나른해서 눈도 못뜨겠거던. 지난밤에 몹시 바삐 보냈더니…》

《내 깨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글쎄, 이딸리아의 항복이라는 각별히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구?》

헨리흐는 에베르쓰가 회의에서 한 이야기를 상세히 전했다. 그가 이야기를 해나감에 따라 마찌니의 얼굴은 밝아졌으며 즐거운 미소가 퍼져나갔다.

《이젠 기분나쁜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하오. 사흘동안에 전체 이딸리아군대를 무장해제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소.》하고 헨리흐는 이야기를

끝냈다.
마찌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였다.
《제대될수 있소. 사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지만 준비는 해야 하니까. 가봐야겠소.》
《내 차를 타고 가시우. 꾸르트, 마찌니선생을 병원까지 태워다드리고 오게.》 헨리흐는 문을 열고 소리쳤다.
《카스텔리 라 폰테에서 댓키로되는 곳에 갔다오게 해주었으면 감사하겠네.》
《열키로라도 갔다오시오. 나에겐 오늘 차가 필요치 않으니까. 만일 일이 빨리 끝나거든 이리 오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자고있거든 깨우지만 마오. 래일은 아마 일이 분주할것 같으니까.》
《오늘 일이 일찍 끝날것 같진 않소!》

새벽에 전화종소리가 헨리흐를 깨웠다.
《〈임금님〉께 즉시 출두하시오.》하는 류쯔의 목소리였다.
어저께 군단참모부의 명령으로 참모부장교들의 호칭이 전부 달라졌다. 그후부터 사단장을 《임금님》으로 불렀다.
《무슨 일인가?》 15분후에 참모부에 도착한 헨리흐는 류쯔에게 물었다.
《좀 기다리게!》 류쯔는 어째 그러는지 귀속말로 대답하고 급히 소장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거기 들어가 상당히 오래 있었다. 사무실에서는 전화종이 울렸고 소장의 노기띤 큰소리도 들렸다.
《골드링!》 마침내 류쯔가 문에서 내다보며 불렀다.
사무실에는 소장과 그의 부관이외에 참모장 큔스트대좌도 있었다.
《폰 골드링, 자동총수 두명을 데리고 될수록 빨리 빠르모에 갔다오시오. 거기 형편이 어떤가 알아보시오. 거기서 떠나 샤쩰—젤피노에 들려 즉시 사단과의 통신을 정비하라고 명령하시오.》
《소장님, 바로 제가 가야 합니까?》
《어째 그러오? 과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요?》
《폰 골드링에게 미처 알리지 못했습니다.》하고 류쯔가 말했다.
참모장은 언제나와 같이 한구절한구절 딱딱하게 설명하였다.

《간단히 말하겠소. 문제는 이런거요. 이딸리아군인들에게 무장해제에 대한 소식이 알려졌소. 그들중 어떤자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일부는 산으로 도망쳤소. 련대와의 통신은 두절되였소. 어느곳에서는 우리 부대와 이딸리아사람들간에 전투가 진행되고있다는 통보도 있소. 알겠소?》

《알았습니다. 갔다올만 합니까?》

《시간을 랑비하지 마오! 즉시 떠나오!》

헨리흐는 참모부에서 직접 두명의 자동총수를 데리고 운전대에 앉은 꾸르트와 함께 빠르모로 내달렸다. 30분이 지나서 그는 이미 련대참모부에 도착하였다.

《소장님께 전해주시오. 모든 이딸리아위수부대들은 산으로 들어간 두개 중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장해제되였소. 전투는 없었고 약간 총질이 있었을뿐이요. 우리 측 손실은 없었소. 통신은 오늘 정비될거요.》하고 련대장 푼크대좌가 말했다.

샤쩰—젤피노에 가까이 갔을 때 헨리흐는 총소리를 듣고 자동차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자동총과 기관총련발사격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천천히 갈것! 자동총수 전투준비!》

샤쩰—젤피노에 거의 도착했을 때 시내로부터 오토바이 한대가 달려나왔다.

헨리흐는 그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저게 무슨 총소리요?》

《병영안에 포위되여있는 이딸리아병사들이 우리에게 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는 속도를 내서 시내로 들어갔다. 사격소리는 멎지 않았다. 도이췰란드병사들은 완전무장을 하고 거리로 다녔다. 사민들은 보이지 않았다.

련대참모부에서는 어제 저녁에 약 두개 소대쯤 되는 이딸리아병사들이 도주했다는것을 헨리흐에게 알렸다. 무장해제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고 대다수의 병사들은 병영에 그냥 있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도이췰란드군대가 병영을 포위하자 이딸리아사람들이 발포한것이였다. 지금 담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군사대표를 보냈는데 만일 담판이 소기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저녁때까지 전원을 무장해제하기 위하여 하는수없

이 더 결정적인 대책을 취해야 할것 같다.
  카스텔리 라 폰테에 돌아와 모든것을 소장께 다 보고한 후 헨리흐는 다른 구역들에서의 무장해제가 어떻게 진행되였는가를 물었다.
  《하여튼 제대로 되고있소. 그러나 빨찌산을 찾아 산으로 도망친 수가 대대력량이 넘소. 그건 무시할수 없는 력량이요.》
  《그것이 아니라도 빨찌산이 적지 않았다는것을 고려에 넣는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헨리흐가 첨가해 말했다.
  일요일이였으나 긴장된 정세를 고려해서 에베르쓰는 전체 장교들에게 자기 위치를 지킬것을 명령하였다. 이것은 골드링의 계획을 파탄시켰다. 어제 밤에 그는 새로 사귄 슈젠겔과 함께 은어가 사람손으로 뛰여든다는 말이 있는 폭포까지 갔다오기로 약속했었는데 이제는 갔다오는것을 연기하기로 하고 백작의 정원부근에 있는 그전 자리에서 한두시간 낚시질이나 할수밖에 없었다.
  헨리흐가 계곡부근에 있는 물이 소용돌이치는 곳으로 내려갔을 때 슈젠겔은 이미 거기 와있었다.
  《이제야 오는군. 오늘은 오지 않는가 했군요.》하며 그는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지는 않고 계속 낚시를 잡아당기면서 인사를 했다. 《그럼 떠날가요?》
  《유감스럽지만 못 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장님의 지시로 일을 하게 되였지요.》 로련한 낚시군이 그렇게 하듯 헨리흐도 물고기를 놀래우지 않도록 소곤소곤 말했다.
  《그 망할놈의 이딸리아놈들때문이지요? 아직도 무장해젤 못했나요?》
  《다소 진정되였습니다. 그러나 정세는 아직 불안합니다. 정각 10시에 나는 참모부에 가야 합니다.》
  《그럼 시간을 랑비하지 맙시다. 내가 좀 앞섰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고운가!》
  《아, 나야 아무리 해도 따라잡지 못할게니까요!》
  슈젠겔은 사실 은어잡이에 명수였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있었다. 한달전에 헨리흐가 처음으로 낚시대를 들고 강기슭에 나타났을 때 소좌는 그리 탐탁치 않게 그를 대했다. 그러나 젊은 상급중위가 진정으로 소좌의 기술에 탄복했을뿐 자기자신은 꼼짝 못하는것을 보고 자랑삼아 너그

럽게 대할 생각이 난것이였다. 그는 로련한 체육가답게 은어란 매우 조심성이 강한 물고기여서 그리 쉽게 낚시에 걸리지 않는다는것, 파리로만 잡을수 있는데 떨기나무뒤에 숨었다가 낚아채야 된다는것, 만일 물고기가 낚시군을 보기만 하면 달아나기때문에 숨었다가 낚아채야 한다는것, 은어는 힘이 셀뿐만아니라 매우 간교한 놈이라는것들을 상급중위에게 설명해주었다.

헨리흐는 공손히 흥미있게 그 설명을 들었으며 소좌가 낚시를 다루는것을 보게 해줄것을 부탁하였으며 그의 경험과 권위에 전적으로 탄복하였다.

한주일후에 헨리흐는 낚시질의 묘리를 체득하였으며 슈쩬겔자신보다도 더 열성적인 낚시군으로 되였다.

공통된 취미는 소좌와 상급중위를 가깝게 하였다. 두사람 다 귀족출신이라는것과 폰 골드링의 친척안에는 베르트골드와 같은 유력한 인물이 있다는것으로 하여 군사등급상의 차이는 점차 무시되게 되였다.

처음에는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주로 고기잡는 이야기에 머물렀다. 그후 비록 두사람이 다 자기들의 발언에 대해서 조심하고 속심을 털어놓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점차 화제의 범위가 넓어졌다. 슈쩬겔이 오래동안 정탐사업부문에서 일했다는것을 안 후(그는 전쟁을 앞둔 1년전에 영국에서 발각될번 하여 영국으로부터 도망쳐온 후 에쓰에쓰부대로 들어간것이였다.) 헨리흐는 자기의 발언과 몸가짐에 특별히 주의하기 시작하였다. 슈쩬겔도 모가 나는 질문은 피했다. 다년간의 정탐사업이 그로 하여금 자제하는것을 배워주었으며 또한 실천상으로 보아도 공식적인 견해가 항상 정당하였다는것 특히 집권자에게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서 그렇다는것을 보여준것이였다.

그러한 조심성은 있었지만 소좌는 헨리흐에게 점점 좋게 대하게 되였다. 그는 한달동안에 두번이나 헨리흐에게 놀러 오기까지 하였다. 그때에 그는 마리야—루이자와 만나는것을 피했으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슈쩬겔은 홀아비 사는 집이 아늑하지 못하다는것을 구실로 헨리흐를 자기 집에 초청하지는 않았다.

오늘도 슈쩬겔은 역시 그가 거처하는 집이 무질서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은어를 가지고 가도 련락병이 국조차 제대로 끓일줄 모른다는

것이였다.

《쏘쓰를 만드는 방법을 압니까?》 슈쩬겔은 헨리흐가 전에 쎈－레미에 있을 때 맛있는 쏘쓰에 료리한 은어를 먹은 일이 있다는것을 자랑하며 그 훌륭한 료리방법을 배워보겠다고 약속했던 일이 생각나서 문득 이렇게 물었다.

《내게 그 료리를 해준 려관집주인에게 편지를 했는데 아직 회답을 못받았습니다. 내 처방이 당신께 적당치 못할가봐 근심입니다. 당신 련락병 월프는 이러나저러나 물고기도 쏘쓰도 망쳐버릴것이니까요.》

《난 기사 한분과 약속을 했는데 그의 집에서 물고기료리를 할줄 알지요.》

떨기나무에서 나무가지가 버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가벼운 발걸음소리가 들렸다. 두사람이 돌아다보니 성으로부터 녀종이 강변으로 걸어오는것이 보였다.

《많이 잡혔군요!》 녀종은 인사대신 이렇게 말하였다. 《백작님 조카따님께서 이걸 보내십니다.》

녀종은 문장이 찍힌 작은 봉투를 슈쩬겔에게 전했다. 소좌는 그것을 읽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소좌님은 참을성이 강하신데요. 마리야－루이자와 같은 녀성에게서 편지를 받고 한번 읽어보지도 않으니… 아! 물린다!… 낚시, 낚시!》 골드링은 녀종이 가자 롱을 하였다.

소좌는 기계적으로 낚시줄을 감았다. 그리고 한순간 눈길을 들어 헨리흐를 보았다. 그때 큼직한 은어가 갑자기 끌어당기더니 다시 물밑으로 사라졌다. 낚시대가 슈쩬겔의 손에서 빠져나가 강으로 흘러내려갔다.

일생에 한번이라도 낚시대를 손에 들고 고기가 물릴 때를 기다리고 앉아있어본 사람이라면 슈쩬겔이 놓쳐버린 은어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할새없이 물속으로 풍덩 뛰여든 심정을 리해할것이다.

만일 슈쩬겔이 조심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낚시대를 구하자는 조급한 마음으로 강물에 뛰여든 바람에 그는 발을 헛디디여 이끼덮인 매끄러운 돌을 밟았다.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소좌는 물속에서 삐죽이 나온 다른 돌을 잡아보려 했으나 실수하여 바위에 머리를 부딪치고 넘어졌다. 급한 물살은 그의 몸을 싣고 이

바위, 저 바위사이로 흘러내려갔다.
헨리흐는 기슭을 따라 몇걸음 달려내려와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가로질러 물속으로 뛰여들었다. 슈쩬겔의 몸이 마치 통나무처럼 그에게 실리였다. 쓰러지지 않도록 겨우 다리를 견지하면서 헨리흐는 소좌의 겨드랑을 잡고 물결과 싸워 기슭으로 끌어냈다.
인공호흡이 효과가 있었다. 슈쩬겔은 호흡을 시작하였으나 정신이 들지는 못했다. 헨리흐가 사람을 부르려고 성안으로 가려 하였을 때 녀종이 오솔길로 달려오고 그뒤에 꾸르트가 따라오는것이 보였다. 정원의 웃로대에 오른 처녀는 이 불상사를 보고 꾸르트를 소리쳐부르면서 강으로 달려온것이였다. 그들은 셋이서 슈쩬겔을 조심조심 아래로대까지 안아다놓고 거기서 담요로 들것을 만들어 헨리흐의 방으로 가져갔다.
소좌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옷을 벗기는것도, 침대에 눕히는것도, 헨리흐가 급히 전화를 걸어 불러온 마찌니가 진찰하는것도 몰랐다.
《뇌진탕일수 있소. 지금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소좌에게 해로우니까 환자를 병원으로 가져갈 생각은 말아야 하오.》
헨리흐는 류쯔에게 전화를 걸어 불상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당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환자곁에 있어야 하겠으므로 좀 지체된다는것을 소장께 전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슈쩬겔은 11시가 되여서야 의식이 회복되였다. 눈을 뜨자 그는 흐린 눈길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아직 자기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찌니와 헨리흐가 어째서 자기 침대를 들여다보고있는지 모르는 모양이였다. 그러나 점차 그의 눈에 정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불안한 기색이 얼굴로 스쳐지나갔다.
《내 군복은 어디 있소?》 그는 걱정이 되는듯 몸을 일으키려 하면서 물었다.
《조용히 누워계십시오.》하고 마찌니가 그를 붙잡았다.
《군복은 벽난로에 말리고있습니다.》하고 헨리흐가 그를 안심시켰다.
《증명서, 증명서는 어디 있소?》 소좌는 더 조급해하면서 물었다.
《증명서는 당신옆의 상우에 있소. 걱정마시오. 다 온전하고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으니까.》
《베개에 좀 기대게 해주시오.》 맥이 없어 말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

렇게 중얼중얼하더니 슈쩬겔은 또다시 의식을 잃었다.
헨리흐는 소좌의 부탁을 쾌히 들어주었다. 그의 증명서들은 그이상 흥미가 없었다. 그중에는 일견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명령서사본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값있는것이 없었다. 그 명령서사본은 슈쩬겔이 완성된 제품인 무전기를 공장경외로 반출할 때 새로운 경비대책을 세운데 대하여 감사를 준 내용이 씌여있었다.
《상급중위님, 은어는 어떻게 할가요? 손질해서 지질가요?》 꾸르트는 헨리흐가 옆방으로 나왔을 때 물었다.
《아니, 강에 도루 놓아주게. 혹시 그 은어가 자기를 바다에 놓아준 어부에게 은혜를 갚은 옛말에 나오는 황금붕어처럼 은혜를 갚아줄수 있지 않겠나!》 골드링은 갑자기 즐겁게 웃으며 이상한 눈길로 보는 꾸르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헨리흐는 외교관이 되다

《그리운 친구앞, 일전의 편지에서 나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취하였는지, 여기서 좋은 의사를 만났는지 물어주었는데 세심하게 걱정해준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는바이요. 나는 그것을 진정한 우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오. 내가 기쁜 소식을 당신에게 전하지 못하는것이 유감일뿐이요.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하오. 가장 나쁜것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돌릴 시간이 전혀 없다는거요…》
소장은 쓰기를 그만두고 써놓은것을 다시한번 읽어보고는 화가 나서 서류첩을 닫아버렸다. 오늘은 군제르에게 회답을 쓸수가 없었다. 그것은 쓸말이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들에 정신이 팔려있었기때문이였다. 근심거리와 불쾌한 일이 사방에서 소장에게 밀려들어오는것이였다.
그것들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눈사태와 같이 그에게로 쏟아져내리는것이였다. 마치 눈사태가 처음에는 하나의 자그마한 덩어리로부터 시작되여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더 새로운 눈층을 끌어들이는것처럼 이딸리아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킬데 대한 명령이 파국의 단서로 된것이였다. 그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자 당장에 불쾌하고 복잡한 일이 꼬리를 물고 쏟

아져나왔다. 일부 이딸리아군대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데로부터 이 사태는 시작된것이였다. 어떤 부대는 자기 위치에 있었으나 무장해제를 거부하였기때문에 병영을 포위하고 강제로 무장을 해제시킬수밖에 없었으며 어떤 군인들은 곧바로 산으로 도망쳐버린것이였다. 그런 도주자들은 사단배치구역에서만도 근 대대력량이나 되는 적지 않은 수였다.

정세의 위험성을 깨닫게 된 에베르쓰소장은 결단성있고 기동적으로 행동을 취했다. 그는 이딸리아군인들을 무장해제한 후 그들을 병영에서 내보내지 않고 지원병모집사업이 끝나고 공동사업에 헌신하려는 새로운 이딸리아부대가 편성될 때까지 경비를 더 엄하게 할것을 명령하였다. 이 대책은 현명한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도 뜻하지 않은 복잡성을 조성하게 되였다. 이딸리아의 병사들과 장교들이 마치 체포된 사람들처럼 갇히워있는 병영으로 기관총총구를 향하고있는것을 본 지방주민들은 분격하였으며 강제적방법으로 자기 동포들을 해방시키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 시도들이 실패를 면치 못한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도는 반복될수 있었으며 조만간에 빨찌산들이 주민들을 도우러 올것인데 그때에는…

이미 식어버린 진한 차물을 한모금 마시고나서 에베르쓰소장은 이마살을 찌프리고 초인종을 세게 눌렀다.

《뜨겁고 진한 레몬차를!》하고 련락병에게 명령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왔다갔다하였다.

다리가 또 저려오기 시작했으며 가슴은 조여드는듯 답답하였다. 카스텔리 라 폰테에 온것이 운수가 좋지 못했다. 한번 나서서 일을 해야 할 시기인데 기력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다리에 신경통이 나타난것이였다. 혹시 진한 차를 과도히 마신 결과나 아닌지? 의사에게 물어봐야 하였다. 주임의사 마찌니가 신경질환을 잘 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건 다 후에 할 일이다. 지원병응모를 끝내고 사단배치구역내에 일정한 안전상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무슨 약도, 무슨 치료방법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다. 에베르쓰는 지원병으로 두개 사단을 편성해야 하였다. 《몬떼－로자》와 《그란드－빠라딕코》가 그 사단의 명칭이였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화려한 명칭이 있을뿐 병사는 없었다. 아무리 쓰다해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성된 조건하에서는 이딸리아군인들 같은 좋지 못한 전투원도 쓸모가 있을것이였다. 약화된

군대를 보충하기 위한 인적예비의 부족이 더욱더 현저해지고있다.

그렇다, 조국에는 병사가 분명히 부족한 모양이다! 얼마전에 밀레르에게 도착한 보충병만 보아도 그 사정을 충분히 알수 있다. 전에는 키가 172센치이상의 군인들만 에쓰에쓰부대에 받았는데 지금은 난쟁이같은 사람들도 왔다. 문제가 키에만 있는것은 아니였다. 나이는 어떠한가? 새로 군대에 동원되여온것들은 소년기를 넘었을가말가하는 젖비린내나는 총각들이 아니면 손자라도 보았음직한 늙은이들이였다. 집에 두고온 식구들 생각이나 하는 그런 병사들을 가지고 싸움을 해보라지! 공격을 앞두고 규정된 술을 마시면 전에는 기관총탄밑으로도 달려나갔는데 이젠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을것이다. 그런 병사들은 술을 급히 마시고나서 전호밖으로 머리를 내밀기 전에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십자를 그을것이다.

그런데 방대한 동부전선은 더욱더 새로운 도이췰란드사단들을 삼켜버리고 새로 조직된 보충병을 요구한다.

에베르쓰소장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였다. 그는 전선에서 필요한 도이췰란드부대를 후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여기 배치된 군사목적물의 경비나 서는데 리용한다면 책임이 크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그가 편성할 임무를 받고있는 이딸리아지원병사단들을 리용할수 있는것이였다. 《몬떼－로자》요, 《그란드－빠라딕코》요 하는 요란한 명칭들이 마치 시끄러운 파리의 앵앵거리는 소리처럼 에베르쓰를 따라다녔으며 지어 그가 지원병응모가 아닌 무슨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할 때도 귀전에서 울리는것이였다. 오늘은 그 단어가 특히 그의 신경을 자극하는것이였다. 소장이 참모부를 떠나기 전에 류쯔는 하루동안에 진행된 지원병응모과정에 대한 정기통보를 그에게 전달하였다. 그때 류쯔의 얼굴이 밝지 못한것을 보고 에베르쓰는 성과가 없다는것을 알았다.

그동안 그 통보자료를 들여다보지 않은것이 생각난 소장은 책상으로 다가가서 서류가방을 열었다. 물론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반대로 하강선을 긋고있었다. 어저께는 150명을 응모하였는데 오늘은 120명이였다. 푼크대좌의 117련대가 배치된 구역이 특히 나빴다.

그놈의 푼크는 정말 머저리였다! 외교적수완이라군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아리아족이 아닌 사람은 다 2부류의 인간으로 보고 명령으로만 다

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이였다. 그는 선전을 하는것은 자기의 위신을 저하시키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결과 그의 구역에서는 이딸리아병사중 무기를 잡고 도이췰란드측으로 넘어와서 싸우겠다는 청원을 낸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그런 조잡한 목석같은 인간은 섬세한 외교사업에는 쓸모가 없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라모니백작에게 거는수밖에 없었다. 에베르쓰는 똑똑하고 간교하며 웅변술도 상당한 그를 리용할데 대한 의견을 받고있었다. 오늘 곧 라모니에게 가보아야 한다.

백작은 소장을 매우 친절히 맞이해주었다. 그러나 그의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숨김없이 털어놓고 말해서 저는 정치활동에 참가하고싶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뿐만아니라 생명까지도 모험하고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늘에 숨어있으면서 멀리서 사태발전에 영향을 주고있었을뿐입니다. …》 하고 그는 에베르쓰에게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백작어른! 그러나 당신을 흑샤쯔단원들이 경비하고있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숨겨졌던 당신의 얼굴이 드러났다고 말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지가지없는 늙은이와 외로운 녀성은 어떤 당에 속해있든 관계없이 보통 경비자로서 흑샤쯔단원들의 신세를 질수 있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작님, 그것은 특히 이곳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있는 가리발지성원들에게 너무나 순박한 변명인것 같습니다. 백작님이 나를 설복시킬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설복하지는 못할것입니다.》

《그 가리발지도당들이란 주인노릇을 하자는 망나니들입니다.》하고 말하는 백작의 머리는 가는 목우에서 흔들거렸으며 얼굴의 주름살들은 어찌나 빨리 뛰기 시작하는지 백작이 성이 났는지 혹은 웃고있는지 알수가 없었으며 더우기 그 눈은 보통때처럼 움직이지 않고 침착하였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옆에 나앉아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리해할줄 압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들, 적대적사상의 소유자에 대한 단순한 증오가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변혁에 대한 지향인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바돌리오장군이… 이딸리아군대가…》하며 소장은 자기의 주장을 말했다.

《더러운 반역자! 불장난을 하다가 제집을 불태울것이다! 그 불꽃

이 그놈도 재로 만들것이다!》

《어째 그뿐만이겠소? 만일 우리가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모두 불타버릴수 있습니다.》

에베르쓰와 백작의 담화는 밤늦게까지 끌었다. 그러나 소장은 만족해서 성을 떠났다. 라모니는 모든 이딸리아부대들을 순회하면서 이딸리아를 위하여 원쑤와의 투쟁을 그만두자는 호소를 가지고 출연할것을 승낙하였던것이다.

이튿날 아침 로백작은 가장 불온한 구역인 푼크대좌의 117련대 배치구역으로 떠났다.

라모니의 첫 연설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몸집이 작고 얼굴이 뾰족하게 생긴 푼크대좌까지도 지금까지 선전의 위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였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백작은 아주 평이하게 말을 시작하였다. 그는 몸에 병이 있는것을 구실로 삼으면서 앉아서 이야기하겠다고 청중들에게 용서를 빌었으며 늙고 기력이 약한데다가 이렇게 큰 모임에서 연설하는데 습관되지 않았기때문에 몹시 목소리가 약할수 있다고 량해를 구했다. 그로 하여금 이 연단에 오르게 한것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나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르는데로부터 옳지 못한 길을 택한 동포들에 대한 책임감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작이 이야기를 해나감에 따라 그의 늙은이다운 떨리는 목소리는 높아졌으며 그의 말은 더욱더 열정을 띠게 되였고 안락의자에 앉은 구부정한 몸조차 쭉 펴진것 같았다. 마치 위력한 힘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었으며 이딸리아의 운명을 위하여, 전체 참가자들의 운명을 위하여 투쟁에로 불러일으킨것 같았다. 그래서 백작의 론거보다도 그의 외모가 어제날의 이딸리아병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 늙은이가 마비된 다리를 끌고 와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조국을 위한 투쟁에로 호소한다는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수치감을 느끼는것이였다.

백작의 연설이 끝난 후 지원병모집을 하였을 때 현저히 성과가 있었다.

라모니의 연설은 사흘동안 변함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흘째 되는 날 뜻하지 않던 일이 발생하였다. 전과 같이 병영에 감금당하고있는 이딸리아병사들에게서 백작과 그의 연설을 듣는 경망한 청중을 조소하는 삐라가 나타났다. 백작에 대해서는 번지르르한 빈말속에 파시스트적본

질을 숨기려고 하는 간사한 여우라고 쓰고있었다. 그 증거로서 파시스트당자금으로 백작이 희사한 금액을 례증하고있었다. 삐라는 지금 백작이 그의 땅과 성을 위하여 생명을 희사하려는 머저리들을 구하고있다는 풍자시로 끝을 맺고있었다.

그날도 백작은 자기 자식들을 교양하는 아버지처럼 담화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담화를 끝까지 할수 없었다. 누군지 삐라에 적혀있는 노래를 떼자 전체 병사들이 인차 호응해나선것이였다. 로백작은 처음에 당황하였다. 그다음 노래의 가사뜻을 알게 되자 노발대발하였으며 마지막에는 겁이 나서 보호해달라고 푼크한테로 도망쳐갔다. 이 사건은 그의 담당구역인 빠르모교외에 있는 한 병영에서 일어난것이였다.

푼크는 라모니자신보다 못하지 않게 미쳐날뛰였다. 누가 감히 그가 책임진 구역에서 삐라를 찍어낸단 말인가!

반시간후에 포위되고있던 병영안의 병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이 시작되였다. 노래가 찍혀있는 삐라 50장과 그보다 더 반란적인 내용의 삐라가 나타났다. 선전에 넘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칠것을 병사들과 장교들에게 호소하는 삐라 몇장이 발견된것이였다. 그 삐라를 가져온게 누구며 그것을 어디서 찍었는가 알아내려는 시도는 아무런 결과도 이루지 못하였다.

《밤에 살포했는데 누군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한결같이 대답하는것이였다.

푼크의 분노는 더 심해졌다. 그는 불온하다고 생각되는 이딸리아부대에서 장교들과 병사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지방주민들속에서 범인을 체포할것을 명령하였다. 저녁에는 불복종하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인질들을 총살한다는 명령서가 나붙었다.

푼크가 잔인하다는것은 알고있었으나 처벌의 엄격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했다. 그것은 빠르모의 주민들뿐만아니라 에베르쓰소장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소장은 푼크대좌에게 즉시 사단참모부로 출두하라고 명령하였다.

에베르쓰는 마음이 유순한 사람이라고는 할수 없었다. 인질을 잡고 다른 사람의 죄값으로 그들을 총살하는 그런 대책은 지휘부의 전술적리해관계에 의하여 모든것이 정당화되는 전시조건하에서 충분히 용허될수 있는 보통일이라고 생각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그 정세하에서는 푼크의 행

동이 지원병모집사업을 약화시킬수 있는 시기상조한 일갈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인질의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는것과 특별한 필요성이 없이는 지원병모집에도 극단한 방법을 쓰지 않도록 하며 아리아족이 아닌 사람들을 멸시한다는것을 이딸리아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것을 인내성있게 한참동안 대좌에게 설명해주었다.

로베르트 푼크는 밤늦게야 에베르쓰소장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감히 야간에 빠르모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백작의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백작의 집에서 묵었다.

빠르모에서 성과없는 연설을 한 후에 라모니백작은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성의 경비를 강화하였다. 그래도 역시 그는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밤에 무슨 바스락소리만 나도 잠이 깼으며 빨찌산의 습격이나 아닌가 하고 벌벌 떨었다. 특히 집에 돌아오자 자기 책상우에 그 불행한 삐라가 놓여있는것을 발견한 후에는 더했다. 그 누가 경비를 뚫고 이것을 성안으로 가져왔을가? 폰 골드링남작이 흑샤쯔단원들에게 지시를 잘 준것은 사실이나 그 성원들을 검열해달라고 에쓰에쓰근무장교에게 부탁해야 할것 같다. 한사람한사람 다 심문을 해보라지. 삐라가 하늘에서 떨어질수는 없는것이니까! 백작은 어째서 일찌기 밀레르에게 부탁할 생각을 못했던가? 슈쩬겔소좌가 아직 성안에서 앓고 있으니 에쓰에쓰대원들의 경비를 부탁하기에 아주 기회가 좋다. 슈쩬겔소좌의 안전을 위해서만이라도 그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폰 골드링도 집에 있는 일이 적었다. 그는 흔히 초소들에서나 위수부대들에서 자고오는 일이 많았다. 오늘도 오지 않는걸 보니 소장이 그를 어디엔가 보낸 모양이다. 푼크라도 만난게 다행이다. 혹시 골드링도 돌아오겠는지?

그러나 골드링은 이튿날 아침에야 카스텔리 라 폰테에 도착하였다. 그는 곧바로 참모부에 가서 현지형편에 대해서 소장에게 보고하고 대낮에 류쯔를 데리고 집에 왔다. 에베르쓰는 자기 명의로 라모니백작에게 불쾌한 일이 있은것을 사과하고 다른 구역에서 출연해줄것을 백작에게 부탁할것을 공식적으로 류쯔에게 위임한것이였다.

《꾸르트, 차를 너무 빨리 몰지 말라구. 조금이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그들이 참모부를 떠날 때 류쯔가 부탁했다.

《그럼 좀 돌아갈가?》 헨리흐의 말이였다.

《그만두게, 차라리 돌아올 때 걸어오겠네. 아마 자넨 지난밤에 못잤지. 잠에 취한것 같군.》

헨리흐는 몰려드는 잠을 이겨낼수 없어 좌석등받이에 기대서 졸았다. 그의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류쯔는 말을 하지 않고 앉아서 자동차의 열린 창문으로 흘러드는 신선한 공기에 얼굴을 내댔다. 너무 빨리 도착한것이 유감이였다.

라모니의 선조들은 성을 세우기 위하여 경치좋고 아주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였다. 진짜 자그마한 요새였다! 침울한 첨탑, 항상 꼭 닫겨있는 대문…

성의 낯익은 륜곽에 눈길을 돌리던 류쯔는 갑자기 눈이 둥그래졌다. 이게 웬일인가? 어째서 오늘 성문이 열려있는가?

《전속으로 달리게, 대문옆에서 차를 세우게!》 류쯔가 명령하였다.

꾸르트는 속력을 놓았다. 자동차는 앞으로 돌진하였다. 불의의 충격에 헨리흐도 잠이 깼다. 기분좋게 기지개를 켜면서 차를 마구 몬다고 꾸르트를 욕설했다. 문득 그의 눈이 커졌다. 잠은 씻은듯이 사라졌다. 활짝 열려진 대문에는 경비원도 서있지 않았다!

《무기를 준비할것!》하고 헨리흐는 명령하고 차를 조심해 몰라고 꾸르트에게 신호했다.

자동차는 서서히 정문으로 다가갔다. 대문은 활짝 열려있고 현관바닥에 흑샤쯔단원의 시체가 누워있었다. 세사람은 곧바로 백작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 방들은 비여있었다. 구겨진 하불이 침대에 걸려있고 방바닥에는 담요가 나딩굴고있었다.

마리야—루이자의 방들은 외관상으로는 제대로 있는것 같았으나 그곳에서도 헨리흐와 류쯔는 사람 하나 만날수 없었다.

《상급중위님!》 꾸르트의 흥분된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련락병은 헨리흐의 방에서 정신없이 달려나와 너무 놀라서 얼굴이 새하얗게 되여 복도 한가운데 서있었다.

《저—저어기…》하며 그는 말을 더듬거렸다.

그의 설명도 들을새없이 헨리흐와 류쯔는 방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거기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침실로 들어섰다. 슈젠겔소좌가 누워있던 침대에는 하불로 싸놓은 무슨 시체같은것이 있었다.

그것이 슈젠겔이겠거니 생각한 류쯔는 재빨리 하불을 벗기였는데 그

안에 의식을 잃은 마리야—루이자가 있는것을 보자 깜짝 놀라 소리쳤다.

마리야—루이자는 정신이 든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수 없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보통때와 같이 자기 침실에 누워서 인차 잠이 들었다고 한다. 야밤에 숨이 답답해졌는데 아무리 깨나려 하여도 캄캄한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것 같은것이 깨날수가 없었다. 슈쩬겔은 어디 있으며 자기는 어떻게 해서 여기 와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어떻게 자기를 하불에 쌌는지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는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창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마리야—루이자에게서 달콤한 냄새가 풍기였는데 그것때문에 그는 지금도 구역질이 나는것이였다.

헨리흐는 침대옆에 널려있는 붕대를 말없이 류쯔에게 가리켰다. 거기서는 아직도 클로르포름냄새가 약간씩 풍기였다. 소장과 밀레르에게 전화를 건 다음 장교들은 한걸음한걸음 성안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지하실에서 그들은 녀종과 로백작의 몸종을 발견하였다. 두사람 다 추위와 공포로 하여 벌벌 떨었으며 역시 지난일을 아무것도 설명할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침대에서 일으켜 이곳으로 끌어왔다는것이였다. 백작, 슈쩬겔 그리고 그날밤 성안에서 자고있던 대좌가 어떻게 되였는지도 그들은 몰랐으며 경비원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도 말하지 못했다.

밀레르는 전에없이 흥분해서 즉시 달려왔다. 그는 백작의 운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는 푼크가 없어진것도 침착하게 견디여낼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빨찌산들이 중요한 비밀대상물의 내부경비책임자인 슈쩬겔을 포로로 잡아간데 대해서는 마침내 겁을 먹지 않을수 없었다.

밀레르는 마치 수색견처럼 백작과 그의 조카딸의 방들로 뛰여다녔으며 방바닥으로 기여도 보고 비록 빨찌산들이 비상통로로 들어온것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손잡이와 창문들의 쇠고리에 확대경을 대고 보기도 하였다. 그 비상통로의 문을 누가 열어주었을가? 어찌하여 문에서 가장 가까운 방에 있던 슈쩬겔조차도 방어하지 않았을가? 그에게는 무기가 있었으니까 떠들썩한 소리를 듣자마자 경보를 울릴수도 있은것이였다. 마지막으로 경비원들은 어찌하여 경보를 울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모를 일이였다. 가장 중요한것은 라모니백작과 푼크와 슈쩬겔을 도대체 어데로 데려갔단 말인가?

모든것은 얼마후 밀레르가 백작의 사무실을 수색하기 시작했을 때 해명되였다. 라모니의 책상우에 인쇄체글씨로 쓴 글쪽지가 놓여있었다.

《로백작, 푼크대좌, 슈쩬겔소좌 및 전체 경비성원을 인질로 잡아간다. 당신들이 빠르모에서 수십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았다면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을것이다. 빠르모에서 한사람만 총살한다면 우리는 전체 인질을 다 목매달것이다. 포로교환에 대한 담판의 개시여부는 관계하지 않는다. 가리발지부대장(그다음에는 알아볼수 없는 서명이 있었다.)》

가리발지대원들이 성을 습격한것은 문자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아연케하였다. 놀라운것은 불의성뿐아니라 조직성에도 있었다. 성안에 있는 군인들, 창문들의 쇠창살, 철판을 붙인 육중한 대문—이것은 다 경비원들이 빨찌산의 맹렬한 습격뿐만아니라 더 많은 원쑤의 포위라도 견디여낼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그런데 경비원들은 총 한방 쏘지 못했으며 저항도 하지 못한것이 분명했다. 현관에서 시체가 발견된 흑샤쯔단원을 제외한다면…

(이것이 다 어떻게 된 일일가? 상부에 어떻게 보고할것인가? 어떻게 변명한단 말인가?) 밀레르와 에베르쓰는 이 곤경에서 빠질 출로를 찾아보려고 애쓰면서 서로 묻는것이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리라는것을 알았으며 슈쩬겔의 경비에 대해서 제때에 생각하지 못한것은 그들의 돌이킬수 없는 과오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만일 소좌에게 불행이라도 생긴다면 그들의 변명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것이다.

마리야—루이자도 무엇보다도 슈쩬겔에 대해서 걱정이 되였다. 모든 일이 공교롭게 그리고 숙명적으로 벌어진것이였다.

《제발 그분들을 구원해주세요! 남작님은 나의 기사가 되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였지요. 나의 아저씨는 더 말할것도 없고 앓고있는 소좌까지 어떻게 그들의 손에 맡겨둔단 말이예요. 소장님께 말씀드려서 그 저주로운 인질들을 놓아주도록 해주세요. 그들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거예요!》하며 마리야—루이자는 골드링에게 애원하였다.

《래일 아침에 소장한테로 가겠습니다. 잘 말씀드려봅시다.》 헨리흐는 약속했다.

그런데 소장자신이 자기 특수임무장교를 생각하고있었다.

성에 대한 습격은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에 걸쳐 벌어졌는데 월요일 아침에 류쯔는 헨리흐를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어 소장이 부른다고 전화로 알렸다.

헨리흐가 참모부에 도착하자마자 류쯔는 설명해주었다.

《어저께 에베르쓰는 발생된 불상사에 대해서 북부집단군사령부에 보고하고 슈쩬겔을 석방하기 위한 만단의 대책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소. 그런데 오늘 아침 북부집단군참모부대표가 나타나 공식적인 명령을 가져왔소. 거기에도 역시 주로 슈쩬겔문제이고 백작과 푼크에 대해서는 언급했을따름이요. … 하여튼 빨리 가보시오. 벌써 두번이나 당신이 왔는가 물었소.》

소장의 사무실에는 소장과 밀레르가 있었고 대좌견장을 단 장교 한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가 아마 사령부대표인 모양이였다.

《상급중위요? 마침 잘 왔소! 인사하고 앉으시오. 다소 뜻밖이지만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던 참이요. … 아주 책임적인 임무에 대한 문제요.》 에베르쓰는 반가와하며 말했다.

《어서 말씀해주십시오, 소장님!》

《우리가 당신께 맡기려고 하는 임무는 특수임무장교로서의 의무를 벗어나는것이요.》하며 소장은 아주 엄숙하게 말을 시작했다. 《그것은 특수한 임무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당신을 가리발지부대로 파견하기로 결심했소.》

임무는 사실 너무나 뜻밖의것이여서 헨리흐는 놀라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아마 무슨 말인지 몰랐을게요. 부대장을 찾아서 인질교환에 대한 담판을 시작할 사명을 당신에게 주었단 말이요. 만일 빨찌산들이 성에서 잡아간 사람들을 놓아준다면 우리는 빠르모에 있는 인질들을 석방하는데 동의하오.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는 경우에는 슈쩬겔소좌 한사람이라도 내주도록 제의하시오.》

《거기 첨가해 말씀드리고싶은것은…》하고 참모부대표가 참견하였다. 《만일 우리가 슈쩬겔만 돌려줄것을 주장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

를 로출시키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찌산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옳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하고 소장이 동의하였다.

《그러니까 빨찌산들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있는 인물은 라모니백작인줄로 알도록 그렇게 담판을 진행해야 합니다.》하고 밀레르가 의견을 말했다.

《남작, 총체적으로 이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오?》 에베르쓰는 물어보는 눈길로 헨리흐를 보며 말했다.

《저는 어떠한 어려운 임무든지 수행할 각오가 되여있습니다. … 그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형식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려도 좋겠는지요?》

《어서 말씀하오, 남작!》

《저는 벨라루씨에서 빨찌산과 부딪쳐본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기들의 군사적인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매우 신경을 쓴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가리발지들도 례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혼자 간다면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에 대한 홀시라고 생각하고 틀림없이 담판을 거부할것입니다. 비록 두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군사대표단을 파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존엄있게 보일것이며 무슨 곤난이 생긴다 하더라도 담판하기에 편리할것입니다.》

《상급중위가 옳은 제의를 했다고 봅니다.》 사령부대표가 먼저 동의했다.

《밀레르씨가 둘째대표로 갈수 있겠군.》 에베르쓰가 말했다.

헨리흐는 밀레르가 창백해지는것을 보았다.

《저는 그이상 좋은 동반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반대의견을 드리는바입니다. 밀레르씨는 빨찌산들사이에 지나치게 널리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자동차는 이미 습격을 당한 일도 한번 있었습니다. 군사대표로서는 에쓰에쓰근무와 관계없는 사람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전선에서는 그런 경우에 목사나 혹은 의사를…》

한참동안 침묵이 계속되였다. … 제가끔 마음속으로 적당한 후보자를 탐색하고있었다.

《병원주임의사 마찌니에게 그 일을 맡기면 어떨가요?》하고 밀레르가 마침내 제의하였다.

《그 사람의 성이 어쩐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그 의사는 이딸리아사람인가요?》 사령부대표가 말했다.

《아버지켠이 그렇습니다만 어머니켠은 순수한 아리아족입니다.》하며 밀레르는 성급히 설명을 하고나서 마찌니를 굉장히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헨리흐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극히 얼마전에 밀레르는 마찌니에 대해서 전혀 다른것을 이야기한 일이 있었다.

《그렇다면 나도 반대없습니다.》하고 사령부대표도 동의하였다.

《나 역시 그렇소.》 에베르쓰도 지지하였다.

《그러면 마찌니에게 알려도 될가요?》

《빠를수록 좋소. 곧 병원으로 떠나시오.》

마찌니는 설복할 필요도 없었다. 무슨 문제인가를 알고 그는 당장 승낙하였으며 빠르모에 푼크가 체포한 인질들이 있는만큼 가리발지부대를 찾는것은 거기서부터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빠르모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탐색의 방향을 어디에 잡을것인가? 무턱대고 산으로 들어갈가요?》 헨리흐가 물었다.

《련대참모부에서 무슨 자료를 가지고있을수 있소. 빨찌산들이 남겨놓고 간 글쪽지에는 명백히 담판에 대한 암시가 있으니까.》

《당신은 언제 떠날수 있겠소?》

《지금 당장이라도 떠납시다. 아침회진은 다 끝났소. 조수에게 말만 해놓고 가면 되오. …》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소. 함께 소장에게 가서 준비가 되였다는걸 보고합시다.》

마찌니는 전화로 조수를 불러 해당한 지시를 주었다. 10분후에 친구들은 참모부로 향하였다. 골드링은 꾸르트에게 성에 가서 자동총과 비옷을 가져오고 마리야—루이자에게 글쪽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글쪽지에는 군사대표로 빨찌산에 가서 백작, 슈쩬겔 및 기타 인질로 잡힌 사람들을 석방하기 위하여 빠르모로 간다는것을 간단히 알렸다.

소장도 사령부대표도 군사대표단이 그렇게 빨리 준비된것을 만족히 여겼다.

《무슨 일이 있든지 슈쩬겔을 석방해야 한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만일 가리발지들이 당신의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 빨찌산의 가족들이 살

고있는 마을을 재더미로 만들겠다고 경고하시오.》하고 소장은 마지막지시를 줄 때 강조하였다.

《위협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하고 마찌니가 자신있게 말했다.

《그랬으면 오죽 좋겠소.》하고 소장은 말했다. 그는 군사대표들앞에서 립장이 난처하였다. 그래서 랭랭한 공식적인 말로써 그것을 가리우려고 애썼다. 그러나 작별할 때 에베르쓰는 더 참을수 없는듯 《나로서는 당신들을 이런 위험한 길에 보내고싶지 않소!》하고 헨리흐에게 조용히 말했다.

점심시간에 자동차는 카스텔리 라 폰테를 떠났다.

《백작 조카따님께 쪽지를 전했나?》 헨리흐는 꾸르트에게 물었다.

《주무시기때문에 녀종에게 맡겼습니다.》

차에 앉아서 헨리흐와 마찌니는 다시한번 권총을 검열하였으며 이제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 길쪽을 주의해 바라보았다.

《무섭지 않소?》하고 마찌니가 로어로 물었다.

《그다지 무서울게 없구만!》 헨리흐 역시 로어로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오. 가슴이 두근거리지?》

《만일 우리가 푼크가 잡아넣은 불행한 사람들을 구출할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오.》

마찌니는 헨리흐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일이 순조롭게 되겠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시간은 어느새 많이 경과하여 빠르모까지 그렇게 빨리 도착한것을 둘이 다 놀랐다.

련대참모부에서는 뜻하지 않은 매우 기쁜 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30분전에 누군지 참모부에 전화를 걸었는데 가리발지대표단들은 담판을 시작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군사대표단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다. 참모부의 대표들은 빠르모에서 북쪽으로 차를 타고가야 하였다. 10키로메터 지점에서 차에서 내려 백메터쯤 걸어서 높은 화강암절벽밑에 있는 수원지까지 가야 하였다. 거기서 가리발지부대의 군사대표가 그들을 기다리기로 되여있다고 직일관이 알려주었다.

《북쪽으로 가다가 10키로메터 지점에서 차를 세우게.》하고 헨리흐는 꾸르트에게 명령하였다.

《우리가 카스텔리 라 폰테를 떠나기 전에 가리발지들은 우리가 오는것을 이미 알고있은 모양이군.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군. 마찌니, 당신은 어떻소?》

《나야 더 모르지.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은데. 우리에게 임무를 준것이야 소장, 사령부대표, 밀레르, 당신과 나—이렇게 다섯사람밖에는 모르겠는데! 류쯔가 혹시 알수 있겠군. 누가 빨찌산에게 미리 알렸을가? 얼치기 도이췰란드사람인 나를 의심할수 있겠는데…》

《그러나 나와 당신이야 잠시도 떨어진적이 없지 않소. 그건 내가 보증할수 있소.》

《당신은 밀레르에게나 더우기 나를 미워하고있는 꾸비쓰에게 그것으로 충분할것 같은가?》

《우리가 적측 군사대표를 어떻게 만났다는것까지 그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야 없지 않소? 임무를 수행하면 다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이거야 우리의 외교적비밀이니까.》

《10키로메터입니다!》 꾸르트는 차를 세우면서 흥분해서 어째서인지 귀속말로 알려주는것이였다.

《그럼 흰기를 내밀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게.》

헨리흐와 마찌니는 손에 자그마한 흰기를 들고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뻗어간 알릴가말가한 오솔길로 걸어갔다. 10분쯤 가니 그들앞에 높은 절벽이 나섰다. 가까이에 폭포가 있다는것을 알리는 물소리가 들렸다.

헨리흐와 마찌니가 서있는 앞에는 놀랄만 한 경치가 펼쳐져있었다. 투명한 가을의 대기속에 멀리 지평선이 보였으며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기묘한 산봉우리들이 똑똑히 두드러져보였다. 수림이 모자처럼 덮였거나 혹은 벌거벗은 봉우리들이 황금해빛을 받아 련이어 솟아있으며 그것들은 제각기 다르게 태양광선을 받고있었다. 아래쪽에 빠르모가 보였는데 그것은 벌통을 여기저기 놓고있는 양봉장과 같았다. 거기서부터 웃쪽으로 방금 헨리흐와 마찌니가 차를 타고온 그 길이 뻗어있었다. 해빛에 반사되여 눈부신 은띠처럼 보이는 그 길은 마치 차굴속으로 들어가듯이 가로수의 짙은 록음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표면으로 빠져나와 급하게 에돌아 다시한번 빛을 번뜩이고는 절벽뒤로 시야에서 벗어나버리는것이였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조용도 하군!》 마찌니가 부지중 말했다.
《세상사를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서서 경치나 감상했으면 좋겠군!》 헨리흐가 그 말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싸워야 하지요.》 그때 등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듣지 않던 목소리가 울렸다.
헨리흐와 마찌니는 너무나 뜻밖이여서 깜짝 놀라 홱 돌아섰다. 그들 앞에는 소매에 흰띠를 두른 두사람이 서있었다. 첫 사람은 아마 책임자인것 같은데 수수한 농민복을 입고 중키에 머리빛은 갈색이였다. 피로해보이기는 하지만 친절한 얼굴이였다. 얼굴에 채 아물지 않은 상처자리가 있었다. 상처는 오른쪽관자노리로부터 볼을 지나 입술옆에까지 잇닿은것이였다.
둘째 대표를 보자 헨리흐는 소리를 칠번 하였다. 이마가 낮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넓고 숱이 많은 눈섭… 옳았다, 그는 잘못 보지 않았다. 헨리흐가 카스텔리 라 폰테에 도착한 이튿날 밀레르의 객실에서 본 바로 그 이딸리아사람이였다.
《밀고자다!》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헨리흐는 큰소리로 물었다.
《당신들은 가리발지부대의 군사대표입니까?》
《그렇소!》 상처자리가 있는 빨찌산이 시원한 미소를 띠고 대답했다.
《우리는 에베르쓰소장의 사단참모부 군사대표인 폰 골드링 상급중위와 주임의사 마찌니입니다.》 헨리흐는 군대식으로 자기 소개를 하였다.
《아,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군!》 상처자리가 있는 빨찌산의 입가에는 다시 조소하는 빛이 한순간 스쳐지나갔다.
둘째 빨찌산은 짙은 눈섭밑으로 헨리흐를 유심히 보고있었다.
《어떤분들인지 알수 없을가요?》 마찌니가 물었다.
《가리발지부대의 대표로 알아주시오. 우리는 자기 성명을 잊은지 오래오.》
《물론 우리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는지 아시겠지요?》 헨리흐가 물었다.
《짐작됩니다.》
《우리는 인질을 교환하는데 동의합니다. 당신들이 석방하는 수만

큼 감금자를 석방할것을 약속합니다.》하고 헨리흐는 메마른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사실 그는 침착하고 자신있게 태도를 취하고있는 상처자리가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의하시오! 옆에 원쑤가 있소!》하고 웨쳐주고싶은 심정이 간절하였다.

《그러니까 일 대 일이군.》 마침내 눈섭이 진한 둘째 빨찌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다!》

상처있는 사람은 코방귀를 뀔뿐이였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좀 이르게 온것 같소. 우리가 빠르모에서 푼크대좌가 잡아간 사람들만큼 당신네 장교들을 잡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소. … 그리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을것 같소. 우리에게는 장교잡이명수들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 조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는수없이 사령부의 이름으로 몇개의 주민지점을 소각하게 될것을 경고하는바입니다. … 그러면 주민들은…》

그러나 헨리흐는 말을 다 끝내지 못했다. 농민복을 입은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상처자리가 더 드러나보였다.

《당신들은 조건을 들이대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렇다면 담판은 해서 무얼합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과격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담판을 위해서 왔는데 담판이란 흔히 흥정과 비슷하지요.》 마찌니가 타협조로 나섰다.

《우리는 사람을 가지고 흥정하는데 습관되지 않았소. 당신들과 같이 인간생명을 가지고 장사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과 맞선다면 흥정에서 밑질것은 뻔하니까.》 상처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조소하는듯 울렸으며 그의 입가에는 경멸적인 미소가 어리여있었다. 《우리의 조건은 하나요. 우리는 당신네 사람들을 내주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을 내주면 되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인질은 50명이 넘는데…》

《54명이요.》하고 빨찌산이 정확하게 말했다.

《그런데 당신들에게는 열한사람밖에 없지 않은가요.》하고 헨리흐가 상기시켰다.

《열한사람이라구? 어디서 그런 난데없는 소리를 하시오? 우리에겐 세명밖에 없소.》

《세여봅시다.》하고 헨리흐가 세기 시작했다. 《당신들에게 있는 사람은 우선 라모니백작…》

《있소!》

《푼크대좌…》

《벌써 전에 목을 달아매야 할 사람이지. …》

《슈쩬겔장교…》

《슈쩬겔남작이요.》하고 상처있는 빨찌산이 시정하였다.

《그리고 백작의 개인경비원 여덟명.》

《그 사람들도 받아낼 작정이요? 안될것이요! 그 사람들이야 우리 이딸리아사람들이니까. 그들과는 특별히 계산할게 없소. 종교적이며 신을 믿고있는 우리들은 악마들이 저세상에서 그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수는 없소. 그러니까 문제는 세사람에 대한것뿐이요. 그러나 그들은 보통사람들과는 다르오! 백작, 남작, 대좌란 말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에게 내놓을수 있는것은 어떤 사람들이요? 보통 로동자, 농민, 수공업자들이요. … 그래 백작이 자기를 한명의 로동자와 교환하였다는것을 알면 노엽지 않겠소? 아마 그는 결코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것이요! 그 사람 하나에 대해서 적어도 30명의 사람은 내놓아야 하오! 남작 역시 저명한 인사가 아닌가! 물론 백작보다야 좀 싸겠지만 20명값이야 나가겠지. 그렇게 되면 대좌는 네명값밖에 안되오! 푼크와 같은 대좌로서 노여워할만도 할거요! 그는 아무 죄가 없는 평화적주민들과는 아주 용감하게 싸우고있소! 그러나 모든 흥정에서 다 그렇듯 에누리가 있는 법이니까 길고 짧은건 대봐야 안다구 한번 대봅시다! 그러나…》 빨찌산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목소리는 더 준엄하게 울렸다. 《만일 당신들이 비록 한사람이라도 당신들의 인질을 건드리거나 또는 우리 조건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신네 백작과 남작이 거꾸로 매달린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당신들이 내놓은 제의를 지휘부와 토의없이 접수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소. 만일 지휘부에서도 그 조건을 접수한다면 인질의 교환질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이렇게 합시다. 래일 아침에 당신들은 자기의 인질을 자동차로

이곳까지 데려오시오. 그 사람들이 산에 기여오르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동차를 여기서 한키로메터쯤 되는 곳에 세우시오. 경비는 어떠한 형태든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을 폭포로 데려가시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프랑스사람들이 말하는 아침산보로 될것이요.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당신네 사람들을 내주겠소. 그거면 다요! 그러나 만일 인질중 한사람이라도 억류하거나 불구로 만든다면 당신네 사람들도 그렇게 될것이라는것을 경고하는바이요. 이젠 당신네 장관과 토의해 보시오.》

《래일 아침에 대답하겠소.》 헨리흐는 이 말을 남기고 경례를 붙인 다음 걸어내려갔다. 마찌니는 그를 따랐다.

차에 앉은 다음 그들은 웃음을 터치였다.

《아주 령리한 사람인데!》 헨리흐는 감탄하여 말했다.

《그대신 그 눈섭이 짙은자는 아주 인상이 나쁘더군.》

에베르쓰소장, 북부집단군사령부대표 그리고 밀레르는 골드링과 마찌니가 돌아오기를 초조히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이 상한데 없이 건강한 몸으로 사단참모부에 도착한것을 보고 모두 안도의 숨을 쉬였다.

《보고하오, 남작!》 소장이 재촉하였다.

헨리흐는 빨찌산군사대표와 만났던 이야기와 그들이 내놓은 조건을 말했다.

《접수하는 수밖에 없지!》하며 소장은 한숨을 쉬였다.

《자기 성명들은 말하지 않았소?》 밀레르가 궁금해하였다.

《그까짓거야 대수롭지 않은 일이요. 본문제와 관계가 없소.》하고 소장이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다시 헨리흐와 마찌니를 향해 말했다. 《이왕 순조롭게 시작한 일이니 래일 아침 일을 끝까지 봐주기 바라네.》

《소장님, 청드릴것이 있습니다.》하고 밀레르가 소장에게 말했다. 《빠르모에서 감금하고있는 인질들속에 삐라발행에 참가한 사람이 있다는것이 판명되였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면 인쇄소에 대해서도 알아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 인질을 남겨주실것을 간청합니다. 앓고있기때문에 후에 보내주겠다는 구실로 말입니다.》

밀레르는 입에 물고있던 맛있는 고기덩어리를 빼앗긴 개를 련상시켰다.

《그렇게 해봐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인질교환문제를 밀레르씨가 종결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질수 없기때문입니다. 가리발지사람들은 그들의 대표가 경고한대로 행동하리라는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도 포로중의 한사람을 억류하자고 할것인데 슈쩬겔소좌가 억류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남작이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의 직무에 대해서도 알고있을수 있습니다.》

《안되오, 안돼!》 에베르쓰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모험은 그만둡시다! 한사람도 남기지 말고 인질을 다 넘겨주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이상 말을 맙시다. 래일 남작과 마찌니가 열한시에 슈쩬겔소좌, 라모니백작 그리고 푼크를 데리고 함께 오기를 기다리겠소.》

다음날은 일기가 좋지 않았다. 가을비가 구질구질 내리였다. 회색구름이 산우에 낮게 드리워 나무우듬지들을 련결시키고있는듯 했다. 이런 날씨에는 좋은 책이나 들고 뜨뜻한 방 벽난로옆에 앉아있거나 오랜 포도주나 한잔 마시고싶은것이다. 그러나 헨리흐, 마찌니 그리고 마리야—루이자는 새벽에 벌써 빠르모에 와있었다.

마리야—루이자는 가리발지와의 담판이 어떻게 끝났는가를 알게 되자 그 기쁜 소식을 가져다준 헨리흐에게 입까지 맞추고 이번 걸음에는 꼭 자기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졸랐던것이였다. 헨리흐는 동의하였다. 그리고 후에 자기의 약한 마음을 꾸짖었다. 마리야—루이자는 신경질이 심했으며 모든 점에서 방해가 되였다.

《마찌니는 무엇때문에 매개 인질을 검열하고 명단과 대조까지 하나요? 기다리다가 오지 않는다고 가리발지들이 가버리면 교환이고 무어고 다 틀리겠는데…》하며 마리야—루이자는 불평을 말했다.

《약속한대로 로백작이 오늘은 성에서 저녁을 잡수시게 할테니까요. 혹시 점심도 잡수실수 있습니다.》 골드링은 마리야—루이자가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는것이 전혀 로백작이 아니라는것을 알면서도 이런 말로 그를 진정시켰다.

마침내 인질들을 자동차로 안내하였다. 그들은 당황하고 놀랜 기색이였으나 어떤 좋지 않은데라도 가겠다는 각오가 되여있는 사람들처럼 태연히 적재함에 올라탔다.

《여보, 마찌니.》 헨리흐는 화물자동차와 오늘 군사대표를 태우고 가라고 특별히 소장이 지시한 승용차가 시외로 벗어졌을 때 문득 생각이

나서 말했다. 《우린 인질들에게 어디로 간다는걸 미리 말해주지 않았소. 경비가 없는것을 보고 산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흩어져 달아날수 있소.》

마찌니는 운전사에게 신호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앞서가던 화물자동차들이 멎었다. 마찌니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어리둥절하고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곳과 목적을 설명해주었다. 어떤 사람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어떤 사람은 즐거운 미소가 얼굴에 퍼졌으며 소리를 치거나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동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9키로메터지점에서 멎어섰다. 중절모와 캡을 귀까지 눌러쓴 즐겁고 흥분된 인질들은 길게 늘어서서 비에 젖은 길에서 미끄러지며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앞에는 마찌니가 길잡이로 나섰다. 헨리흐는 대렬뒤에서 따라갔다.

굽인돌이를 지났을 때 더욱 걷기가 힘들어져서 몇몇 인질은 멈춰서기 시작하였다. 헨리흐도 숨을 돌리느라고 멈춰섰다. 경사가 심해서뿐만아니라 비온 후라 오솔길이 미끄러워서 걷기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마찌니를 선두로 하는 첫대오가 목적지에 다달았다. 그래서 대렬끄리에 있던 사람들도 걸음을 재촉하였다.

헨리흐는 마지막으로 올라갔다. 그가 절벽에 다달았을 때 벌써 호명이 시작되고있었다. 짙은 눈섭의 대표가 이름을 부르며 명단과 대조하고있었다. 인질들은 한사람씩 앞으로 나섰다가 옆으로 나서면서 다른 대렬을 지었다. 상처있는 빨찌산은 그들 매 사람을 굳은 악수와 시원한 미소로써 맞이하였다.

《당신네 인질은 어디 있습니까?》하고 헨리흐가 물었다.

《저기 있소!》하며 상처있는 빨찌산은 큰 암반을 가리켰다. 그쪽을 보니 백작, 슈쩬겔 그리고 푼크가 있었다. 후줄근하고 면도도 하지 못한 라모니는 들것에 누워있었다. 슈쩬겔은 두팔로 무릎을 잡고 그우에 머리를 드리우고 앉아있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헨리흐가 온것조차 모르는 모양이였다. 푼크만은 당장에 펄쩍 뛰여일어났다.

《폰 골드링!》 그는 큰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작은 눈에는 기쁨이 번뜩였다.

슈쩬겔 역시 펄쩍 일어섰다. 라모니는 여전히 꼼짝 안하고 누워있었다. 그는 아마도 석방되였다는것을 모르는 모양이였다.

《틀림없지요?》 헨리흐는 가까이 오는 상처있는 빨찌산에게 물었다.
《명단에 있는대로 54명이 다 있소. … 그러니까 당신께 말한대로 되였소. 당신은 정직한분이요.》하며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헨리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데려가도 되지요?》
《어서 데려가시오!》
헨리흐와 마찌니는 백작의 들것을 들고 조심조심 내려가기 시작했다. 푼크가 돕겠다고 옆에 달려왔다. 슈쩬겔은 무관심하게 뒤에서 걸었다. 그는 병을 앓고 또 타격을 받고 아직 완전히 정신이 들지 못한것이였다.
그들이 절벽에서 백메터쯤 나왔을 때 뒤에서 큰 회파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한번, 두번 반복되더니 푼크의 이전 인질들이 모두 웃으며 소리치며 회파람을 불기 시작하였다.
그제야 슈쩬겔은 완전히 정신을 차렸다. 그는 헨리흐에게로 달려가 그에게서 들것의 한쪽끝을 빼앗아잡았다.
《푼크, 앞으로 가서 마찌니와 함께 드십시오!》 그는 어른다운 어조로 명령을 하고나서 헨리흐를 돌아보며 뜻하지 않던 정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남작, 당신은 내 생명을 두번째 구해주었소. 나는 당신이 모험하지 않기를 바라오.》
그들은 넷이서 들것을 들고 급히 자동차까지 왔으며 20분후에는 빠르모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푼크는 내리고 그대신 백작과 슈쩬겔사이에 마리야—루이자가 앉았다.
더는 아무데서도 지체하지 않고 자동차는 카스텔리 라 폰테로 달렸다.

복 수

헨리흐가 따르왈리부인에게 보낸 편지는 《수신인이 없음》이란 글쪽지가 붙어 돌아왔다.
무관심한 사람이 써놓은 간단한 두 단어였다. 그것은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못했으며 다만 불안을 낳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할뿐이였다. 그를 과거와 련결시키고있던 또 하나의 실마리가 끊어졌다. 그가 따르왈

리부인에게 부탁했던 모니까의 사진은 영원히 그의 손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수신인이 없음》… 모니까의 동무들이 그가 죽은것을 모르고 그에게 보낸 편지들도 아마 그와 같은 글쪽지가 붙어 돌아갈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헨리흐는 편지봉투를 책상서랍에 넣었다. 그러나 《수신인이 없음》이라고 똑똑히 써놓은 두 단어는 계속 그의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모니까 역시 없어졌다. 아마 밀레르는 모니까의 이름에 바로 이 단어를 써넣었을것이다. 그는 베르트골드의 특별지시를 받고 《살해하였음》이라고는 쓸수 없을것이다. 이에 대해서 생각하고있는것, 매일 밀레르와 만나는것, 그와 인사도 하고 담화도 하는것, 그러면서 항상 이 가라앉을 줄 모르는 마음의 아픔을 느껴야 하는것—이것이 얼마나 참기 어려운 고통인가!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문다고 한다. 아니다, 그것을 치료하는것은 시간이 아니라 일이다. 그는 그것을 확신하였다. 원쑤에게서 비밀을 될수 있는대로 빨리 밝혀내는데로 모든 생각을 돌리고 일을 하는 때가 훨씬 마음이 가벼웠다. 임무가 특별히 복잡할것을 생각해서 헨리흐에게 시간제한은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빨리 해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것은 수십만 사람들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해놓은 일은 아직 얼마나 적은가! 이제 겨우 공장의 소재지를 확정할수 있었을뿐이다. 오늘 슈쩬겔을 방문하게 되였으니 거기서 무슨 새 자료를 얻어낼수 있겠는지!

슈쩬겔은 마침내 골드링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다! 헨리흐가 그를 강에서 끌어낸 후부터, 특히는 인질교환의 전 과정을 통해서 소좌는 그에게 특별한 관심과 감사의 정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하였다.

슈쩬겔은 시내의 가장 아늑한 거리에 있는 아프레도 레로의 독립가옥의 방을 두개 쓰고있었다.

《그 레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더 적을수록 좋소.》 헨리흐가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물었을 때 슈쩬겔은 설명하였다.

《아마 무슨 중요한 인물인 모양이군요. 집옆에서 자동총수가 두명이나 근무를 서고있는것이 우연치 않군요.》

《그 사람은 여름철의 시끄러운 모기 같아서 난 싫증이 났소! 그의 생명과 공장에 대해서 내가 목을 걸고 책임져야 하니까요. 보모노릇을 하려고 여기 와있는 셈이지요. 어느 정도 그게 편리한건 사실입니다.

난 지금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있소. 레로의 딸은 솜씨있는 살림군이요. 내 련락병이 은어를 못 쓰게 만드는것을 보자 그 녀자자신이 아침, 점심, 저녁을 자기 집에 와서 먹으라고 하였소.》

《가만있자, 물고기료리에 특별한 솜씨가 있다던 바로 그 집이 아닙니까? 나에게 그 집을 소개해주고 은어료리를 한턱 내겠다고 했지요.》

《그에 대해서는 쏘피아아가씨와 의논해봐야 하겠소.》

《쏘피아아가씨라구요? 잘났습니까?》

《한창 시집가고싶어할 나이요. 난 원래 그런 녀자는 겁이 나서 찬찬히 보지도 않았소. 하여튼 괜찮은편이요. 그런데 좀 수다스럽소, 자기 아버지와는 완전히 반대라니까. 그 사람은 항상 침묵을 지키고있소. 어류학에 대해서 그와 이야기할 때만은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 그가 흥미를 가지고있는 유일한것이 어류학이요. 물론 기술문제는 제외하고 말이요, 기술에서는 그가 왕이니까. 공장에서 어찌나 열중하는지 항상 분주하게 지낸다오. …》

《언제쯤 은어료리를 맛볼수 있을가요? 그리고 쏘피아아가씨와 인사도 하고… 녀자가 없으면 어쩐지 메말라서… 마리야—루이자는 례외입니다. 그분은 당신께 몹시 반한 모양이더군요. 우리같은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돌려주는데 당신이 그다지 움직이지 않는것이 이상하지요. 얼마나 미인입니까!》

슈쩬겔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그 녀잔 이딸리아녀자라오. 나는 자식들의 피줄에 순수한 아리아족의 피만이 흐르게 하고싶소.》

《성과 재산은 당신마음을 끌지 않습니까? 혈통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역시 오랜 귀족출신이 아닙니까!》

《난 원래 다른 지시를 받고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최근사태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변된걸 보니 동요하기 시작했소. 적어도 믿음직한 피난처와 믿음직한 재산이 손에 들어올것이니 말이요. 부동산과 토지는 항상 값이 있는것이요. 저쪽과의 관계는… 모든게 파탄된다면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내가 당신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것은 이 말이 밖에 나가지 않을것을 믿기때문이란걸 잊지 말아주시오.》

《그런 경고를 하시면 내가 오히려 노엽게 생각하겠습니다. 슈쩬겔, 그야 더 말할게 있습니까!》

완전히 안심하고서도 소좌는 헨리흐에 대해서 검열하는 립장을 버리지 않았기때문에 헨리흐는 오래동안 더 괴로움을 느끼였다. 남작은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있기때문에 너무 싸게 팔리지나 않는가 해서 겁을 내는것이였다.

다음일요일에 점심식사를 하러 가겠다고 슈쩬겔에게 약속한 후 헨리흐는 작별인사를 하고 나왔다. 찬바람이 진눈까비를 얼굴에 휘뿌리였다. 헨리흐는 꾸르트에게 참모부에서 기다리고있으라고 명령해두지 않은것이 유감이였다. 이제는 성까지 걸어갈수밖에 없었다. 혹시 밀레르에게 들려서 자동차를 부탁해볼가. 헨리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쓰에쓰참모부로 갔다.

그러니까 레로란 사람이 무엇보다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바로 그 인물인것이 분명했다. 공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고있으며 슈쩬겔은 그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있다. 레로의 독립가옥입구는 밀레르의 에쓰에쓰대원들이 경비하지 않고 특별히 신임하고있는 공장의 내부경비원들이 경비하고있었다. 레로와 교제를 해야 하고 그를 이야기판에 끌어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류학에 대한 책을 다 읽어야 한다. 백작의 도서실에는 아마 그런 책이 있을것이다. 그러니까 은어는 아직 옛말에 나오는 금붕어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밀레르는 뜻밖에 찾아온 헨리흐를 보고 당황했다.

《방해가 되는것 같군. 난 잠간 들렸을뿐이요. 내 자동차가 없어서…》

《아 아니, 난 당신을 그렇게 손쉽게 놓아보내진 않을걸… 위대한 외교관!》 밀레르는 안락의자를 헨리흐에게 밀어놓으며 말을 이었다. 《최근에 너무 드물게 만나게 됐소. 당신은 처음엔 마음이 변해서 꾸비쓰와 친하더니 이젠 그 마찌니하구…》 밀레르는 자기 말재간에 만족해서 껄껄 웃더니 갑자기 간사하게 눈을 가늘게 쪼프리며 말하는것이였다. 《내가 자네에게 줄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걸 나의 새해선물로 받아주게. …》

《그래, 새해가 지나 세주일이나 되여서야 그 선물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1944년은 윤년이기때문에 2월 29일까지 기념하기로 되여있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행이 닥쳐올수 있소.》

《그런 말은 듣다 처음인데…》

《하여튼 그런 말이 있네. 나의 동업자들이 그렇듯이 나도 다소 미신가란 말이야. 사실 우리는 칼날우로 걸어가야 하네. 하여튼 운명의 신에게는 정중히 대해서 그가 선물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네.》

《당신이 날 위해 준비했다는 선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운명의 신앞에 갖다바칠노릇이지.》

《좋은 일을 해서 운명의 신의 동정을 얻어보려는거지.》

《당신은 나를 이미 속여넘겼으니 좋은 일과 당신이 일치되기는 힘들걸세.》

《내가 이미 당신께 봉사한바가 있지 않은가? 잊었나?》

《아니, 잊지 않았네! 후에 함께 몰아서 사례를 하지!》

《당신성격은 훌륭하거던, 헨리흐! 당신은 진담을 하는지 롱을 하는지 전혀 알수가 없단 말야. 어떤 때는 아주 허심하고 무사태평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전혀 반대로 은밀하고 모든 사물과 사람들에게 랭랭하거던. …》

(잘못되였구나. 심지어 이런 낯가죽이 두꺼운 밀레르까지 심리적인 여담을 늘어놓게 되였으니…)

《나자신도 자기 기분이 자주 변하는것때문에 걱정이 되오. 아마 신경의 피로때문인것 같애… 당신은 그 인질교환문제가 순풍에 돛단듯 된줄로 생각하오? 그 쌍놈들이 내뒤에 대고 웃으며 휘파람을 불며 하는데 분한걸 분풀이할수도 없었으니 마음이 어쨌겠나! 나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조상들, 골드링가문의 모든 사람이 10대까지 전부 다 격분해서 무덤을 차고 일어나는것 같았네.》

《당신은 그 군사대표들과 다른 환경에서 만나보구싶은 마음이 없나? 그중 한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헨리흐는 상대방이 어디로 화제를 끌고가려는것인가를 알아내려고 하면서 조심조심 대답했다.

밀레르는 일어나서 신호종단추를 눌렀다.

《문쪽에 등을 돌리고 앉으시오. 내가 말할 때까지 돌아보지 마시오.》

헨리흐는 직일관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밀레르는 그의 귀에

대고 무엇인가 소곤거렸다. 직일관이 사라지자 몇분후에 누가 걸어오는 힘겨운 걸음소리와 가빠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거기 앉히라구, 됐소. … 이젠 나가시오. 자 남작, 옛친구와 인사를 해보지요!》
헨리흐는 홱 몸을 돌려보고 너무나 뜻밖이여서 아연하였다.
그앞에는 볼에 상처자리가 있는 그 빨찌산대표가 앉아있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앉아있는가! 얼굴은 시퍼런 멍으로 덮였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에 물들었다.
《남작, 나의 뜻밖의 선물이 당신께 특별한 인상을 준 모양이군! 인사하게, 가리발지부대 군사대표 안또니우 멘따로치일세.》하며 밀레르가 야유조로 소개하였다. 《외교관들이 다시 만났군! 외교관에게는 조건이 심상치 않다고 할수 있지. 그러나 어찌겠나, 시간이 변하면 환경도 변화되는 법이니까.》
빨찌산은 조소하듯 미소를 띠였다.
《그렇지, 시간이 변하면 환경도 변한다구. 그 말을 잘 기억해둘것을 권고하오.》
밀레르의 낯이 붉어졌다.
《끌어내가게!》 그는 직일관에게 소리쳤다.
안또니우 멘따로치는 끌려나갔다.
《솔직히 말해서 난 실망했네, 헨리흐! 나는 이 상봉이 당신을 크게 즐겁게 해주리라고 기대했었네! 그에게서 받은 모든 불쾌한 일과 멸시에 대해서 분풀이하고 보복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말일세!》
《아, 난 뒤를 캐는 일은 좋아하지 않네! 그건 전적으로 당신과 꾸비쓰에게 적임이지! 그러나 선물에 대해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네. 당신의 성과를 위하여 축배를 들기 위해 꼬냐크를 가져오지 않은게 유감이군. …》
《나에게도 있네. 그걸 위해서라면야…》
밀레르는 찬장에서 이미 마시던 술병을 꺼내서 두잔을 부었다.
《당신의 재능을 위하여! 그 멘따로치는 어떻게 잡아왔소? 모르겠소, 상상도 못하겠소!》
《나에겐 지금 수백의 귀와 눈이 있으니까.》
(그중엔 눈섭질은 사람도 있겠군!)하고 헨리흐는 생각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망원을 구했단 말이요? 난 아까 든 축배를 취소하고 천재인 당신을 위해서, 정탐사업의 천재를 위해서 마시겠소! 꾸비쓰도 불러서 셋이서 당신의 앞으로의 성공을 위하여 마십시다. …》

《그럴새가 없는데…》하고 밀레르가 상을 찌프리며 말했다. 《그 외교관의 심문을 내친김에 부리나케 끝내야 하오. 그리고 꾸비쓰가 모르는 약간의 사정도 있고 내가 해명해내야 할 문제도 있기때문에 그 일은 내가 직접 하자고 하오. 그때엔 당신이 그렇게 소홀히 친숙하게 지내는 마찌니를 든든히 틀어잡을수 있소.》

헨리흐는 놀라서 눈을 치떴다.

《누가 무어라 하든지 나는 마찌니를 전혀 흠잡을데 없는 사람으로 보고있소. 마찌니와 그… 누구더라? 멘따…멘따로치와 무슨 관계가 있을수 있단 말이요?》

《아직은 협의에 불과하지만 그 멘따로치가 나에게 증거를 줄거요. 나는 당신들이 카스텔리 라 폰테를 떠나기 전에 우리 편의 군사대표에 대해서 누가 빨찌산에게 미리 알려주었는지 어떻게 해서나 알아내고야말겠소.》

《불가능하오! 전혀 할수 없소! 나는 한걸음도 마찌니에게서 떨어진 일이 없었소. …》

《그가 글쪽지나 암호같은걸 남길수도 있지. … 오늘은 아직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말할수 없지만 래일이나 모레에는… 나는 가리발지부대에 박혀있는 나의 망원에게 특별임무를 주었소. 그는 내가 직감으로 감촉한것을 증명할 증거를 얻어내고말것이요.》

《당신의 그 망원은 똑똑한 사람같은 인상을 주지 않던데.》

밀레르는 너무나 뜻밖인듯 입에까지 가져갔던 술잔을 상에 내려놓았다.

《당신은 나의 망원을 아오? 어떻게?》

《밀레르! 당신은 나를 과소평가하고있소. 더우기 당신은 나의 지적능력에 대해서 아주 낮게 평가하고있단 말이요. 완전한 천치가 아니고서야 눈에 뜨이는걸 안 볼래야 안 볼수 없으니까. 당신도 생각해보오. 얼마나 단순한 일인가. 내가 방금 카스텔리 라 폰테에 도착해서 에쓰에쓰근무장교인 친구를 처음으로 방문하였을 때 나는 객실에서 우연히 눈

섭질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조장에게 그 사람을 아무도 보지 않도록 뒤문으로 나가게 하라고 명령을 주더군. 밀레르, 만일 나의 위치에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 결론을 지을수 있었겠소?》

《더 말할것도 없네. 당신이 있을 자리는 군대가 아니라 우리 게스타포야. 내 맹세하겠네. 당신을 이리 끌어오고야말겠네! 그를 위해서 마시지 않겠나?》

밀레르는 자기의 미래의 동료에 대해서 한참동안 찬사를 늘어놓았으며 끄냐크를 새로 부어 축배를 들군 하였다. 끄냐크의 예비는 한병이 아닌 모양이였다. 밀레르는 너무 취해서 집으로 태워다달라고 명령하기 전에 금고를 봉인하는것도 잊어버렸다. 차에 올라타자 그는 자기 친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인차 잠이 들었다. 혐오스러운 나머지 그를 밀어제끼면서 헨리흐는 참모부옆에서 차를 세우라고 운전사에게 명령하였다.

류쯔는 이미 자고있었다. 한참 두드려서야 문을 열었다.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더니 류쯔는 다시 침대우에 쓰러졌다. 그러나 밀레르가 마찌니를 의심하고있다는 말을 듣자 당장에 벌떡 일어났다.

《개같은 놈!》하며 그는 욕을 했다. 《나는 그 살인자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아직도 이 땅우에서 걸어다니게 한걸 생각하면 나자신도 당신도 결코 용서할수 없네. 자네 잠시라도 상상해보게. 밀레르나 또는 자네 친구인 꾸비쓰의 심문을 받고있는 마찌니를 말일세!》

《자넨 늘쌍 내가 꾸비쓰나 밀레르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욕하지만 말라구. 소용되는 때도 있거던!》하고 헨리흐는 조용히 말했다.

류쯔는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머리밑에 팔을 고이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헨리흐는 전화로 차를 가지고 오라고 꾸르트에게 명령하였다.

《여기서 자고 가게나!》하고 류쯔가 권했다.

《안돼, 나는 래일 점심식사초대를 받아 푼크에게 가야 하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해.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하는수없이 초대에 응했네. 혹시 자네 함께 가지 않겠나?》

《푼크에게? 그것도 좋지!》 류쯔는 전혀 다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명확치 않게 대답하였다. 《래일은 일요일이니까 갈수 있어. …》 여기까지 말한 그의 얼굴은 갑자기 활기를 띠였다. 《푼크한테라구

했지? 우리 밀레르도 청하세! 꾸르트는 데려가지 말구, 차는 내가 몰겠으니까!》

《그러세, 밀레르를 청하구 꾸르트는 남겨두지.》 헨리흐는 친구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침에 일찌기 전화종이 울려 헨리흐는 깨여났다.

《그만 자라구. 날씨가 훌륭하네. 어제 내린 눈은 흔적도 없어졌네. 지금 우리가 가겠으니 후에 당신이랑 함께 떠나세. … 어디 가는지 알지?》 밀레르의 즐거운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란건 누구요?》

《나하구 이전 〈신랑〉인데 지금은 〈괴물〉이라고 부르지.》

헨리흐에게서 12시에 미리 요기를 하고 셋이서 빠르모로 떠났다.

《오늘 련락병에게 휴식주었으니 내가 운전사노릇까지 해야겠군.》 그들이 차에 앉았을 때 헨리흐는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다.

《당신이 맥이 나면 내가 교대하지.》하며 밀레르가 호응하였다. 그리고 헨리흐에게 눈을 끔쩍해보이며 의미심장하게 첨가해 말했다. 《내가 차를 잘 모는건 당신도 알고있지. 내 손에 들면 자동차도 내 뜻대로 움직인다니까!》

헨리흐는 그 암시를 모르겠다는듯 표정을 지었다.

《뭐니뭐니해두 에쓰에쓰근무장교인 나에게 양보해야겠네.》

차가 시내를 벗어나 콩크리트신작로를 따라 빠르모로 내달릴 때 밀레르가 자랑삼아 말했다. 《지금은 가리발지대원들의 습격을 겁내지 않고 완전히 안심하고 도로로 달릴수 있소.》

《어저께 오토바이운전수가 죽었지?》하고 류쯔가 상기시켰다.

《그저께는 지뢰에 걸려 자동차가 녹아나지 않았나?》 헨리흐가 덧붙여 말했다.

《당신들은 그 사고들이 다 밤에 일어났다는걸 잊었군그래. 낮에는 빨찌산들이 감히 도로에 나타나려고 하지 않네. 이 자료를 얻어내는것이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닐세.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일세. 나는 지금 이러저러한 부대들이 매일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고있는지 알고있네. 한번 시간이 있을 때 비망록에 있는 흥미있는걸 이야기할 작정일세!》

《당신은 비망록을 쓸 작정이요?》 류쯔가 놀랐다.

《꼭 쓰겠네! 물론 모든것을 다 쓸수는 없으니까 어떤것은 독자들의 취미를 고려해서 은페된 형식으로 쓰겠네.… 독자들이란 책속에서 피가 흐르는걸 좋아하네, 그것은 신경을 자극하니까. 그리고 동시에 례절과 덕행이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써줄것을 요구한단 말일세. 내가 만일 정탐일군들을 위해서만 쓴다면 물론 총통의 말을 잊지 않고 병사들에게 주정토로를 할거요.》

《무슨 말인가?》 류쯔가 량미간을 찌프렸다.

《아, 난 보지 않고 인용할수 있네! 〈병사들! 나는 순박한 사람들이 량심이라고 부르는 망상에서 당신들을 해방하겠습니다.…〉 괜찮은 표현이지?》

《훌륭하게 말했소.》하고 헨리흐가 미소지었다.

전화로 예고를 받은 푼크는 손님들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이미 몇번인가 점심식사에 헨리흐를 초대하였으나 헨리흐는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 가지 않았다. 푼크대좌는 그가 그다지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였다. 인질교환때 군사대표단을 맞이하는것과 관련하여 가리발지부대에서 련대참모부로 전화를 걸어온것을 밀레르가 알고있다는것을 눈치채게 되지 않았던들 오늘도 가지 않았을것이다. 바로 누가 그 점에 대해서 에쓰에쓰근무장교에게 통보하였는지 밝혀내는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처음에는 점심식사가 다소 공식적인 성격을 띠고있었다. 첫잔은 자기 해방자를 위하여 들자고 선포하고나서 푼크는 밀레르와 류쯔에게 성과가 있을것을 점잖게 말했다. 참가한 사람들이 다 군사칭호상 그보다 아래였기때문에 대좌는 친절히 대하느라고 하지만 역시 여러가지로 얕잡는것이 드러났다. 료리가 교체되고 술도 몇병 마시고나니 담화는 점점 활기를 띠고 자연스럽게 되였다. 술잔이 거듭 왔다갔다하더니 대좌와 밀레르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으며 류쯔는 반대로 창백해졌다. 그는 오늘 전혀 취하지 않는것이였다. 다만 그의 눈초리가 더 긴장해지고 독살스러워지는것이였다.

《제군!》 그는 술을 잔에 붓고 일어섰다. 《나는 역시 푼크대좌를 해방하는데 참가한 나의 친구이며 훌륭한 의사인 마찌니를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밀레르는 비록 취하기는 했지만 보란듯이 술을 마시지 않고 잔을 내

려놓았다.

《밀레르씨, 당신은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 참가하지 못한 나의 두번째 해방자를 위하여 술을 들지 않겠습니까?》 푼크가 이상해서 물었다.

《대좌님도 그 리유를 짐작하실줄로 아는데요.》

《참 그렇지! 그럼 나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푼크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혼자 마시겠습니다!》 류쯔는 단숨에 꼬냐크를 마시고나서 말했다. 《그가 누구이든 정직한 사람을 나는 사랑합니다!》

류쯔의 축배는 흥성거리던 술좌석을 식게 하였다. 그러나 푼크는 모두의 주의를 끄는 화제를 꺼냈다. 그는 동부전선에서의 성과를 위하여 마실것을 제의하였다. 이야기는 또다시 공통된 성격을 띠였으며 술잔을 자주 내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헨리흐는 마시지 않고 입에 댔다 뗄뿐이였다.

《이런, 벌써 어두워지는군!》 밀레르는 창문을 내다보며 놀란듯 소리쳤다.

《여기서 자고들 가시오, 이미 늦었는데!》 푼크가 명령하다싶이 말했다.

《난 자고가면 안됩니다. 래일 새벽에 폰 골드링과 나는 소장께 출두해야 합니다.》 류쯔가 결정적으로 반대하였다.

《밀레르, 당신은 대좌님한테서 주무시구려. 래일 자동차로 모셔다드리겠는데…》하고 헨리흐가 권했다.

류쯔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무엇때문에 여기 남지 않겠소?》

《아니야! 함께 왔으니까 집에도 함께 가야지. 아직은 안전하오!》

떨어지라고 밀레르에게 아무리 설복해도 그는 듣지 않았다.

여섯시쯤에 빠르모를 떠났다. 밀레르는 운전대에 앉으려 하였다. 헨리흐는 그를 옆자리로 밀어놓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다.

자동차가 꼬불꼬불한 좁은 길에 들어서자마자 자그마한 산간마을 안다뜨레부근 산중에서 총소리가 울리더니 자동총의 긴 련발사격이 뒤따랐다. 산중의 메아리가 그 소리를 더 크게 하였다. 진짜 포사격이 시작된듯 하였다. 헨리흐는 차를 세웠다.

《어째 세웠소? 당장 돌아갑시다!》 밀레르는 새된 소리를 지르며 운전대를 잡으려 하였다.

류쯔는 악의에 차서 경멸적으로 말했다.

《덤비지 마오, 밀레르씨. 바로 뒤에서 우리를 쏠수도 있소.》

《그럼 앞으로 가야지!》 밀레르는 부르짖었다.

그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헨리흐와 류쯔는 자동차에서 뛰쳐나갔다. 사격소리는 가까와졌는데 신작로를 사격하는것 같지는 않았다. 밀레르는 자동총을 들고 역시 자동차에서 뛰여내려 순식간에 긴장하게 산쪽을 노려보면서 도랑으로 뛰여들었다.

《밀레르씨, 그래 기분이 좋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류쯔는 조소하는 어투로 이렇게 물으며 역시 도랑으로 뛰여들어갔다. 헨리흐는 그가 몸을 굽혀 밀레르의 손에서 자동총을 강제로 빼앗는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짓이요?》 밀레르는 놀라서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조용하라구.》 류쯔는 이미 위협하는 목소리로 명령하였다. 《병사의 무기는 비겁한 살인자의 손에 가는걸 좋아하지 않는거야. 그거야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에게 알맞는거지.》

《류쯔, 롱을 하는거요?》 밀레르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어리여있었다. 그러나 에쓰에쓰근무장교의 건방진 말투로 말하는것이였다. 《당신은 나에게 이따위 롱을 할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요!》

《롱이라구? 당신은 그걸 롱으로 생각하오?》

《헨리흐! 이 사람이 미쳤소! 그에게서 무기를 빼앗소!》 밀레르는 뒤걸음질치면서 비틀거렸다. 류쯔는 그에게로 걸어갔다.

《미쳤다구? 네가 임신한 부인의 배에다 총을 쏘는것을 보았을 때 리성을 잃을수도 있었다. 네가 모니까를 어떻게 처단하였는가를 알았을 때 미칠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마찌니에게까지 손을 뻗치는가?》

《골드링, 어째 그냥 서있나? 날 상하게 할수 있네! 난 신소하겠네! 베르트골드에게 써보내겠네!》

헨리흐는 급히 밀레르에게 다가가서 류쯔를 밀치였다.

《자동총을 빼앗으란 말이요, 자동…》

마지막말이 밀레르의 목에 걸려버렸다. 그의 눈은 준엄하고 면도칼처

럼 날카로운 골드링의 시선과 부딪치자 휘둥그래졌다.

《이젠 내 말을 들으라, 밀레르! 나는 량심이라는 망상을 믿고있는 순박한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다행히도 너같은것보다는 우리같은 사람이 훨씬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량심을 가지고 너를 재판하겠다! 수백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데 대해서, 모니까를 죽인데 대해서, 네가 래일 고통을 줄수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헨리흐를 지켜보던 밀레르는 와락 권총집을 열고 권총손잡이를 경련적으로 잡았다. 그러나 권총을 꺼낼 사이가 없었다. 권총이 발사되는 소리가 울리더니 에쓰에쓰장교는 쓰러졌다. 자동총탄이 그앞을 누비며 지나갔다.

《그는 내 총알도 받아야 한다.》 류쯔는 한마디하고 자동총을 틀어잡고 자동차를 향해 긴 련발사격을 들이댔다.

헨리흐는 신호총손잡이를 잡았다.

《잠간있게!》 류쯔가 그를 제지시켰다. 류쯔는 물통의 물로 손수건을 적시여 자기 권총 총구에 대고 헨리흐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자기 왼팔 팔꿈치우에 대고 쏘았다.

《무슨짓이요, 미쳤소?》 헨리흐가 웨쳤다.

《별일 없네! 상처는 한주일이면 아물테니까, 그동안 휴식할수도 있구 우리가 전투에 참가했다는것을 증명하면 부상자메달까지 하나 탈수 있지. 이젠—신호총을!》

류쯔와 함께 웅뎅이에 뛰여든 헨리흐는 몇발의 붉은 신호탄을 공중에 대고 련이어 쏘았다.

잠시후 두대의 운수차가 자동총수들을 가득 싣고 빠르모에서 도착하였다. 푼크자신이 선두에서 달려왔다.

《하느님 맙시사! 이런 무서운 불행이라구야! 즉시 병원으로! 혹시 구출될수 있겠는지.》 푼크는 웅뎅이앞뒤로 달려다니며 소리쳤다.

잠시후 두대의 운수차가(그중 한대는 승용차를 곧바로 끌고갔다.) 이미 카스텔리 라 폰테로 달리고있었다.

《희망이 없을것 같습니다.》 특별히 동정하는 빛도 없이 자기 장교의 시체를 보고 서있는 꾸비쓰에게 마찌니가 말했다. 《해부를 할가요?》

《내 생각엔 하나마나 뻔합니다! 류쯔, 당신은 어떻소?》

《대단치 않소! 약간 손을 다쳤을뿐이요. …》 하며 대위는 비틀거렸다.
《어째 아무 말도 안했소!》 마찌니는 비난하며 류쯔의 어깨를 잡았다. 류쯔는 당황한듯 미소하며 바로 섰다.
《정말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약간 다쳤을뿐이요.》
류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찌니는 그를 수술실로 데리고들어가 주의깊게 진찰을 하고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사실 별로 큰일은 없겠소. 그러나 안정이 필요하오. 우리 병원에 좀 입원해야겠소.》
《제발 그러지 마오! 그랬다간 정말 앓아눕겠소. … 차라리 집에 누워있겠소. 이따금 왕진해줄수 있겠지요?》
《당신에겐 간호가 필요하오. 나한테 오도록 합시다. 반대없겠지요, 마찌니?》 헨리흐가 결정해버렸다.
《동의할수밖에 없군. 그럼 지금 그리로 가도록 하지, 류쯔에겐 안정이 필요하니까.》
《군단참모부에 습격에 대한 보고를 하고 나도 그리 가겠소.》 꾸비쓰가 문턱에서 소리쳤다.
세 친구는 서로 보았다. 그들은 말이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리해하였다.
《일없네! 몇십마르크만 집어주면 바람이 지나간듯 할테니까. …》
마리야—루이자와 만나는것을 피하려고 비상구로 갔으나 헨리흐는 열쇠를 가지고 떠나지 않았기때문에 하는수없이 오래 문을 두드려서 소란을 피우게 되였다.
마침내 약간 당황한 꾸르트가 문을 열었다. 복도안쪽에 녀자옷이 피뜩 보였다. 사정을 짐작한 헨리흐는 허심하게 말했다.
《우리가 너무 문을 두드려서 백작댁 조카따님까지 깨운 모양이군!》
《아닙니다. 그건 리지야입니다. … 녀종 말이예요.》 꾸르트가 이렇게 말하며 얼굴을 붉혔다.
류쯔가 누워있는 침대에 상을 붙여놓고 침실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붕대를 감은 후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래서 헨리흐와 마찌니가 저녁식사를 한 후 류쯔가 잘 자도록 하기 위하여 옆방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을 그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것이였다.
《그건 그저 범죄행위요! 지금 내 마음은 마치 큰 죄를 속죄한것 갈

은 기분이요. … 이런 때엔 친구가 그리운 법이요. 침묵하거나 이야길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아무래도 좋으나 내곁을 떠나가지 말아주오. 나는 당신들을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즐겁소!》

전에 헨리흐를 몹시 흥분시켰던 그림이 붙어있던 자리에 지금은 기발이며 전선표식으로 장식된 큼직한 유럽지도가 걸려있었다. 헨리흐와 마찌니는 지도앞으로 가까이 가서 쓰딸린그라드로부터 싸른까지의 거리를 재보기 시작하였다. 최고사령부에서는 얼마전에 그 도시를 내놓았다는것을 보도한것이였다.

《거기서 무얼 재고들 있소?》 류쯔가 궁금해서 물었다.

《잠간 있소!》 헨리흐는 책상으로 가서 무엇인가 계산하였다. 《싸른으로부터 볼가강까지 가는데 우리 군대는 1년반이 걸렸소. … 그런데 쓰딸린그라드로부터 싸른까지 후퇴하는데는 일년도 걸리지 않았소. …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초기에 전선을 확대할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러나는것으로 되오.》

《헨리흐, 자넨 우리가 더 빨리 도망치고있다는 말을 하자는건가. …》

《그런 술어를 쓰면 되나! 도망치는것이 아니라 물러나는것이지. 앞으로의 공격을 위하여 전선을 단축한단 말이요.》 헨리흐는 비양조로 말했다.

《그래 자넨 어느때 가서는 그 공격이 있을것이라고 믿고있나?》

《류쯔! 단순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것도 탈이요. 자꾸 깊이 생각하면 너무 위험하단 말이요.》

《나는 타조처럼 모래불에 머리를 처박고싶지 않소. 난 신공격의 가능성도, 신형무기의 기적적인 힘도 믿지 않소. 우리 전쟁은 패했소! 이것은 조만간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요.》

《죽은 밀레르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무엇이라 하겠소?》 마찌니가 벙긋이 웃으며 말했다.

《참, 내 어째 그 말을 하는걸 잊었던가? 여보 마찌니, 내가 그저께 밀레르의 사무실에서 누굴 만났는지 아나? 전에 가리발지부대 군사대표로 나왔던 상처자리가 있는 그 사람을 만났네. 심문을 받고있는…》

《안또니우 멘따로치?》

《그 사람의 이름까지 알고있나?》

《그는 내가 전에 일하던 병원에 있었으니까… 아주 령리하고 진실한 사람일세. 나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기 위하여 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네. 법없이도 살 사람인데…》

《말 안하길 잘했소. 말을 했더라면 의심을 더 받았을뿐이였으니까. …》

《의심이라니? 무슨 구체적인것이 있는가?》

헨리흐는 밀레르와 한 담화의 중심내용을 이야기해주었다.

《내 그럴줄 알았네. 의심이 나에게 떨어질줄 알았어!》마찌니는 벌떡 일어나 방안을 분주히 왔다갔다하였다. 그의 흥분된 얼굴에는 불안, 동요, 그다음 단호한 결심이 나타났다.

《친구들!》하고 그는 류쯔의 침대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숨기고싶지 않소. 만일 내가 할수만 있다면 빨찌산에게 예고했을것이요! 그러나 전번경우에는 그것을 알린것이 내가 아니였소! 당신들앞에서 무엇때문에 변명을 하겠소. 나는 당신들이 내 말을 믿어주리라고 생각할따름이요. … 그러나 지금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것은 나라는 인간보다도 그 멘따로치요. … 당신들은 어떻게…》

그때 누군지 문을 두드렸다. 마찌니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문을 열고 마리야－루이자의 녀종이 나타났다.

《상급중위님, 백작아가씨께서 아무리 늦게 일이 끝나시더라도 꼭 들려줍시사고 하셨습니다.》

《내 꼭 가겠다고 하더라고 전해주오, 리지야!》 헨리흐는 리지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대답했다.

혹시 헨리흐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서인지, 혹은 어떤 다른 원인이 있어 그러는지 녀종은 몹시 당황해하였다.

《알았어요.》 녀종은 조용히 대답하고 나갔다.

《그래서 내가 알고싶은건…》하고 마찌니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으나 이번에도 중둥무이되고말았다.

이번에는 문기척소리도 없이 문이 활짝 열리더니 꾸비쓰가 문턱에 나타났다.

꾸비쓰는 복음서에 나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였다.

《앉으시오, 꾸비쓰. 우린 저녁식사를 다 했소. 그러나 당신을 생각

해서 술은 좀 남겨놓았소.》 헨리흐가 말했다.
《이것 말인가?》
《다른건 없었네. 있을수도 없지. 꾸비쓰, 우리가 부상자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말게.》
꾸비쓰는 기도를 올리듯 팔짱을 끼고 또다시 성경책의 말을 외웠다.
《꾸비쓰가 오늘은 기도드릴 기분인 모양이군!》하며 류쯔가 미소지었다.
《나는 오늘 생각했네, 다시한번 옷을 바꾸어입어야 하지 않을가 하고. 한번은 법의를 군복으로 바꾸어입었으니 이제는 그 반대로 할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은 다 미래에 속하는 일인데 나는 현재의 인간이란 말일세. 그러나 그 현재가 아무것도 좋은것을 예고해주지 않는단 말일세!》
《또 무슨 불쾌한 일이라도 있었나?》 헨리흐가 물었다.
《가장 큰일이 있었지—나에게는 전망이 없어졌네! 상관에게 하느님의 노예, 요한의 죽음을 알렸더니 새 책임자가 갈 때까지 그의 직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이 내게 내렸네. 그래서 나의 직무조동은 기분좋게 바스락소리를 내던 돈지갑을 늘구어보자던 희망을 무기한 연장하고 말았단 말일세. 그래서 나는 또다시 선량하고 관대한 폰 골드링남작의 부양을 받게 되였네. 그런데 겨우 시큼한 술을 내게 권한단 말인가? 당신들은 아직 의학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생물의 허무함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 않은 모양이군. 마침 마찌니씨도 여기 계신데…》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의학에 대해서 담화하였네. 마찌니는 우리에게 한가지 극히 흥미있는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네. 외과의로서 그는 몹시 기뻐하며 그 실험을 반복할것을 꿈꾸고있었네.》
마찌니는 놀라서 헨리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차 붉어졌으며 눈섭은 무섭게 량미간으로 모였다.
《제발 그런 이야긴 그만두어주게! 그런 불쾌한 이야긴 내게 하지 말아주게! 저녁전인데 입맛을 싹 잃겠네!》
《난 당신이 과학에 관심을 가졌는가 했지! 당신자신이 말한 일이 있지 않나. 마찌니가…》
《폰 골드링남작, 그건 너무나 뜻밖에 듣는 말이요.… 난 무엇이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소. …》 마찌니는 숨을 헐떡거렸다.
류쯔는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였는지 짐작이 가는 모양으로 의사에게 경고하는 눈길을 던졌다. 의사는 당장에 누긋해졌다.
《나는 당신이 꾸비쓰에게 감히 부탁하기 어려워하는걸 알기때문에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부탁하지. 마찌니에게는 실험을 해볼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요. 그 실험은 위험하기때문에…》
《알만 하오, 알만 해… 드리지요! 우리에겐 그런데 쓸 토끼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나는 처음 만나는자를 기꺼이 넘겨주겠소. 그리고 처리해준데 대해서 오히려 감사히 생각하겠소. 우리 에쓰에쓰사령관은 너무 술을 망탕 마셔서 자기 직무를 수행할수 없단 말이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져가시오!》
《보라구, 마찌니. 다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가?》하고 헨리흐는 의사를 돌아보았다. 《그 수술료를 받아야겠소! 내가 그때 참석하는걸 허락해주겠지. …》
《용서하오 헨리흐, 내가 말을 중도에 가로챈것을. 나는 밤이면 더우기 일요일밤이면 이렇게 싱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습관되지 않았네! 나의 죽은 상관의 령혼도 이렇게 물기가 없는 추도식을 항의할거요. 그래서 남작, 내게 필요한건…》
《얼마요?》 헨리흐는 간단명료하게 말했다.
《밀레르의 명복을 위해서 적어도 50마르크는 있어야 할것 같네. …》
필요한 금액을 받아가지고 꾸비쓰는 나갔다. 헨리흐는 출입문까지 그를 배웅했다. 그런 일은 한번도 없었던 일이라 손님들이 더욱 이상히 여겼다.
《모든걸 다 약속했네. …》 침실로 들어와서 그는 보고하였다.
《난 아직도 잘 모르겠소. …》 흥분된 마찌니가 말을 떼였다.
《그렇게 단순한걸 모르겠소! 만일 정신이 맑은 세사람이 네번째 사람에게 위험이 닥쳐왔다는것을 알았다면…》
《당신은 안또니우 멘따로치를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요?》
《이제야 당신도 알아차렸군! 그런걸 나는 당신의 그 무서운 눈총에 맞아 불타버리는가 했소. 혹은…》하고 헨리흐는 의문어린 눈길로 마찌니를 바라보았다.
《난 당신이 나에 대해서 잘못 보지나 않는가 생각했소!》

의사는 노여워하는척 하였다.

《그 일을 기술적으로 조직하자면 어떻게 할가?》 하고 류쯔가 물었다.

《옹근 하루밤이 앞에 있으니 잘 토의해봅시다. 난 지금 마리야—루이자한테 잠간 갔다와야겠소.》

마리야—루이자는 골드링을 아까부터 기다리고있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꾸지람부터 하였다.

《정말 례절이 없어요, 남작.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다니. 밀레르가 죽고 류쯔가 부상당했다는데 정말인가요?》

헨리흐는 빨찌산의 습격을 받은 이야기를 간단히 하였다.

《아, 당신이 우리 아저씨와 슈쩬겔남작을 위해서 하신 일을 특별히 높이 평가해요. 그 짐승같은것들이 얼마든지 죽일수 있었을거예요!》

《전 언제나 당신께 봉사할 각오가 되여있습니다. 이미 당신의 기사가 될것을 약속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의무를 잘 수행한다고 할수 없어요! 난 일주일에 한번밖에 볼수 없고 그것도 와줍시사고 초청이나 해야 겨우 만나볼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였습니다. …》

《내가 보기엔… 한 지붕밑에서 젊은 녀자와 살면서 그렇게 전혀 무심하게 대한단 말이예요! 사람들이 있는데서라도 나를 돌봐주는척이라도 해야지요. … 그 벌로 래일 아침이나 점심식사후에 산보할 때 나를 데리고 가주어요. 난 말을 타본지도 퍽 오랬어요.》

《내겐 말이 없습니다.》

《우리 마구간에서 골라타세요. 하여튼 나는 당신을 진짜기사로 만들어놓자고 결심했어요. 어느때 가서는 당신의 마음의 부인이 그에 대해서 나에게 감사하게 여길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슈쩬겔남작에게 의견이 없을가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걸 깨달을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앞에서 연극을 놀아야 하겠군요.》

《연극은 배우에게 달렸지요.》 하고 말하며 마리야—루이자는 헨리흐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돌렸다. 《그가 자기 상대자를 얼마나 움직여놓을수 있는가에 달려있지요. …》

《그런 놀음은 우리 두사람에게 너무 위험한 일 같군요.》

《그게 겁이 나요?》

《나는 닥쳐올 위험을 알수 있습니다. … 나에게도… 그리고 나의 약혼녀에게도.》

헨리흐는 마리야—루이자에게 가서 오래있다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을 때 류쯔와 마찌니는 깊이 잠들고있었다.

《내 잠자리는 사무실에 준비하오.》 헨리흐는 꾸르트에게 명령하였다. 꾸르트는 잠자리를 준비해놓고도 문앞에서 다리를 이리저리 바꾸면서 그냥 서있었다.

《상급중위님, 한가지 여쭈어볼 말이 있습니다. …》하고 그는 수집어하며 말을 꺼내놓고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인지 알만 하오. … 리지야에 관계된 문제지? 맞았소?》

꾸르트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였다.

《제가 물어보고싶은건 도이췰란드병사가 이딸리아처녀한테 장가를 들수 있겠는가 하는겝니다. …》

《두사람이 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각오가 되여있다면 할수 있겠지. 그런데 자네의 약혼녀는 어찌겠소, 꾸르트?》

《마르따 말씀이지요. 그 앤 어쩐지… 그렇다고 그를 무슨 나쁜 녀자라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그도 좋은 처녀입니다, … 정직하고. 그러나… 저는 자기자신에 대해 보다도 더 큰것에 대해서 명상하는 전혀 다른 처녀를 발견했습니다. … 나와 마르따는 행복하지 못할것입니다! 리지야는 전혀 다른 형의 녀자입니다. 그는…》 꾸르트는 너무 점직해서 입을 다물고말았다. 《용서하십시오, 중위님. 주무실 시간이 되였습니다. 전 가보겠습니다.》

꾸르트가 문을 열었을 때 헨리흐가 그를 붙잡았다.

《꾸르트, 물어본다는게 그만 잊었댔소. 우리가 빨찌산과 담판하러 빠르모로 떠날 때 내가 주던 그 글쪽지를 마리야—루이자에게 전하기는 전했소?》

《그때 마리야—루이자는 주무시고계셨기에 녀종에게 전했어요. 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 이제 생각나오. … 정말 그런 말을 했었지… 그럼 편안히 자오. 꾸르트, 꿈에 리지야나 만나보오. 아주 훌륭한 처녀같은데.》

홀로 남은 헨리흐는 이곳 성안에서와 카스텔리 라 폰테에 조성된 새

로운 환경에 대해서 두루 생각하느라고 오래동안 잠들지 못했다.

꾸비쓰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

밀레르가 사망한것을 알리는 헨리흐의 편지는 베르트골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카스텔리 라 폰테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일군이 있다는 것은 소장에게 극히 중요한 일이였다. 첫째로 순전히 직무상견지에서 그러하였고 둘째로 밀레르는 그의 개인적인 리해관계의 옹호자이기도 하였다. 자그마한 이딸리아의 도시에서 뜻밖에 에쓰에쓰근무장교가 죽었다는것이 별로 이상한것도 없는 일이지만 그의 모든 계획을 파탄시킬수 있었으며 그의 주패장을 다 헝클어놓을수 있었다.

베르트골드는 큼직한 놀음을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밀레르가 놀아야 할 역할이 결코 적은것이 아니였다. 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베르트골드는 결코 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는 않았다. 운명이 밀레르를 에베르쓰소장과 련결시켰으며 최근에 와서 에베르쓰소장은 특히 강하게 베르트골드의 관심을 끌게 된것이였다.

그것은 베르트골드가 소장과의 옛 우정관계를 회상해서 그런것은 아니였다. 반대로 그는 우정관계를 백방으로 눈에 띄우지 않게 하려고 했으며 헨리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옛 친구에게 인사를 전하는것조차 그만두게 되였다. 그대신 밀레르에게 보내는 절반 직무상의 성격을 띤 편지들에서 자주 소장의 이름이 오르게 되였는데 그 문맥을 통해본다면 소장도 군제르도 제누스도 그걸 알기만 하면 매우 흥분을 금치 못할 그런 내용이였다. 히뜰러의 참모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이췰란드 군대 고급지휘관들사이에서 발생한 불온한 경향에 불안을 느끼고있었다. 동부전선에서 련속적으로 일어나는 전략적실패는 히틀러지휘부에 대한 신임을 몹시 뒤흔들어놓았다. 전에는 총통이 어떤 지시를 주든지 그것을 무슨 천재적인것으로 받아들이였다면 지금은 군사위원회들에서 자주 비판적인 목소리가 들리게 되였다. 질문들이나 의견의 형식을 띠고 빈번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인의 견해들이 표명되군 하였다. 장군들은 총통자신의 지휘에 대해서도 시정을 가하려 하게 되였다.

군사위원회들에서까지 그러한 형편이니 오랜 장령들이 자기들만 있을

때에는 무슨 이야기들을 하겠는지 가히 상상할수 있는것이였다.

그러니 말하는데 그치지 않을수도 있었다. 게스타포는 군사련합부대들의 지휘관들사이에 이미 반대파가 생겼다는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장악하고있었다.

지금까지 친척관계라든지 우정관계로 련결되지 않았던 오랜 몇몇 장령들사이에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지고있는것이 의심스럽게 보였다. 그들이 서로 활발하게 주고받는 편지거래, 통신원들의 교환은 비록 반역이나 음모에 대한 직접적증거로 게스타포에 장악된것은 없었지만 불안을 느끼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편지들에서는 불만의 기운이 엿보이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극히 조심스럽게 표현되고있으며 보통 기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멀고 가까운 친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되군 하였다. 그런 편지들을 대조해볼 때 비로소(게스타포는 그런 편지들을 다 수집하였다.) 사건들과 이름들이 알릴가말가한 류사성을 찾아볼수 있는것이였다.

오랜 정보일군의 직감은 이것이 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베르트골드에게 은근히 말해주는것이였다. 그러나 다소라도 근거있는 증거는 그에게 없었다. 그가 걸어잡을수 있는 실머리, 가느다란 실머리 하나가 필요하였다!

그에게는 에베르쓰가 바로 그러한 실머리였다.

그 의심스러운 편지들에서는 그의 이름이 너무나 빈번히 나타나는것이였다! 소장을 주의깊게 감시하고 그의 움직임에 대해서 빠짐없이 통보하라는 임무를 밀레르에게 주었다. 베르트골드는 론리적결론 그리고 가능하면 명백한 론증의 방법으로 총통을 반대하는 음모가 있다는것을 확증할것을 기대하였다. …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계획이 위협을 받게 된것이였다. 카스텔리 라 폰테에 믿을 사람이 없어진것이다.

베르트골드는 이 음모의 적발과 관련해서만 밀레르에게 큰 희망을 걸고있은것은 아니였다. 또한 순전히 개인적인 원인도 있었다.

작년에 프랑스려행에서 돌아와 그가 없는 사이에 수집된 편지거래들을 분석해보기 시작하자 베르트골드는 그를 매우 불안케 하는 문건과 맞다들리게 되였다. 군제르대장의 뒤를 따르고있던 망원에게서 보내온 사진꾸레미에서 헨리흐의 사진 두장을 보았는데 그것은 헨리흐가 군제르

대장을 방문하였을 때 만들어진것이였다. 물론 헨리흐와 군제르사이에 아무러한 개인적관계도 있을수는 없었다. 그는 에베르쓰소장의 심부름을 갔을뿐이였고 어떠한 불행에 빠질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의 로르헨의 남편에게 위험을 줄수 있는것이였다. 그는 잘 모르고 일생을 망칠수 있는데로 더 빠져들어갈수 있는것이였다.

여기서도 바로 그 밀레르가 소용되는것이였다. 에쓰에쓰근무장교가 아무도 모르게 조직했던 따르왈리 모니까의 살해사건이 있은 후 베르트골드는 헨리흐가 우연히 어떤 불온한 사람들속에 빠져들어가 자기 명예를 오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를 주의깊게 감시해줄것을 부탁한 편지를 밀레르에게 보냈다. 그래서 밀레르는 아마도 베르트골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임무를 열성적으로 수행하였다.

전선의 형편이 악화되면 될수록 베르트골드는 더욱더 골드링을 그에게 보내준것이 하느님의 뜻에 의한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였다.

곡물공장과 농장 그리고 이러저러한 재산을 정리한 후에 생긴 자본을 계산해볼 때에는 어김없이 거기에 헨리흐의 2백만마르크를 첨가해보는것이였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베르트골드에게 스위스의 호수가에서 온 가족과 함께 평온한 여생을 보낼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주기때문이였다.

평온한 로년기에 대한 공상은 점점 더 매혹적인것으로 되였다. 《악마도 늙으면 중이 된다》는 속담이 있다. 베르트골드에게도 그와 비슷한것이 진행되였다. 혹시 그것은 엘자부인의 편지의 영향인지도 모른다. 부인은 지금까지 로르헨과 함께 스위스에서 살았는데 약혼식이 있은 후 로르헨의 성격이 어찌나 변했는지 자기 딸이지만 귀엽게 생각할수가 없었다. 로르헨은 부부생활에 대한 생각에 완전히 빠져있었다. 엘자부인은 로르헨이 그도 모르게 앞으로 생길 젖먹이아이옷까지 준비하고있다는것을 흥분된 필치로 써보낸것이였다. 그래서 펜끝을 한번 휘두르는것으로 오스벤찜에 있는 화장터로 어린애들까지 포함해서 수십만 사람들을 보내던 그 베르트골드는 손자나 또는 손녀를 안아줄 자신을 상상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되는것이였다.

밀레르의 죽음은 이 계획들의 실현을 촉진시킬수 있는 사람을 잃었다는 바로 그 점에서 베르트골드를 불안케 한것이였다.

이제는 베르트골드가 카스텔리 라 폰테의 에쓰에쓰근무장교에게 밀레르에게 보내던것과 같은 절반부탁 절반명령식 지시를 줄수 없었다. 그때는 어느것이 장관의 명령이고 어느것이 가정적인 부탁인지 한계가 없었다.

누구를 죽은 에쓰에쓰근무장교대신에 둘것인가? 그 직무에 임명하는것은 이딸리아에 있는 북부집단군참모부 에쓰에쓰근무장교에게 달려있었다. 그러나 베르트골드는 앞으로 련계를 맺을수 있는 사람을 카스텔리 라 폰테에 임명하고싶었다.

헨리흐를 감시할 눈이 필요하다. 사실 그는 그의 딸의 공식적인 신랑이고 검열되고 교양있는 사람이였다. 그러나 그는 겨우 23살밖에 안된다. 오늘은 로르헨이 헨리흐의 마음에 들었지만 래일에는 그가 다른 녀자를 사랑할수도 있다! 젊은 과부 마리야—루이자네 성에 기숙하고있는데 무사하겠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그 젊은 과부의 소행에 대해서 써보낸것을 보면 더욱 근심이 되였다. 23살 먹은 젊은 사람이 무슨 우둔한짓을 할지 누가 알랴! 또한 에베르쓰는 헨리흐에게 극히 위험한 임무를 주기 시작하였다. 설마 빨찌산에게 다른 대표를 보낼수 없단 말인가? 한마디만 말이 부주의하게 나가면 모든 일이 비극으로 끝장날수 있었을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스위스은행에 예금해둔 2백만마르크도, 평온한 여생도 다 허사로 되고말것이다!

안된다. 그것은 도저히 허용할수 없다! 자기 리익을 보장하는데도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우기 그것을 보장하는것이 그다지 어려울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밀레르 대신 누구를 임명할것인가?

베르트골드는 그가 알고있는 게스타포장교들을 오래동안 기억속에 더듬어보았다. 그는 꾸비쓰를 당장 후보에서 그어버렸다. 그는 경험있는 장교이기는 하지만 생활에서 모든걸 다 파렴치하게 대하듯 직무상의 의무수행에서도 그런 태도를 취한다.

신중한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분명히 그가 적합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누구를 할것인가? 후보자를 여러명 세웠다가는 취소해버리군 하였다. 아, 전쟁과 그 저주로운 동부전선이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빼앗아갔는가! 전에는 사람을 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렘께소좌에게 맡기면 어떨가? 본빌에

서 가르트네르가 죽은 후 렘께와 헨리흐는 서로 알게 되였으며 만족하게 생각하고있었다. 렘께는 폰 골드링에 대해서 훌륭한 평정을 해보냈으며 헨리흐는 가르트네르의 부책임자가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편지에 썼다. 그들은 서로 나쁘지 않은 관계인듯 하다. 새로 임명될 에쓰에쓰근무장교는 헨리흐와 사귀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될것이다. 렘께는 오랜 정탐일군이다. 착실하고 검열된 사람이다. 다만 그가 본빌을 뜨자고 하겠는지 모르겠다. 게스타포의 장관으로 있는것이 사단에쓰에쓰근무장관으로 되는것보다 훨씬 영예롭다. 례컨대 에베르쓰에 대한 감시같은 특별히 중요한 임무가 있는듯이 구실삼아 그를 설복해야 한다.… 구실을 좀더 생각해보면 될것이다.

그러나 본빌에서는 모든 대책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빨찌산운동이 계속 확대되였던 관계로 소좌는 너무도 기진맥진하여 환경만 바꿀수 있다면 아무데건 떠날 생각을 하고있었다. 렘께를 죽은 밀레르의 직무에 임명하도록 하는것은 정력적인 베르트골드에게 있어서 그리 힘든 일이 아니였다. 밀레르의 사망후 몇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의 사무실에는 렘께소좌의 키크고 호리호리한 모습이 나타났다.

새 장교의 도착은 꾸비쓰에게 기분나쁜 타격을 주었다. 그는 상부에서 그의 군사등급뿐아니라 직무도 올려주리라고 기대하고있었다. 사실 그는 전쟁초기부터 정보기관에서 일했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할만 한 힘도 가지고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남작, 좀 말해보게. 이게 정당한 처사인가?》 꾸비쓰는 헨리흐에게 불평을 말했다.

헨리흐는 꾸비쓰와 교제하게 된 후 처음으로 그가 침울하고 지어 진중한 기분으로 말하는것을 보았다. 그는 보통때처럼 롱을 하지 않았으며 명랑한 곡조로 회파람을 불지도 않았고 깊숙한 안락의자에 들어박혀서 북부집단군참모부에 대해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첫날부터 점잔을 빼기 시작한 렘께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헨리흐는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손님들과 마주앉아 담배를 피웠으며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몇모금 빨고나서 갑자기 묻는것이였다.

《여보게, 꾸비쓰! 털어놓고 직방 말해도 좋은가? 우리가 알고지낸 후 처음으로 말일세! 조금도 숨김없이!》

《좋네! 나의 기분은 바로 참회할 때의 기분이야!》

《꾸비쓰! 당신은 전쟁이 끝난 후 무엇을 할것인가 생각해보았나?》

《래일 쓸 돈을 어디 가서 구할지도 모르는 주제에 무엇때문에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이겠나…》

《롱은 그만두게, 신중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설마 당신은 내가 끝이 없이 무상으로 돈을 꾸어주리라고 생각하나? 당신 채용증으로 이 벽을 다 바를수 있을거네!》

꾸비쓰는 이상한듯 그리고 다소 놀란듯 골드링을 바라보았다.

《있을수 있는 모든 불쾌한 일중에서 가장 큰 불쾌한 일이군!》

《아직은 내가 빚을 갚으라고 당신께 요구하지 않겠네, 꾸비쓰! 약 7천마르크가 된다는것을 상기시키고싶을따름일세.》

《하느님 맙시사! 2년봉급이군!》

《만일 내가 당신처지에 있다면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겠네. 전쟁이 머지않아 끝나리라는것은 사실이니까.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남작,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로 하지 않았나. 솔직히 말하오. 당신이야 전쟁이 패하리라는걸 나만 못지 않게 알고있네. 그리고 신형무기도 밀레르무덤에 갖다놓은 화려한 꽃다발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될것 같지 않네.》

《좋소,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다 합시다, 사실 나는 승리에 대한 희망을 아직 잃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론쟁하진 않겠네. 그렇다면 당신은 어쩌겠나? 돈 한푼 없지, 머리우에 머리칼이 있듯이 빚만 걸머졌지, 재산이라고는 포승줄하고 수갑이 있을뿐이니…》

《당신은 주사기하구 술이 들었던 빈병들을 모아둔걸 잊었군.》하고 꾸비쓰는 쓰겁게 웃었다.

《게다가 당신은 공부도 끝낸게 없네. 한 학교에 다니다간 끝까지 다니지 않고 집어던졌소.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정보기관에 들어왔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전망은 정말 시시하오.》

《당신은 나쁘지 않은 위안자요, 그러지 않아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나나 당신은 계집애들이 아니요, 남자들이요! 난 당신을 위로하려고도 하지 않소.》하며 헨리흐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나의 형편에서 나에게 어떤 의견을 줄수 있겠소. 내가 할수 있는게 무엇이요?》

《결혼하오!》

꾸비쓰는 웃음을 터치였다.

《결혼하라구? 날보구?! 모르핀 두대만 주면 어떤 미인이라두 다 내줄 그런 나에게? 안해는 무슨 안해란 말인가. 나같은게…》

꾸비쓰는 점점 더 크게 웃었다.

《난 당신에게 안해가 필요하다구 말하진 않았소. 당신에게 필요한건 지참금이요.》하고 헨리흐가 말했다.

마치 너무 웃다가 사래가 들린 사람처럼 꾸비쓰는 입을 다물었다. 그 자체가 그를 놀라게 했다기보다는 그런 극히 단순한 출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는것이 놀라왔다.

《당신이야 미남자가 아닌가! 위풍있는 체격이겠다, 얼굴은 인상이 좋구 눈은 곱고 녀자들 마음에 들게 생겼단 말이요.》

꾸비쓰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아마도 일생에 처음으로 팔아먹을수 있는 상품이 있겠는가를 생각하며 자기 생김생김을 흥미있게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말하겠네만 꾸비쓰, 그만한 얼굴과 똑똑한 머리를 가졌으니 당신은 자기 장래를 보장할수 있다고 보오.》

《그것만은 아직 나도 저당잡히려 해보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은 하느님도 사람들도 잊은지 오랜 이 궁벽한 카스텔리 라 폰테에서 당신의 그 멋있는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작정이요? 당신네 녀종과 백작님 조카딸을 제외하고 나는 그럴듯한 녀자를 한명도 본 일이 없소!》

《그건 구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난 어저께 기사네 집에서 점심식사를 했소. 그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지방 사람인가? 당신도 아다싶이 게스타포성원은 도이췰란드사람에게만 장가들수 있지 않소.》

《알고있소. 그 처녀의 아버지는 도이췰란드에서 장기간 사업하였고 거기서 우리 국적을 얻었소. 그는 저명한 기사이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있단 말이요.》

《그래 그 처녀는 어떻소? 그 주인공 말이요.》

《내 취미를 보면 약간 훌쭉한게 탈이랄가.… 그러나 첫애기를 낳은

다음엔 몸이 난다더군. …》

《흥! 어린애니 무어니 그런 시시한 소리는 하지도 마오. 나에겐 결단코 자식이 없을것이요.》하며 꾸비쓰는 상을 찌프렸다.

《그야 당신에게만 달린게 아니요. 그래 동의하오?》

《마치 나의 승인만 있으면 다 되는듯이 묻는구려!》

《처녀의 승인을 받자면 얼마동안 애인의 역할을 해야 할게요. 꽃다발이며 선물이며 그런걸 가지고 말일세.》

《돈? 돈이 어디 있나?》

《만일 일이 그럴듯하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내 생각에는 당신의 지불능력이 현저히 커진다고 보오. 나는 꾸비쓰―레로회사에 호상 유리한 조건부로 신용대부를 하는데 동의하오.》

《그럼 지금 30마르크라도 돌려주오. 가서 가정생활의 매력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소.》

헨리흐는 이번만은 보통때보다도 훨씬 더 기꺼운 마음으로 꾸비쓰에게 돈을 주었다.

뜻밖의 제의를 듣고 흥분된 꾸비쓰는 헨리흐가 그의 장래가 아니라 자기의 장래를 념두에 두었다는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꾸비쓰와 담화한 결과를 마리야―루이자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그는 매우 행복을 느끼였다. 슈쩬겔이 거처하고있는 집주인인 기사의 딸 쏘피아를 시집보내자는 생각은 마리야―루이자가 내놓은것이였다.

어저께 그와 헨리흐는 점심식사에 초대되여 슈쩬겔에게 갔다. 거기서 쏘피아를 알게 되였다. 마리야―루이자는 전에도 자기에 대해서 슈쩬겔이 랭랭하게 대하는데는 무슨 원인이 있지 않을가 하는 추측을 했었다. 지금 처녀를 보자 그는 결정적으로 그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슈쩬겔이 주저하고 동요하는 원인은 쏘피아때문이다. 마리야―루이자에게 대비한다면 처녀에게는 젊음이라는 중요하고도 론박할 여지없는 우월성이 있었다.

쏘피아는 겨우 23살이였다. 마리야―루이자는 그 처녀를 처음 보았을 때 그 매력있는 오똑한 코, 둥그스름한 얼굴이며 부드러운 하늘색 눈, 장미빛입술에 어려있는 애교있는 미소를 어디선가 본듯 낯이 익었다. 고르로운 흰 이를 약간 드러내고 웃는 그 미소는 젊음과 건강을 암시하는듯 하였다.

마음속으로 아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던 마리야—루이자는 문득 화보의 뒤표지가 생각났다. 젊은 가정부인들에게 기계화된 생활도구를 선전하는 광고용선전화에 그와 비슷한 얼굴이 있었다. 손에 흡진기를 들고있는 젊은 녀자, 세탁기옆에 서있는 젊은 녀자… 《당신네 방바닥은 항상 거울처럼 번쩍일겁니다.》, 《우리의 마루닦기기계를 사세요.》, 《콕테일 만드는 혼합기를 장만하세요. 그러면 당신 남편이 구락부나 식당으로 가지 않을거예요.》…

마리야—루이자는 웃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마음은 편안치 않았다. 그 얼굴은 생신하고 특히 아늑한 기운이 풍기는것이였다. 그것은 과격한 청년시절을 경과하고 조용한 가정적행복을 찾고있는 사람의 마음을 끌수 있다.

쏘피아 역시 가정적인 행복을 바랐으며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소박한 솔직성을 가지고 신문에다 광고를 낼 생각이 있다고까지 고백하는것이였다. 마리야—루이자가 그의 의도를 웃어버리려고 하였을 때 쏘피아는 자기 주장을 열렬히 고집하기 시작하였다. 쏘피아는 특히 남작이 지지해나서자 격렬하게 주장하였다.

《나같이 이런 벽촌에 박혀있는 처녀들이 무얼 할수 있겠나요? 곱게 생긴 왕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가 우연히 극장에서나 우리 동무네 집 객실에서 남자와 알게 되였다가 그후 그에게 시집가는것은 례절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문의 방조를 받아서 사귀게 된다면 그런 교제는 좋지 않을것처럼 말한단 말이예요. 그러나 나의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첫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고 나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싶다고 말하는것은 정직한 행동이예요. 다른 녀자들은 그런 희망을 숨기고있으면서 은근히 신랑감을 찾고있지요.》

마리야—루이자는 그 말을 자기에 대한 암시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쏘피아가 소박한 눈길로 자기를 보는것을 보고 안심하였다.(그런 짐작을 하기에는 지내 둔하다.)

헨리흐는 매우 섭섭했으나 그날 아프레도 레로자신은 집에 없었다. 그러나 점심식사는 유쾌하고 자유롭게 진행되였으며 늘쌍 말이 적은 슈쩬겔까지도 식사가 끝날무렵에는 활기를 띠고 이야기에 참여하였다.

슈쩬겔은 새 료리가 나올 때마다 쏘피아의 료리솜씨를 찬양했으며 쏘피아의 주장을 지지해준 마리야—루이자를 안심시켰다.

《아시는 장교어른들중에서 신랑감을 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쏘피아는 잘생기기도 했고 슈쩬겔남작이 말씀하신대로 재산도 적지 않으니 말이예요.》 성으로 돌아올 때 마리야—루이자는 아주 진중하게 헨리흐를 설복하는것이였다.

바로 그때 헨리흐의 머리에는 꾸비쓰를 장가보낼 생각이 떠오른것이였다.

《만일 그 계획을 실현하신다면 나는 언제나 당신을 변함없는 친구로 인정할것을 약속하겠어요.》 마리야—루이자가 애교를 부리며 말했다.

《슈쩬겔이 의견을 가질가봐 걱정이 되는군요. …

남작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지내 낡은 견해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재교양하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그는 저 범속한 처녀만 보다가 취미를 망치겠어요! 꾸비쓰에겐 그 처녀가 알맞을거예요. 쏘피아는 그와 비슷해요. 래일 쏘피아한테 가서 꾸비쓰를 청하자고 설복을 하고 보기 전부터 쏘피아가 반하도록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놓겠어요.》

그 이튿날 마리야—루이자는 산보 떠날 차비를 하고 헨리흐에게 들렸다.

《오늘은 휴식을 드리겠어요. 나는 쏘피아와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방해가 돼서 그래요.》

《사건을 지내 촉진시키는게 아닙니까?》하고 헨리흐는 물었다.

《나에겐 규칙이 하나 있어요. 오늘 할수 있는것은 래일로 미루지 않는거예요. 남작님, 나는 당신의 약혼녀가 약혼식후 즉시 결혼식을 하지 않는것은 돌이킬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것이라고 생각해요. 나같으면 당신의 충실성에 기대를 걸지 않았을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반대예요. 좋게 생각하지요. 한 작가가 쓴 재미있는 경구를 읽은게 생각나요. 〈항구성도 제한성이 있다〉라고 썼던것 같아요. 〈항구성〉이란 말대신 〈충실성〉이란 말을 바꾸어놓아보세요. 그러면 이딸리아처녀의 특성을 그대로 보게 될거예요. 당신네 로르헨(아마 이름이 그렇지요!)에게는 당신이 선물한 약혼반지가 남았을뿐이예요. … 당신은 어

째 반지를 끼지 않나요. …》

《가방 한구석에 처박혀있을겝니다. …》

《불쌍한 로르헨!…》하며 마리야—루이자는 웃었다.

복도에서 급히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두드리고 유쾌하고 흥분된 마찌니가 불쑥 방으로 들어왔다.

《용서하십시오, 문을 두드렸는데…》

그는 당황해서 사과하였다.

마리야—루이자는 랭랭히 고개를 끄떡이고 나가버렸다.

《갑자기 뛰여들어 잘 안된것 같군! 아마 성이 난 모양이지?》

《자네가 난처해하며 사과하는걸 더 화낼수 있소. … 그까짓건 일없소! 차라리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서 말하시오. 얼굴이 환한걸 보니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군요!》

《물론이지요! 다 원만히 되였소. 멘따로치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병리해부과장이 수표하였소. 아마 멘따로치자신은 산으로 들어간지 오래되였을거요.》

헨리흐는 휘파람을 불었다.

《어떻게 그렇게 하였소? 언제?》

《그는 새벽에 달아났소. 당신이 의견준것보다는 약간 빠른게 사실이였으나 아주 좋은 기회를 리용하였소. 병리해부과장은 해부건이 많기때문에 별로 내용을 따지지 않고 수표하였소. 그런데 어째 그러나? 잘못된 일이라도 있나?》

《지금 멘따로치를 빨찌산에 보낸것은 잘못한 일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때문에 그를 에쓰에쓰에서 빼냈소? 놓아주기 위해서가 아니요?》

《내가 부탁하지 않았소, 내가 허락한 후에만 멘따로치를 놓아주라고!》

《무슨 차비가 있는가! 바로 그때 합장묘를 파고 다 매장해버렸는데…》

《래일 당장 멘따로치를 밀고했던 그 밀고자가 렘께에게 통보할게요. 게스타포에서 체포했던 멘따로치가 다시 산에 나타나 건강하게 살아있다구 말이요! 렘께는 검열을 시작할것이며 수술할 때 사망했다는 문건을 보게 될거요. …》

《이거 야단났군! 내가 머저리였구나!》하며 마찌니는 창백해졌다.
헨리흐는 초조하게 방안을 거닐었다. 마찌니는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쏘파에 꼼짝않고 앉아서 방바닥만 물끄러미 보고있었다.
《정확히 말해주오. 몇시에 그를 보냈소?》
《새벽 여섯시에. 난 그에게 사복을 주고 약간의 돈과 권총을…》
《그가 어디루 갔는지 아오?》
《모르겠는데!》
《앞으로 만나기로 약속한건 없소?》
《역시 없소. 우린 악수를 하고… 입까지 맞추었네. 그러나 둘이 다 한마디도 말은 하지 않았어.》
헨리흐는 또다시 방안을 거닐었다. 걸으면서 띠염띠염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것보다 형편은 아주 나쁘게 됐소. 렘께에게는 사망진단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살아있단 말이요. 꾸비쓰는 우리가 피검자를 내달라고 그를 설복했다는걸 인증할것이요. 나하고 당신하고 류쯔가 말이요. 렘께는 어떤 결론을 내리겠소? 빨찌산을 협조하는 조직이 있다고 생각할것이요. 우리 세사람이…》
《내가 렘께를 찾아가서 내가 다 책임을 지겠소. 등한했기때문에 멘따로치를 놓쳐버리고 책임이 두려워 그렇게 꾸미였다구 말이요.》
《그런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마오! 전쟁이 거의 끝나게 되였는데 그런 부주의로 해서 죽을수 있소. 좀 궁리해봅시다! 방법을 궁리해내야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내가 이자 말한게 있지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출로일것 같소.》
《독사의 눈독에 홀리우면 작은 짐승들이 제발로 걸어서 뱀아가리로 들어가는걸 본 일이 있지요? 당신의 출로라는건 그런거요! 우린 좀 그럴듯한 방도를 찾아내야겠는데… 잠간 있소. 좀 생각해봅시다. …지금 류쯔한테 가서 모든 사정을 미리 그에게 알려주오. 난 그동안에 한가지 검열해볼게 있소. … 혹시 그것이 출로로 될수도 있소! 꼭 약속합시다. 나와 의논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움직이지 말아야 하오!》
《약속하지!》
《내가 류쯔에게 전화를 걸겠소. 지금 시간을 랑비하고싶지 않소. 될수 있는대로 빨리 무엇인가 결정을 지어야겠소.》

마찌니는 일어서서 문쪽으로 향했다. 그는 문턱에서 헨리흐를 서글픈 눈길로 돌아보며 말했다.

《난 자네와 류쯔를 진정으로 사랑하고있는데 이렇게 나때문에…》

《잘못이 있다면 그건 다 내 잘못이요. 나는 우리 계획을 작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으며 멘따로치와 의논도 하지 않고 잘되겠거니 하고 생각했소. 그러다나니… 그러나 서로 잘못을 사과하는건 뒤로 미룹시다. 지금은… 어서 가보오!》

마찌니는 하는수 없다는듯 손을 휘젓고 나갔다.

홀로 남은 헨리흐는 마찌니와 이야기할 때 떠오른 계획에 대해서 침착하게 연구해볼수 있었다.

그렇다. 그것이 유일한 출로일것 같다!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하겠다! 성공하는가 못하는가는 시간이 결정할것이다. 그가 잘못 생각한것 같지는 않은데… 만일 잘못 생각한것이라면 어떻게 될것인가? 그때엔 새안을 궁리해야 할것이다. 될수 있는대로 빨리… 우선 검열해보아야 한다. …

그는 초인종을 눌러 꾸르트를 불렀다.

《리지야를 불러오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지 않도록 감시해주오. 자네도 들어오면 안돼!》

꾸르트는 걱정이 되는듯 의문어린 눈길로 헨리흐를 바라보았으나 상급중위가 초조해하는것을 보고 감히 한마디 물어보지도 못하고 나갔다.

몇분 지나지 않아 리지야가 나타났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어서 말씀하십시오!》 처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렇듯 경쾌하고 친절히 울렸다. 리지야같은 활기있는 처녀로서 오히려 지나치게 침착한 정도였다.

《어서 앉으시오, 이야기가 좀 길것 같은데…》 헨리흐는 처녀에게 의자를 갖다주고 말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이 가지 않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시지는 않을줄 압니다.》

리지야는 약간 걱정이 되는 눈빛을 숨기며 눈을 내리깔았다.

《꾸르트한테 들으니 그와 결혼하겠다고 했다는데 정말이요?》

리지야의 얼굴은 붉어졌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를 사랑하오?》
《처녀가 승낙을 했을 때엔…》
《그는 당신을 사랑하오?》
《사랑합니다!》 리지야는 생각해볼 사이없이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매우 안됐는걸. 그렇게 될것 같지 못해서… 난 꾸르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있고 그의 일생이 행복하길 바라오. 그러나…》
《그가 이딸리아처녀에게 장가들수 없다는걸 말씀하시려는것인가요?》 리지야는 도전적으로 물었다.
《나는 당신이 결코 결혼할수 없다는것을 말하자는거요! 결단코! 그것은 그 누가 허락하지 않기때문이 아니라…》
헨리흐는 여기서 말을 끊고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한마디한마디 찍어가며 말했다.
《우리의 담화가 끝나자 즉시 당신을 체포해서 예심에 넘겨야 하기때문이요!》
리지야는 깜짝 놀랐다. 마치 가죽채찍으로 갑자기 그를 후려친것 같았다.
《그럴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작님의 물품은 하나도 건드린게 없습니다. 백작님댁에 와서 일년이상 살았지만 그동안 자그마한 실수도 없었다고 봅니다!》
《모르는체 하지 마오! 내가 무엇을 념두에 두고 말하는지 당신은 알고있소!》
《저는 아무죄도 없다는걸 알고있을뿐이예요!》
《그건 게스타포에 가서 심문받을 때 증명하란 말이요.》
《이건 심문이 아닌가요!》
처녀의 눈초리에는 어찌나 경멸의 빛이 어리였는지 헨리흐는 부지중 점직해졌다.
《나는 게스타포일군도 아니고 예심원도 아니요. …》하며 그는 마치 변명을 하듯이 말했다. 《나는 다만 당신이 기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당신에게 죄가 있는가를 확인하고싶었을뿐이요. 당신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
《지금 저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해야 하나요?》 처녀의 목

소리는 격분에 떨렸다.

《그것은 법정에서 결정할거요.》

《법정은 무슨 법정이예요?》

《만일 멘따로치가 도주하지만 않았다면 그를 재판하려던 그 사람이 당신을 재판할것이요.》

《그가 도주했나요!》

만일 행복이라는것이 얼굴에 어려있다면 지금의 리지야의 얼굴과 비슷하였을것이다.

《그 사람을 아오?》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대표가 간다는걸 그에게 알린것도 당신이였지? 꾸르트가 부주의하게도 당신께 준 글쪽지를 당신이 읽었지?》

《꾸르트는 여기에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건 게스타포가 밝힐것이요.》

《그는 그때 말하기를…》

《당신공범자가 무슨 말을 했던지 내겐 흥미가 없소.》

《꾸르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문을 열어서 당신 아버지가 빨찌산을 데리고 들어와 인질을 잡아가게 한것도 당신이였지?》

리지야는 의자에서 펄쩍 일어나 헨리흐앞에 바로 섰다. 그것은 경멸, 증오, 분격으로 하여 모든걸 잊어버리고 닥쳐올 위험도 생각지 않고 강한자에게 도전해나서는 그러한 당당한 태도였다.

《난 아무 죄없는 50여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틀림없이 빠르모에서 그들을 총살했을것이예요. 자, 잡아가세요. 생각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자유의 몸이 되였으니 그가 복수해주실테니까.》

《그는 한번 잡혔으니 두번째도 잡힐것이요. 빨찌산안에서 공작하고있는 우리 망원이 그의 한걸음한걸음을 뒤따르고있소.》

《거짓말! 가리발지대원중엔 반역자가 없어요!》

《정말 천진란만하군! 게스타포가 당신네 가리발지부대의 움직임을 다 알고있단 말이요.》

《위협하기 위하여 꾸며대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 아버지는 빨찌산에 가서 도망쳐온 경위를 즐겁게 이야기할것이요. 그때 우리 망원은 짙은 눈섭밑으로 주의깊게 그를 바라볼것이요.》

《짙은 눈섭이 여기 무슨 상관이예요? 난 모르겠어요.》

《눈섭이 무슨 상관이냐구? 그건 그저 해본 소리요. 일생에 그렇게 짙고 널직한 눈섭을 처음 보았기때문이요. 난 그걸 보았을 때 놀랐댔소.》

《그럴수 없어요!》

《당신은 그런 눈섭이 있다는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접 확인할 가능성이 있을겝니다! 그 사람은 자주 게스타포에 다닙니다. 지금 그를 대면시키기 위하여 부를것입니다.》

처녀의 얼굴에는 그때 처음으로 공포가 스쳐지나갔다. 처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면서 애원하는 눈길로 헨리흐를 바라보았다.

《눈섭에 대해선 꾸며낸 말씀이예요. … 그럴수 없어요. … 일부러 그런 말을 해서…》 처녀는 정신이 아찔한듯 몸을 가늠하기 어려워 책상에 의지했다가 뒤의 의자를 더듬으면서 쓰러지듯 거기 앉았다.

헨리흐는 그가 몹시 불쌍했다.

《리지야.》 그는 리지야의 손을 친절히 꼭잡고 말했다. 《내 말을 주의해 듣소. 게스타포의 앞잡이, 검고 짙은 눈섭이 있는 빨찌산대원이 당신 아버지를 밀고했소. 나는 그의 성은 모르지만 외모는 잘 기억하고있소. 그 사람은 빨찌산의 두번째 대표였소.》

《워또르아저씨가!》 처녀는 신음소리를 냈다.

《부대장과 당신 아버지에게 당장 알려야겠소. 그러나 아무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되오. 내 말을 알아듣겠소? 내 말을 알겠습니까?》

《곧 가겠어요. 그리고…》 처녀는 갑자기 말을 끊었다. 나를 함정에 몰아넣자는것이 아닌가. 내가 가는 곳을 뒤따랐다가 그다음… 하는 생각에서 그는 겁이 난것이였다.

《알겠소, 겁이 나서 그러지요. … 그러나 나에겐 당신께 설명해줄 시간이 없소. 서둘러야 하오. 지금 당신 아버지뿐만아니라 아버지를 구해준 마찌니선생에게도 위험이 닥쳐오고있소.》

《전 그 말씀을 믿겠어요!》 리지야는 문쪽을 향했다.

《잠간만! 부대장에게 알릴수 있는지 없는지 언제 내가 알수 있을가?》

《곧 알수 있어요.》

《좋소, 기다리겠소. 우리 담화내용을 꾸르트에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소. 그는 좋은 청년이긴 하지만 비밀공작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아마 정치에서는 그리 세련된 편이 못되니까.》

리지야는 급히 달려나갔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헨리흐는 이 장면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은 사건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그를 피로케 하였는가를 알았다. 지금 렘께가 도착했으니만큼 그는 특별히 긴장성과 조심성이 필요하였다. 물론 렘께가 이리 오게 된것은 베르트골드의 연출일것이며 밀레르가 하던 직책을 그가 수행해야 할것이였다.

헨리흐는 어저께 베르트골드에게서 온 편지를 다시한번 읽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새로 부임된 에쓰에쓰근무장교에 관계된 글줄을 훑어보았다. 《너는 이미 렘께와 만나보았는지? 내 생각에는 그가 괜찮은 사람같다. 그 사람과 친히 지내는것이 좋겠다.… 네가 카스텔리 라 폰테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매우 만족해하더라.…》

매우 만족해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 찾아오지도 않는단 말인가! 그렇다면 헨리흐도 역시 가지는 않을것이다! 렘께가 그앞에서 아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헨리흐는 렘께가 본빌에서 그를 심문하던 일을 회상하고 웃었다. 그때 그는 그 거만한 게스타포에 대해서 옳은 태도를 취했다. 무례한 사람에겐 더 무례하게, 허영심에는 더 큰 허영심으로 대답해야 한다.

에베르쓰소장이 출장중이므로 오늘은 참모부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불쌍한 류쯔가 걱정하고있을것이다. 그리고 마찌니 역시… 그들이 안심하도록 전화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만일 리지야가 제시간에 가리발지부대에 미리 알리지 못한다면? 곧 갔다오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혹시 그에게는 여기, 시내에도 련락망이 있을수 있다. 기다리는 한가지 길밖에 없다!

기다리는 시간은 견딜수없이 길게 끌었다. 헨리흐는 리지야가 돌아왔느냐고 물어보기가 겁났다. 오지 않은게 분명했다. 꾸르트는 맥이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점심상을 차리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았다. 헨리흐는 어류학에 대한 책에 정신을 팔면서 꾸르트가 말을 꺼내려고 하는것도 모르는척 했다.

땅거미질무렵에 헨리흐는 더 참을수 없어서 류쯔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 무사히 될걸세. 마음놓고 자라구. 래일 아침에 다 이야기해주지.》

마리야—루이자는 산보갔다 돌아온지 이미 오랬다. 그는 피아노를 타고있었다. 기세좋은 행진곡이 성안의 비여있는 방들에 크게 울려퍼졌다. 아마도 그는 기분이 좋은 모양이였다. 그에게도 가보아야 한다. 쏘피아와의 담화가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보자.

저녁때 헨리흐는 마리야—루이자의 방에 가서 슈젠겔, 라모니백작, 마리야—루이자와 함께 지냈다. 리지야는 보이지 않았다. 마리야—루이자가 직접 차를 따랐다.

《글쎄 저의 녀종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의 집에서 누군지 앓는다구 백작님한테 가서 하루 쉬겠다고 했답니다.》하며 마리야—루이자는 불평을 말했다.

그걸 보니 리지야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것이 분명했다. 이제는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을것이다. 아홉시후에는 통행금지시간이 시작된다. 자기 방으로 가서 누워야 하겠다.

마리야—루이자는 헨리흐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헨리흐가 그에게로 가까이 갔을 때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일요일날 친구되시는분까지 셋이서 레로네 집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헨리흐는 온종일 신경을 긴장시켰기때문에 몹시 피로해서 잠잘 생각을 하니 기뻤다. 이제 누우면 잠이 들게고 그러면 아침까지 모든 시름이 없어지겠지. 그러나 그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마자 근심은 더했다.

멘따로치와 관련된 사건에서 그는 또다시 용서 못할 경솔성을 범하였다. 그는 빨찌산과 련계를 응당 취했어야 하였으며 더 유리한 기회를 기다려야 하였다. 그러나 멘따로치와 같은 사람이 죽는것을 어떻게 모르는척 할수 있겠는가! 그 짙은 눈섭을 가진 밀고자가 이 땅우에서 활보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밀고하도록 내버려둘수 있겠는가? 그러나 때로는 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침묵을 지켜야 한다. 어찌 그가 게스타포 살인자의 발톱에 걸린 사람을 다 구원할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고있는 몸이다. 금후에는 그것 한가지만 생각할것이다. 필요한 문건을 얻어낼 때까지. 도대체 그것을 얻어낼수 있겠는지? 그것을 얻어낼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이 그에게 있단 말인가? 다만 그 아프레도

레로에게서만 이 문제를 풀수 있다!

헨리흐의 시선은 유럽지도우에 멈춰졌다. 야간용전등빛에 동부전선을 표식한 기발이 어렴풋이 보인다. 헨리흐는 보지 않고도 지도를 알고있다. 눈을 감았을 때도 그것이 보였다. 전선은 얼마나 빨리 서쪽으로 움직여오는가! 이젠 국경가까이까지 밀리워나왔다. 그때 일이 먼 옛날에 있은 일 같은데 겨우 3년이 지났단 말인가! 이 3년은 정말 매해가 십년맞잡이였다.

헨리흐는 전쟁초기의 사건들이 생각났다. 적진으로 뚫고 들어오던 일이며 그동안에 한 일들이… 만일 그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한다해도 그는 량심에 가책없이 죽을것이다.… 결말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 죽는다면 얼마나 분한 일인가! 조국을 다시 보지도 못하고! 지금 조국땅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고난을 겪고있다고 해도 자기 동포들속에 있다는 그 행복속에 살고있다는것을 알기나 할가?

끼예브가 강점자들에게서 해방된지 거의 반년이 된다. 그곳은 지금 이른봄일것이다. 시내물이 재잘거리며 흐를것이다. 머지않아 드네쁘르강의 얼음이 짜개질것이다. 울라지미르쓰끼산이나 드네쁘르강상류의 절벽에서 보면 봄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올것이다. 방송을 들어보면 끼예브가 몹시 파괴되였다고 한다. 보리첩쓰끼 경사지에는 작은 집 한채도 없을수 있다.

헨리흐는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는 드네쁘르강을 헤염쳐 건느는 꿈을 꾸었다. 물살이 빨라서 기슭까지 끝내 가닿지 못하고말았다. 물결과 싸우면서 모든 힘을 다 긴장시키고있는데 강기슭에 황금댕기가 나타나 점점 더 가까이 오고있었다.

헨리흐는 그 황금빛에 눈이 부시여 잠을 깼다. 해빛이 넓은 띠처럼 방을 가로질러 비치는데 그 빛이 바로 그의 얼굴을 비치고있었다.… 옆방에서는 꾸르트가 아침식사를 차리고있었다. 헨리흐가 옷입는 소리를 듣고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상급중위님, 차로 가시겠습니까, 걸어서 가시겠습니까?》 꾸르트의 목소리는 즐겁고 그 얼굴은 이른 봄날처럼 환했다.

틀림없이 리지야가 돌아온게군!

모든 일이 다 무사히 끝났을듯 한 예감이 헨리흐를 사로잡았다.

《리지야가 나에게 전하란 말이 없었소?》

《좋은 약을 주시여서 마찌니선생님께 매우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실것을 부탁하더군요. 리지야는 두번이나 왔댔는데 백작님댁 아씨가 어딘지 심부름 보냈기때문에 뵈옵지 못하고 갔습니다.》

헨리흐는 대강 아침요기를 하고나서 카스텔리 라 폰테로 갔다! 봄이 완연히 온것이 알렸다! 해빛이 벌써 아주 따사로왔다. 가벼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지나는것이 오히려 기분좋았다. 아마 해빛을 받아서라기보다도 즐거운 흥분으로 하여 얼굴이 화끈거리기때문인지 모른다. 어서 류쯔와 마찌니를 만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싶었다.

헨리흐는 더 빨리 걸었다. 에쓰에쓰근무부대가 위치하고있는 집옆에 병사들의 무리가 서있었다. 울타리틈으로 보니 뜨락에도 역시 병사들이 많이 있었다. 무슨 일일가? 렘께가 자기 졸병들을 검열하는것일가? 저기 멀찌감치 그 키꺽다리가 어른거린다. 꾸비쓰도 그옆에 있다. 그들의 눈에 뜨이지 않게 돌아가야 하겠다. 마치 참모부로 급히 갈 일이 있어 걱정이 되는듯 한 모양을 하고 급히 지나가자.

헨리흐가 옆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등뒤에서 병사구두소리가 터벅터벅 들려왔다.

《상급중위님!》

헨리흐는 하는수없이 멈춰섰다. 특무장이 그를 따라온것이였다.

《렘께님께서 잠간 들려가시랍니다!》

《지금 몹시 바빠서 유감스럽지만 들릴새가 없다고 여쭙게.》

류쯔의 방에는 창문이 활짝 열려져있었다. 그가 방에 있다는 뜻이였다. 헨리흐는 급히 2층으로 올라갔다.

《자네 지난밤에 있은 사건을 아나?》 인사도 하지 않고 류쯔가 물었다.

《몰라!》

《오늘 에쓰에쓰부대뒤 공원에서 시체 하나가 발견되였는데 시체의 가슴에 〈이딸리아를 배반한자들은 다 이렇게 될것이다.〉라고 써붙이여있었네.》

《그 사람을 보았나?》

《련락병을 보냈더니 시꺼멓고 널직한 짙은 눈섭이 있는 사람이더래.》

《마찌니도 아나?》

《시체는 병원에 있는 사체실로 가져갔으니까.》

알프레도 레로는 이야기 상대자에게 매우 만족해하였다. 그는 오늘 그 젊은 도이칠란드장교와 같이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해본 일이 없었다.

그 상급중위가 어류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데는 놀라기까지 하였다. 그런 지식은 대학을 하나 나왔다 해서 얻어지는것이 아니다.

어류학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야 하며 책도 많이 읽고 자연을 사랑하며 각이한 물고기의 습성, 그들의 번식조건, 잡는 방법 등을 잘 연구하기 위한 관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흥미있는 세계가 크고작은 저수지밑에 숨겨져있다는것을 생각지 않고 물에서 물고기를 낚아낼줄만 아는 그런 단순한 어부가 아니였다. 심지어 수컷들은 암컷들이 알낳기 편리한 장소를 찾느라고 강을 거슬러오를 때 여울을 건느는것을 도와준다는 그 장교의 이야기만 들어도 알수 있다. 그는 남부아메리카의 강에 사는 열대산 맹수라고 부르는 상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알고있는지… 그 무리들은 넓이 30～40보쯤 되는 강을 헤염쳐 건느고있던 황소를 잡아먹었다 한다. 그런 맹수가 서식하고있는 강에서는 손을 씻기도 무섭다.

물고기에 대한 과학은 레로가 전부터 애착을 가진 학문이였다. 전쟁전에 그는 각 국어로 된 어류학잡지들을 주문해보았으며 그가 알고있는 어류학책을 다 수집하였다. 레로는 자기 도서실이 그 부문에서는 수수한 도서실중의 하나일것이라고 긍지를 가지고 말할수 있었다!

레로는 무슨 큰 보물이나 꺼내듯 책을 차례로 꺼내서 먼지 하나 없는 책뚜껑을 또 문지르고나서 손님에게 내주군 하였다. 아, 그는 골드링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그가 수집한 도서들의 진가를 평가할수 있는 사람이라는것을 굳게 믿었다. 더우기 남작이 몇개의 유럽어를 알고있기때문에 많은 서적을 자유롭게 읽을수 있었다. 영어가 좀 약한것이 유감이였다. 레로에게는 영국저자들의 매우 흥미있는 책들이 몇권 있었다. 그대신 남작은 로어를 잘 알고있다. 그러나 레로는 로어를 몰랐다. 그는 남작의 제의를 받아들여 그에게서 로어를 배워 자기 자질을 더 보충하고싶은 마음도 간절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한가한 시간이 그에게는 없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레로는 자기가 설계한 기구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골드링에게 자기 발명품의 진수를 알려줄수 없는것이 유감이였지

만 그것은 최근 두해동안 그의 온 정력을 다 바쳐 만든것이라는 말이나 믿어주었으면 하였다. 그는 그 기구를 발명한것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생활이 거칠었다! 그에게는 개체생활이란 없었다! 때때로 그는 공장에서 잤으며 하나밖에 없는 딸도 한주일에 몇번 볼뿐이였다. … 사실 그의 일은 약간의 우점도 가지고있었다. 첫째로 그는 전선에 나가지 않아도 되였으며 둘째로 보장을 잘 받았으며 그에 대해서 존경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전체 유럽을 놓고 보더라도 알프레도 레로처럼 전쟁이 끝나기를 열렬히 고대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사실 털어놓고 말한다면 그는 죄수나 다름없었다. 일터로 갈 때도, 일터에서 돌아올 때도 감시를 받아야 한다. 낮이나 밤이나 자동총수들이 집부근을 빙빙 돌았다. 만일 그가 잠시 남작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 해도 벌써 그의 뒤에는 경비원이 붙어 돌아간다. 너무나 싫증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하면 남작의 웃음을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안해가 죽은 후에도 자유로운 시간이 없기때문에 결혼도 못한것이였다. 안해를 구하자면 여기저기 다녀도 보고 친구도 사귀고 흥미있는 말동무가 되기 위해서 신간도서나 잡지들, 신문들도 읽어야 할것이였다. 그런데 그는 제대로 잠을 잘 시간조차 없었다. 슈쩬겔이 폰 골드링자신과 마리야—루이자 그리고 그 얼굴이 잘 생긴 장교… 그의 성이 무엇이던지… 그렇지, 꾸비쓰를 점심시간에 초대하였다는데 그런일을 조직해준것도 남작에게 감사할 일이다!

헨리흐는 알프레도 레로의 불평을 동정하며 들었으며 질문으로 그의 이야기를 중단시키지 않고 이따금 비평을 첨가할뿐이였다. 그는 그러한 견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공적인 고립상태에 있는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것을 알고있다. … 그자신 역시 진정으로 문화적교양이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고있다. … 그는 레로와 알게 된것을 각별히 행복한 일로 생각하고있다. 비록 이따금이라도 흥미있는 담화에 정신을 팔수 있기때문이다. 그는 오늘처럼 이러한 모임을 매주일 갖자는 의견에 기꺼이 찬동하고싶었다. 다만 주인측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을가 하는게 걱정이 될뿐이다. 그러나 레로가 주장한다면 그는 동의할것이다. 그것이 쏘피아에게 지나친 수고를 끼치지 않는 조건이면 될것이다. 하여튼 쏘피아는 물고기료리를 훌륭히 만든다. 다음 일요일에는 로씨야식으로 생선국을 끓여서 대접하여보자. 그건 훌륭한 생각이다.

헨리흐는 레로와 작별하고 다른 손님들이 산보갔다 돌아오면 머리가 아파서 먼저 갔다고 전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마침내 그는 은어며 심어며 열대산 맹수 등에 대해서 잊어버릴수 있었다. 세상에는 그따위 저주로운 물고기가 많기도 하다! 어류학에 대한 그의 지식은 아직 몇번 담화에 써먹기에는 충분하였다. 그 다음엔 또 읽어야 한다.

어류학에 대한 일반적지식을 가지고는 그 괴물이 받아먹지 않을것이다. 박식을 시위해야 한다. 료리사의 지식도 필요하다. 그런데 어쩌다가 로씨야식생선국이야기를 꺼냈던가? 비록 헨리흐는 어떻게 끓이는지 전혀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하는수없이 끓여야 한다! 료리책을 구해다 읽고 몇개의 료리법을 참고해서 새 방법을 궁리해내야 하겠다.

하여튼 기사가 물고기에 대해서 열중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다. 공통된 취미에 기초해서 그들은 속히 친구로 될것이다. 꾸비쓰는 또하나의 계획에 쓸수 있는 예비로 필요하다. 동부전선에 대한 보도는 히틀러도배에게 점점 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다. 쏘련의 보도에 비해서 2～3일씩 늦어서 보도하군 한다. 례컨대 끄르순－쉡첸꼽쓰끄작전에 대해서는 도이췰란드군이 손실을 절반으로 감소해서 보도하였다.

도이췰란드지휘부에서 신형무기제작을 백방으로 서두르고있는게 분명했다.

헨리흐는 이미 여러번 그에게 위임된 임무의 추진정형에 대한 물음을 받았다. 상부에서도 그 임무가 얼마나 복잡한것인가를 알고있지만 매번 그만큼 그 임무가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군 하였다.

오늘 헨리흐가 다소나마 목적에 접근했다고 할수 있었다. 확실히 접근하였다! 사실 첫걸음을 떼기가 항상 가장 힘든것이다!

저기 마주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렘께가 아닌가? 그렇군, 잠간 걸음을 멈춰야겠군. 첫상봉을 거리에서 하는게 오히려 더 좋을수 있다.

렘께는 골드링을 보자 걸음을 재촉했다. 하여튼 칼로 찌른듯 한 얼굴을 가진 사람과는 친숙해지기 힘들다. 목이 바로 입에서부터 시작된듯한 인상을 준다. 지금 소좌가 빙긋이 웃으니 그 모양이 특히 보기 싫다.

《아이구! 이거 참 반갑습니다!》 렘께는 멀리서부터 두손을 뻗치고 다가오며 환성을 올렸다.

《당신은 여기 도착하자마자 그런 만족을 얻을수 있었을겝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걸 베르트골드가 알려주었겠지요!》하고 골드링은 아주 심드렁하게 말했다.

《난 당신이 군사등급도 아래인만큼 먼저 나를 찾아줄줄 알았습니다.》

《이건 군사칭호의 문제가 아니라 교양에 대한 문제이지요.》

《남작, 그래 노엽게 생각하셨소?》

《약간 노엽기도 했습니다. 본빌에서 서로 알게 된 후 우리의 련계는 다소 다르게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때 베르트골드에게 그렇게도 즐거운 교제를 시작하자 인차 갈라지게 된것이 유감스럽다고 편지를 써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십디다. 나는 그때 나때문에 얼마간이라도 불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평정을 해준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곳으로 떠나기전 소장을 만났을 때 나에 대한 말이 없습디까? 나에게 전하는것도 없었나요?》

《베르트골드님께선 당신께 따로 편지를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하십디다. 물론 가장 열렬한 인사를 전한단 말씀도 있었습니다.》

《편지는 받았습니다. 그의 인사는 좀 늦었군요. 내가 다소 노엽게 생각할 근거가 있다는걸 동의하시겠지요?》

《그저 일에 볶이우다나니 그렇게 됐습니다, 남작! 밤이나 낮이나 일이…》

《전화 한번 걸 시간도 없었나요?》

《그러나 내가 병사를 보냈을 때 나에게 들릴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절절한 초대형식이라고 생각합니까?》

《난 그런 세세한 문제에 대해선 의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례절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실 난 아는게 적습니다. 아마 그것이 당신의 자존심에 거슬린 모양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자신에 대한 존경의 표시겠지요.》

《남작, 하여튼 나에게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된것이 아니라는것만 알아주시오. 본빌에서 떠난 후 나는 말하자면 노루를 피하다 범을 만난 격이 되였다는것을 고려해주시오. 휴식이나 할가 했는데 웬걸요.》

《본빌에서는 지금도 편안치 않는가요? 가르트네르살해사건이 있은 후 당신이 그렇게 결정적인 수색대책을 썼기때문에 나는 마키들이 혼이 났을거라구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가르트네르의 살해자는 찾아냈습니까?》

《한창 수색을 하고있을 때 마키가 식당을 폭발시켜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흔적이 없어지고말았지요. 아마 그 건물에 몇개의 시한탄을 묻어두었는데 운수나쁘게 가르트네르가 거기 걸려 희생된것 같습디다.… 그 일엔 나도 손을 들었수다. 그런데 이리 오자마자 겨우 피해온 그런 문제때문에 골치를 앓고있으니 아마 그게 내 팔자인 모양이지요.》

《에쓰에쓰부대 건물옆에서 빨찌산들이 당신네 망원을 죽였다는 말이 정말입니까?》

《그 사건후에도 또 몇건이 있습니다. 그 가증한 가리발지놈들이 어떻게 그들을 알아냈는지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겸손치 못한 질문을 한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당신네 비밀망원들을 에쓰에쓰부대 건물에서 만나군 합니까?》

《천만에! 징모할 때는 한번 부대로 부르지만 일단 망원이 결정된 다음에… 그들과 상봉하는 특별집이 있지요.》

《첫번째로 피살당한 망원이 그 집을 알고있었습니까?》

《그럼요, 꾸비쓰와 밀레르가 그와 그 집에서 아주 여러번 만난걸요. 그자는 가리발지속에 박아넣은 우리 망원들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망원의 한사람이였습니다.》

《그가 그 비밀장소로 갈 때 그의 뒤를 밟았다가 그 집을 알아냈을겝니다. 빨찌산들이 적발했을 때 그가 자백했을수 있습니다!》

렘께는 너무나 단순한 추측에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 집을 알아낸 다음에 빨찌산들은 누가 그 집으로 다니는가를 밝혀내고 밀레르가 그렇게도 고생을 해서 모집해놓은 망원들을 몇사람 저승으로 보내버린 모양입니다. 첫 살해사건이 있은 후 비밀장소를 변경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당신께도 꾸비쓰에게도 떠오르지 않았단 말입니까?》

렘께는 창백해졌다.

《에쓰에쓰부대옆에서 시체를 발견한 후 다음날 그 집을 교체하긴 했는데…》

《바로 그날 빨찌산들은 그 집에 찾아간 사람들을 몇몇은 알아냈을겝니다. 내가 당신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있는 처지가 아니라면 그 점에 대해서 꼭 베르트골드에게 편지를 썼을겝니다. …》

《사람들은 다 과오를 범할수 있지요, 남작! 과오가 있을 때마다 상관에게 일러바친다면…》

《그래 난 써보내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것이 당신이 아니였다면 내가 가만있지 않았을겝니다. 사실 지금 이딸리아사람들속에 잘 박아넣은 간첩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결국 나에게는 가정적인 리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는겁니다. 베르트골드는 나의 장래 장인이니 그의 직무상의 리해관계는 나에게도 매우 가까운것입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맡은 사업에 대해서 총통앞에 책임을 져야 하니 말입니다.》 헨리흐는 이 말을 어찌나 위엄있게 했던지 웃음이 나오는걸 겨우 참았다.

그러나 렘께로서는 웃고있을 경황이 아니였다. 북부집단군사령부에서는 이리로 떠나오기 전에 그에게 이곳 형편을 알려주면서 참모부는 지방주민들속에 망원들을 박아넣을데 대해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는것을 강조했던것이다.

《렘께, 잊지 마시오.》하고 그때 그의 직속상관은 말했다. 《이딸리아경내에서 전쟁이 진행되고있는 지금 우리는 매개 이딸리아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적들은 그들속에서 정보일군과 보조원들을 모집할것입니다.》

그러한 경고를 받은 후인데 그는 밀레르가 얻어놓은 망원들까지 보존하지 못하고 그 일부를 잃어버렸다. 그는 매개 망원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 며칠동안 명단에 있는 망원들을 거의 전부 불렀던것이였다.

《남작, 저기 가서 저녁식사나 합시다!》 그들이 식당앞에 다달았을 때 뜻밖에도 렘께가 이렇게 초대하는것이였다.

헨리흐는 미소하였다. 그는 겁이 난 렘께가 술이라도 마시며 그 이야기를 계속하자고 한다는것을 알았다.

《나는 식당에 다니지 않습니다. 성안에서 식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럼 한두병 가지고 당신한테 들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말입니까?》

《아니, 지금은 직장으로 가서 이것저것 지시도 주고 해야 하니까.》

집에 돌아오니 방에서 꾸비쓰가 기다리고있었다.

《마리야—루이자를 배웅하느라고 여기까지 온김에 기다리기로 했소. 공연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소. 아주 재미있는 산보였소. 그 심심하고 멋이 없는 아가씨를 받드는 일만 아니였다면…》

《미래의 약혼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거요?》

《여보 헨리흐, 난 참아내지 못할것 같소. 이딸리아처녀는 불같이 뜨겁고 우아하며 포도주처럼 취하게 하며 즐거운 성품이라고 누가 그랬소? 그 녀자는 심심하기 짝이 없소. …》

《그 대신 지참금이 상당하겠지…》

《그것이 어떤 녀자나 매력있게 만들수 있는 조건이군. … 그런데 그 지참금이란 어떤것이요?》

《똑똑히는 모르겠소. 그러나 레로씨가 보장을 매우 잘 받고있다고 암시하더군요.》

《될대로 되라지! 잘사는 장인을 위해서 사랑을 애원해야겠군! 그가 자기 딸을 노엽히지는 않겠지. 그러나 하여튼 심심해. 헨리흐, 자네가 몰라 그렇지 정말 멋이 없소! 이렇게 오래 끌것 같이 생각하오?》

《당신이 어떤 인상을 주었는가에 달렸구 또 당신의 행동여하에 좌우되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그거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겠지. 당신에겐 적지 않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종류의 녀자는 모르네. 나는 항상 노력을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힘을 썼네. 사실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소!》

《꽃으로부터 시작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고전적수법일세. 래일부터 매일 아침 꽃을 보내라구…》

《매일 아침? 그 꽃때문에 또 동냥을 다녀야 한단 말이군. 그걸 살 돈을 어디서 구하겠소?》

《꽃을 살 돈은 내가 주겠소. 그러나 당신 련락병에게 주겠소. 당신에게 주면 다 술을 마셔버리겠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께 보조금을 주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였소. 7 000마르크란 적은 돈이 아니요. 내가 그것을 즉시 반환할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꾸어주는것은 그 원인이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알만 하네! 당신은 감동할만큼 인내성이 있는 사람이요. 나는 감동

할만큼 정직한 사람이 되겠소. 지참금을 받자마자 첫째로 나는 거기서 7 000마르크를 떼여내서 큰절을 하고 당신께 바치겠소. 자선가는 개가를 올리는데 회개한 죄인은 자선가의 발앞에 쓰러진다, 관중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씻는다… 그 개선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상술한 금액에 오십마르크만 더 첨가하지 않겠소? 동의해주오. 나에겐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생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한 약이 필요해서 그러오!》

꾸비쓰는 50마르크를 받아가지고 미래의 약혼녀와의 순탄하지 않은 사정을 욕하며 가버렸다.

쏘피아는 새로 교제하게 된 장교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고있으며 온종일 백작댁 마리야―루이자가 그의 신랑감으로 예정하고있는 잘생긴 장교를 바라보았다. 그 장교의 외모도 유쾌한 성격도 그의 마음에 들었다. 그가 말하는 어떤 재치있는 말은 처녀로 하여금 얼굴을 붉히게 하였으나 처녀는 그 죄가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것이였다. 지방에 박혀 살았기때문에 그의 견해도 제한되였고 보통 하는 상류사회의 담화도 그에게는 무례한듯이 생각되는것 같았다.

오늘 온종일 슈쩬겔과 교제를 하면서 이것저것 목적을 달성한 마리야―루이자가 그렇듯이 쏘피아도 이번 일요일을 만족히 생각하였다.

도이췰란드군대 장교들에게는 해마다 4월 20일이면 새 군사칭호가 대중적으로 수여되였다. 군사칭호가 오르면 자연히 봉급도 올랐다. 그래서 거의 모든 장교들이 그날을 기다렸으며 그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금년 1944년에는 많은 장교들의 희망이 실현되지 않았다. 동부전선군대들과 이딸리아에서 영미군의 공격을 저지시킨 에쓰에쓰부대들의 장교들은 거의다 승급하였으나 에베르쓰사단과 같은 후방부대들은 금년에 거의 전부 표창을 받지 못했다.

헨리흐는 상급중위로부터 대위로 되였다. 에베르쓰와 류쯔는 승급되지 못하였다.

꾸비쓰는 뜻밖에도 소좌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에는 그런것이 그리 흥미가 없었다. 쏘피아의 지참금을 바라고있는 그는 수천수만마르크를 꿈꾸고있었기때문에 봉급이 약간 오르는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결혼하는 방향에서 그의 일이 많이 진척되였다. 6월 20일에는 쏘

피아와 약혼식을 하기로 되여있었다. 그후 얼마있다가 결혼식을 하기로 되였다. 그는 그 귀족처녀와 결혼할데 대한 허락을 소장에게서 받았다. 꾸비쓰는 헨리흐와 이야기할 때 항상 쏘피아를 그렇게 부르는것이였다.

쏘피아자신은 매우 빨리 승낙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아프레도 레로는 아직 깊이 알지도 못하는 장교를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일것인지 아닌지 오래동안 망설였다. 최근에 와서 레로는 헨리흐와 몹시 친숙해졌기때문에 그는 자기가 주저하고있는 심정을 헨리흐에게 숨기지 않았다.

《내가 걱정하는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하며 레로는 약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날 헨리흐에게 말하는것이였다. 《그 꾸비쓰란 사람은 어쩐지 믿음직한 인상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가 아무 일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대하는것 같지 않습니다. 더우기 그에게는 아무러한 직업이 없습니다. 전쟁이나 끝나면 무얼 하겠습니까?》

헨리흐는 자기가 소개한만큼 꾸비쓰에게서 모든 긍정적인 품성을 찾아내서 될수 있는대로 그를 변호하였다. 그러나 레로의 의문을 풀어줄수 없었다.

《당신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옹호해나서는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장교의 응당한 품성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정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솔히 생각한다는것은 동의할줄 압니다. 나는 그가 쏘피아에게 결혼선물을 사줄 몇천리라의 돈이나마 가지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겠지요. 지금까지 꾸비쓰는 잘살았기때문에 장교로서 받는것보다 훨씬 돈을 더 썼습니다. 댁의 따님과 알게 된 후에는 퍽 조심하게 되였지요. 그건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전에 한번 그의 저금통장을 본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소소한 일에 저금을 다 없애버릴 사람은 아닙니다.》

헨리흐는 자기 저금에서 3천마르크를 떼내서 꾸비쓰의 명의로 저금을 해놓고 그에게서 령수증을 받아두었다는 말은 차마 할수 없었다.

레로가 아무리 동요한대도 쏘피아에게 양보해서 결혼을 승낙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결혼식을 약혼식이 있은 후 3개월이상 지나서 하자는 조건을 붙이였다.

《나는 그동안에 딸아이도 꾸비쓰를 더 잘 알게 되면 자신도 실망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사람이라니까요. 열중하는 일도 없고 보통 취미조차 없단 말입니다. 횡설수설 지껄이는게 다입니다. 이렇게 나나 당신은 수중왕국의 비밀에 관심을 가지고있고 낚시질과 같은 흥미있는 경기에 열중하고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서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과수재배에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지향성이 있는 성품을 가졌다는걸 증명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꾸비쓰가 흥미를 느끼는건 무엇인가요?》하고 레로는 헨리흐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열광적인 우표수집가랍니다.》 헨리흐는 머리에 떠오르는대로 말해버렸다.

《그렇습니까? 그건 새 소식인데요. 그건 즐거운 일입니다. 그이상 다른 능력이 없다면 우표라도 수집하는게 좋지요.》

헨리흐는 빠르모에 갔다올 일이 있을 때 우표사진첩을 몇권 사다가 꾸비쓰에게 주었다.

《아이구! 이건 또 무슨 일이요!》하고 꾸비쓰는 신음하였다.

《사진첩을 보아두어야 하오. 도이췰란드우표와 프랑스우표를 갈라볼 줄 알아야 하오.》

꾸비쓰는 내키지는 않았으나 감히 반대는 못했다. 그가 쏘피아에게 매일 꽃다발을 보내는 비용이 지내 많이 들었으며 그에게 사랑을 구하느라고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한것이였다.

약혼식을 앞두고 아프레도 레로가 옛날 우표가 붙어있는 큼직한 사진첩을 또하나 꾸비쓰에게 선물했을 때 그는 얼마나 약이 올랐던가!

《내 아무때 가서나 이 사진첩을 그의 머리에 내동댕이치겠소!》 꾸비쓰는 장래의 장인이 선물한 사진첩을 헨리흐에게 보이면서 욕설을 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우표는 금전과 비슷한것이라구 레로에게 암시나 해줄노릇이지.》

그러나 가장 큰 실망은 약혼식을 하고 약 한주일이 지난 후 결혼계약토의가 시작되였을 때 나타났다. 꾸비쓰가 헨리흐를 찾아왔다.

《머저리놀음을 했어!》 꾸비쓰는 헨리흐의 사무실로 달려들어와 안락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비관에 찬 목소리로 웨쳤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머저리놀음을 했다니까!》 꾸비쓰는 이 말을 되풀이하더니 문득 헨리흐에게 달려들었다. 《이건 다 당신 책임이요! 지참금을 가지고 내 머리를 혼란시켰지. 그가 자기 딸에게 지참금으로 무엇을 준줄 알겠나? 스위스국경지대 어디엔가 있는 양 6백마리의 목장하구 그가 지금 살고있는 카스텔리 라 폰테의 집하고 빠르모에 있는 과실상점일세.》

《지참금이 그만하면 적지 않다고 생각하오.》

《내가 그 양들을 무엇에 쓰겠소! 내것이 되면 그날로 다 죽여버리겠소!》

《어리석은 말은 작작하오. 소리만 치지 말고 침착히 계산해보잔 말이요. 양이 6백마리라고 했지? 그렇다… 꾸르트와 리지야에게 물어보오. 양 한마리값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 보통양 말이요. 백마르크나 백이십마르크는 될것 같은데.》

《나같으면 한마르크도 안 주겠소.》

《그러나 당신한텐 준단 말이요. 그것만 가지고도 7만마르크는 받을수 있을거요.》

《리지야가 그러는데 좋은 양은 2천 5백리라 나간답니다.》하고 꾸르트가 알려주었다.

헨리흐는 회파람을 불고 놀라운 눈으로 꾸비쓰를 바라보았다.

《보라구, 양이 어떻다구! 마르크로 환산한다면 십오만마르크나 되오.》

《무슨 그런 소릴 하나?》하고 말하면서도 꾸비쓰는 구미가 당기는 모양으로 연필을 들고 직접 계산해보기 시작했다.

《틀림없는데! 오! 나의 귀여운 양들, 내가 그대를 열렬히 사랑하기 시작했노라!》

《게다가 집과 상점값으로 십만마르크를 덧놓소. 그러면 이십오만마르크가 된단 말이요!》

《그러나 내게 필요한건 현금이요! 돈이란 말이요! 알만 하지요. 당신 한사람에게 빚진것만 해도 일만마르크가 넘는단 말이요! 그런데 레로는 현금에 대해선 한마디도 말이 없었소!》

《내가 그럴듯하게 잘 물어봅시다.》

헨리흐는 레로에게 가까운 시일내에 갈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쏘피아의 지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말았다. 얼마후 그는 이미 그럴

필요가 없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한번은 저녁때 신랑신부가 함께 헨리흐를 공식적으로 방문했는데 그때 꾸비쓰는 헨리흐를 한옆으로 데리고가서 쏘피아의 저금통장에 약 2만마르크가 저금되여있다는것을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것이였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산이였다.
《그러니까 7월 20일엔 결혼식을 하겠소?》 헨리흐가 쏘피아에게 물었다.
《빠울은 더 빨리 하자고 하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요. 선생님이 좀 말씀해주세요. 아버진 선생님을 몹시 존경하고있답니다!》
쏘피아는 진실을 말한것이였다. 아프레도 레로는 한가한 저녁이면 꼭 헨리흐를 초청해다 이야기를 펼치는것이였다. 레로는 그와 같은 담화가 공식들로 차있는 그의 두뇌에 생기를 준다고 한두번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생각을 전쟁을 떠나 딴데로 쏠리게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열렬히 이야기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으로는 전쟁이란 공식과 기술적 사고의 투쟁에 불과한것이며 이 투쟁의 결말은 다만 강자에게 복종할줄만 아는 인간대중이 아니라 가장 부드럽고 선진적인 기술적사상이라는 것이였다.
아프레도 레로가 극력 피하려고 하는 화제는 공장이였으며 공장과 관련된 일체 문제들이였다. 헨리흐 역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전쟁이 끝나면 아주 흥미있는걸 이야기해드리지요.》 한번은 기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하고 그는 한숨을 쉬였다. 《지금은 그것이 다 어찌나 역증이 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두뇌, 이것은 인간 유기체의 가장 고귀한 부분이며 폭력에는 견디지 못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저 빨리하라는 독촉만 받고있습니다. 내가 병이 나도 집에 누워있게 하지 않고 여러가지 자료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의견을 줄것을 강요합니다. 내가 한가지 문제를 완성한다면 나에게 더 큰 문제를 들씌웁니다. 그저 들리는것은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하는 말뿐입니다.》
《밤마다 댁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다행입니다!》
《우리끼리니 하는 이야기이지만 나는 때로 집에서도 자기자신을 위해 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종합할수 없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혹시 우연한 기회에 슈쩬겔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일 그가 안다면 이러저러한 자료를 내가 금고에 두고있는데 대해서 아주 불쾌한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날 밤 헨리흐는 오래동안 잠들지 못했다. 레로의 이야기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계획을 낳게 한것이였다.

결혼과 죽음

결혼을 며칠 앞두고 북부집단군사령부의 명령서가 내려왔다. 꾸비쓰는 공장의 내부경비를 맡아보는 슈쩬겔의 부책임자로 임명되였다.

헨리흐는 그렇게 사태가 호전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슈쩬겔이 바로 이렇게 되도록 힘을 썼다는것이 밝혀졌다. 그는 꾸비쓰가 이왕 레로와 친척관계를 맺고 그의 집으로 이사하게 된 이상 그로 하여금 공장의 경비와 책임기사자신의 신변의 경비도 맡게 해야 할것이라고 사령부에 제기한것이였다. 더우기 슈쩬겔자신은 레로의 집 2층을 신혼부부에게 내주어야 하는만큼 불가불 그 집에서 나와야 하는것이였다.

꾸비쓰의 새 임명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에 들었다. 아프레도 레로는 너무나 까다로운 슈쩬겔의 감시를 이제는 받지 않아도 된것을 기뻐하였다. 쏘피아는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자기 젊은 남편이 아버지의 눈앞에서 일하게 된것이 행복하게 느껴졌다. 마리야—루이자는 슈쩬겔이 성으로 이사와서 그와의 련애관계가 더 무르익어 과부의 표식대신에 신부의 결혼장식을 차리게 될것을 은근히 기대하였다. 헨리흐는 꾸비쓰의 새 임명을 자기 계획실현을 위한 더없는 기회라고 보았다.

꾸비쓰만은 자기의 직무이동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였다. 그는 이미 양떼와 상점과 집의 장래 소유자의 자리에 들어앉고말았다.

지금 그는 쏘피아와 함께 농장관리자와 상점의 늙은 책임점원의 결산서들을 검열하면서 온밤을 지내군 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의사가 서로 통하는것이였다. 과실을 괜찮게 처리하고 옷감이 잘 팔린것을 기뻐하기도 하고 결산서의 부정확한데를 찾아내거나 계산이 의심스러운 점을 알아냈을 때 걱정도 하고 충실하고 정직한 심부름군이 이동해간것을 슬퍼

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일치하게 농장관리자가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이기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하겠다는 의견에 도달하였다.

꾸비쓰는 그를 이미 알고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만큼 문자그대로 변했다.

전에는 그에게는 부동산은 더 말할것도 없고 동전 한푼 없었는데 이제는 탐욕한 소유자의 욕심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한것이였다. 그는 처음에 돈을 아끼느라고 술을 적게 마시였는데 그후에는 사회에서 차지할 자기의 새 립장을 생각해서 술을 삼가하게 되였다. 그는 모르핀도 전혀 맞지 않을수는 없었지만 매일 맞는 량을 줄이기 위해서 애썼으며 이에 대해서 마찌니와 의논까지 하게 되였다. 꾸비쓰는 자기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헨리흐에게 있는 많은 령수증을 합쳐 하나의 채용증서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채용금의 반환을 1945년 1월 1일까지 끝내기로 지적되여있었다. 그는 신문을 보아도 이제는 우선 군사보도에 관심을 갖는것이 아니라 화페통보며 직물, 고기, 과실의 가격들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전에는 꾸비쓰가 결혼식을 굉장히 차리겠다고 하였다면(그때는 참모부의 장교를 거의다 청하겠다고 하였다.) 이제는 극히 국한된 수의 손님들만 청하겠다고 하였다.

《꾸비쓰, 당신은 린색해진것 같소.》 언젠가 헨리흐가 지적하였다.

《나는 후한것은 빈곤의 누이라는걸 확신하오. 돈이 적으면 돈의 가치를 모르지만 자본이 생기면 그것을 불구고싶어진단 말이요.》

쏘피아는 꾸비쓰가 그들의 생활을 규모있게 계획해나가는데 대해서, 돈을 아껴쓰려고 조심하는데 대해서, 말문만 떼여도 그의 희망을 알아맞춰주는데 대해서 너무 기뻐서 어쩔줄 몰랐다.

꾸비쓰와 쏘피아는 의가 좋은 부부로 되였다. 꾸비쓰는 자기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쏘피아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이미 쏘피아에 대해서 필요없고 부담만 되는 존재로 보지 않았다. 사실 쏘피아는 그에게서 열정적인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친절하고 한결같이 그를 대하는 좋은 주부였다. 쏘피아는 지금이 화려한 결혼식을 할 때가 아니며 굉장하게 차리는것이 아무 소용도 없으니 차라리 결혼식에 쓰라고 아버지가 준 돈을 여러가지 살림을 꾸리는데 쓰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손님들이 적었다. 쏘피아는 빠르모에 사는 그의 사

촌언니, 슈쩬겔과 마리야-루이자를 청했으며 꾸비쓰는 에베르쓰소장, 헨리흐, 류쯔 그리고 렘께를 청했다.
꾸비쓰는 사흘동안 휴가를 받았으며 신혼부부는 식이 끝나면 즉시 쏘피아의 고모가 사는 빠르모로 가기로 되여있었는데 쏘피아는 앞으로 그 고모의 상속자로 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계획한대로 되지 않았다.
손님들이 모두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상에 자리를 잡고 에베르쓰소장이 년장자로서 첫 축배를 들것을 선포하였을 때 전혀 뜻밖에 사단참모부에서 통신원이 나타났다.
《소장님께 전보가 왔습니다.》
에베르쓰는 급히 일어나 초조히 통신원에게서 전보를 받았다. 전보를 한번 훑어보더니 소장은 한순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다. 그는 갑자기 휘청거렸다. 옆자리에 앉았던 류쯔가 제때에 일어나 소장의 어깨를 부축하였다.
《의사를 불러오랍니까?》하고 그는 걱정이 되여 물었다.
《일없소, 인차 일없을게요. …》 소장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쭉 둘러보고나서 렘께에게 눈길을 멈추더니 말을 이었다. 《로대에 나가보겠소. 인차 좋아질게요. …》
《의자를 내갈가요?》 류쯔가 말했다.
《일없소.》 에베르쓰는 황급히 말했다.
소장은 로대에 나가더니 문을 꽉 닫았다.
《틀림없이 가정에서 불행이 있은 모양이군요. 혹시 부인께서 무슨… 전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시나요?》 마리야-루이자가 속삭였다.
《베를린에서 온겁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전보를 여기 가져와서… 전보가 지급이였기에…》
《그의 부인은 드레즈덴에 계신데…》 마리야-루이자는 그 변명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했다.
《혹시…》하고 류쯔가 말을 시작하려던 때였다.
로대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모두 로대 문쪽으로 달려갔다.
에베르쓰는 두팔을 쫙 벌리고 마루바닥에 누워있었다. 관자노리에

서 피가 흘러내리고있었다.

류쯔가 맨먼저 정신을 차렸다. 소장에게 몸을 숙이고 손가락을 펴고 전보를 꺼냈다.

그의 어깨너머로 헨리흐가 읽었다.

《즉시 료양소로 떠날것.》 발신자의 이름은 없었다.

백지장처럼 얼굴이 하얗게 된 류쯔는 무릎을 꿇고 자기 상관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에베르쓰소장의 심장은 뛰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렘께는 의아한 눈길로 헨리흐를 보았다.

《우선 모두 자기자리에 가 앉아야겠습니다. … 그리고…》 헨리흐는 마치 열병을 앓는듯 꾸비쓰의 어깨를 두팔로 그러쥐고 벌벌 떨고있는 쏘피아에게 인사를 하고 말했다. 《꾸비쓰, 자넨 부인옆에 남아서 진정시켜주게. 우린 가봐야겠네. …》

《의사와 참모장이 도착할 때까지 건드리지 마시오. 나도 인차 돌아오겠소.》하고 렘께가 명령하였다.

장교들이 나갔다. 렘께는 즉시 에쓰에쓰참모부로 가고 헨리흐와 류쯔가 둘이 남았다.

《자넨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헨리흐?》

《하여튼 좋을거야 없겠지. 내 생각엔… 잠간 기다리게. 참모부직일관은 어디를 갔나?》

직일관은 참모부 문가에서 떨리는 손으로 군복단추를 채우며 그들한테로 달려나왔다.

《대위님, 대위님!》 직일관은 숨을 돌리느라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큔스트대좌가 자기 방에서 자총했습니다.》

《그도 베를린에서 온 전보를 받았소?》 헨리흐가 물었다.

《자총하기 5분전에…》

《료양소로 떠나라는 전보였소?》

《그렇습니다! 즉시에 떠나라는.》

《당장 렘께에게 전화를 거시오. 자기 사무실에 있을거요. 그가 올 때까지 그의 방에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오.》

직일관은 도로 참모부로 달려갔다. 류쯔와 헨리흐는 그의 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소. 난 마치 꿈을 꾸는것만 같소.》 류쯔는 아연실색한 모습이였다.

《무슨 음모 비슷한것… 라지오를 넣소.》

그러나 라지오는 언제나 그 시간에 그러하듯 기세좋은 행진곡을 방송할뿐이였다.

《집단군참모부에 통지해야 하지 않겠소?》하고 헨리흐가 물었다.

류쯔가 전화기가 있는데로 가까이 가서 호출신호를 하려고 하는데 렘께가 헐떡거리며 방으로 달려들어왔다.

《균스트가 어디 있소?》

《당신이 올 때까지 아무도 그의 방에 들여놓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요?》

《바로 그걸 내가 당신께 묻자고 하던참이요.》

베를린으로부터 떠난 특별비행기가 카스텔리 라 폰테에 도착한 저녁때에야 모든것이 다 해명되였다. 히믈러의 전권대표가 에베르쓰와 균스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가지고왔다. 그는 두사람을 체포해서 최고지휘부로 데려가야 하였다.

사단장인 에베르쓰소장과 사단참모장인 균스트대좌는 총통을 반대하는 음모에 가담하고 총통암살사건에 참가한 죄과로 기소된것이였다.

볼가강변에서 패전한 후에 발생한 불만은 도이췰란드군대가 새로 실패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커져서 실제적으로 음모가 꾸며지게 된것이였다.

음모가담자들은 히틀러를 없애치우고 그 자리에 영미국인들과 단독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도이췰란드로 하여금 다만 동부전선에서만 전쟁을 할수 있도록 할 다른 사람을 내세우자는것을 자기 목적으로 세웠다.

6월 6일에 영미측은 프랑스해안 라 만샤에 상륙하여 제2전선을 폈다. 그것은 음모자들로 하여금 결정적대책을 취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1944년 7월 20일 히틀러암살음모가 있었다.

폭탄은 비록 약속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폭발하였으나 다만 총통에게 타박상을 입혔을뿐이였다. 음모의 주모자들은 그 즉시에 적발되였다. 지금 히믈러는 될수 있는대로 음모참가자들과 그에 가담한 최고지도부내의 장교들을 모조리 잡으려 하였다. 약 2천명이나 되는 국가범죄

자명단에는 에베르쓰소장과 큔스트대좌의 성명도 들어있었다.

총통에 대한 암살사건은 군대내에서뿐만아니라 주민들속에서 징벌기관들의 세력과 의의를 현저히 강화하였다. 체포는 뒤를 이어 진행되였다. 모든 장교들이 불안을 느끼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북부집단군참모부로 즉시 도착하라는 전보가 폰 골드링남작에게 왔을 때 헨리흐뿐만아니라 그의 친구들인 류쯔와 마찌니도 매우 걱정이 되였다. 이미 게스타포에서 고초를 겪고있는 장령급들중에는 제누쓰와 군제르도 있었는데 헨리흐는 한때 에베르쓰의 임무를 받고 빠리에 있는 군제르의 저택으로 두번이나 찾아갔었다는것을 친구들에게 말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집단군참모부로 부르는것은 에베르쓰가 다른 장령들과 어떤 련계를 가지고있었는가를 심문하자는것일수도 있었다. 그러한 심문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올리는 만무한것이였다.

부름을 받은것을 알게 되자 렘께는 헨리흐를 의심스럽게 보았으며 그의 눈에는 남의 재난을 고소하게 생각하는 빛이 어리여있었다. 그의 마음대로 할수만 있다면 주저없이 이 건방진 남작을 체포해버리고싶었다. 사실 그의 베르트골드자신이 헨리흐를 잘 감시해달라고 부탁한것이 공연한 말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렘께는 감히 그렇게는 할수 없었다! 렘께는 참모부로 불리워가는것이 좋은 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것을 확신하였다.

헨리흐는 렘께의 눈길속에 숨어있는 뜻을 매우 잘 알고있었다. 그래서 그의 불안은 더 커지는것이였다.

그 불안은 집단군참모부에 도착한 후에도 풀리지 않았다.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고 군관구위수사령부로 가라고 하였다.

군관구위수사령부? 헨리흐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드는것을 느끼였다. 한순간 소매끝속에 숨기고있는 소형권총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시간을 놓치지 않기만 하면 된다. 언젠가 렘께의 사무실에서처럼 되려는가? 우선 나의 눈에나 몸가짐이나 행동에 조금이라도 흥분된 기색을 보여서는 안된다. 위수사령부가 참모부에서 몇개 구역을 지나서 있는것이 다행이였다. 모든것을 두루 생각하고 마음준비를 갖출 시간이 있었다.

폰 크론네대좌는 화려한 사무실에서 헨리흐를 맞이하였다. 사무실 창문으로 훌륭한 산경치가 내다보였다. 안락의자에서 약간 몸을 일으키는척 하고 대좌는 약간 고개를 끄덕이고는 헨리흐에게 앉을것을 권했다.

그 우월감이라든지 점잔을 뺀 외모, 모든 동작의 정확한 절도들은 이미 헨리흐도 잘 알고있었다. 그는 서른다섯나는 그 젊은 장교가 오랜 륙군유년학교출신이라는것을 인차 알았다.

《난 이렇게 앉아서 경치를 감상하고있소.》 폰 크론네는 뜻밖에 이런 말을 시작했다. 《자연경치는 나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며 명확한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오. 마치 벽에 걸려있는 좋은 그림처럼 말이요.》

《대좌님, 한번 카스텔리 라 폰테에 오셔서 해질무렵의 그란드—빠라딕코의 경치를 보셨으면 합니다.》

《아, 당신도 그 부문에 조예가 깊다는걸 알겠소.》하며 크론네는 헨리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보며 말했다. 《무엇때문에 당신을 오라고 했는지 말해줍디까?》

《아니요, 그저 대좌님께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을뿐입니다. 부르신 리유에 대해서는 전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다른게아니라 최근 베를린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은 후 지도부에서는 이딸리아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인사치레는 집어던지고 북부이딸리아에 엄격한 강점질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소. 그 대책의 하나로서 모든 지방치안대가 복종하게 될 위수사령부를 내오게 되였소. 카스텔리 라 폰테와 그 부근일대의 위수사령관으로 당신이 임명되였소!》

헨리흐는 시름이 놓이는것을 느꼈다.

《남작, 당신은 물론 그러한 임무를 주는것이 당신에 대한 크나큰 신임의 표시라는것을 리해할것이요. 당신은 당신께 부여된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는것으로써, 총통과 조국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함으로써 그 신임에 보답해야 하겠소.》 크론네의 커다란 연회색눈이 골드링을 주의깊게 바라보았다.

《장교의 정복은 제가 어떤 초소에 있든지 자기 임무를 정확히 수행할것을 요구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임의 표시는 특별히 높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있소! 당신은 위수사령관으로 사업하게 될 구역을 잘 아오?》

《특수임무장교의 과업은 상당히 광범하기때문에 우리 사단의 구분대가 있는 모든 주민지점을 거의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대

해서 알고있다고 말씀드릴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욱 좋소. 금후 당신은 그 구역에서 전권을 가진 주인이며 구역내의 질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오. 당신이 맡게 된 구역 경내에는 전선으로 통하는 매우 중요한 철도와 신작로가 있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그뿐아니라 당신네 구역에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군사대상물이 배치되여있소. 공장은 에쓰에쓰특별구분대가 경비하고 있소. 그러나 당신은 이 구분대지휘관들과 매우 긴밀한 련계를 가져야 하오. 당신의 직접지시를 받는 산악렵기병 한개 중대를 주겠는데 당신의 부책임자가 그 중대장이 될것이고 흑샤쯔단중대는…》

헨리흐는 얼굴을 찌프렸다.

《그 중대는 완전히 검열된 병사들로 구성되였기때문에 믿을만 한거요. 그뿐아니라 두개의 락하산소대를 주겠소. 당신네 구역과 같은 지대로서는 력량이 충분치 못하다는걸 알고있소. 그러나 현재 형편에서 어쩔수 없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단구분대들이나 슈쩬겔소좌에게 방조를 청할수 있소. 그러나 강조할것은 극단한 경우에만 그렇게 할수 있다는거요. 당신네 구역에서는 가리발지려단과 각종 정치적색채를 띤 몇개의 소부대들이 활동하고있소. 주되는 힘은 가리발지도당에게로 돌리시오.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장 위험하오. 그들과의 투쟁은 일상적이며 무자비해야 하오.… 당신께 조언을 주거나 지시로써 방조해줄수는 있으나 유생력량으로 도와줄것은 기대하지 않는게 좋겠소. 그럼 할 말은 다 한것 같소. 그렇지, 한가지 더 할말이 있군. 즉시 적당한 건물을 하나 찾아내서 잘 꾸리시오. 그것을 부차적인 일로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새 정권에 대한 존경을 느끼도록 하여야 하오. 〈모든 외부적례의범절은 자기의 내부적근거를 가지고있다.〉고 한 괴테의 말을 상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오. 사령부성원들은 당신이 선발해야겠소. 가리발지의 앞잡이가 끼여들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그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려고 할거요. 내가 인차 카스텔리 라 폰테에 한번 가겠는데 그때까지에는 모든 조직사업이 끝나도록 했으면 좋겠소.… 물어볼게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생길수 있을것입니다. 필요한 때 문의할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때나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전화로 말하는건 피하시오. 직

접적접촉이 훨씬 더 믿음직하오.》

새 임무를 받은것은 헨리흐에게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다. 위수사령관으로서 그는 그 지역내에 배치된 대상물들도 포함해서 전체 구역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것은 그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고있는 그 공장으로 접근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헨리흐는 이 임무가 미래의 장인의 간섭이 없이는 될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베르트골드는 사실 헨리흐를 반역적인 소장이 지휘하던 사단참모부에서 떼여내는것이 좋다고 결심한것이였다.

에베르쓰가 죽은것은 사실이지만 죽은 후에도 불건전한 흠집을 남겨놓을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조성된 전변을 누구보다도 기뻐한것은 마찌니였다.

《그거 잘됐소! 나는 이제 우리 구역에서는 전 북부이딸리아에서 진행되고있는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대중적징벌이 없을것을 믿소.》 헨리흐가 마찌니에게 집단군참모부에 갔다온 이야기를 하였을 때 마찌니는 환성을 올리며 말했다.

그러나 새 임무는 새로운 복잡성도 초래하였다. 구역내의 안정을 책임진다는것은 그 안정을 파괴하는자들을 반대해서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강점자의 견해로 말한다면 그 안정이란 매개 이딸리아사람을 잠재적인 원쑤로 보고있는 히틀러도배들에게 주민들이 절대복종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이딸리아주민들의 안정에 대한 개념과 강점자들의 개념이 너무나 차이났기때문에 그것을 원만하게 조절한다는것은 불가능하였다.

헨리흐는 만일 그가 처음부터 비록 침묵의 접촉이라도 맺아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즉시 그와 그에게 복종하는 구역의 주민들간에 온갖 복잡성을 초래할것이라는것을 잘 알았다.

그이튿날 아침에 리지야가 방을 청소하러 왔을 때 헨리흐는 그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였다.

《당신은 도이칠란드말을 잘 아는가요?》

《프랑스어보다 잘 알아요.》

《내가 당신과 도이취어로 이야기하면 다 알수 있겠소?》

《다 알아요. 그러나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인차 배울수 있지요. 다른 일자리로 옮

길것을 내가 제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오?》

《전 모르겠어요. … 어떤 일인가요?》

《카스텔리 라 폰테에 군사위수사령부가 조직됩니다. 내가 위수사령관으로 임명되였습니다. 나는 이딸리아어를 잘 모릅니다. 위수사령부에는 통역원편제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일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

그 제의는 너무나 불의에 제기된것이여서 처녀는 망설이였다.

《래일 대답을 드린다면 늦지 않을가요? 당장에 결정할수는 없어요. 좀 생각해보고…》

헨리흐는 그것을 타산한것이였다. 리지야는 생각해보는것보다 의논해보아야 할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루이틀 기다리겠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쾌히 승낙하였다.

꾸비쓰는 자기의 장래에 대한 근심이 머리에서 사라져버리였다. 그는 훌륭한 가구를 차려놓은 방이 여섯개나 있는 집을 완전히 차지하고 젊은 안해가 대접하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로 배를 불리고있었다. 더우기 젊은 부부는 일전도 돈을 쓰지 않아도 되였다. 살림에 쓰는 모든 비용은 레로가 담당했기때문에 꾸비쓰는 자기의 장교봉급조차 거의 쓰지 않았다. 그러나 꾸비쓰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으며 그의 장래는 전과 같이 그렇게 락천적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헨리흐가 쏘피아의 지참금을 25만마르크로 계산한것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꾸비쓰는 양의 가격이 그렇게 높은것은 지금 전쟁때이기때문에 모든 식료품 특히 고기의 가격이 매우 높기때문이라는것을 후에 가서야 알게 되였다. 꾸비쓰는 양과 옷감의 전쟁전 가격들을 알아보았다. 그는 평화적조건에서는 그의 부인의 지참금이 3분의 1로 감소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것은 꾸비쓰를 어찌나 흥분시키고 아연케하였던지 쏘피아의 목장을 지금 처리해버리는것이 어떨가 하는것을 헨리흐와 의논해보기로 결심하였다.

《헨리흐, 나는 장래에 대해서 몹시 걱정이 되오. 지금 장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다 원만하오. 그는 벌이가 좋고 살림비용같은건 문제도 삼지 않소. 그러나 그는 이미 년세가 높으며 자주 앓고있소. 내가 머지않아 완전한 호주로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형편을 좋아지게 하지 않을뿐만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킬것이요.》

꾸비쓰는 이야기하는 투까지 달라졌다. 지금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예견성있는 사람의 자신있는 말투가 풍겼다.

《사실 나도 이미 그 점을 생각했네.》하고 헨리흐도 인정하였다.

《매우 감사하오!》

《당신의 가정형편의 변화에 대해서는 나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는 만큼…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는지… 말하자면 당신에게 도덕적책임을 느낀다고 할지… 당신에게 장래에 대해서 걱정할 근거가 있을수 있소. …》

《만일 모든 부동산을 다 지금 팔아버리고 그 돈을 어떤 유리한 기업체에 투자하면 어떨가? 또는 그걸 귀중품으로 바꾸어놓던지?》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가? 하여튼 속지 않도록 그런 일을 잘 알아서 해야 할거요.》

《전쟁이 끝나면 나는 레로와 함께…》

《잠간만 기다리게. 한가지만 당신께 물어보고싶네. 아프레도 레로의 사위에게라기보다는 오랜 경험있는 게스타포일군으로서 당신에게 묻고싶단 말이요. 만일 도이췰란드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쟁에서 진다면 전쟁이 끝난 후 당신 장인은 어떻게 될것 같나?》

《전쟁이야 이미 진게 아닌가. … 그런데 나는 그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는데…》

《그걸 리해하는데 특별히 앞을 내다 봐야 하는것도 아닐세. 아프레도 레로가 일하고있는 공장은 우산이나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란 말이요.》

《그가 연구해낸건…》

《일없네! 말 말게! 나는 내가 응당 알게 되여있지 않는 비밀을 알고 싶지 않소!… 그러나 그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호위하고있는것으로 보아서 아프레도 레로의 활동이 그렇게 많이 떠들고있는 신형무기에 관계를 가지고있다는것은 확실한것 같소!》

《바로 맞혔소. …》

《여보, 꾸비쓰! 공연히 나를 곤경에 몰아넣지 말게. 나는 국가적비밀은 멀리하는 주장이기때문에 당신이 말한것을 듣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잊어버렸소! 나는 다만 론리적인 추측을 말했을뿐이요. …》

《용서하게! 절대 입을 열지 않겠네.》

《만일 도이췰란드가 전쟁에서 패해서 도이췰란드의 군사기술부문의 모든 업적이 원쑤들의 수중으로, 승리자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는것을 안다면 게스타포의 지도자로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내가?… 나는 모든 가장 값있는것을 없애버리고… 하여튼 원쑤들의 수중에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할걸세.》

《아주 론리적이요! 게스타포의 똑똑한 일군들은 다 그렇게 행동할것이요. 가장 중요한 발명을 한 발명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소? 군사기술분야에서 말이요. 사실 오늘 그 발명가는 총통에게 복무하고있지만 래일에는 딸라나 파운드 지어 루블리의 유혹에 빠질수도 있지 않겠소? 게스타포의 지도자로서 당신은 발명가들을 어떻게 하겠소?》

빠울 꾸비쓰는 상대방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면서 점차 온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추측은 아직 완전한 확신이 아니요.… 나와 당신은 서로 론리적사고의 련습을 하고있는것이요. 그리고 그것뿐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당신을 흥분시킨것 같군. 무슨 다른 이야기나 합시다.》

《아, 아니, 아니! 바로 그 이야기를 하세.…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계속해야지. 당신생각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경우엔 조언을 주기 어려운데… 매 사람이 자기 궁냥대로 행동하겠으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내 립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

《나라면… 좀 생각해봐야지!》 헨리흐는 방안을 걸었다. 《나는 최악의 경우에 대처해서 준비하겠네.》

《어떻게 말인가?》

《아프레도 레로의 천재적발명은 과학을 위하여 소멸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네! 그것은 당신이 후대들앞에 책임져야 하네. 만일 아프레도 자신이 전사한다거나 병으로 사망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의 발명품을 보존할 의무가 있네.》

《그러나 나는 기술에 대해서 그놈의 우표수집보다도 더 깜깜하단 말이요!》

《당신이 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건 나도 아오. 그러나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요. 당신장인은 자기 발명품을 머리속에 가지고다니는것은 아니요. 공식이 있고 도면이 있고…》

《그는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소. …》

《그건 전적으로 옳은 일이요! 그러나 그가 모르게 은밀히 사진복사 같은걸 만들어둘수 있소, 장래를 위해서!… 만일 공장을 없애버릴 틈이 없고 도면들 역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강국의 수중으로 들어갈것이요.… 그때에는 중요한 발명품의 운명에 대해서 근심해온 보상으로 그 사진복사를 다른 강국에 팔수도 있을거요. 그건 사실 보통가격이 아닐거요. 그때에는 당신이 그까짓 고기나 천가격에 근심을 하고있겠소! 그건 당신이 받게 될 돈에 비한다면 극히 문제도 안되는 부스레기돈일것이요! 그리고 당신이 게스타포에 복무한것도 용서받을것이요. 그저 눈을 감아줄게요.》

헨리흐는 말을 끊고 물병의 물을 고뿌에 따라 조금씩 마시면서 팔밑으로 꾸비쓰를 바라보았다. 꾸비쓰는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며 앉아있었다.

렘께에게 의심이 생긴다

비록 렘께는 카스텔리 라 폰테구역 위수사령관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헨리흐에게 인사를 한 첫사람이기는 하였으나 헨리흐의 새 임무를 그보다 더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으랴! 에베르쓰와 교체된 새 사단장은 참모부를 빠르모로 옮기고 카스텔리 라 폰테에는 병원, 창고 그리고 에쓰에쓰근무만 남기겠다고 언명한것이였다. 그래서 구역의 전권적인 주인은 위수사령관이 되였고 그 수하에 한개 대대력량을 주었는데 렘께에게는 중대도 채 되지 못하는 인원을 주었을뿐이였다. 이것은 에쓰에쓰근무장교로 하여금 위수사령관에게 완전히 종속되지 않을수 없게 하였으며 그와 계획도 토의하고 행동방향도 받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저러한 작전수행을 위해서 방조를 부탁해야 할 경우도 자주 있었다. 군사등급도 높고 경험도 적지 않게 있으며 나이로 보아도 훨씬 년장자인 그가 그렇게 해야 하는것이였다.

그것을 참는것이 렘께로서는 특히 어려웠다. 그것은 그가 게스타포에서 사업하는 사이에 그의 부서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멸시하며 거만하게 깔보며 그들과는 확연하게 계선을 갈라보는데 습관이 되였기때문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편 사람은 심의중에 있는 사람들이였다. 그는 게스타포에 잡혀온 사람이라면 죄가 있건 없건 누구나 다 첫 부류의 사람으로 보았다. 둘째 부류에는 아직 잡혀가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있는 사람들이 속했다. 총통에 대한 암살사건이 있은 후 렘께는 직무나 군사칭호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을 둘째 부류로 계산하였다.

골드링은 렘께에게 2중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것이였다. 한편으로는 그를 완전히 믿을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사실 골드링은 베르트골드의 양자였으며 렘께는 에쓰에쓰근무의 최고장관을 하느님보다도 더 존경하고있었다. 그것은 하느님이 장령의 견장을 달고있지 않기때문이였다. 다른편으로 렘께는 골드링을 용서할수 없는 자유주의자로 보았다. 그의 교제관계를 보아도 충분히 알수 있었다. 그는 감시를 붙여야 할 대상인 마찌니같은 불온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있다. 또한 그는 류쯔대위와 가장 친근한 우정관계를 맺고있는데 류쯔인즉 의심스러운 인간이다. 죽은 에베르쓰의 부관으로 있을 때 자기 상관의 반역적행동에 대해서 전혀 모를수야 없지 않았겠는가! 렘께에게는 남작이며 더우기 베르트골드의 장래 사위인 골드링이 어째서 매우 의심스러운 인물을 자기 련락병으로 그냥 쓰고있는지 그것이 전혀 모를 일이였다. 조사한바에 의하면 한때 꾸르트 슈미트는 히틀러소년단에 입대하기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도 친절히 대하는 골드링이 어찌하여 그와 친선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렘께의 노력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가?

자기 전임자인 에쓰에쓰근무장교의 금고에는 밀레르가 한때에 베르트골드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있었다. 그 편지사본을 통해서 렘께는 폰 골드링이 항쟁운동참가자의 혐의를 받고있던 모니까라는 처녀와 련애관계가 있었다는것을 알았다. 어찌 이 모든것이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일이겠는가? 그리고 대체로 볼 때 어찌하여 어느 정도 괴상한 사건들은 적지 않게 골드링의 이름과 련결되고있는가?

항상 렘께에게 부아를 돋구군 하는 위수사령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난 후이면 렘께는 흔히 자기 사무실에 들어박혀서 밀레르때부터 준비해둔 헨리흐 폰 골드링에 관계되는 일체자료가 들어있는 문건철을 다시 꺼내보군 하는것이였다. 렘께는 이러저러한 문건을 손에 들고 어찌하여 모든 일이 달리는 되지 않고 바로 그렇게 되였는가 하는것이 리해되지 않아 오래동안 깐깐히 읽어보군 하였다. 례컨대 쎈—레미부근에서 살해된 두명의 도이췰란드장교에 대한 레베끄의 편지가 에쓰에쓰근무성원중의 누구에겐가 가지 않고 헨리흐의 손에 들어가게 되였는가? 사실 레베끄는 게스타포에 봉사하겠다고 제기한 사람이고 앞으로 게스타포의 망원이 될것을 희망한 사람이였다. 에쓰에쓰근무일군의 복장과 도이췰란드군대 장교복장을 틀림없이 구별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어찌하여 바젤이란자에 관한 문건에는 (그는 암살기도를 하였다는 죄과로 골드링자신이 체포해온자였다.) 피검자에 대한 심문기록이 없고 날자와 《숙청함》이라는 기록만 있는것인가?

렘께는 이러한 사업상 생기는 의문에 대해서도 베르트골드가 무서워 자기 상급장관에게도 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해서 골드링에 대한 그의 증오심은 더욱 커지는것이였다. 그럴수록 무력한 자기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바로 오늘도 그 거만한 남작에게 노여움을 숨기고 양보하지 않을수 없었다. 렘께는 이딸리아전선이 북부에 더욱 가깝게 이동된만큼 그전 이딸리아군대 병사들중에서 지원병부대에 들어가지 않은자들을 즉시 도이췰란드로 끌어내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작전을 하루밤사이에 은밀하게 수행함으로써 지방주민들이나 더우기 빨찌산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하는것이였다. 작전의 규모로 보아 이딸리아병사들의 경비문제는 특별히 긴박하게 제기된다는것이 뻔하였다. 그래서 렘께는 모든 현존군사력량을 자기 수하로 넘겨달라는 요구를 골드링에게 제의하였다. 그러나 골드링은 에쓰에쓰근무장관에게 흑샤쯔단중대만 넘겨줌으로써 본질상은 거부한것이였다.

《나자신도 복잡한 작전을 할게 있어서 그럽니다.》하고 그는 설명하였다.

렘께는 그 말의 용허할수 없는 경멸적인 어조를 회상하면서 격분을 참지 못했다. 아니다, 베르트골드에게 직접 제의하는것이 옳을것 같다.…

혹시 다시한번 그 골드링과 담판을 하고 툭 털어놓고 이야기해볼것인가?

렘께는 그의 사무실과 위수사령관의 사무실을 련결시키고있는 직통전화를 걸었다.

《폰 골드링대위는 지금 레로씨댁에 가셨습니다.》하고 녀성통역원이 대답했다.

렘께는 화가 나서 송수화기를 집어던지고 초인종을 눌렀다.

저녁때까지 위수사령부에서 일하고있는 이딸리아녀자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올것을 명령해야 하겠다. 그 녀자는 전에 라모니백작의 성에서 녀종노릇을 하였다.

골드링과 늙은 레로와의 친선관계도 역시 렘께의 눈에는 거슬렸다.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맺은 얼마전에 있은 결혼식에 갔다온 후 렘께는 두번 기사를 방문하였으나 두번 다 그를 아주 랭랭하게 대하는것이였다. 솔직히 말한다면 렘께가 아프레도 레로를 더 가까이 알자고 하는것은 그 기사라는 인물에 개인적인 흥미를 느껴서가 아니라 에쓰에쓰근무장교의 금고에 보관되여있는 특별명령서때문이였다. 그 명령서에는 레로를 백방으로 보호하며 무슨 일이 있든지 흥분시키지 말것이 지적되여있었다. 이 명령서는 최고지휘부의 참모실에서 나온것이였다. 다시말해서 그 기사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인물이 렘께와 인사하러 나오지도 않는것이였다. 그가 두번째 방문을 하였을 때는 꾸비쓰와 그 부인이 함께 객실에 앉아있었다. 골드링에게는 그 독립가옥의 문이 항상 열려있고 위수사령관은 거의 매일 저녁 그 집을 다니고있다. 젊은 장교와 늙은 기사사이에 어떻게 그런 친선관계가 맺아졌는지?

렘께는 레로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폰 골드링남작을 바꾸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위수사령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울렸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한가지 긴급한 일때문에 당신과 만났으면 해서 그럽니다.》

《반시간후에 제 사무실에 있겠습니다!》 골드링은 간단하게 말해버렸다.

《그 시간에 올수 있겠는가 묻지조차 않는군!》하고 렘께는 언짢게 생각했다.

그러나 정세는 에쓰에쓰근무장교로 하여금 분노를 참아넘기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반시간이 지난 후 그는 벌써 위수사령부에 가있었다.

그곳 성원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지나서 위수사령관실앞에 있는 응접실문을 당기였다. 문은 닫겨있었다.

《잠간만 계십시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통역원녀성이 길을 비켜주며 렘께를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는 통역원녀성을 본척도 안하고 그냥 지나갔다.

골드링은 이미 레로에게서 돌아와 그를 기다리는 동안 신문을 펼쳐들고있었다.

《우리 군대가 아르젠나흐에서 영미군에게도 굉장히 육박했군요!》 헨리흐는 인사대신 이렇게 말했다. 《오늘 신문을 읽었습니까?》

《아직 못 읽었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거야 빼놓지 말아야지요. 무엇보다먼저 그걸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력이 더 나지요. 최근에는 그리 기쁜 소식이 자주 오는게 아닌데요.》

《우리의 신형무기에 겁이 나서 영국군이 전쟁에서 물러서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것은 아르젠나흐의 사건보다 훨씬 더 가까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교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이 더 가까울수 있겠습니까? 더 말할게 없이 전선에서의 사건이지요.》

《그건 말장난이지요, 골드링!》

《폰 골드링입니다!》하고 헨리흐가 바로잡아주었다.

《만일 원하신다면 폰 골드링… 그러나 나는 언쟁하러 온것이 아니라 장교대 장교로 당신과 이야기할게 있어서 왔습니다.》

《어서 말씀하시오, 렘께씨.》

《내 생각에는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사업에 지장을 주는것 같습니다.》

《나는 조금도 그런게 없는데요!》

《그러나 나의 사업에는 지장이 매우 많습니다. 나는 조국과 총통에 대한 당신의 책임감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극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는것만큼…》

《그런 설교 없이는 안될가요?… 나는 당신을 유능한 게스타포장교로

인정하고있지만 설교가로서는 그닥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렘께는 분노를 참느라고 입술을 깨물었다.
《폰 골드링씨,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할 기회를 드리고 타협해보자고 합니다. 만일 오늘의 우리 담화가 소기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나는 긍정적결과를 념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는수없이 당신에 대해서 상부에 신소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직히 경고를 드립니다.》
《그거야 당신의 권리이며 의무이지요. 그러나 나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사업에서 일치한 보조를 취하자는것입니다.》
《나 역시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것 같지 않는데요. 어째 그런지 그 원인은 모르겠지만 나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적의는…》
《그 원인을 모르시나요? 온순한 양처럼 가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투와 리해되지 않는 암시에 나는 놀랄뿐입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줄수 없을가요?》
《물적증거를 보일수 있지요.》
헨리흐는 주머니에서 한주일전에 로르헨에게서 온 편지를 꺼내서 소리내여 읽기 시작하였다.
《〈아버님께 일러바치진 마세요. 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를 몰래 읽었답니다. 저는 너무나 불안을 느끼게 되였기때문에 할수없이 당신께 말씀드리는바이예요. 저는 당신이 거처하고계시는 성에 있다는 백작의 조카따님 마리야—루이자때문에 근심하고있어요. 아버님은 그녀자가 젊고 미인이고 당신이 그 녀자와 산보하는걸 보았다는 편지를 받게 되였대요. 아마 그 녀자때문에 그렇게 오래동안 오시지 않는게 아닌지요. …〉》
《어떻게 생각합니까, 렘께. 만일 그런 편지를 당신 부인한테 보냈다면 당신은 나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겠나요?》
렘께는 얼굴을 붉혔다.
《나는 당신의 약혼녀에게 그런 편지를 보낸건 아닙니다. 베르트골드 소장님께 보냈지.》
《그래 그것은 장교로서 응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베르트골드님께서는 그것을 저의 의무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밀고를 쓰는것을… 그것을 밀고라고 밖에는 달리 부를수 없다는것을 동의하겠지요! 사실 당신은 마리야—루이자와 슈쩬겔의 관계를 알고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밀고를 써보내다니…》

《베르트골드님께서 아마 저의 편지를 잘못 리해하신것 같습니다. … 아마 어떤 글줄에 대해서는 자의대로 암호풀이를 하신것 같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러한 오해를 낳게 하였다면 나는 장교의 언약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당신에 대한 말을 일절 안할것입니다. …》

《장교의 언약을 믿겠습니다. 나는 숨길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걸음마다 나의 뒤를 따르는것은 나의 인격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반복해 말하지만…》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되였다고 봅니다. 이젠 다른 문제를 토의합시다. … 그래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모든 행동을 일치하게 하며 호상 방조하는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밤 나는 이전 이딸리아병사 한개 대대를 카스텔리 라 폰테에서 에브레이까지 보내야 합니다.》

《몇시에요?》

《22시 30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당신이 주기로 약속한 흑샤쯔단중대외에 도이췰란드병사 한개 소대만이라도 주십시오.》

《락하산병을 가져가십시오.》

《난 그 무용가들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이췰란드렵기병소대를 드리지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호상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나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하게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당신께 얼마나 호의를 가지고있었는가 하는것은 이미 알고있을줄 압니다. 만일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면 당신이 나의 아버지, 장인(하여튼 적당히 부르십시오.)에게 보낸 편지에 죄가 있습니다. 나는 남

의 감시를 받는걸 참을수 없습니다. 미리 경고해드리는바입니다.》
《약속합니다. 그런 일이 금후엔 없을겁니다. …》
《그러면 합의가 된셈이군요!》
《남작, 나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고 합의를 가질수 있게 된것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렘께는 헨리흐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제 지휘관들을 당신의 지시를 받도록 보내지요.》
《그러나 임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작전이 시작될때까지 그들이 알아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에브레이까지 소풍이나 하러 가볼 생각은 없습니까?》
《거긴 내 구역이 아닙니다. 더우기 나는 저녁때 바쁜 일이 있습니다.》
헨리흐는 집으로 가지 않고 위수사령부에서 곧바로 레로에게로 갔다. 그와 하던 이야기가 뜻밖에 렘께때문에 중단된것이였다.
《내 말 듣소, 꾸르트! 나는 오늘 레로어른댁에서 자고 오기로 그와 약속을 하였소. 그 어른은 몸이 불편해하오. 그러나 밤에 나에게 전화가 올수 있으니까 자네가 내 사무실에서 쉬오. 만일 렘께가 에브레이에서 전화를 걸어오거든 내가 있는 장소를 그에게 말하오.》
《렘께님이 에브레이에 있습니까? 난 여기서 본것 같은데…》
《오늘 밤에 아직까지 병영에 감금했던 이딸리아병사들을 그쪽으로 가져가오.》
《그들이 도망치지 않을가요?》
《에쓰에쓰대원외에 렘께는 우리에게서 흐샤쯔단중대와 도이췰란드병사 한개 소대를 가져갔소.》 헨리흐는 웃음을 숨기느라고 얼굴을 돌렸다. 꾸르트는 마치 단순한 호기심에서 묻는듯 하면서 이딸리아병사들의 운명에 대해서 몇번인가 물었다. 헨리흐는 그가 리지야의 위임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것을 알았다.

아프레도 레로는 벌써 한주일동안 앓는체 하고있었다. 최근시기 그는 심장이 아프다는 구실을 대고 보통때의 조심성도 잊어버리고 자주 집에 있군 하였다.

《나는 드디여 기진맥진해서 낡아빠진 말처럼 덜컥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것 같소.》하고 그는 헨리흐에게 불평을 말했다.

그러나 로인은 사실 그렇지도 않았다. 그는 딸이나 사위에게까지 그런 꾀를 쓰게 된 원인을 숨기고있었다. 아프레도 레로는 아마 일생에 처음으로 공식이나 도면이 아니라 생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것 같았다.

극히 최근에 로발명가는 과학이라는것은 정치나 생활우에 높이 서있으며 항상 그렇게 서있을것이라는것, 학자들은 예술가들과 같이 그들의 환상이 나래치는것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도록 상아탑에서 살아야 한다는것을 헨리흐에게 론증하였다. 레로는 자기가 일하고있는 공장까지도 일종의 탑으로 생각하였으며 그 굳건한 벽안에 들어가있으면 사색이 나래치는것을 방해하는 시시한 일들이 침습하는것을 막을수 있다고 느끼는것이였다.

그런데 그 탑에 균렬이 생겼으며 그 든든한 벽이 흔들리기 시작한것이였다.

오늘 렘께의 전화가 오기 전에 레로는 그를 흥분시키는 화제에 대해서 조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헨리흐가 불리워간것이였다. 그래서 로기사는 다시 홀로 자기 생각에 잠기게 되였다.

그는 공장에서 가지고온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다음 그것을 집어넣고나니 오늘은 일을 더 할것 같지 않았다. 래일 아침부터 생신한 머리로 모든 계산을 검열하기로 결심하였다.

전에는 그런 자료들을 한번도 집에 가져온 일이 없었다. 그가 앓을 때조차 그러하였다. 슈쩬겔은 언제나 변함없이 저녁이면 그 자료를 걷어가지고 가서 밤동안 공장에 있는 특별금고에 보관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꾸비쓰는 장인에게 다소 묵과해주었다. 그것은 물론 자기자신의 리해관계가 있기때문이였다. 그는 기회가 좋은 어느날 필요한 도면들과 계산들을 얻어낼수 있으리라는것을 기대하고있었다. 사실 그는 기술에 대해서, 특히 무전기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으며 고등수학도 몰랐다. 그러나 빠울 꾸비쓰는 어떻게 해서나 사진을 찍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물론 그는 헨리흐를 믿었다. 헨리흐는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더 말할것도 없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지 알것이다! 물론 꾸비쓰는 문건들을 자기 손에서 절대로 내놓지는 않을것이다. 그가 그런 머저리

는 아니다. 그저 헨리흐에게 보이고 조언을 해달라고 할것이다. …

딸을 시집보낸 후 레로는 1층만 자기가 쓰기로 남겨놓았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서재에서 살았고 식당으로 다녔으며 젊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때나 손님이 왔을 때 객실에 가는 일이 있을뿐이였다. 1층의 나머지방들에는 경비원들, 심부름군들이 자리잡고있었다.

오늘 레로는 자기 서재에 홀로 있는것이 특별히 외롭게 느껴졌다. 그렘께에게 전화를 걸어봐야 하겠다. 골드링이 돌아오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아! 저게 아마 그가 아닌가! 바로 그이군!

《일이 다 끝났겠지요?》하고 레로가 물었다.

《오늘 일은 다 끝냈습니다. 여기서 자고가도 됩니다.》

《그거 아주 잘됐습니다! 이제 저녁식사를 합시다. 잠이 잘 오게 한잔 마십시다.》하고 레로는 기뻐하였다.

《저는 모르모트처럼 잘 잔답니다.》

《젊음, 젊음때문이지요! 그런데 나는 잠이 오지 않거던요!》

《아마 지나치게 일을 하신때문이겠지요. 정상상태로 돌아오자면 수면제를 잡수셔야 합니다.》

《수면제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고있는 생각때문에 잠들지 못하는것입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가요?》

레로는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에 잠겨 방 한구석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야기를 계속할것인가 말것인가 망설이는듯 담배를 몇번인가 빨았다. 그러나 누구인가를 믿고 살고 누구인가와 의논하고싶은 요구가 너무 컸기때문에 레로는 그냥 견딜수 없었다.

《당신은 얄따회담결정을 아십니까?》 그는 헨리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읽긴 읽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이미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위 전범자처벌에 관한 내용이 서술된 결정은 잊어버릴수 없을것입니다.》

《그건 선언한데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전쟁이니까요. 력사는 그런 례를 모르니까요. …》

《그렇지요, 그들은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누가 범죄자고 누가 아닌가를 재판할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마치도 그 악명높은 회담의 결정이 직접 당신께 저촉될수 있는듯이 말씀하시는군요.》

《그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는 나도 관계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괴상하게 들리든지간에… 전혀 무의미하다고만 할수도 없지요. … 만일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모르겠는데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레로는 생각에 잠기였다.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에 그 목소리는 의혹에 젖어있었다.

《남작, 당신의 겸손성은… 그렇소, 당신은 겸손하기때문에 우리 담화들에서 한번도 공장에서 하는 나의 사업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로씨, 그것은 겸손성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저는 저에게 관계되지 않는것은 알고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관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당신께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리해를 하지 못하니까요.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 사이니까 하는것이고 다른데 새나가면 안될것입니다. 이야기인즉…》

《어서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시작한다… 차라리 말씀해주시오. 당신은 비행하는 포탄으로 영국을 폭격한 어제 보도를 읽었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때 희생이 얼마 났는지 주의를 돌렸습니까?》

《주의를 돌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개 포탄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낼수 없었습니다.》

《내 죄는 거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죽인것입니다!》

《레로씨, 몸이 불편하신것 같습니다. 피로하셨고 지내 흥분하셨습니다.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씀하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일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십시다. …》

《아니요. 나는 아주 건강하오. 벌써 며칠째 환자인척 하고있을뿐이요. … 그렇소, 앓는척 하고있단 말이요! 공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레로선생님!》

《다시 말하겠소. 나는 아주 건강하오. 리성이 완전한 상태에 있소.

비행하는 포탄을 무전으로 조종할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낼수 있을만큼 완전한 상태에 있소. …》

《당신이요? 아프레도 레로씨가요?》

《보시오, 당신은 믿지 않는군요. 놀랐습니까. … 그러나 나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결코 겁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물어봅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였는가고. 첫째로는 아마 순전히 그 사상자체가 나의 흥미를 끌었기때문인것 같습니다. … 나는 나의 발명품이 실천상 어떻게 적용될것인가 하는것을 한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군수공장에서 일한다는걸 알고있었고 나의 기구를 리용해서 비행포탄을 사람의 마음대로 날려보낼수 있다는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포탄이 목적한 대상물에 정확히 명중하게 하지는 못했으나 일정한 주민지점으로 포탄을 날려보낼수는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다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그것을 리론적으로 알고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두뇌를 바쳤고 그 이외의것은 다 그들이 한 일이였습니다. 나에게는 그 무기를 누가 사용하든지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반대해서 쓰던지… 그러나 그것은 아마 내가 겁내지 않았기때문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았기때문이였던것 같습니다. 나는 나에게 책임을 추궁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던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숨어있던 담벽이 무너지는것을 보았고 나도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지요. (아마도 그들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손을 바쳤을뿐이지만 나는 두뇌를 바쳤으니까요. 지금 나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레로선생님!》 헨리흐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 만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줄수 없을가요?》

《내 생각엔 선생님께 한가지 출로가 있을것 같습니다.》 헨리흐는 레로의 눈을 주의깊게 바라보며 말을 끊었다.

《어떤것인가요?》

《전쟁은 종말이 가까와오고있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아주 귀중합니다. …》

레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당신은 례컨대 스위스와 같은 어떤 중립국으로 피해가서 출판물에 항의문을 공개해야 할것입니다. 강제에 못이겨 하였다는것을 리유로 삼고 말입니다. 당신의 발명품이 주민지점을 파괴하거나 평화적주민들을 살해하는데 리용되는것을 반대해서 항의한다고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에 대해서 지금 언명한다면 당신의 말을 믿을것입니다.》
《당신 말이 옳소!》
《그러나 당신은 설계도면, 공식 등 일체 당신의 발명품과 관계되는 것을 당신이 가지고있는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자료를 얻어내는것이 각별히 힘들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다 공장에 보관되여있기때문에… 그러나 할수 있지요.》
《나에게 사진사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걸 집에 둬두어도 일없겠습니까?》
《잘 숨겨놓았습니다. 책이 많이 있으니까 힘들지 않게 숨길수 있습니다. … 내가 말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알아내지 못할겁니다!》
《그렇다면 오래동안 주저할게 없을것 같습니다! 결국 당신은 자기자신을 구출할뿐아니라 수십만의 무고한 사람들도 구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조직한단 말입니까? 당신도 아다싶이 나는 감시를 받고있습니다.》
《계획을 충분히 생각했다가 가까운 시일에 당신께 말씀드릴것을 약속합니다. 물론 내 힘자라는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고결한분이라는걸 알고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엔 오래간만에 잠을 잘수 있을것 같군요!》
헨리흐는 서재옆에 있는 방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여러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떠올라 오래동안 침대에서 이리저리 돌아누웠다. 그는 마침내 목적에 접근한것이였다. 그는 꿈속에서까지도 어떻게 해야 필요한 자료를 얻어낼수 있겠는가 하는 계획을 계속 세워나갔다.
3시쯤에 절반 옷을 걸친 꾸비쓰가 헨리흐를 깨웠다.
《방금 꾸르트에게서 전화가 왔네. 렘께가 당신께 사람을 보내왔다더군.》
《그 사람이 어디 있나?》
《꾸르트가 지금 차에 태워 데리고 온다고 했소.》

헨리흐는 급히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도면은 도서실에서 찾게. 책사이에서… 사진사본일세. 혹시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것일수 있소. 찾거든 나에게 보여주오. 진짜인지 아닌지 함께 검열해봅시다.》 헨리흐는 몸차림을 하면서 꾸비쓰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당신께 줄순 없소.》 꾸비쓰는 의혹을 품고 속삭였다.

《내가 그건 해서 무얼하겠나! 나야 당신때문에 걱정하는거지! 망신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오. 혹시 발명품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진사본일수도 있으니까. 만일 그렇다면 또 찾아보아야 하거던. 당신이 일생을 먹고 살아나갈것이 나오겠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겠소? 난 벌써 부자가 된 당신을 보는것 같소. 당신이 빚을 갚는것도 또 1년쯤 연기해주자고 하오. 물론 당신의 지불능력에 대해서 믿을수 있을 때 말이요.》

보낸 사람을 통해서 렘께는 빨찌산의 매복에 걸려들어 가렬한 전투를 하고있으니 즉시 지원병을 보내줄것을 부탁하였다.

야간전투에, 더구나 빨찌산의 편에서가 아니라 렘께의 편에서 전투에 진입하는것은 헨리흐가 전혀 원치 않는 일이였다. 그러나 정세는 의심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급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요구하였다. 락하산병들과 카스텔리 라 폰테에 남아있는 도이췰란드렵기병 두개 소대를 비상경보로 일으켜세워야 하였으며 동시에 모든 방법을 다해서 자기자신이 내린 명령의 집행을 한편으로 제지시켜야 하였다.

헨리흐는 소대장들에게 모든 자동무기의 검열을 실시케 하였으며 검열시에 나타난 사소한 부족점도 시정하게 하였다. 무기도 다 준비되였을 때 골드링은 예비용탄약을 가져올것을 명령하였다. 그것을 가져오느라고 또 창고까지 달려갔다와야 하였다. 그때쯤에 한대의 장갑수송차의 발동기에서 의심스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다.

…헨리흐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렇게 만든 놈을 재판에 걸겠다고 소리지르고 위협하고 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출발이 지연되는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였다.

렘께를 도우러 떠나는 부대는 5시가 되여서야 출발하였으며 아침

6시경에야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전투가 끝난 뒤였다. 총소리가 이따금 들리기는 하였으나 빨찌산은 보이지 않았다.

헨리흐는 멀리서 벌써 렘께의 호리호리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딸리아병사들의 전사자와 부상병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아직 명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권총을 쏘고있었다.

헨리흐를 보자 렘께는 급히 그에게로 가까이 와서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이야기하였다. 이 카스텔리 라 폰테를 떠날 때 그는 몇명의 오토바이병을 앞세우고 뒤차는 앞의 차를 볼만 한 거리에서 달리라고 명령하였다. 철갑수송차 역시 마지막오토바이병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하였다. 카스텔리 라 폰테에서 30키로메터쯤 와서 렘께가 에브레이까지 무사히 도착했구나 하고 생각할 때 종대 오른쪽측면으로부터 빨찌산기관총과 자동총사격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예광탄이 넓은 폭으로 떨어졌다. 빨찌산들은 오토바이 선두척후를 통과시켜놓고 종대를 익측으로부터 공격한것이였다. 야간전투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딸리아병사들은 뜻하지 않은 공격을 리용해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지금 헨리흐가 보게 된 전사자들은 몇백명의 이딸리아병사들중에서 남은 사람들이였다.

《그러니까 당신은 가리발지대원들과 싸울대신 무장없는 사람들을 매우 성과적으로 쏜것으로 되는군요!》 하고 헨리흐는 좋지 않게 말했다. 그는 격분이 온몸을 사로잡는것을 느끼였다. 마음같아서는 침착하게 담배를 빨고있는 이 괴물을 권총으로 쏘아버렸으면 시원할것 같았다. 그러나 참아야 하였다. 그래서 아주 가라앉은 목소리로 헨리흐는 물었다.

《추격을 조직할가요?》

《지금 추격을 하는것은 너무 위험할것 같습니다. 안개가 걷힐 때까지 기다립시다.》

결국 오래동안 기다려야 하였다. 안개가 몹시 끼는 날이여서 두어시간후에야 렘께와 골드링은 자동총수들을 데리고 종대를 습격하던 빨찌산부대의 진지를 돌아볼수 있었다.

《이걸 보시오, 그들의 진지는 잘 위장되여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놓은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우리 종대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 하고 렘께는 악이 나서 말했다.

《누가 그들에게 미리 알려준것 같군!》 하고 헨리흐는 침착하게 확인

하였다.

추격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도 없었다. 안개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이런 조건에서 산속으로 들어가는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였다. 빨찌산은 몇십명의 자동총수만 가지고도 렘께와 헨리흐의 대부대를 다 막아낼수 있을것이였다.

《그런데 누가 빨찌산에 알렸을가?》 렘께는 지휘차에 함께 앉아 카스텔리 라 폰테에 돌아오면서 스스로 자문하는것 같기도 하고 헨리흐에게 묻는것 같기도 하게 이런 말을 하였다. 《그날 밤 당신은 이딸리아사람들을 출발시킨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사람에게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굴가?》

《어째서 당신은 빨찌산에게 알려줄수 있는 사람이 당신주위에 있는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일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도이췰란드사람들이지만 당신두리의 사람들중에는 이딸리아사람들도 있으니 말이지요.》

《총통에 대한 암살사건이 있은 후에는 도이췰란드사람들이라고 다 믿어선 안됩니다. 충실성을 담보하는것은 민족이 아니라 견해의 차이입니다.》

렘께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세상만사가 다 귀찮았으며 특히 자기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다. 골드링도 이딸리아병사를 옮겨갈 때 함께 있었다고 주장해야지 그러지 않았다가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걸머지게 될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상관앞에 변명을 해야 할것이고 골드링은 방관자의 립장에 서게 된다. 사실 습격이 있은것은 그의 담당구역밖이였다.

헨리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그가 전투장에 당도했을 때 맞다들었던 광경이 계속 얼른거리였다.

몇십명의 이딸리아사상자들이 누워있고 그 사이에 권총을 들고 렘께가 서있었다. …

《당신 통역원녀성이 믿을만 합니까?》 그들이 카스텔리 라 폰테에 거의 들어섰을 때 뜻밖에 렘께가 물었다.

《위수사령부에 데려오기 전에 몇번 검열해보았습니다. 또 실지 사업에서도 검열했지요. 그 녀자는 라모니백작의 평정서에 전적으로 부합됩니다. 매우 좋은 녀자지요.》

《난 그 녀자가 어쩐지 의심스럽군요.》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시한번 검열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상우에 무슨 비밀문건을 놓고 잊어버린듯이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헨리흐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헨리흐는 꾸르트를 보았다. 그는 굳어진 얼굴로 운전대를 잡고있었다. 헨리흐는 몇분후에 이 이야기가 리지야에게 알려지리라는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때 꾸비쓰가 쾌활하고 흥분된 기분으로 문자그대로 헨리흐에게 나는듯이 달려들어왔다. 헨리흐의 심장은 미친듯이 방망이질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모든 노력과 사색을 바쳐왔으며 자기의 모든 행동, 지어 생명까지도 바쳐온 그 일, 실현불가능하지나 않을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조이던 그 일이 과연 이루어졌단 말인가?

꾸비쓰의 외관도 그의 거동도 바로 그렇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꾸비쓰는 옆방인 침실을 들여다보고나서 문을 꽉 닫고 그다음 자기가 방금 걸어들어온 복도를 다시한번 내다보고나서 자물쇠고리를 내려놓았다.

헨리흐는 감정을 억누르고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그의 거동을 보고있었다.

《꾸비쓰, 당신은 보통때 당신같지 않구먼! 무슨 음모나 하는 사람같소! 무슨 초자연적인 일이라도 일어났소?》

꾸비쓰는 권투선수가 승리했을 때 하는 모양대로 오른팔을 들어올리고 왼손으로 팔목언저리를 둘러잡고 공중에서 흔들었다. 그다음 역시 말없이 자기 군복주머니를 두드렸다.

《아니, 어쩐 일이요? 갑자기 벙어리가 됐소?》

꾸비쓰는 웃으며 안락의자에 쓰러졌다.

《여기 있네, 남작.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다 있단 말일세.》 그는 주머니를 다시한번 두드리고나서 승리자연하면서 의자등받이에 몸을 젖히고 앉았다.

《그것이라니 무어란 말이요?》

《사진복사! 이래두 나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못하겠소?》

《그에 대해서야 항상 높이 평가해왔다고 말할수 있소. 그래 정말 성공했단 말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어째 당신은 나를 축하해주지 않소?》

《무엇을 축하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소. 사실 당신은 기술문제에선 목석이나 다름없으니까! 늙은이들에겐 괴상한 성벽이 있는 법이라오. 레로가 혹시 자기 발명품에 대한 최초의 도면들을 기념으로 보관해둘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것이거던. 혹은 어떤 새로운 연구에 대한 자료인지도 모르고…》

그런 추측을 한마디 듣자 꾸비쓰는 창백해졌다. 그는 이미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게 되였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이제는 그 보물이 손에서 떨어져나간것만 같았다.

《아—아니…그럴…수 없어!》 그는 떠듬거렸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뒤섞인 불안감이 더욱 력력해지는것이였다.

《한번 감정해보자구.》

꾸비쓰는 옆주머니에서 종이에 싼 뭉치를 꺼내더니 안심치 않은 눈길로 헨리흐를 보았다. 지금 그의 눈에서는 공포와 불안뿐아니라 불신의 기분이 어리여있었다.

헨리흐는 껄껄 웃고나서 어깨를 으쓱해보이며 말했다.

《꾸비쓰, 나는 화가 나서 당신을 그 사진사본과 함께 내쫓을수 있소. 그까짓게 나에게 무슨 흥미가 있겠소. 결국 당신이 나에게 진 빚을 갚을수 있겠는가 하는 견지에서나 관심이 있다고 할가? 나는 당장이라도 당신을 여기서 내쫓고도싶지만 그러나 지금 당신의 심정이 어떠하리라는걸 리해할수가 있소. 하여튼 좀 봅시다.》

꾸비쓰는 사진사본을 한장씩한장씩 내주기 시작했다. 헨리흐는 그것을 왼손으로 받아쥐고 옮겨놓군 하면서 오른손은 군복단추에서 떼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도면이나 개별적공식을 마치 연구나 하는듯 일부러 한참동안 들여다보기도 하였다.

《이것도 필요한거요! 한개 부분품의 연구자료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오. 비록 결정적의의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

내가 방금 본 그 사진사본에 중요한것이 들어있소. 그걸 특별히 잘 간수하오. 사실 나도 전문가가 아닌만큼 한번 보고 충분히 식별하기는 힘들지만 발명품의 주되는 내용이 그안에 있는건 더 말할게 없소.》

마침내 모든 사진사본을 다 보았다.

《이젠 당신을 축하할수 있소! 당신은 자기가 얼마나 굉장한것을

손에 넣었는지 상상도 못할거요.》 헨리흐는 꾸비쓰와 알게 된 후 처음으로 진정어린 기쁨을 안고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꾸비쓰는 또다시 행복에 겨워 어쩔줄 몰랐다. 그 보물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 헨리흐가 그것을 탐내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하고나서 꾸비쓰는 헨리흐에 대한 진정으로의 감사를 느끼게 되였으며 몹시 감동되여 말하였다.

《나는 우정을 믿지 않았댔소. 헨리흐, 나는 세상의 모든것을 다 믿지 않는다 해도 당신이 나를 위해서 힘써준것만은 믿어야 하오. 사실 나는 그것을 결코 잊을수 없소. 나에게 쏘피아와 결혼할것을 권고해준것도 당신이였소! 그후에 당장 나는 순풍에 돛단듯 행운아로 되였소! 내가 만일 레로의 딸의 남편이 되지 않았던들 나와 당신사이에 그런 담화도 있을수 없었을것이요. 생각납니까? 잊지는 않았겠지요? 그때 당신은 나에게 자기 장래를 꾸릴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에게 암시해주었지요! 정말 당신이야말로 나의 귀중한 친구요! 당신이 항상 나를 위해 돌려준 돈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소.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 돈의 상환을 1년 연기해주기로 약속한걸 잊지 않았겠지요?》

《내가 그런 약속을 했던가?》

《그렇지않구! 나의 지불능력에 대해서 확인할수 있을 때 그러자구 했지. … 만일 원한다면 리자를 붙여서 돌려주지. 지금도 하자면 할수 있네만 일년후에 하도록 해주게. 지금은 현금이 부족해 그러네. 친구지간인데 당신이 리자를 많이야 받겠나?》

헨리흐는 한순간 리자를 가지고 꾸비쓰와 장사를 계속할가 하는 유혹도 받았으나 그만두기로 하였다. 그는 어서 빨리 손님을 보내는것이 필요하였다.

《참, 생각나오! 당신이 내가 한 말끄리를 잡고 나설줄은 정말 몰랐는데. 어찌겠나, 일단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꾸비쓰는 새 채용증서를 쓰고 낡은것은 찢어버렸다.

《사진복사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손님이 갈 차비를 하였을 때 헨리흐가 물었다.

《잘 숨겨두겠네, 당분간…》

《당신 미쳤나! 그걸 당장 당신이 꺼내온 그 자리에 갖다놓게. 오늘중으로!》

《그건 또 어째서!》

《그것과 작별하고 그것을 손에 쥐였던것을 잊어버리란 말일세! 가령 오늘이나 래일 아프레도 레로가 그 문건이 없어진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소? 그는 무섭게 놀라서 슈쩬겔을 부를것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게 되겠소? 빠울 꾸비쓰이지! 아프레도 레로의 사위이며 동시에 공장내부경비 부책임자일뿐만아니라 레로의 신변과 그의 집의 경비를 맡고있는 사람이 누군가 말이요. …》

《그렇다면 대체 무엇때문에 그 문건을 찾아보라구 조언을 주었나?》

《첫째로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보기 위해서, 둘째로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사본을 찍어내기 위해서, 셋째로는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당신이 알고있어야 그것이 다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감시할수 있기때문이지. …》

꾸비쓰는 이마에 내솟은 땀을 문질렀다.

《사람을 몹시 놀래우는군! 막 숨이 막히는것 같군! 물론 당신 말이 옳네. … 그렇다면 빨리 가야겠군. …》

꾸비쓰가 간 다음 헨리흐는 다시 문을 잠그었다. 마침내 그는 혼자서 기쁨을 즐길수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위임된 과업을 수행하였다. 수행해냈다! 오늘 밤 그는 지정된 장소에 보고하면 된다. 래일에는 현미경사진이 이미 먼곳에 가있을것이다! 높은 담벽도, 기관총의 총구도, 2중의 경비망도 한사람의 의지를 이겨낼수 없었다!

헨리흐는 불을 끄고 창가림을 걷어올린 다음 창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밤의 선기가 시원히 강물처럼 방안으로 흘러들었다. 마치 골계수처럼 흘러드는 그속에 손과 화끈거리는 머리를 잠글수 있을것만 같았다. 그러면 방안에 흘러든 그 물결우에 떠있는 초생달우에서 깜박거리는 별들의 그림자도 손에 잡힐것만 같았다.

별이 반짝이던 또 하나의 밤이 그에게 회상되였다. 그 회상은 그의 가슴을 몹시 아프게 하였다. 쎈-레미에 있을 때 그는 바로 이렇게 활짝 열린 창문앞에 서있었다. 모니까도 함께 서있었다. 그때에도 역시 오늘처럼 별이 총총한 밤이였으며 산중의 화초의 훈향이 취할듯이 풍겨오는 가운데 그들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약속하던 밤이였다. 그 회상은 어찌나 생동하게 떠올랐던지 헨리흐는 처녀의 어깨가 몸에 닿는것을 감촉하

는것만 같았으며 이미 아픔이 아니라 서글픈 그리움과 기쁨이 그의 온몸에 젖어드는것이였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착한것과 아름다운것의 불가분리의 련계를, 이 땅우의 방방곡곡에 있는 각이한 사람들을 정의와 진실을 위한 투쟁에로 이끄는 그 불멸의 힘을 깨닫게 되였다.

헨리흐가 활짝 열린 창문앞에 서있던 바로 그 시각에 그 성의 1층에 있는 슈쩬겔이 들어있는 방에서는 직접 골드링에 관계되는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가 벌어지고있었다.

《그자신이 이것까지는 생각지 못할것입니다.》 렘께는 슈쩬겔을 설복하느라고 한창 말하고있었다. 《그것은 결코 레로자신이 아니라 모두다 그 폰 골드링에 의해서 교묘하게 꾸며진 계획이란 말입니다. 지금 휴가를 신청하다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도주를 준비하는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어요! 당신에게 눈동자처럼 보호할것이 위임된 바로 그 둘도 없는 아프레도 레로가 당신을 얼려넘기자는거지요. 그가 휴식장소를 스위스국경에 거의 린접한 소도시로 선택한것이 우연한 일치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공연히 흥분할게 있습니까, 렘께씨!》 슈쩬겔은 상대편을 비웃으며 말했다. 《최고군부의 승인이 없이는 아무도 레로를 카스텔리 라 폰테에서 한걸음도 나가게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군부는 물론 승인하지 않을거니까요. 그것은 레로가 당신이 말씀하는것처럼 둘도 없는 비범한 존재이여서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의 요구를 혹시 들어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서 빼낼것은 이미 다 빼냈습니다.

귤의 즙을 짜내듯 다 짜냈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의 건강도 그의 기분도 더는 걱정될것이 없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소용되는 동안 그를 붙잡아두고있는것입니다. 나는 결정적행동을 취하기 전에 특별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고있습니다.… 그에게 휴가를 신청하라는 의견을 누가 주었든지 그것은 내게 별로 흥미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작, 당신은 골드링이 당신을 두번 구원해주었다 해서 그에게 감사히 여기는 기분이 앞서기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을 2중으로 파멸시킬수 있습니다. 직무상관점에서와 개인적관점에서 말입니다.》

《흥미있는데요. …》 슈쩬겔은 대수롭지 않은듯 미소하며 말했다. 《나같은 로련한 정보일군이 그따위 젖내나는 애숭이한테 파멸을 당할수 있단 말이지요?》

《나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있다고는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만 그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소평가하고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생각하시는것보다 훨씬 지혜가 있으며 훨씬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론증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가 나를 직무상견지에서 파멸시킬수 있다는 첫 문제를 말씀해보시오.》 슈쩬겔은 야유조로 상기시켰다.

렘께의 얼굴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났다.

《그러지요, 동기는 역시 그 아프레도 레로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최고군부가 그를 휴가보내든 말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문제입니다. 중요한것은 골드링이 도주에 대한 생각을 그에게 넣어주었다는 그것입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생겨난 이상 여러가지 방도를 통해서 그 생각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유를 향유하고있는 경우에 말입니다. 당신은 그를 체포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골드링은 원래 모험을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있기때문에 그 성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언으로부터 행동에로 즉 구체적방조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레로와 가까운 친구입니다! 더우기 골드링은 공장에 대해서나 공장에서 무엇을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물론 그런 불장난을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 그러니 좀 생각해보십시오. 그 레로가 문득 도망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그때에는 당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슈쩬겔은 코잔등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계속하시오!》 그는 간단하게 요구했다.

《이젠 개인적관점에서 봅시다. 마리야—루이자가 당신에 대한 태도에서 변한 점이 있는것 같지 않습니까?》

《내자신이 사실 약혼식을 오래동안 끌어왔소. 그래서 마리야—루이자가 나의 신중한 의도를 확신하게 되자 이번에는 다소간 동요하는듯한 태도로 나에게 복수하자는거지요.》

《당신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까? 골드링자신이 자기 약혼녀인

베르트골드의 딸에게서 온 편지를 나에게 읽어준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가 마리야—루이자와 관계를 맺고있는데 대해서 비난했더군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가지 잊어서 안될것은 매력있는 젊은 과부가 잘생긴 젊은 남자와 한지붕아래서, 이웃방에서 살고있다는 그것입니다. 벌써 그 녀자가 헨리흐를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 끌어들이고 그에게 죽은 남편이 거처하던 방을 내주었다는 한가지만 보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그것이 매우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로르헨이 자기 신랑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것이 백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좌의 얼굴은 불그레하게 상기되였다. 렘께는 자기가 슈쩬겔의 심장의 가장 요진통을 찔렀다는것을 알았다. 그의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려놓은것이였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렘께는 그가 항상 골드링에 대해서 품고있던것을 다 털어놓았다. 골드링의 행동이 때때로 이상하다는것, 그가 친구를 망탕 사귄다는것들도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헨리흐를 옹호하던 슈쩬겔소좌는 렘께의 말을 주의깊게 듣게 되였으며 결국 폰 골드링남작의 행동이 사실 의심스럽다는데 동의하게 되였다.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할 작정이요?》 소좌가 물었다.

《유감스럽게도 나에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러한 직접적인 증거도 내게는 없습니다! 더우기 이 문제에 대해서 베르트골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나와 당신에게 한가지 길이 있을뿐입니다. 소장께 이 실태를 써보내는 길 말입니다. 덧붙여서 말한다면 나는 그의 미래의 사위에 대해서 감시하라는 명령도 받고있으니까요. 결정은 그자신이 하라지요.》

렘께와 슈쩬겔이 밤늦게 이야기를 끝냈을 때 라지오는 동부전선의 1 000키로메터나 되는 전전선에 걸쳐 쏘베트군대가 불의의 공격을 개시하였다는것을 보도하였다.

4월달에 있은 불안한 사건들

카스텔리 라 폰테에 베르트골드가 도착한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뜻밖

이였다.
헨리흐에게 있어서도, 렘께에게도, 슈쩬겔에게도…
베를린을 쟁탈하기 위한 가렬한 전투가 진행되고있었다. 어저께는 엘바강에서 이미 쏘베트군대와 영미군이 상봉하였다. 헨리흐에게는 도이췰란드가 가까운 시일에 항복할것이라고 생각할만 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오늘 아침에 그는 자기 지휘부로부터 즉시 조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르트골드가 나타났다!
헨리흐는 렘께의 전화를 받고야 자기 양아버지가 도착하였다는것을 알았다. 전화종이 울렸을 때 꾸르트와 헨리흐는 먼길을 떠날 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골드링입니까? 소장님께서 방금 카스텔리 라 폰테에 도착하셨습니다. 당신을 만나보시자고 하십니다.》 렘께의 목소리에는 공식적인 기분이 어려있었다.
《지금 거기 계십니까?》
《네!》
《미안하지만 전화 좀 바꿔주십시오. … 아버님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뜻밖에 오셨나요! 어디서 오시는 길이신가요? 어째 곧바로 저에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알았어요. 기다리겠습니다.》
헨리흐는 화가 나서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떠날 준비가 다 되여있는 지금 베르트골드와 만나야 한다는것이 무엇보다도 싫었다. 헨리흐는 오늘 통행금지시간후에 유고슬라비아로 자기를 넘겨주기로 약속된 지점까지 제시간에 당도하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카스텔리 라 폰테에서 사라져버리기로 결심하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이렇게 되다니!
얼마전에 말다툼이 있었을 때 에쓰에쓰 근무장교는 헨리흐에게 자기는 헨리흐의 행동을 이상하게 볼뿐아니라 옳지 않게 본다고 하면서 그 모든 점에 대해서 베르트골드에게 써보내겠다고 위협을 한바 있었다.
(설마 렘께가 위협한대로 실행했단 말인가?) 하고 헨리흐는 스스로 물었다. 혹시 소장이 렘께의 비난이 옳은가 그른가를 직접 확인해보고 자기를 속인데 대해서 골드링에게 직접 복수하기 위하여 온것이 아닐가? 헨리흐는 원쑤의 소굴에서 떠날 시간을 그렇게도 고대해왔

는데 이 최후의 시각이 그의 생명의 마지막시간으로 된단 말인가?… 혹시 그가 쏘베트정탐일군이라는것을 이미 알고 자기가 아들이라고 부르고 사위를 삼으려고 꿈꾸던 그자가 과연 어떠한자인가를 해명하기 위하여 온것이 아닐가? 바로 그렇기때문에 베르트골드는 헨리흐에게 오기 전에 렘께에게 간것이 아닐가?

헨리흐의 머리속에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나 그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

아마 그 대답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것이 아닐가? 이제 베르트골드가 도착하면 다 해명될것이다. 그때 헨리흐는 자기의 행동방향을 결정할것이다. 아직은 한가지만이 분명하다. 헨리흐는 마지막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그것이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조국에로의 출발을 준비하면서 그는 부지중에 마음속으로 자신을 무장해제시키고있었다. 그러나 연극은 끝까지 놀아야 한다. 성격도 행동거지도 변함이 없이! 만일 그가 어떠한 부주의한 몸짓이나 거동 또는 말로 마지막시각에 자신을 탄로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베르트골드가 헨리흐를 에쓰에쓰부대로 부르지 않고 성으로 오겠다고 동의한것 한가지만 보아도 그가 화김에 생각했던것처럼 그렇게 사태가 험악한것 같지는 않다!

뒤일은 어떻게 되든 도망쳐버린다면 어떻겠는가? 자동차에 앉아 꾸르트에게 전속력으로 달리라고 명령한다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베르트골드는 골드링과 함께 그의 2백만마르크가 사라져버리는것을 그냥두지 않을것이다. 그는 도주자를 추격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이다.… 될대로 되라지! 그가 한순간도 몸에서 떼지 않은 권총이 그에게 있다! 만일의 경우에 헨리흐는 전쟁 전기간 처음으로 한탄창을 몽땅 써버릴것이다.

복도에서 무거운 걸음소리가 들린다. 베르트골드 비슷하다! 바로 맞았다!

문을 열고 낯익은 인물이 나타났다. 베르트골드는 품이 넓은 연회색비옷을 입고있었으며 한손에는 같은 색갈의 중절모를 들고 다른 손에는 손잡이가 묘하게 구부러진 굵직한 단장을 집고있었다. 베르트골드의 눈은 보통때보다 더 불그레해보였으며 얼굴에 피로의 기색이 완연하였다.

《아버님!》하며 헨리흐는 그에게 달려갔다.

베르트골드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러나 보통때처럼 입을 맞추지는 않았다.

《여기 오래 계시게 되나요? 왜 사복을 입고 오셨어요?》

《어디로 떠날 준비를 하는것 같구나?》 베르트골드는 대답대신 방 한가운데 놓인대로 있던 두개의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어째 저걸 치울 생각을 못했을가?) 하고 헨리흐는 속으로 자책하였다.

《그래요, 아버지. 저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대로 스위스로 떠날 준비를 항상 갖추고있답니다. …》

《도망치자구!》

《이건 도주라고 볼수 없다고 봅니다.》

베르트골드는 심술궂은 미소를 지었다.

《모두 도망치누나! 모두! 침몰하는 배의 쥐새끼들처럼.》 그는 침통하게 말했다.

《그러나 배가 사실 가라앉고있으니까 자신을 구원할 방도를 생각할때인것 같습니다. …》

베르트골드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할 때면 그러듯이 입술을 깨물며 이따금 불그레한 코수염을 뽑기도 하며 앉아있었다.

《헨리흐, 난 네가 하는 일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너의 몇가지 행동은 전혀 리해가 안된다. 나는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 네가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걸 원하고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렘께는 내 말이라면 갖은 나쁜 말을 다하고있다는것을 알기때문이지요. 저는 그가 사업상 범하고있는 용서할수 없는 과오에 대해서 몇번 지적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새기지 못하고 앙심을 먹고있지요. 원래 사람이 잘고 복수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재간이 없는 사람이지요.》

《렘께에 대해선 후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너자신에 대한 말이나 하구, 너의 통역원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새 리지야가 없어진것도 일러바쳤구나. 그렇다면 아무것도 숨길게 없다. 전투를 해야 한다. 솔직성으로 베르트골드가 아연실색케 해야 한다. …)

《어째 말이 없는가? 그 녀자가 도망치는걸 도와주었지?! 또 련애문제인가?》

《련애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는걸 도와준건 사실입니다.》
소장의 얼굴에서는 조소하는 미소가 사라져버리고 헨리흐가 타산한대로 그는 아연실색한 모양이였다. 그것은 베르트골드를 계속 공격하려던 립장에서 물러서게 하였다.
《마치 그 일에 대해서 보통 흔히 있는 일을 보고나 하듯이 말하는군, 변명조차 하려고 하지 않고…》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지금 저의 앞에 앉아계신분은 소장인것이 아니라 저의 양아버지이시며 장래의 장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 털어놓고 말씀드릴수 있다고 믿습니다.》
베르트골드는 놀램과 호기심에 찬 눈길로 헨리흐를 바라보았다. 헨리흐는 그 시선을 침착히 견디여냈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저는 몇번인가 그 녀자를 검열해보고 그 처녀에게 아무 죄도 없다는걸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저는 렘께가 게스타포에서 그 녀자에게 고통을 주게 하고싶지 않았습니다. 그 녀자는 오래동안 싫다는것을 내가 겨우 설복해서 통역원으로 데려왔거던요. 저는 절대로 위험한 일이 없을거라고 장교의 언약을 했던것입니다. 저는 장교의 언약을 늘 지켜왔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정이 이렇습니다.》
《너의 친구 마찌니는 어디 있는가?》
《어저께 렘께한테서 마찌니가 빨찌산병원에서 일하고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의 둘째 친구 류쯔는? 그는 어디 있어?》
《스위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래 너는 그 두사람도 도와주었는가?》
《류쯔도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믿고있습니다. 나는 그와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여있습니다. 그러나 마찌니에 대해서는 그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있다는것도 몰랐습니다. 제 책상서랍에는 그가 도망치면서 놓고 간 편지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마찌니가 왜 갔는지 아실것입니다. … 당장 그 편지를 찾아보지요.》
베르트골드는 황급히 헨리흐를 제지시켰다.
《난 지금 그런걸 다 볼 경황이 없다! 렘께가 너를 체포해서 심문하

겠다고 문제를 세우고있는것을 아는가?》

《그럴줄 알았어요. 내가 이미 말씀드린것처럼 우린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그가 아버님의 승인이 없이는 감히 그렇게 못하리라는것을 믿고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너의 우둔한 행동에 대해서, 범죄를 범한것까지도 옹호해줄줄 알았는가? 이 윌헬름 베르트골드가?》

《아닙니다. 저는 아버님이 자기 코앞의 일도 잘 보지 못하는 그 렘께라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시야가 넓으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렘께는 개괄해보는 능력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렘께는 건드리지 말아. 그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것이니 너는 너의 행동이나 잘하란 말이다. 나는 지금 철학을 론의할 시간이 없다.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너는 렘께가 너를 체포하려고 하고있으며 나의 말이 떨어질것을 조용히 기다리고있다는걸 알아야 한다.》

《감히 그렇게 나온다면 나는 그자와 그자가 데리고온자들을 권총으로 쏴버리겠습니다! 난 사격술이 괜찮습니다. 하여튼 헨리흐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겠습니다.》

《무어—엇이라구? 정권에 대해서 반항하겠다구?》

《아버님도 아시는것처럼 이건 아무런 정권문제도 아닙니다! 무장한 사람들간의 견해가 같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일뿐입니다. …》

《너는 또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있는 문제에서 벗어나고있다. 너는 어째서 통역원과 류쯔의 도주를 도와주었으며 마찌니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눈을 감았는가 말이다?》 베르트골드의 목소리에는 전에없이 상서롭지 못한 기운이 울리였다.

《그 물으심에 대답하자면 아버님께서 몹시 반대하시는 철학을 다시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될수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좋습니까?》

《간단히 말해보라!》

《저나 아버님이나 모든 애국자들이 그러한것처럼 지금 오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래일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저주할 20세기에 두번이나 당하게 된 패전에 복수할 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에 친구를 가져야 합니다. 나나 아버님은 유럽에서 많은 범죄를 범했

습니다. 그런만큼 도이췰란드에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것을 세계가 믿을수 있도록 비록 얼마 안되는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일을 남겨야 할것입니다.… 만일 렘께가 그 세사람을 고문하거나 총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베를린에서 울리는 쏘련의 〈까쮸샤〉 포의 포성을 멈출수 있단 말입니까? 혹은 동부전선을 볼가강변까지 밀고나갈수 있단 말입니까?》

헨리흐는 이야기가 너무 지나친것을 감촉하였으나 이미 중도에 그만둘수는 없었다.

베르트골드는 자기의 미래의 사위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헨리흐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은 그의 가슴속에 미친듯 한 증오가 끓어번지게 하였다. 그가 보기엔 헨리흐는 철없는 머저리며 무례한 어린애였다. 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했다간 모든 계획을 파탄시킬수 있는 머저리였다. 만일 스위스은행에 예금한 2백만마르크가 아니라면 그는 당장에 이 코흘리개에게 본때를 보였을것이다! 그러나 돈은 폰 골드링의 명의로 예금되여있었다. 때문에 그의 이마에 총알을 먹일대신 그를 구원할것을 생각해야 하는것이였다. 그 2백만마르크가 없다면 베르트골드는 도이췰란드은행에 있는 자기 예금을 꺼내오지 못한 지금에 있어서 특히 만사가 다 튀는것이였다.

《언제 도망치자고 했는가?》 베르트골드는 헨리흐가 한 말을 다 듣지도 않은듯 침울하게 물었다.

《오늘 밤입니다!》

《어디로?》

《아버님과 약속한대로 스위스로, 로르헨에게로 가지요.》

《행표대장은 네가 가지고있는가?》

《보관해주도록 스위스은행에 보냈습니다. 여기 인수증이 있습니다.》

《그걸 혹시 다른 사람이 리용하지나 않는지 겁나지 않는가?》

《아닙니다! 또 암호가 있습니다. 그뿐아니라 은행에 열손가락의 지문이 보관되여있습니다. 수표에 대해서는 문제도 삼지 않습니다. 수표는 위조할수 있으니까요.…》

헨리흐는 이 말이 베르트골드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 알아내려고 그를 주의깊게 바라보았다.

《래일 새벽에 나와 함께 스위스로 떠나자!》

《함께요? 둘이서?》 헨리흐의 얼굴에 한순간 어찌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스쳐지났던지 베르트골드는 다소 시름이 놓이는것 같았다.

《길은 위험할수 있다. 래일 리구리전선의 항복이 예견되고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너하고 나하고 유언을 교환해두는것이 필요할것 같다. 너는 스위스은행에 있는 너의 구좌를 리용할수 있는 전권을 나에게 주고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너에게 넘겨준다는 위임장을 교환하면 될것이다. 만일 불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직접 너의 모든 자본을 너의 약혼녀인 로르헨에게 전하겠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너도 그렇게 행동하면 될것이다.》

《왜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하십니까? 이틀만 지나면 안전한 산간호수가에 가있겠는데요. 낚시대를 잡고 앉아서 준엄한, 그러나 랑만적인 사건들로 차있던 나날에 대해서 회상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임장을 교환하는데 대해서는 반대가 없단 말이지?》 실무적인 베르트골드는 자기의 미래의 사위의 감흥적인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물었다.

《그거야 물어보실 필요도 없지요! 아버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아버님의 뜻이자 곧 저에게는 법이니까요!》

《좋다, 그것만이라도 내 기대에 보답하겠다니 마음이 놓인다.》 베르트골드는 한숨을 쉬고나서 말했다.

《아버님! 저는 여간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내가 동정이 가는 두사람을 도와준것이 그렇게까지 아버님께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일로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나요?》

《나는 네가 의심스러운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것이 걱정되여 그런다. 그것은 너의 애국적감정이…》

《아버님,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거예요!》하며 헨리흐는 열렬히 반대하였다. 《제가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거나 아버님께서 제 말을 주의깊게 들어주시지 않은 관계일것입니다. 저는 몇분전에 제가 한 말을 다시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 저는 직선적으로만 사업하면 때로 파국적결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대에는 융통성있는 정치가로 되여야지 단순한 군인이 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도 래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복수에 대해서 잊

고있는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최고의 애국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 조국의 애국자로 살아온것처럼 마지막숨결을 거둘 때까지 애국자로 살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종말이 몇날밖에 아니, 몇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각에도 저는 만일 자기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희생이 요구된다면 서슴없이 한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머나먼 벨라루씨에서 어두운 가을밤에 처음으로 아버님 사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갔을 때도 이 말을 하였습니다. 전쟁의 종말을 앞둔 오늘 이곳, 이딸리아에서 저는 다시한번 이 말을 아버님앞에서 하는바입니다.》

베르트골드는 헨리흐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그 마지막말을 하는가를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어느정도 소장을 안심시켰다.

《내가 무엇때문에 여기 온줄 모르지?》 상당히 긴 사이를 둔 후 그는 이렇게 묻고나서 헨리흐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네가 포로되지 않도록 도와주며 전패국군대의 장교가 당하게 될 좋지 않은 일을 다 피할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만 여기로 온것이 아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로 온것은 비행하는 포탄의 무전조종기구를 만드는 공장도, 그 기구를 만드는 비밀도 우리 원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공장에 대해서 알고있겠지?》

《레로가 무슨 그 비슷한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죽은 레로 말이냐!》

《뭐라구요?!》

《그의 집에 전화를 걸어보아라. 꾸비쓰가 아마…》

헨리흐는 전화기 있는데로 달려갔다. 레로의 집에서는 오래동안 응답이 없었다. 마침내 꾸비쓰의 목소리가 들렸다. 헨리흐는 자기 이름을 대고 물었다.

《무슨 새 소식이 없나, 꾸비쓰?》

이야기는 2분도 걸리지 않았다. 헨리흐는 천천히 수화기를 놓았다.

《방금 심장마비로 사망한 레로에 대한 기념으로 고인이 생전에 수집한 어류학에 관한 서적을 날보고 가져가라고 말하는군요. 나는 사실 그분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비밀을 밝혀낼수 있는 사람은 이미 없으니까 이제는 공장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만 남았군. …》

《그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밤이 지나면 공장도 사람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것이다.》 하고 베르트골드는 거리낌없이 랭혹하게 말했다. 《바로 오늘 밤에 처리해야 한다. 래일이면 늦을것이다.… 래일 리구리전선이 항복할것이다. 자네의 부대가 발전소와 언제를 경비하고있지?》

《흑샤쯔단원 두개 소대가 경비하고있습니다.》

《오늘 통행금지시간이 되거든 언제의 경비를 교체하라. 밤에는 도이췰란드부대만 남겨두라. 순수한 도이췰란드사람들만, 알겠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 지금 려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을 하고 좀 쉬겠네. 14시에 렘께, 슈쩬겔 그리고 꾸비쓰를 이리 오라고 부르고.… 목욕물을 준비하라고 하게!》

《커피를 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좋은 꼬냐크가 있으면 그거나 한잔 주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로 라모니의 지하실에는 새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마실만 한게 있습니다.》

《참, 그 라모니가 건강이 어떤지? 나는 그와 오랜 친구간이지.》

《그 어른은 이딸리아군대 병사들로 지원병부대를 꾸릴 때 우리에게 많은 방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빨찌산들에게 인질로 잡혀갔다 놓여나온 후부터는 마비상태에 있지요. 벌써 몇달째 라모니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며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안됐군! 그와 만나 이야기나 하자구 했는데. 그러나 이번 전쟁기간에 너무나 시체를 많이 보아 그런지 라모니의 산송장을 볼 마음이 조금도 없구만.》

헨리흐는 꾸르트가 생활하는 방으로 나갔다. 꾸르트는 흥분해서 창백해진 얼굴로 창문앞에 서있었다.

《무슨 일이요?》 헨리흐는 그에게 가까이 가며 물었다.

《보십시오.》 꾸르트는 성의 출입문쪽을 가리켰다.

세명의 건장한 에쓰에쓰대원이 대문옆에 서있었다.

《이쪽에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습니다.》 꾸르트는 에쓰에쓰자동총수들이 성을 포위하느라고 자주 모여드는것을 가리키며 이 창문에서 저 창문으로 달리는것이였다.

《무얼 그렇게 놀라오! 그 사람들이야 베르트골드를 호위하러 온것인데…》하며 헨리흐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아무도 성밖으로 내보내지 않는걸요!》

《자네가 나갈 필요가 있다면 나갈수 있게 해주지. 그런데 지금 인차 소장님의 목욕준비를 해주오. 그 일이 끝나면 내 방으로 와주오. 자네한테 할말이 있어 그러오.》

헨리흐가 자기 방으로 돌아오니 소장외에 마리야—루이자가 거기 와있었다. 마리야—루이자는 산보갈 때 늘쌍 입군 하는 승마복을 입고 창문곁에 서있었다.

《남작! 제발 설명해주어요. 어째서 성의 주인인 나도 자기 성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지?》 마리야—루이자의 목소리에는 안타깝고 노여운 기분이 어려있었다.

헨리흐는 베르트골드쪽으로 의문어린 눈길을 돌렸다.

《내가 아무도 성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명령하였다.》하고 소장이 말했다.

《대체 무슨 권리로요?》 마리야—루이자는 계속 헨리흐에게 화를 냈다.

《용서하십시오!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장인인 베르트골드소장입니다. 라모니백작의 조카따님인 마리야—루이자입니다.》

베르트골드는 일어서서 약간 머리를 숙여 마리야—루이자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럼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나요, 어째서 저를 내보내지 않아요?》

《한가지 조건부로 나가시는것을 허락할수 있습니다. 나가신다면 2시까지 즉 군대식으로 말한다면 14시전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만일 그보다 늦으면요? 들여놓지 않겠나요?》

《반복해 말하겠습니다. 성에서 나가는것은 허락해드릴수 있는데 14시전으로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마리야—루이자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였다가 노여워서 그다음엔 창백해졌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로 라모니의 조카딸이 상당히 건방진데! 그의 성격이 짐작되는군.》 베르트골드는 옷을 벗으며 빙긋이 웃었다.

《저 녀자는 슈쩬겔남작의 약혼녀입니다.》

《슈쩬겔?》 소장은 어째 그런지 놀라서 반문하는것이였다.

한순간 그는 생각에 잠기였다.

《공연한 소리! 다른걸 얻으라지! 이 집에 목욕실이 어디냐?》

헨리흐는 슈쩬겔이 왜 다른 녀자를 얻어야 하는지 감히 물어보지 못하였다.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베르트골드가 별나게 생각할가 하여서였다. 그는 그에 대한 베르트골드의 태도가 변화된것을 잘 알수 있었다. 그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예고하는것은 아니였다. 래일 그들은 여기서 함께 떠날것이다. 그러나 유언을 교환하자는 소장의 제의가 헨리흐의 마음엔 들지 않았다. 도중에 불행이 있을 경우에 헨리흐 폰 골드링의 소유이던 2백만마르크를 베르트골드자신의 소유로 담보하자는것인데 그런 불행한 일이란 빨찌산에 의해서만 일어날수 있는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스위스은행에 내놓을 위임장이 들어있는 이상 베르트골드자신이 조작해낼수도 있는것이였다. 그런데 그는 언제를 어쩌자는것인가? 어찌하여 성안의 사람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가? 마지막날 밤에 무슨 사변이라도 일으키자는것이나 아닐가? 이러나저러나 늙은 레로는 불쌍하게 되였다. 꾸비쓰는 심장마비라고 가장하고있다. 꾸비쓰는 그를 죽이나마나 하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 도면의 복사가 꾸비쓰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

《공병들이 산주위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꾸르트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속삭이였다.

헨리흐는 정원쪽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쪽이 아니고 공원쪽입니다!》

정말 공병부대 병사들이 공원에서 바위에 구멍을 뚫고있었다.

헨리흐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였다. 그는 이제야 베르트골드가 성밖으로 아무도 내보내지 않는 리유를 깨달았다.

《꾸르트!》하고 헨리흐는 련락병을 가까이 불렀다. 《지금 리지야가 어디 있나?》

《모릅니다!》

《사실대로 말하오! 나는 당신이 그와 련계를 가지고있고 그를 도와주고있다는것을 다 알고있소. 이딸리아병사들을 출발시키는것을 나에게서 알아가지고 그 녀자에게 전한것은 당신이며 리지야는 그것을 빨찌산

에 전달하였소. 렘께가 위협하는 말을 듣고 그걸 다 리지야에게 알린것도 당신이요. 나는 이걸 다 알고있소. 꾸르트… 나는 그런 일을 한 당신을 자랑으로 생각하고있소.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소. 리지야와 련계를 가질수 있겠지?》

《할수 있습니다!》 꾸르트는 결연히 대답하고 차렷자세를 하였다.

《오늘 밤에 아마도 언제와 발전소가 폭파될수 있다는것을 리지야에게 전달해야 하겠소. …》

《아이쿠! 그럼 거리는요?》

《그이상 더 말할수 없소. 나자신도 아직 모르오! 그리고 야간통행금지시간후에 인차 내가 언제에 가서 경비를 교체하게 된다는것도 함께 전달하오. 꾸르트, 그렇게 할수 있겠소?》

《할수 있습니다!》

《언제?》

《당장에요, 아직 에쓰에쓰대원들이 모르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럼 서둘러주오! 저녁때 내가 무슨 일로 성을 나갈 때 자네를 붙잡아둘수 있다는걸 잊지 마오, 알겠지?》

《알았습니다!》

《그럼 가보오. … 아니, 잠간만!》

헨리흐는 금시계를 풀었다.

《꾸르트, 이걸 기념으로 받소. 혹시 당신과 직접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수 있으니까.》

꾸르트의 눈에는 눈물이 어리였다.

《감사합니다!》

헨리흐는 꾸르트를 포옹했다. 그들은 굳게 입맞추었다.

《행동하오!》

꾸르트가 나가고 문이 닫기자 헨리흐는 마음속이 허전하였다.

(이젠 나 홀로 남았구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라군 한사람도 없구나!)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헨리흐는 베르트골드가 지시하던 말이 생각나서 렘께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장님께서 정각 14시까지 도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헨리흐는 일부러 렘께의 성도 군사칭호도 부르지 않고 무뚝뚝하게 알렸다.

《알았습니다. 그래 기분은 어떻습니까? 남작!》 에쓰에쓰근무장교가 물었다.
《당신의 기대엔 어긋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 나쁘지 않소!》
슈쩬겔에게는 15분이나 걸려서 전화를 걸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오래동안 싱갱이를 한 후에야 슈쩬겔의 사무실이 나왔다.
《누굴 찾소?》하고 서투른 도이췰란드말로 묻는것이였다.
《슈쩬겔소좌를 즉시 불러주시오!》하고 헨리흐가 명령하였다.
그 대답으로 우크라이나억양으로 말하는 욕설이 들렸다.
헨리흐에게는 그 말이 음악처럼 들렸다.
《누굽니까? 누굽니까?》하고 송화기에 대고 소리쳤으나 전화는 잠잠하였다. 신호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총소리가 울렸다.
《헨리흐, 헨리흐! 어디서 어째 총을 쏘는지 알아보오!》 베르트골드가 목욕실에서 머리를 내밀고 말하는것이였다.
헨리흐는 복도로 나갔다. 그때 마침 달려오는 슈쩬겔과 마주쳤다. 소좌는 팔에 대강 붕대를 감고있었는데 피가 스며나오고있었다.
《소장이 어디 있소?》 슈쩬겔은 발작적인 목소리로 소리치며 방으로 달려들어왔다.
《무슨 일이 있었소?》 베르트골드는 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문지르며 옷도 채 입지 못하고 나왔다.
《공장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내부경비원들이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외부경비대의 일부와 전투가 붙었습니다!》 슈쩬겔은 거의 웨치다싶이 말했다.
《진정하오! 소좌, 진정하오!》 베르트골드는 그를 진정시키고 헨리흐를 돌아보며 물었다. 《얼마만 한 력량을 가지고있소?》
《렵기병 한개 중대, 락하산병 두개 소대, 흑샤쯔단 한개 소댑니다.》
《즉시 외부경비대를 지원하시오!》
소장은 전화로 렘께를 찾았다.
《당신한텐 병사 몇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공장외부경비를 지원하는데 보내오, 빨리!》
이런 지시를 주고나서 베르트골드는 침착하게 슈쩬겔쪽으로 돌아섰다.
《공장을 포위하시오. 내 이름으로 작전을 지휘할것을 꾸비쓰에게 명

령하시오! 명령하고 당신은 이리 돌아오시오.》
그는 한편 옷을 입으면서 슈쩬겔에게 간단히 명령하고 말을 이었다. 《그래, 경비대장인 당신은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당신네 병사들을 무장해제까지 하게 한단 말이요!》
슈쩬겔은 아픔으로 해서 말이 없이 이마살을 찌프리고있었다. 헨리흐가 부상당한 그의 팔에 붕대를 감는것이 매우 서툴렀다.
《명령을 수행할만 합니까?》 붕대를 다 감았을 때 슈쩬겔이 물었다.
《빨리하오! 이리로 곧 돌아오오!》
헨리흐는 위수사령부로 전화를 걸어 필요한 지시를 주었다.
《아! 사람이 없거던! 믿음직한 사람이 없어! 우리가 어째서 또다시 전쟁에서 패했는가를 이제야 알겠군!》 베르트골드는 침통하게 한숨을 쉬며 불평을 했다.
외관상으로 볼 때 베르트골드는 침착한것 같았으나 헨리흐는 이러한 곤난하고 위급한 순간에 그렇게 침착한 태도를 취한다는것이 얼마나 힘든것인가를 알았다. 소장에게 그런 힘이 얼마나 지속되겠는지 흥미있는 일이였다.
《꼬냐크를 한잔 주게!》
헨리흐는 술병을 상우에 가져다놓았다.
《자넨 마시지 않겠나?》
《래일 스위스에 가서 마시지요. 전 전쟁기간에 못 마신 봉창으로 거기 가서 마음껏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한잔이나 마셔서 무얼하겠습니까!》
《그렇다, 래일 우리는 자기의 구원을 축하하자.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나는 몇번이나 죽음을 목격했단 말이다.》
《빨찌산들이 습격했나요?》
《아니다! 내가 몇개의 포로수용소를 없애치웠다. 지나간 사변들에 대한 불필요한 증인들을 숙청해버려야 했으니까!》
목욕후이라 굵은 땀방울이 뒤덮인 베르트골드의 널직한 얼굴이 헨리흐에게는 그 어느때보다도 증오스럽게 보였다.
최근 며칠동안에만도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였는가! 불필요한 증인이라구?! 그는 그들을 숙청해버리는것을 마치 보통사무나 보듯이 말하고있다. 헨리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러한자가 아늑한 구석으로 피해 달아나 후에 또다시 세상으로 기여나와 많은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기 위하여 그 구석에서 얼마동안 견디여낸다는것이 어찌 있을수 있는 일이겠는가!

전화종이 울렸다.

슈쩬겔은 현존력량으로 공장을 포위하였다는것을 보고하였다. 공장의 견고한 벽에 의거하고있는 봉기자들과 군대들사이에 총질이 계속되고있었다.

《즉시 이리 오라고 명령하시오!》 헨리흐가 소장에게 슈쩬겔의 보고내용을 전달하자 소장은 입을 열었다.

슈쩬겔은 렘께와 함께 도착하였다.

《거기 형편이 어떻소?》 베르트골드는 누구에게라 없이 이렇게 물었다.

《공격을 하기엔 그들에게 무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봉기자들은 유리한 진지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들이 몇대의 중기관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우리는 공장을 공격할수 없습니다.》

《그만하면 됐소.》하며 소장은 상을 찌프리며 말했다. 《공격은 무슨 공격이요? 몇시간후이면 그들을 몽땅 쥐새끼처럼 물속에 처넣어버리겠는데 공격할것도 없소!》

베르트골드는 외투주머니에서 몇겹으로 접은 카스텔리 라 폰테구역의 큰 지도를 꺼내 상우에 펼쳐놓았다.

헨리흐, 렘께, 슈쩬겔은 지도를 들여다보며 무슨 표식을 하였는가를 주의깊게 살폈다.

베르트골드는 한손에 술잔을 든채 마치 이미 궁리했던 계획을 다시한번 검열해보기나 하는듯 몇초동안 역시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다음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바로 여기 카스텔리 라 폰테에서 3키로메터되는 곳에 23메터높이의 언제가 있소. 언제뒤에는 큰 인공호수가 있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언제만 폭발시키면 한시간반동안에 전체 골짜기를 충분히 침수시킬수 있다고 하오. 초보적계산에 의하면 5메터까지 수위가 높아질수 있소. 그거면 충분히 공장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물에 잠기게 할수 있소.》 소장은 잠시 사이를 두고 술을 한잔 더 따라서 한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이 골짜기에서 강줄기로 빠져나

가는 시간을 될수록 오래 끌어야 하오. 보는바와 같이 성이 있는 부근이 가장 좁은 곳이요. 만일 성이 서있는 암반을 폭파시킨다면 그것이 강줄기를 뒤덮을수 있소. 물론 물의 압력을 전혀 없앨수는 없지만 물의 흐름을 현저히 지연시킬수 있소. 우리는 물의 높은 수위가 골짜기에서 몇시간은 유지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오.》

소장은 말을 끊었다.

헨리흐는 슈쩬겔을 바라보았다. 슈쩬겔은 혀끝으로 바짝 마른 입술을 추기면서 소장이 손에 든 연필로 지도를 가리키는것을 멍하니 보고있었다.

《언제밑에 폭약을 얼마나 묻었소?》 소장은 렘께에게 물었다.

《폭약이 16톤, 이미 차굴에 들어가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도 않는구나!)하고 헨리흐는 생각했다.

《폭발준비는 다 되여있소?》

《당신의 명령대로 위수부사령관이 직접 맡아보고있습니다.》

꾸비쓰에게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이야기가 끊어졌다. 현저하게 화력을 증강한 봉기자들이 공격할가 겁이 난 꾸비쓰가 지원을 요구하는 전화였다.

《언제에서 흑샤쯔단 한개 소대를 떼여 그 겁쟁이에게 보내오!》하고 소장이 명령하였다.

헨리흐는 명령을 전달하였다.

《언제폭발은 20시 30분이요. 그 10분전에 암석과 성을 폭파해서 물길을 막아야 하오. 렘께, 당신이 그걸 책임지시오! 폭발전까지 언제경비는 헨리흐, 자네가 맡게! 그리고 슈쩬겔, 당신은 꾸비쓰에게서 공장을 포위하고있는 구분대들의 지휘를 인계받소. 당신의 임무는 비록 한사람이라도 공장에서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는거요. 물우에 떠오른자는 총으로 쏘아야 하오. 조명탄을 충분히 준비했다가 밤에 최대한으로 잘 보이게 해야 하오. 다 알았소?… 물어볼게 있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베르트골드의 계획에 아연실색하여 말 한마디 없었다.

《공장에서 몇명이나 일하고있는가?》 소장이 슈쩬겔에게 물었다.

《2 380명의 포로와 142명의 사무원 즉 기사들과 감시원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원들은 어디 있소?》

《거진 다 공장안에 있습니다.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을 기성품창고에 감금했습니다. … 그들은 어떻게 할가요?》

《어둠속에서 적아를 어떻게 식별하겠소. 모조리 쏘아버리시오!》

베르트골드는 술을 다시 한잔 부었다.

《다 알았으면 가서 준비하시오!》

《소장님, 한마디 말씀드릴만 합니까?》 슈쩬겔이 감기든 사람처럼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의견이라도 있는가?》

《이 성은 라모니백작의 조카딸—즉 저의 약혼녀의 소유인데…》

《알고있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중요한 작전을 파탄시킬수는 없소.》

《성안에는 고귀한 수집품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참금입니다. … 그래서…》

《더 큰일을 하자니 다소의 희생은 각오해야지, 소좌! 지금 약혼녀에 대해서 생각할 경황이 됐소? 나의 모범을 따르시오! 이 성안에는 나의 친구인 라모니백작이 있소. 그러나 나는 그에게 예고조차 하지 않았소. … 가보시오!》

슈쩬겔은 문쪽으로 정신잃은 사람처럼 걸어갔다. 그가 전쟁기간 한시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부자가 될 꿈이 바로 실현을 눈앞에 둔 그 시각에 연기처럼 가뭇없이 흩어져버리고만것이였다.

《헨리흐, 이젠 좀 쉬자. 오늘 밤엔 잠잘 시간이 없을것이다.》 베르트골드는 기분좋게 기지개를 켜면서 말했다.

《우린 언제 떠나갑니까?》 헨리흐가 물었다.

《폭발후에 인차! 인차 떠나자! 뒤일은 렘께와 슈쩬겔이 처리하라지! 우리 일은 그것이면 다니까. 몇시간이면 우리는 스위스국경까지 다달을수 있을것이다. 내 차는 속도를 낼수 있으니까. … 거기 가기만 하면 휴식, 평온한 생활이 기다릴것이다! 하여튼 우리가 무사한게 다행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한잔 들자구!》

헨리흐는 술을 부었다. 그의 손이 떨리는것이 알렸다. 그것이 베르트골드의 눈을 벗어날수 없었다.

《너의 손은 떨리고있지 않는가!》

《만일 전쟁을 한두해 더 끈다면 나는 지금까지와 같이 침착했을것입니다. 그러나 몇시간밖에 남지 않은 지금…》

베르트골드는 껄껄 웃었다.

《나의 심정도 바로 그와 같다는것을 인정할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나는 그것을 더 잘 이겨낼수 있을뿐이지…》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더니 마리야—루이자가 방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소장님! 부탁입니다! 빕니다! 제발 그것만 참아주십시오! 그게 저의 재산의 전부입니다!》

마리야—루이자는 베르트골드앞에 미친듯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문턱에는 마치 물에 빠진듯이 후줄근한 슈쩬겔이 나타났다.

《이게 대체 웬일이요? 무슨 일인가 말이요?》 베르트골드는 화가 나서 성급히 웨쳤다.

헨리흐는 마리야—루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안락의자에 앉히였다. 마리야—루이자는 계속 비는것이였다.

《소장님께 비나이다! 제발 성을 파괴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신이 말했소?》 베르트골드는 슈쩬겔에게 조용히 물었다.

슈쩬겔은 대답을 못했다.

마리야—루이자는 울음을 터치였다. 헨리흐는 물병을 가지러 달려갔다. 바로 그때 그의 등뒤에서 두방의 총성이 울렸다.

마리야—루이자는 두팔을 벌리고 안락의자에 쓰러졌고 슈쩬겔은 맥없이 털썩 넘어졌다.

두명의 에쓰에쓰대원이 방으로 달려들어왔다.

《그걸 치워버려!》 소장은 기분나쁜듯 이마살을 찌프리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헨리흐에게 태연하게 말했다. 《옆방으로 가자!》

소장은 앞서 나가면서 마시다 남은 꼬냐크병을 가지고 가는것조차 잊지 않았다.

《어째 이딸리아에 오더니 모두 이렇게 맥살이 없어졌는가! 너도 그렇게 되진 않았겠지? 헨리흐!》

《아닙니다! 저는 두사람을 담당할만큼 든든합니다!》

그때에야 헨리흐는 베르트골드가 부은 술을 마시였다. 이번에는 그의 손이 떨리지 않았다.

《계획을 변경해야 하겠소. 렘께에게 전화로 알리오. 언제폭발후

슈쩬겔이 해야 할 임무를 그에게 준다고 말이요. 성은 내가 책임지겠소. 작전이 수행된 후에 내가 즉시 언제로 가겠으니 거기서 만나자구.》

저녁 7시에 헨리흐는 언제로 떠났다. 베르트골드의 명령대로 그는 언제경비에 대한 지휘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였다.

《혼자 가겠는가?》 베르트골드가 심상하게 물었다.

《네, 련락병은 길떠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내 호위병중에서 자동총수 한명을 데리고 가라구!》

《그건 왜요? 길은 아주 안전합니다.》

베르트골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서 나갔다. 그러나 잠시후에 힘꼴이나 쓰게 생긴 에쓰에쓰대원 한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구!》 소장은 명령조로 말했다.

에쓰에쓰대원은 침울한 눈길로 골드링을 바라보았다. 헨리흐는 문득 본빌에서 렘께의 방에 있던 군견이 자기를 바라볼 때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몇분 지난후 헨리흐가 차를 타고 언제로 떠났을 때 에쓰에쓰대원은 그의 옆에 앉아있었다.

헨리흐는 불안한 생각에 잠겨있었다.

꾸르트가 리지야에게 알릴수 있었을가? 리지야는 빨찌산에게 전달할수 있었을가? 가리발지대원들이 제때에 대책을 취할수 있었을가? 결국 그는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오늘 죽어야 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단 말인가?

헨리흐는 속도를 늦추었다. 그는 언제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생각을 가다듬고싶었다.

시내를 벗어나 약 2키로메터쯤 왔을 때 그는 자동총을 손에 든 도이췰란드병사가 홀로 걸어오고있는것을 보았다. 그 병사는 언제에서 카스텔리 라 폰테로 오고있었다.

헨리흐는 차의 속도를 더 늦추었다.

《좀 빨리 갑시다!》 에쓰에쓰대원이 명령조로 한마디 던졌다.

헨리흐는 갑자기 제동을 걸어 자동차를 세웠다.

《그게 장교에게 하는 말본샌가? 넌 내가 베르트골드의 사위라는걸 알고 그러는가?》

헨리흐는 오른팔을 힘껏 휘둘러 에쓰에쓰대원의 상판대기를 후려갈겼

다. 그자는 주먹찜질에 맞은 웃입술을 손으로 가리웠다. 그리고 장교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잔말 말아! 개새끼처럼 쏘아버릴테다!》

《대위님! 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하고 말하며 자동차로 다가오는 병사를 보자 헨리흐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칠번 하였다.

얼굴에 가로간 상처자리! 멘따로치!

헨리흐는 자동차에서 내렸다. 에쓰에쓰대원도 반대쪽 문을 열고 역시 내리려 하였으나 멘따로치가 그에게 마주 걸어갔다.

에쓰에쓰대원은 끙!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자동차좌석에 쓰러졌다.

《용서하십시오, 거치장스러워서!》

《내 련락병의 예고를 받았습니까?》

《난 당신과 담화할 기회를 찾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보았을때 매우 기뻤습니다. 난 당신 차를 잘 아니까요!》하고 멘따로치는 능청스럽게 웃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몇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다음 멘따로치는 자동차로 다가가서 상상도 못할 힘으로 에쓰에쓰대원의 다리를 잡아 끌어냈다.

《걱정 마시우! 마음놓고 가십시오! 1분후에 길에서 이자의 흔적도 없어질테니…》

19시 30분에 자동차는 언제앞에 와서 멎었다. 폭발까지 한시간이 남았다. 지휘관의 보고를 듣고나서 헨리흐는 지나는 말처럼 물었다.

《내 부책임자는 여기 있소?》

《한시간전에 갔습니다!》

《알겠소! 두개 소대 다 언제앞광장에 정렬시키시오!》

흑샤쯔단지휘관은 놀란 눈으로 헨리흐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귀가 먹었소? 두개 소대를 다 정렬시키란 말이요!》

지휘관은 경례를 붙이고 명령을 수행하러 달려갔다.

헨리흐는 병실옆에 있는 걸상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멘따로치네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골드링은 시계를 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것인가! 한시간후이면 정말로 모든것이 끝장이란 말인가?

《대위님, 소대들은 당신의 명령대로 정렬하였습니다!》

헨리흐는 몇걸음 걸어나가 병사들의 대렬앞으로 가까이 갔다. 그들은 초소를 리탈하고 정렬하라는 심상치 않은 구령에 어리둥절해서 서 있었다.

《병사들!》 이따금 공장쪽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밖에 없는 정적속에서 헨리흐의 목소리가 쟁쟁히 울렸다. 《내 구령을 듣소! 2보 앞으로 갓!》

대렬은 두걸음 나와서 멎어섰다.

《무기를 내려놓앗! 전체! 장교도 내려놓소. 좋소! 2보 뒤로 갓!》

놀랜 병사들은 그 명령도 수행하였다.

《병사여러분! 당신들은 조국과 우리 총통을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였습니다. 지휘부의 명의로 당신들께 감사를 줍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 군대는 항복했습니다. 당신들은 자유로 행동하시오!》

헨리흐는 마지막말을 감격에 넘쳐 말했다. 그는 멘따로치의 대원들이 언제로 달려가는것을 보았다.

《상부에서는 언제의 경비를 봉기한 이딸리아인민의 손에 넘길것을 우리에게 위임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전원의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병영으로 갔다가 래일은 집으로 가시오.》

한방의 총성이 울렸다.

흑샤쯔단 소대장이 자기 관자노리에 총을 쏘고 대렬앞에 넘어졌다.

《이제는 내 말을 듣소! 병영을 향하여 앞으로 갓! 만일 총알로 이마를 뚫고싶은 사람이 있거든 참아도 좋겠소!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으니까!》 멘따로치는 언제나 그렇듯 유쾌하게 웨쳤다.

《우로 돌앗! 앞으로 갓!》

흑샤쯔단원들은 빨찌산을 따라 순순히 병영으로 향하였다.

《소장에겐 호위병이 많이 따라옵니까?》 멘따로치는 헨리흐가 권하는 권연을 조용히 피우면서 물었다.

《아니요. 공병들은 빠르모로 갔습니다. 에쓰에쓰대원이 몇명 남았을뿐입니다. 댓명 되거나 약간 더 많을가 할겝니다.》

《그건 문제도 안되는군!》

《그러나 모든걸 다 약속대로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훌륭한 극장에서 하듯이 해봅시다!》

멘따로치는 경례를 붙이고 달려갔다.

헨리흐는 다시 걸상에 앉았다. 그는 멘따로치가 사람들을 언제에 배치하며 병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것을 보고있었다. 그 대부분은 흑샤쯔단복장을 하고있었다. 멘따로치는 그들을 내부초소에 세우고 나머지는 참호와 병영으로 보냈다.

《이젠 다 된것 같습니다. 이젠 귀한 손님을 기다립시다. 몇분이나 남았습니까?》

《27분!》 헨리흐는 시계를 보고 대답하였다.

그의 말은 요란한 폭발소리에 합쳐져버리였다. 골짜기 반대쪽 한끝의 험한 바위우에 솟아있던 성은 마치 밑둥이 잘리운듯 서서히 주저앉기 시작하였다.

《소장이 급히 올것입니다!》 헨리흐가 걱정되는듯 말했다.

《비록 우리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성이 아깝군! 아까워!》 멘따로치는 진정으로 유감스럽게 말했다.

그때 요란한 경적소리가 들려왔다.

《오는군!》 멘따로치는 환성을 올리고 큰소리로 즐겁게 소리쳤다. 《준비!》

모두 숨을 죽이고있었다. 헨리흐가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언제로 오는 길로 두대의 승용차가 달리고있었다.

《소장은 둘째 차에 타고 옵니다!》 헨리흐가 말했다. 《그가 있는데서는 당신이 병사라는것을 잊지 마시오!》

《알았습니다!》 멘따로치는 벌쭉 웃으며 말했다.

승용차들은 언제에 다가와 멎었다.

《다 원만히 됐습니다!》 헨리흐는 보고의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말했다. 베르트골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앞차에서 에쓰에쓰대원 한사람이 나왔다. 운전사들은 차에 그냥 있었다.

《호위병은 이게 답니까? 소장님!》 헨리흐가 놀란듯이 물었다.

《한명은 명령을 전하라고 렘께에게 보냈다. 셋째 사람은 너하고 왔지.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차굴입구를 경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버님도 우리 사람을 보내라고 하셨지요. 나는 그 흑샤쯔단원이 그리 미덥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옳아. 마지막순간에 변절할수 있으니까!》 베르트골드는 자동차에서 나온 에쓰에쓰대원과 운전사를 돌아보고 지시를 주었다. 소장의 자동차운전사는 제자리에 남아있었다.

《좀 거닐지! 나는 20시 30분 정각에 골짜기에서 부대를 데려내오라고 렘께와 약속하였소. 아직 우리에겐 15분이 있다. 그시간만 지나면 언제에서는 굉장한 정경이 펼쳐질게요!》

베르트골드와 헨리흐는 천천히 언제로 걸어갔다. 몇걸음 더 나아가서 걸음을 멈추었다.

베르트골드는 란간에 기대서서 잠시후 침몰될 골짜기를 바라보았다.

《헨리흐, 나는 지금 네로가 생각나네. 게링그의 진렬실에서 나는 네로가 로마의 화재를 즐긴다는 그림을 본 일이 있네. 훌륭한 그림이야! 특히 네로의 얼굴이 잘 됐거던. 그 얼굴엔 환희가 넘쳐있고 쾌락을 느끼는것 같기도 했네.》

《소장님, 몇분후이면 당신의 명령에 의하여 침몰될 그 수천명의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다? 그게 무슨 어리석은 소린가!》

《그들 매 사람에게는 소장님이 그렇듯 부인도 자식들도 어머니도 있겠는데요.》

《그따위 이야길 걷어치우지 못할가! 내가 슈쩬겔을 어떻게 하는가 보았지? 한마디만 더 했다간…》

베르트골드는 오른손을 권총갑에 가져갔다. 그러나 그 순간에 멘따로치의 무쇠같은 손이 그의 손목을 틀어잡았다.

《무얼 그렇게 흥분하나요! 좀 조용조용 말하면 안되나요!》

베르트골드는 마치 땅속에서 솟아난듯 한 이 무례한 병사를 밀쳐버리려고 왼팔을 왈칵 들어올렸다. 그러나 두번째 팔마저 그에게 잡히였다.

《이게 무슨짓인가!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느냐!》 베르트골드는 몸을 빼면서 소리쳤다.

《어째 소리치는거요? 당신 호위병은 이미 저승에 갔소. 아마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고있을거요.》

《헨리흐, 이게 무슨짓인가? 말해보라!》

헨리흐는 베르트골드에게 바싹 다가가서 그의 귀에 대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말했다.

《아—아—아!》 승냥이의 울부짖는 소리같은 베르트골드의 웨침이 언제우에 울려퍼졌다. 여러해동안 속아왔다는것을 깨달은 베르트골드는 위험도 공포도 잊은듯 하였다. 그는 지금 진짜 성난 승냥이 같았다.

헨리흐는 돌아서서 천천히 언제로 걸었다. 베르트골드는 한순간 멍하니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자기의 죄많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려고 기대하던 2백만마르크를 잃었다는 생각이 마치 그를 마비상태에 빠뜨린듯 하였다. 그러자 문득 지금 문제는 이미 돈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험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아—아—아!》 베르트골드는 다시한번 미친듯이 울부짖고 초인간적힘으로 멘따로치의 손을 뿌리치고 빠져나갔다.

《주의하시오!》 멘따로치는 소리쳤다.

헨리흐는 돌아보았다.

승냥이같은 베르트골드가 곧바로 그에게로 달리면서 권총을 빼들었다. 헨리흐는 자기 권총을 들어올렸다. 그러나 그 순간에 총성이 울렸다.

베르트골드는 달려가던 타성으로 두세걸음 더 걷더니 언제장벽에 얼굴을 부딪치며 쓰러졌다. 가리발지대원의 총알이 그의 뒤통수를 맞힌것이였다.

《이젠 어디로 가시겠소?》 헨리흐가 이미 자동차에 앉았을 때 멘따로치가 물었다.

《집으로!》 헨리흐는 환한 웃음을 띠고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나 없이도 당신들이 렘께의 부대를 처단하고 공장에서 봉기한 사람들을 구해낼수 있단 말이지요?》

《당신이 산에 이르기 전에 그들은 우리와 함께 노래를 부를것입니다! 마음놓고 떠나시오!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멘따로치와 헨리흐는 서로 손을 굳게 잡았다. 자동차는 속도를 내면서 카스텔리 라 폰테와는 반대쪽으로 질주했다.

1945년 5월 2일 연회색양복을 입은 한 젊은이가 쎈—레미공원으로 들어갔다.

초막옆에서 손자에게 줄 장난감을 만들고있던 로인은 호기심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쎈—레미에 살고있는 사람은 얼굴만 보면 다 알았는데 이 젊은이는 처음보는 사람이기때문이였다. 늙은이는

이따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낯모를 사람을 보았다.
새 방문객이 또 나타나서 로인은 또다시 일을 중단하였다. 그 사람 역시 청년이였는데 그는 로인이 아마 잘 아는 사람인 모양이였다. 인사를 하고나서 즉시 그에게 알려주는것이였다.
《여기에 누가 와있소. 이 고장 사람이 아니요. 나도 처음보는분이요.》
청년은 낯모를 사람이 앉아있는쪽으로 급히 걸음을 재촉했다. 바람에 흐트러진 진한 갈색머리며 앞으로 약간 기울일사한 그의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다.
《용서하십시오, 어느분…》하고 청년은 말을 시작했다가 문득 입을 다물었다. 《아니, 이게 누굽니까?》
《안녕하시오?》하고 헨리흐는 모니까 오빠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그는 모니까의 오빠를 일생에 두번째로 보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눈은 모니까의 눈을 닮았으며 어찌나 친근감을 주는지 이름을 물을 필요도 없었다.
《어머님도 바로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 어머니는 자주 선생님을 생각하시군 했지요. …》
《그 이야긴 그만합시다, 쟌!》 헨리흐는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어리여있었다. 《그때 알고지낸 모든분들에게, 특히 프란수아에게 인사를 전해주시오.》
《감사합니다. 그도 역시 당신 말을 자주 합니다.》
《류드비나 제끄끄는 편안하시겠지요?》
쟌은 눈을 흐리였다.
《피살되였습니다.》 그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하고 얼굴을 돌렸다.
《안드레 레나르는 살아계신가요? 그분과 만났습니까?》
《얼마전까지만 해도 여기 계시였는데 지금은 빠리에 계십니다.》
《혹시 편지를 하실 때엔 꼭 나의 충심으로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내가 선생님을 만나뵈웠다는걸 알기만 하면 매우 기뻐할겝니다. 자기가 만나지 못한걸 몹시 아쉬워할겝니다. …》
거북한 침묵이 닥쳐왔다. 두사람 다 한사람의 이름이 입술에까지 올라있었으나 그들은 감히 그 이름을 부르기 겁내하였다.
《잘있소, 쟌!》 헨리흐는 긴장된 그 분위기를 더 참을수 없었다. 그

는 무슨 뜨거운것이 목에 걸린것만 같았다. 《항상 나의 생각은 이 한 쪼각 땅에 잇닿아있을거요.》

헨리흐는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급히 출구로 나갔다.

후 기

화창한 봄날이였다.

봄은 포도주처럼 사람을 취하게 하고 기쁨으로 흥분시키며 행복처럼 사람들을 정답게 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였다. 두 친구가 우연히 만나 서로 부둥켜안으며 어쩔줄 몰라할 때 지나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걸음을 멈춘다.

아,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길줄 알았다!

쏘베트군대 대위복장을 하고 모스크바거리로 걸어가는 젊은 군관은 그와 마주치는 다른 젊은 군관들과 다른점이 없었다. 그의 눈은 그렇게 행복에 빛났으며 그의 입가엔 역시 그렇게 미소가 어리여있었다. 아마도 너무나 흥분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마치 지나는 길손마다에서 아는 사람이 아닌가 알아내려고나 하는듯이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것이 다르다 할가!

대위는 한 건물옆에서 걸음을 멈추고 입구에 붙은 문패를 몇번인가 다시 읽었다. 대위는 그러지 않아도 잘 손질한 군복을 다시 매만지고나서 그 집으로 들어가 3층으로 올라갔다. 거기엔 의혁을 댄 낮익은 문이 있었다. 대위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분간해듣기 어려운 웨침을 듣고 군관은 망설였다. 그것은 들어오라는 말인지 기다리라는 말인지? 그러나 그는 더 참을수가 없어서 되는대로 문을 열었다.

넓은 방에 차있는 눈부신 해빛이 그의 눈에 정면으로 부딪쳐 대위는 책상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장에는 알수 없었다. 그는 자기가 바로 찾아왔다는것을 알았다기보다 짐작했다.

《보고할만 합니까? 대위 꼬마로브는 임무를 수행하고 당신의 명령대로 도착했습니다.》

찌또브대좌는 자리에서 일어나 규정에 제정된 인사법을 무시하고 군관과 세번 입맞추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 갈라졌던 아들을 만난 아버지와 같았다.

《어서 앉소, 폰 골드링남작!》

그는 차렷하고 서있는 대위를 살펴보며 웃었다. 《그러니까 돌아왔단 말이지… 좋아, 아주 건강하군! 장하오! 동무를 자랑하오!》

그들은 밝은 웃음을 띠우고 서로 마주앉았다.

《솔직히 말해서 자네때문에 무척 걱정했네. 행복한 종결을 맺지 못할가 해서! 자그마한 일로 실수하지나 않는가 했지… 그자가 기본적인건 자백했지만 세세한 세부에 대해서는 그자도 생각이 안나서 말할수 없었으니까 말일세. …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를 데려내왔으니까. …》

《그래 지금 나와 이름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지냅니까?》

《그는 어린 때에 자기 애비와 전혀 다른 환경에 있게 되였으니까…

골드링은 벽에 딱 붙어서서 모든것을 다 자백했네. 자네자신도 그와 담화해봤으니까 알겠군. … 옳은 증언을 했으니까 그의 죄과도 너그럽게 보아줄게요. 그러나 그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요! 중요한건 자네가 상하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그것이요!… 아버지한테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렸나?》

《아니요! 편지 쓰는것도 겁이 나더군요. 그러다 혹시… 정말 4년이 됐군요!》

《아버님도 건강하시오! 내가 알아보니 아버님은 그냥 거기 철도에서 전철수로 일하고계시더군.》

《허락해주신다면 오늘 아버님한테로 떠나려고 합니다.》

《허락하지 않구! 내 이름으로도 용서를 비는걸 잊지 말아주게.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해드리게. 그 량반이야 알만한분이니까 리해하실게요!… 그래, 자넨 앞으로 무엇을 할 작정이요? 그리고리 빠블로비치!》

《전 외국어대학을 끝맺지 못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대학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대학생활이란 말이지? 옳게 결심했소! 공부해야지!》

장편소설 **적후에서 홀로(2)**

저 자	유리 돌드－미하일리끄
역 자	강 필 주
편 집	리 혜 란
표 지	서 상 호
편 성	한 금 주
교 정	정 경 진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0(2011)년 4월 15일
발 행	주체100(2011)년 4월 20일

ㄱ－066770ㄴ 값 200원